

**안데스 자원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를 중심으로**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Ⅰ 서 언 Ⅱ

2000년대 들어 천연자원의 보고인 중남미지역이 개혁개방 정책의 성과에 힘입어 안정적인 성장을 구가하며 세계경제의 성장 센터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방 선진국은 물론 중국, 인도 등 브릭스 국가들의 중남미 진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중남미지역의 높은 발전 잠재력을 겨냥해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확대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남미지역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무역흑자 시장, 자원개발 시장, 건설·플랜트 시장으로 부상했습니다.

이처럼 중남미 시장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데스 자원부국이라 불리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3국에 대한 진출은 아직까지 미미한 상황입니다. 안데스 3국에서 좌파 정부가 등장한 이후 급진적인 자원국유화 정책이 실시되면서 정치경제 리스크가 높은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국, 스페인, 인도,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은 자원 및 시장 선점을 위해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경제협력 정책을 추진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경제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안데스 3국은 우리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먼저 경제협력 대상국으로서 안데스 3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자원부국이라는 점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로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중동에 편중된 석유수입선 다변화 차원에서 베네수엘라와의 석유개발 협력은 향후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더해질 전망입니다. 2차 전지의 핵심원료인 리튬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볼리비아의 전략적 가치도 매우 높습니다.

중남미 국가 중 양대 OPEC(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석유수출국 기구) 회원국인 에콰도르도 향후 석유자원 개발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둘째, 일차산품 부문에 힘입어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성장세가 빠르다는 점도 안데스 3국이 가진 장점입니다. 석유 등 원자재 가격이 현재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안데스 3국은 중남미 평균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안데스 3국은 개발협력 대상국으로서도 가치가 높습니다. 한국과 이 국가들의 분야별 발전 격차를 감안할 때,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협력의 여지가 큼니다. 특히 고무적인 사실은 이 국가들이 한국과의 개발협력에 적극적이라는 점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뒤늦게나마 안데스 3국의 경제적 중요성을 인식해 다각도로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진출 환경에 대한 이해 부족, 정부의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협력 전략 부재 등으로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커다란 발전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국가 중 상대적으로 높은 정치·경제적 리스크로 우리 기업의 진출이 크게 부진한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등 안데스 자원부국과의 실질적인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안데스 3국과의 자원개발 협력에 직접적인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 기업이 성공적으로 현지 자원개발 부문에 진출하기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포괄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권기수 부연구위원의 책임하에 김진오·박미숙 전문

연구원, 이시은 연구원이 공동 집필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지문
과 조언을 아끼지 않은 본원의 김상겸 부원장, 박영호 연구위원, 외교통상부
신성기 과장, 경희대학교 박재성 교수 그리고 익명의 심사자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또한 인터뷰 과정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주신 유관기관 및 업
체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정부 및 업계를 비롯해 안데스 3국 시장 진출에 관
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귀중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2년 12월

원장 채 욱

국문요약

본 연구는 커다란 자원개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국가 중 상대적으로 정치·경제적 리스크가 높아 우리 기업의 진출이 크게 부진한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 안데스 자원부국과의 실질적인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안데스 3국과의 자원개발 협력에 직접적인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 기업이 성공적으로 현지 자원개발 부문에 진출하기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포괄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였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3국의 높은 정치·경제적 리스크를 고려해 현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 발굴에도 주력하였다.

이 같은 연구 목적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크게 6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제1장인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내용 및 방법, 그리고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과 한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경제협력 대상국으로서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 안데스 3국이 갖는 중요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정치 및 경제 환경으로 나누어 경제협력 환경을 분석했다. 특히 본 장에서 안데스 3국의 경제적 중요성은 천연자원의 보고로서의 가치, 시장으로서의 가치, 개발협력 대상국으로서의 가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안데스 3국이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국가개발계획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와의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도출하였

다. 국별로 볼리비아는 정부프로그램(Programa de Gobierno 2010-2015)을, 에콰도르는 국가개발계획(PNDBV 2009-2013)을, 베네수엘라는 1차 사회주의계획(2007-2013)과 2차 사회주의계획(2013-2019)을 집중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볼리비아와는 천연가스, 철도 및 전략산업 육성 계획 수립 지원, 전력·석유화학플랜트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에콰도르와는 고등교육과 기술이전, IT기술, 교통인프라 등에서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베네수엘라와는 자원개발, 정유·가스·전력 플랜트, 공동기금 조성 등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4장에서는 중국, 스페인, 인도, 브라질, 캐나다, 미국 등 주요국의 구체적인 진출 사례를 발굴하여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개발협력 분야에서는 스페인의 국가개발계획 지원, 캐나다를 중심으로 한 다국적기금의 연구기관 지원(Think Tank Initiatives), 브라질의 경제발전 경험 공유 사례가 소개되었다. 둘째, 산업기술협력 분야에서는 중국의 통신위성 개발 협력, 중국의 정보통신분야 협력 등 중국의 사례가 집중 분석되었다. 셋째, 자원개발협력 분야에서는 인도 JSB의 볼리비아 광산 부문 진출 실패 사례, 미국 세브론의 베네수엘라에서 성공적인 사회적 공헌(CSR) 활동이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금융협력 분야에서는 브라질과 이탈리아의 베네수엘라 발전 부문 진출, 중국의 자원개발 및 발전 부문 진출, 한국의 정유플랜트 부문 진출 사례가 분석되었다.

제5장에서는 한국과 안데스 3국과의 경제협력 현황을 교역, 투자, 자원개발 및 건설플랜트, 개발협력, 제도협력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경제협력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여기서는 SWOT 분석에 기초해 안데스 3국의 경제협력 환경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안데스 3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이 제시되었다. 여기서 경제협력 확대 방안은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방안과 기업 차원의 진출 확대 방안으로 나누어 제안되었다. 먼저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방안으로는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공고화 △산업화전략의 동반자 관계 구축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안데스개발공사(CAF)와의 협력 강화 △삼각협력 모델 개발 △한국의 인지도 및 이미지 제고 등 여섯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기업 차원의 진출 확대 방안으로는 △정부의 공식 채널 활용 △중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기업의 사회적 공헌(CSR) 활동 강화 △거점화(Hub&Spoke) 전략 △금융협력 및 조달 방식의 다각화 등이 도출되었다.

| | |
|---|----|
| Ⅰ 서언 | 3 |
| Ⅰ 국문요약 | 5 |
| Ⅰ 제1장 서론 | 19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 |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21 |
| 가. 연구 내용 | 21 |
| 나.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5 |
|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과 한계 | 26 |
| Ⅰ 제2장 안데스 3국의 경제적 중요성과 경제협력 환경 | 29 |
| 1. 경제적 중요성 | 30 |
| 가. 천연자원의 보고 | 30 |
| 나. 성장성이 높은 시장 | 36 |
| 다. 개발협력 대상국 | 39 |
| 2. 경제협력 환경 | 42 |
| 가. 경제 환경 | 43 |
| 나. 정치 환경 | 62 |
| Ⅰ 제3장 안데스 3국의 국가개발계획과 유망 협력 분야 | 73 |
| 1. 볼리비아: 정부프로그램(Programa de Gobierno 2010-2015) | 74 |
| 가. 수립 배경 | 74 |
| 나. 주요 내용 | 75 |

| | |
|---|-----|
| 2. 에콰도르: 국가개발계획(PNDBV 2009-2013) | 90 |
| 가. 수립 배경 | 90 |
| 나. 주요 내용 | 93 |
| 3. 베네수엘라: 시몬 볼리바르 국가계획(PNDSB 2007-2013) | 112 |
| 가. 수립 배경 | 112 |
| 나. 주요 내용 | 118 |
| 4. 유망 협력 분야 | 131 |
| 가. 볼리비아 | 131 |
| 나. 에콰도르 | 134 |
| 다. 베네수엘라 | 137 |

Ⅰ 제4장 주요국의 부문별 경제협력 사례

| | |
|------------------------------|-----|
| 1. 개발협력 | 142 |
| 가. 스페인의 국가개발계획 지원 | 142 |
| 나. 다국적 기금의 연구기관 지원 | 146 |
| 다. 브라질의 경제발전 경험 공유 | 151 |
| 2. 산업기술협력 | 160 |
| 가. 중국의 통신위성개발 협력 | 160 |
| 나. 중국의 정보통신(IT) 분야 협력 | 166 |
| 3. 자원협력 | 169 |
| 가. 인도 JSB의 광산개발 철수 | 169 |
| 나. 미국 세브론의 사회적공헌 활동 | 173 |
| 4. 금융협력 | 178 |
| 가. 브라질/이탈리아의 발전 부문 협력 | 178 |
| 나. 중국의 자원개발 및 발전 부문 협력 | 180 |
| 다. 한국의 정유플랜트 부문 협력 | 184 |

| | |
|--|------------|
| 5. 한국에 대한 시사점 | 186 |
| Ⅰ 제5장 안데스 3국과의 경제협력 현황 및 평가 | 191 |
| 1. 경제협력 현황 및 평가 | 192 |
| 가. 교역 | 192 |
| 나. 투자 | 199 |
| 다. 자원개발 및 건설플랜트 | 205 |
| 라. 개발협력 | 210 |
| 마. 제도협력 | 215 |
| 바. 경제협력 평가 | 217 |
| 2. 경제협력 환경의 SWOT | 219 |
| 가. 강점 | 219 |
| 나. 약점 | 221 |
| 다. 기회 | 224 |
| 라. 위협 | 226 |
| Ⅰ 제6장 안데스 3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 | 231 |
| 1. 경제협력 방향 | 232 |
| 2. 경제협력 확대 방안 | 234 |
| 가.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방안 | 234 |
| 나. 기업 차원의 진출 확대 방안 | 254 |
| Ⅰ 참고문헌 | 268 |
| Ⅰ Executive Summary | 277 |

표 차례

| | |
|---|----|
| 표 1-1. 주요 선행연구 현황 | 27 |
| 표 2-1. 볼리비아와 베네수엘라의 천연가스 매장량 및 생산량 현황(2011년) | 33 |
| 표 2-2. 안데스 3국의 광물 매장량 및 생산량 세계 순위(2011년 기준) | 34 |
| 표 2-3. 중남미의 생물다양성 현황 | 35 |
| 표 2-4. 안데스 3국이 속한 경제통합체의 경제 규모(2011년 기준) | 38 |
| 표 2-5. 안데스 3국의 빈곤지수 현황 | 40 |
| 표 2-6. 중남미 상위 10대 ODA 수원국 | 40 |
| 표 2-7. 볼리비아의 거시경제지표 | 47 |
| 표 2-8. 에콰도르의 거시경제지표 | 48 |
| 표 2-9. 베네수엘라의 거시경제지표 | 49 |
| 표 2-10. 볼리비아의 해외자본 유입 추이 | 51 |
| 표 2-11. 에콰도르의 해외자본 유입 추이 | 53 |
| 표 2-12. 베네수엘라의 해외자본 유입 추이 | 55 |
| 표 2-13. 2007~11년 지역별 FDI 유입액 및 변화율 | 57 |
| 표 2-14. 분야별 대베네수엘라 순FDI 추이 | 61 |
| 표 2-15. 중남미 각국 정부의 이념적 성향(2009~13년) | 63 |
| 표 2-16. 중남미 각국의 정치적 대표의 형태 | 67 |
| 표 2-17. 역대 차베스 대통령 대선 득표율과 득표율 차 | 71 |
| 표 3-1. 볼리비아 국가개발계획(PND)의 기본정책 방향 및 세부목표 | 76 |
| 표 3-2. 볼리비아 정부 프로그램의 30개 실천 방안 | 78 |
| 표 3-3. 볼리비아의 탄화수소 개발 관련 주요 프로젝트 | 81 |
| 표 3-4. 볼리비아의 도로 프로젝트 계획 | 84 |
| 표 3-5. 볼리비아의 철도 건설 계획 | 85 |

| | |
|---|-----|
| 표 3-6. 볼리비아의 전력에너지 메가프로젝트 현황 | 89 |
| 표 3-7. 에콰도르 시민혁명과 국가개발계획의 기본 방향 | 94 |
| 표 3-8. 에콰도르 국가개발계획 2009-2013의 중단기 전략 | 96 |
| 표 3-9. 에콰도르 국가개발계획 2009-2013의 12대 목표 | 97 |
| 표 3-10. 에콰도르 국가개발계획의 2013년 주요 달성 목표 | 103 |
| 표 3-11. 에콰도르 지역개발계획의 목표 | 106 |
| 표 3-12. 에콰도르의 분야별 공공투자 시나리오 | 111 |
| 표 3-13. 에콰도르 국가개발계획 목표별 공공투자 시나리오 | 112 |
| 표 3-14. PNDES 2001-2007의 목표 및 전략 | 115 |
| 표 3-15. PNDSB 2007-2013의 지침별 목표 및 전략 | 122 |
| 표 3-16. 제2차 사회주의계획의 5대 역사적 목표 | 125 |
| 표 3-17. 유망 협력 분야: 볼리비아 | 133 |
| 표 3-18. 유망 협력 분야: 에콰도르 | 137 |
| 표 3-19. 유망 협력 분야: 베네수엘라 | 138 |
| 표 4-1. 에콰도르-스페인 협력사업의 주요 목표 | 144 |
| 표 4-2. 안데스 3국에 대한 ODA 주요 공여국(2009~10년 평균) | 146 |
| 표 4-3. Think Tank Initiatives 공여 금액과 집행액 | 148 |
| 표 4-4. IDRC의 Think Tank Initiatives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 | 149 |
| 표 4-5. 브라질-베네수엘라 간 인프라 통합을 위한 방안 | 158 |
| 표 4-6. 브라질 북부지역과 베네수엘라 남부지역 간 생산 통합을 위한 방안 .. | 160 |
| 표 4-7. 중국 Langchao 그룹과 베네수엘라 과학기술개발공사(CODECYT) 간 협정의 주요 내용 | 167 |
| 표 4-8. 인도 JSB와 볼리비아 정부 간 합작투자계약서의 주요 내용 | 171 |
| 표 4-9. 중국의 금융 조달 방식 | 181 |
| 표 5-1. 대볼리비아 연도별 수출입 추이 | 192 |
| 표 5-2. 대볼리비아 10대 수출품목 현황 | 193 |

| | |
|---|-----|
| 표 5-3. 대볼리비아 10대 수입품목 현황 | 194 |
| 표 5-4. 대에콰도르 연도별 수출입 추이 | 195 |
| 표 5-5. 대에콰도르 10대 수출품목 현황 | 196 |
| 표 5-6. 대에콰도르 10대 수입품목 현황 | 196 |
| 표 5-7. 대베네수엘라 연도별 수출입 추이 | 198 |
| 표 5-8. 대베네수엘라 10대 수출품목 현황 | 198 |
| 표 5-9. 대베네수엘라 10대 수입품목 현황 | 199 |
| 표 5-10. 대볼리비아 연도별 투자(2012년 6월 누계 기준) | 200 |
| 표 5-11. 대볼리비아 업종별 투자(2012년 6월 누계 기준) | 201 |
| 표 5-12. 대에콰도르 연도별 투자(2012년 6월 누계 기준) | 202 |
| 표 5-13. 대에콰도르 업종별 투자(2012년 6월 누계 기준) | 203 |
| 표 5-14. 대베네수엘라 연도별 투자(2012년 6월 누계 기준) | 204 |
| 표 5-15. 대베네수엘라 업종별 투자(2012년 6월 누계 기준) | 204 |
| 표 5-16. 대베네수엘라 한국기업 투자 진출 현황 | 205 |
| 표 5-17. 우리나라의 안데스 3국 광물자원 개발 진출 현황 (2012년 6월 현재) | 206 |
| 표 5-18. 연도별 중남미 플랜트 수주액 추이 | 207 |
| 표 5-19. 안데스 3국 에너지 인프라 사업 추진 현황 | 210 |
| 표 5-20. KOICA의 주요 추진사업 현황(1991~2010) | 211 |
| 표 5-21. 대볼리비아 유상원조 추진 현황 | 211 |
| 표 5-22. 형태별 대에콰도르 무상원조 실적 | 212 |
| 표 5-23. 대에콰도르 주요 무상원조 프로젝트 현황 | 214 |
| 표 5-24. 대에콰도르 유상원조 현황 | 215 |
| 표 5-25. 안데스 3국과 협정 및 협의체 운영 현황 | 216 |
| 표 5-26. 안데스 3국의 국가신용등급 비교(2012년 8월 말 현재) | 227 |
| 표 5-27. 볼리비아 경제협력 환경의 SWOT | 228 |

| | |
|---|-----|
| 표 5-28. 에콰도르 경제협력 환경의 SWOT | 228 |
| 표 5-29. 베네수엘라 경제협력 환경의 SWOT | 229 |
| 표 6-1. 안테스 3국과 관련된 주요 삼각협력 사례(2009~10년) | 251 |
| 표 6-2. 중남미지역 내 삼각협력 기금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 252 |
| 표 6-3. 안테스 3국의 계약 참여 방식 | 255 |
| 표 6-4. 중국의 안테스 3국 금융지원 추이(2008~11년) | 263 |

그림 차례

| | |
|---|----|
| 그림 2-1. 국별 석유 매장량 순위(2011년) | 31 |
| 그림 2-2. 국별 석유 매장량 증가율 순위(2001~11년 기준) | 31 |
| 그림 2-3. 국별 일일 석유 생산량 순위(2011년) | 32 |
| 그림 2-4. 베네수엘라와 에콰도르의 석유 생산량 추이 | 32 |
| 그림 2-5. 중남미지역의 생물다양성 분포 현황(전 세계 대비) | 35 |
| 그림 2-6. 분야별 안데스 3국과 한국의 발전 격차(2011년 기준) | 41 |
| 그림 2-7. 안데스 3국과 중남미 경제성장률 비교(2004~11년 평균 성장률 기준) | 44 |
| 그림 2-8. 안데스 3국과 중남미의 수출 증가율 비교(2004~11년 평균 성장률 기준) | 45 |
| 그림 2-9. 안데스 3국과 중남미의 교역조건 개선율 비교(2004~11년 기준) ... | 45 |
| 그림 2-10. 볼리비아의 해외자본 유입 비중 | 50 |
| 그림 2-11. 에콰도르의 해외자본 유입 비중 | 54 |
| 그림 2-12. 베네수엘라의 해외자본 유입 비중 | 55 |
| 그림 2-13. 볼리비아 FDI 유입 추이 | 58 |
| 그림 2-14. 에콰도르 FDI 유입 추이 | 59 |
| 그림 2-15. 베네수엘라 FDI 유입 추이 | 60 |
| 그림 2-16. 안데스 3국의 정치리스크 비교 | 64 |
| 그림 2-17. 안데스 3국의 요인별 정치리스크 비교 | 65 |
| 그림 2-18. 볼리비아의 요인별 정치리스크 | 65 |
| 그림 2-19. 에콰도르의 요인별 정치리스크 | 65 |
| 그림 2-20. 베네수엘라의 요인별 정치리스크 | 65 |
| 그림 2-21. 중남미 각국의 시장경제에 대한 지지율 | 66 |

| | |
|--|-----|
| 그림 2-22. 중남미 각국의 민영화에 대한 지지율 | 66 |
| 그림 2-23. 안데스 3국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 | 68 |
| 그림 3-1. 에콰도르의 우선 협력 대상 국가 | 109 |
| 그림 3-2. 에콰도르의 국토개발계획에 따른 7개 지역 구분 | 109 |
| 그림 3-3. PNDSB 2007-2013의 기본 구조 | 118 |
| 그림 3-4. PNDSB 2007-2013의 다차원성 | 119 |
| 그림 3-5. 사회주의 윤리 구축 지침 | 119 |
| 그림 3-6. 사회주의 생산양식 | 120 |
| 그림 4-1. 베네수엘라에서 셰브론의 석유 및 가스 생산량 추이 | 175 |
| 그림 5-1. 안데스 3국의 국가위험도 추이(Global Insight) | 222 |
| 그림 5-2. 안데스 3국의 비즈니스 수월성 순위 추이 | 223 |
| 그림 5-3. 안데스 3국의 경제자유도 추이 | 223 |
| 그림 5-4. 안데스 3국의 국가신용등급 추이(S&P 기준) | 227 |

글상자 차례

| | |
|---|-----|
| 글상자 1-1. 안데스 3국과 금융협력의 중요성 | 24 |
| 글상자 3-1.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부의 대통령 비상입법권 역사 | 116 |
| 글상자 4-1. 브라질연방저축은행(Caixa Economica Federal) | 153 |
| 글상자 6-1. 안데스개발공사(CAF)란? | 248 |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과 한계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세계적인 자원난과 중동 사태로 자원개발 대안시장으로서 중남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안데스지역에 위치한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가 대표적인 자원개발 대상으로 주목 받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 매장량과 아홉 번째로 많은 천연가스를 보유한 중남미의 대표적인 에너지 부국이다. 베네수엘라와 더불어 중남미 양대 OPEC 회원국인 에콰도르도 중남미의 대표적인 산유국이다. 볼리비아는 리튬(세계 1위), 안티몬(세계 3위), 창연(세계 3위), 주석(세계 4위), 텅스텐(세계 6위) 등 희소금속을 중남미 국가 중 가장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높은 자원개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안데스 3국은 좌파 정부 등장이 후 시작된 급진적인 자원국유화 정책의 영향으로 정치·경제적 리스크가 높은 시장으로 인식되어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외국기업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국, 스페인, 인도,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은 자원 선점을 위해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경제협력 정책을 추진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이 국가들의 높은 자원개발 잠재력을 인식해 다각도로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나 현지 진출 환경에 대한 이해 부족, 정부의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협력 전략 부재 등으로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3국이 중남미 자원개발시장은 물론 세계 자원개발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감안할 때, 본격적인 협력 전략 수립을 통한 진출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커다란 자원개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국가 중 상대적으로 정치·경제적 리스크가 높아 우리 기업의 진출이 크게 부진한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 안데스 자원부국과의 실질적인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안데스 3국과의 자원개발 협력에 직접적인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 기업이 성공적으로 현지 자원개발 부문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포괄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였다. 안데스 3국이 자원부국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자원협력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현지국의 거부감을 살뿐만 아니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3국의 높은 정치·경제적 리스크를 고려해 현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 발굴에도 주력하였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문제 제기에서 출발했다. 첫째, 우리의 경제협력 대상국으로서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의 경제적 중요성은 무엇인가? 둘째, 안데스 좌파 3국의 경제협력 환경은 어떠한가? 국가리스크(country risk)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현지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실제로 이들 3국의 국가리스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셋째, 국가리스크가 높은 안데스 3국에는 어느 나라 기업들이 어떤 전략을 갖고 진출해 있는가?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현지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은 어떠한 경제협력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가? 이들 3국의 국가리스크는 이러한 경제협력 수단을 통해 극복 가능한가? 넷째, 안데스 3국은 일차산품 의존 경제구조, 즉 자원의 저주를 탈피하기 위해 어떠한 국가개발전략을 추진하고 있는가? 다섯째,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안데스 3국과의 경제협력은 어느 수준에 도달해 있는가?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크게 6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제1장인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내용 및 방법,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과 한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경제협력 대상국으로서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 안데스 3국이 갖는 중요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경제 및 정치 환경으로 나누어 경제협력 환경을 살펴보았다. 특히 본 장에서 안데스 3국의 경제적 중요성은 천연자원의 보고로서의 가치, 시장으로서의 가치, 개발협력 대상국으로서의 가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안데스 3국이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국가개발계획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와의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도출하였다. 국별로 볼리비아는 정부프로그램(Programa de Gobierno 2010-2015)을, 에콰도르는 국가개발계획(PNDBV 2009-2013)을, 베네수엘라는 시몬볼리바르 국가계획(PNDSB 2007-2013)과 2차 사회주의계획(2013-2019)을 집중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안데스 자원부국에 진출한 중국, 스페인, 인도, 브라질,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의 진출 사례를 발굴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그중에서도 좌파 성향의 안데스 3국과 가장 활발한 경제협력 활동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다양한 사례를 집중 분석하였다. 특히 이 장에서는 주요국의 안데스 3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포괄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개발협력, 산업기술 협력, 자원협력, 금융협력 등 부문별로 세분화해 구체적인 협력 사례를 발굴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집중하였다. 여기서 선정한 4개 협력부문은 우리나라와 안데스 3국 간의 협력 가능성 높은 분야다. 먼저 안데스 3국 중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볼리비아와 에콰도르는 소득 수준이 낮아 개발협력 대상국으로서 가치가 높다. 특히 그중에서도 볼리비아는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대상국이기도 하다. 베네수엘라 또한 소득 수준이 높기는 하나 계층 간 소득 격차가 크고 지역 간 개발 격차가 커 개발협력 가능성이 높은 국가다. 둘째, 산업기술협력은 안데스 3국이 외국과의 협력시 가장 희망하는 협력 분야 중 하나다. 기본적으로 자원부국인 이들 3국은 자원의 고부가가치 산업화에 관심이 높다. 그러나 이 국가들의 기술협력에 대한 관심은 자원의 산업화에 그치지 않는다. 안데스 3국 중에서도 비교적 산업발전 수준이 높은 베네수엘라, 에콰도르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술이전과 기술협력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셋째, 자원부국인 안데스 3국과의 자원개발협력은 우리나라가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다.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세계 최고 리튬 매장량을 갖고 있는 볼리비아 등은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국가다. 그러나 높은 개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이들 3국은 높은 정치경제적 리스크로 진출이 쉽지 않은 시장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자원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

요인과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사례를 발굴해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금융협력은 안데스 3국 진출 시 우리 기업들이 가장 절실히 희망하는 분야다. 이들 3국은 기본적으로 투자 리스크가 높아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글상자 1-1. 안데스 3국과 금융협력의 중요성

세계적으로 인프라플랜트 설비투자가 증가하면서 시장 규모가 과거 10년에 비해 연간 약 20%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11~20년 세계 인프라·플랜트 투자 누적 규모가 2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부문별로는 물이 7조 7,000억 달러, 전력이 3조 8,000억 달러, 통신이 6조 5,000억 달러,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인프라가 3조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원전·고속철·대수로 등 프로젝트의 대형화, 중남미·아프리카 등 신흥개도국으로의 발주국 확대, 고부가가치·고위험 사업 증가 등은 기업의 진출 환경을 더욱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투자 환경 변화는 해외건설금융 추이에 변화를 가져왔고,¹⁾ 최근에는 해외프로젝트 수주에 대한 국가 간 경쟁 심화로 인해 기업의 금융 조달 능력은 물론 수주국가의 대출 규모, 금리 등 금융경쟁력이 수주의 주요 관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국제금융시장 불안, 재정 부담 증가 우려 등의 요인으로 인해 플랜트 발주국(공공 발주자) 및 민간개발업자들이 입찰공고 단계에서부터 금융 조달 및 주선 방안 제안(금융기관 투자의향서 LOI)을 적극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수주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특히 발주국이 신흥개도국인 경우 금융 조달 및 주선 능력은 필수 조건이 되고 있고, 발주국이 선진국일 경우에도 재정 부담 등으로 인해 금융 주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선금융 후발주' 경향은 사업주(developer)가 발주국 정부의 재정 지원이나 자기자금 부담없이 사업을 추진하거나 시공사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부담시켜 금융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한국기업의 경우에는 자금 조달을 포함한 프로젝트 개발 능력이 부족하고, 정부는 미국·일본·프랑스 등 경쟁국과 달리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어서 원화를 활용한 지원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한국 금융기관들도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고 프로젝트 금융의 경험이 부족하여 프로젝트 수주 및 지원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다. 즉, 높은 조달금리, 장기의 환헷지 시장 부재, 경험 부족 등으로 국내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가 어려운 데다 외국계 상업은행 등과의 협력을 통한 자원 조달에도 제약이 따르고 있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책은행을 비롯한 공적 금융지원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지만, 최근 증가하는 수주 건수나 사업 규모에 대응하기에는 자금 조달 여력이 부족하고 금리 경쟁력이 낮아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내 수출신용기관(ECA)의 경우 운영자금 규모가 작은 가운데 위험회피 성향이 높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산업 및 수출구조 고도화에 따른 해외 프로젝트 수주 증가 등 실물수요에 대응하는 금융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자료: 필자 작성.

제5장에서는 한국과 안데스 3국과의 경제협력 현황을 교역, 투자, 자원개발 및 건설플랜트, 개발협력, 제도협력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경제협력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여기서는 SWOT 분석으로 안데스 3국의 경제협력 환경을 강점, 약점, 기회 및 위협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안데스 3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협력 확대 방안은 크게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방안과 기업 차원의 진출 확대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나.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연구의 범위 면에서 포괄적 접근을 지향한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자원민족주의 전통이 강한 안데스 좌파 3국과의 협력 시 자원을 ‘획득’한다는 일방적 접근보다는 개발협력 등 상호 파트너십이 수반되는 포괄적 협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자원’협력이라는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나 경제 전반에 걸쳐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포괄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보다 충실한 연구 결과 도출을 위해 다양한 연구방법을 동원하였다. 먼저 1차 현지 자료를 토대로 심층적인 문헌조사 방법을

1) 해외건설금융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과거: 금융기관의 건설회사 대출 → 건설회사는 이 자금으로 해외 발주처를 위해 공사(해외 발주처 정부의 건설회사를 위한 보증) → 건설회사는 해외 발주처로부터 분할로 대금을 수령하여 금융기관의 대출 상환. △현재: 금융기관의 해외 발주처 대출(해외 발주처 정부의 금융기관을 위한 보증) → 건설회사는 공사 후 발주처로부터 대금 수령 → 금융기관은 해외발주처로부터 상환대금 분할 수령.

사용하였다.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정부에서 발표한 현지 자료를 토대로 3국의 국가개발계획을 분석하였다.

둘째, 보다 객관적으로 안데스 3국의 경제협력 환경을 평가하기 위해 IHS Global Insight, Heritage Foundation, World Bank, 그리고 S&P, Moody's, Fitch 등 민간 컨설팅회사, 국제기구 및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자료를 입수해 분석했다.

셋째, 경제협력 환경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제시하기 위해 SWOT 분석을 시도하였다. SWOT 분석에 기초해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3국의 경제협력 환경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지조사 및 전문가 간담회를 병행해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과 안데스 3국의 정책 담당자, 유관기관 담당자,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는 한편, 일부 인사를 초청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내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연구에 반영하였다.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과 한계

그간 국내에서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3국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상황이다. 종전의 연구는 이들 3국의 자원개발 현황과 환경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쳤다. 2011년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안데스 3국의 자원개발법과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진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 역시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

표 1-1. 주요 선행연구 현황

| | 연구 목적 | 연구 방법 | 주요 연구 내용 |
|---|---|---------------------------|---|
| 1 | - 과제명: 볼리비아의 자원민주주의와 천연가스산업 재편의 전개와 의미 - 연구자(년도): 이상현(2007) - 연구 목적: 자원민주주의로 인한 볼리비아 천연가스 산업의 변화 이해 | - 문헌조사 - 통계분석 | - 볼리비아 자원민주주의의 역사적 고찰 - 천연가스 산업의 자본화 및 국유화 - 천연가스 산업 재편의 의미 - 볼리비아 자원 산업의 과제 |
| 2 | - 과제명: Re-founding the State in Bolivia - 연구자(년도): Aguirre <i>et al</i> .(2007) - 연구 목적: 볼리비아 사회주의 개혁과 자원민주주의의 이해 및 ODA 협력 방안 | - 문헌조사 - 통계분석 - 인터뷰 | - 최근 볼리비아의 사회주의 정책 - 천연가스 산업 국유화 배경 - 볼리비아에 대한 ODA 협력 방안 |
| 3 | - 과제명: 차베스 에너지정책의 형성 배경 및 전망 - 연구자(년도): 임배진(2007) - 연구 목적: 차베스 집권 이후 에너지 정책의 변화 및 배경 이해 | - 문헌조사 - 통계분석 | - 차베스 집권 전후 정책 비교 - 차베스 정책의 제도경제학적 분석 - 차베스의 리더십과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정책 |
| 4 | - 과제명: 자원개발 진출가이드 : 베네수엘라 - 연구자(년도): KOTRA(2007) - 연구 목적: 베네수엘라 자원개발 진출을 위한 가이드 | - 문헌조사 - 통계분석 - 인터뷰 | - 자원개발 진출 환경 - 광업제도 및 절차 - 노무 및 세제 - 투자관련 법 |
| 5 | - 과제명: 3국(에콰도르,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자원개발법 비교 연구 - 연구자(년도): 정경원 외(2011) - 연구 목적: 3국의 자원개발법 분석 소개 | - 문헌 조사 | - 자원 현황 및 자원정책 -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 자원개발법 주요 법제 분석 |
| 6 | - 과제명: 베네수엘라 오일샌드에 대한 한국의 진출 방안 연구 - 연구자(년도): 조성권 외(2011) - 연구 목적: 베네수엘라 오일샌드에 대한 한국의 참여 방안 제시 | - 문헌 조사 - 현지 조사 | - 오일샌드 현황 - 캐나다 오일샌드 개발 및 진출국 현황 -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연구 -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개발의 문제점 - 한국의 진출 방안 |

자료: 필자 정리.

수엘라의 자원개발법을 번역해 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거나 베네수엘라 초중질유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등 일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본 연구는 자원개발에 초점을 맞춘 기존 연구와 달리 안데스 3국과의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모델 구축을 위해 포괄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시도하지 못한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과 기업 차원

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으며 구체적인 금융 조달 사례 분석을 통해 금융 협력 및 조달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와의 이 같은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여전히 많은 한계점을 안고 있다. 먼저 폐쇄적인 안데스 3국의 특성으로 인해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입수하거나 현지 정부와의 인터뷰에 어려움이 커 구체적인 협력사례를 제한적으로밖에 발굴하지 못했으며, 현지 정부의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둘째, 우리 기업의 진출이 초기 단계이고 진출 기업 수가 소수에 불과해 진출 기업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3국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연구를 추진했으나 우리의 관심도가 높은 베네수엘라 등 일부 국가에 편중된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그 결과 볼리비아 등 일부 국가에 대한 협력 방안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처럼 이번 연구에서 부족한 부분은 추후 국별 연구를 통해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2장 안데스 3국의 경제적 중요성과 경제협력 환경

1. 경제적 중요성
2. 경제협력 환경



1. 경제적 중요성

여기서는 우리의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안데스 3국의 경제적 중요성을 천연자원의 보고, 성장성이 높은 시장, 개발협력 대상국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가. 천연자원의 보고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를 포함한 안데스지역은 천연자원의 보고로 평가된다. 2000년대 들어 전 세계를 강타한 원자재난은 천연자원의 보고인 안데스지역의 경제적 위상을 한층 제고시켰다. 여기서는 안데스 3국이 보유한 천연자원을 에너지자원, 광물자원, 생물자원으로 대별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에너지자원의 보고

최근 중남미지역은 잇단 대형 유전 발견에 힘입어 중동에 이은 제2의 석유생산 벨트로 부상했다. 그중에서도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국으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다.²⁾ 2012년 BP 통계³⁾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은 2,970억 배럴로 사우디아라비아(2,650억 배럴)를 능가한다. 베네수엘라에서 원유는 마라카이보(Maracaibo), 팔콘

2) 베네수엘라는 이미 2006년 국제에너지기구(IEA)로부터 오리노코 유전의 경제성을 평가 받아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원유 보유국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3) BP(2012),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2.” www.bp.com/sectiongenericarticle800.do?categoryId=9037130&contentId=7068669 (2012. 7. 11).

그림 2-1. 국별 석유 매장량 순위(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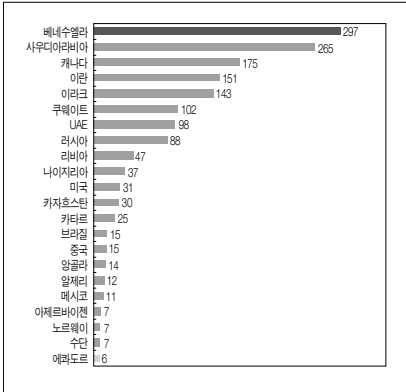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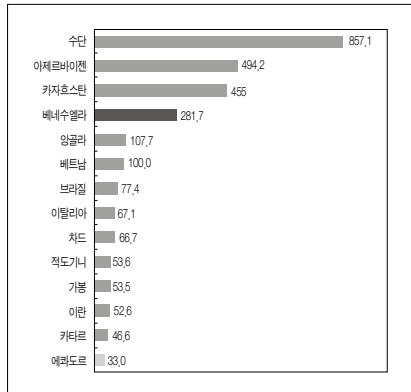


그림 2-2. 국별 석유 매장량 증가율 순위 (2001~11년 기준)



자료: BP(2012), www.bp.com/sectiongenericarticle800.do?categoryId=9037130&contentId=7068669(2012, 7, 11).

(Falcon), 아푸레(Apure) 및 오리엔탈(Oriental) 등 4개 퇴적분지에서 주로 생산된다. 산유국으로서 베네수엘라의 최고 장점은 세계 최대의 초중질유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오리노코(Orinoco) 석유벨트에 만 약 1조 3,000억 배럴 이상이 부존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현재의 생산기술로 생산이 가능한 부존량은 2,720억 배럴로 추정된다. 오리노코 석유벨트는 남한 절반 정도의 면적으로 보야카(Boyaca), 후닌(Junin), 아야쿠초(Ayacucho), 카라보보(Carabobo) 등 4개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다.⁴⁾

중남미 국가 중 베네수엘라와 더불어 양대 OPEC 회원국인 에콰도르도 중남미지역의 대표적인 산유국이다. 2012년 현재 에콰도르의 석유 매장량은 60억 배럴로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네 번째로 크다. 최근 10년간

4) 고유경(2010), p. 176.

그림 2-3. 국별 일일 석유
생산량 순위(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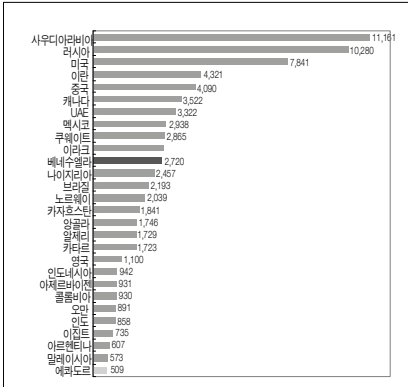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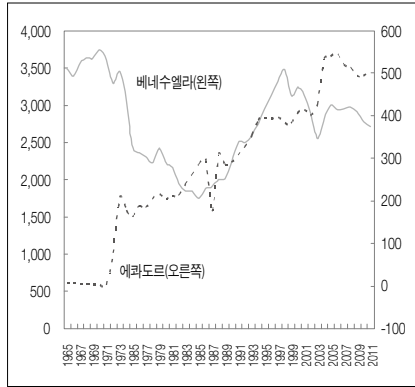


그림 2-4. 베네수엘라와 에콰도르의
석유 생산량 추이



자료: BP(2012), www.bp.com/sectiongenericarticle800.do?categoryId=9037130&contentId=7068669(2012. 7. 11).

에콰도르의 석유 매장량은 33%나 증가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베네수엘라와 에콰도르의 경우 높은 석유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생산량은 석유 산업에 대한 국가 개입 정책 강화에 따른 투자 환경 악화로 인해 저조한 편이다. 2011년 현재 베네수엘라의 일일 석유 생산량은 272만 배럴로 전 세계에서 11번째,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다. 에콰도르의 일일 석유 생산량도 51만 배럴로 중남미 국가 중 매장량이 작은 콜롬비아, 아르헨티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이 매장량에 비해 생산량이 적다는 점은 향후 투자 환경 개선 여부에 따라 개발 잠재력이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중남미지역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의 4%로 아직까지 미미하지만 발굴되지 않은 매장량이 많아 개발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요 천연가스 생산국은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아르헨티나 순이다.

표 2-1. 볼리비아와 베네수엘라의 천연가스 매장량 및 생산량 현황(2011년)

| 국가 | 매장 | | | 생산 | |
|-------|----------------------------|------|------|--------------|------|
| | 매장량 (조 m ³) | 비중 | 가체연수 | 생산량 (BCM) | 비중 |
| 볼리비아 | 0,3 | 0,1% | 18,3 | 15,4 | 0,5% |
| 베네수엘라 | 5,5 | 2,7% | - | 31,2 | 0,9% |

자료: BP(2012), www.bp.com/sectiongenericarticle800.do?categoryId=9037130&contentId=7068669(2012, 7, 11).

볼리비아의 경우 원유 매장량은 미미하나 가스 매장량은 남미 2위로 개발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IEA 보고서에 따르면 남미 가스 매장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베네수엘라의 경우 매장량의 절반이 수반가스인데 반해 볼리비아의 가스는 대부분 비수반가스로 개발비용이 저렴하다는 평가다.

2) 광물자원의 보고

세계적인 광물의 보고로 평가되는 안데스산맥에 위치해 있는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3국은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볼리비아는 휴대폰, 노트북, 전기자동차 등에 쓰이는 2차전지의 핵심 원료인 ‘백색 황금’으로 불리는⁵⁾ 리튬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이다. 이밖에도 볼리비아는 안티몬(세계 3위), 창연(3위), 주석(4위), 텅스텐(6위), 아연(8위) 등 희유광물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도 보크사이트, 질소, 실리콘, 철광석 등 전략적 광물이 풍부하다. 특히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 철광석을 생산하고 있다.

5) 고미혜(2010), 「‘백색황금’ 잠자는 소금호수를 가다」, 『연합뉴스』. (11월 15일)

표 2-2. 안데스 3국의 광물 매장량 및 생산량 세계 순위(2011년 기준)

| 국가 | 광종 | 매장 순위 | 생산 순위 |
|-------|--------|-------|-------|
| 볼리비아 | 안티몬 | 3 | 3 |
| | 창연 | 3 | 5 |
| | 붕소 | - | 7 |
| | 납 | 9 | 8 |
| | 은 | 9 | 7 |
| | 주석 | 4 | 4 |
| | 텅스텐 | 6 | 5 |
| | 아연 | 8 | 9 |
| 에콰도르 | 부석 | - | 9 |
| 베네수엘라 | 보크사이트 | 12 | 10 |
| | 장석 | - | 18 |
| | 철광석 | 13 | 6 |
| | 암모니아질소 | - | 19 |
| | 실리콘 | - | 12 |
| | 유황 | - | 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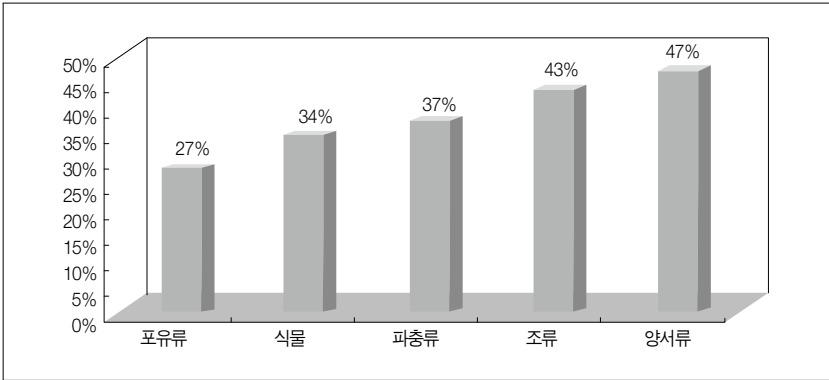
자료: USGS(2012),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12*, <http://minerals.usgs.gov/minerals/pubs/mcs/2012/mcs2012.pdf>(2012. 7. 13).

3) 생물자원의 보고

중남미지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생물자원을 갖고 있어 생물자원의 보고로 평가된다. 현재 중남미지역에는 전 세계 포유류의 27%, 식물의 34%, 파충류의 37%, 조류의 43%, 양서류의 47%가 서식한다. 카리브지역에 서식하는 식물 중 40%가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희귀 식물이다(권기수 외 2007, pp. 58~59).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는 모두 세계에서 생물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상위 10대 국가에 속한다. 이들 3국은 또한 세계에서 생물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지역인 안데스 동부 경사면에 위치해 있다.

그림 2-5. 중남미지역의 생물다양성 분포 현황(전 세계 대비)



자료: Cordeiro(2007), p. 228.

표 2-3. 중남미의 생물다양성 현황

| 순위 | 포유류 | | 조류 | | 파충류 | |
|----|-------|-----|-------|-------|-------|--------|
| | 국가 | 종수 | 국가 | 종수 | 국가 | 종수 |
| 1 | 인도네시아 | 515 | 콜롬비아 | 1,721 | 멕시코 | 717 |
| 2 | 멕시코 | 449 | 페루 | 1,703 | 호주 | 686 |
| 3 | 브라질 | 428 | 브라질 | 1,622 | 인도네시아 | 600 |
| 4 | 콩고 | 409 | 인도네시아 | 1,519 | 브라질 | 467 |
| 5 | 중국 | 394 | 에콰도르 | 1,447 | 인도 | 453 |
| 6 | 페루 | 361 | 베네수엘라 | 1,275 | 콜롬비아 | 383 |
| 7 | 콜롬비아 | 359 | 볼리비아 | 1,250 | 에콰도르 | 345 |
| 8 | 인도 | 350 | 인도 | 1,200 | 페루 | 297 |
| 9 | 우간다 | 311 | 말레이시아 | 1,200 | 말레이시아 | 294 |
| 10 | 탄자니아 | 310 | 중국 | 1,195 | 태국 | 282 |
| 순위 | 양서류 | | 나비류 | | 속씨식물 | |
| | 국가 | 종수 | 국가 | 종수 | 국가 | 종수 |
| 1 | 브라질 | 516 | 인도네시아 | 121 | 브라질 | 55,000 |
| 2 | 콜롬비아 | 407 | 중국 | 104 | 콜롬비아 | 45,000 |
| 3 | 에콰도르 | 358 | 인도 | 77 | 중국 | 27,000 |
| 4 | 멕시코 | 282 | 브라질 | 74 | 멕시코 | 25,000 |
| 5 | 인도네시아 | 270 | 미얀마 | 68 | 호주 | 23,000 |
| 6 | 중국 | 265 | 에콰도르 | 64 | 남아공 | 21,000 |
| 7 | 페루 | 251 | 콜롬비아 | 59 | 인도네시아 | 20,000 |
| 8 | 콩고 | 216 | 페루 | 59 | 페루 | 20,000 |
| 9 | 미국 | 205 | 말레이시아 | 56 | 러시아 | 20,000 |
| 10 | 베네수엘라 | 197 | 멕시코 | 52 | 베네수엘라 | 20,000 |

자료: Cordeiro(2007), p. 228.

미국의 국가정보위원회⁶⁾는 녹색 금(Green Gold), 달콤한 금(Sweet Gold)으로 불리는 생물자원이 2020년 안데스를 비롯한 중남미지역의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권기수 외 2007, p. 60).

나. 성장성이 높은 시장

높은 자원개발 잠재력을 제외할 경우 안데스 3국이 갖고 있는 경제적 중요성은 그리 크지 않다.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볼리비아, 에콰도르 2개국의 시장 규모는 작은 편이다. 2011년 기준 볼리비아의 GDP 규모는 239억 달러로 중남미 33국 중 16번째에 불과하다. 소규모 경제인 카리브 13국을 제외할 경우 가장 작은 축에 속한다. 에콰도르의 경제 규모도 볼리비아보다 3배 가까이 큰 661억 달러에 달하지만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베네수엘라의 GDP는 3,178억 달러로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규모다.

그러나 시장으로서 안데스 3국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안데스 3국은 성장 속도에서 다른 중남미 국가를 크게 능가한다. 안데스 3국의 최근 8년간(2004~11년) 경제 성장세는 중남미 평균 성장세(4.1%)를 크게 웃돌았다. 3국 중에서는 베네수엘라의 성장세가 6.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에콰도르(5.0%), 볼리비아(4.6%)가 이었다.

앞으로도 안데스 3국의 경제는 중남미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전망의 근거는 먼저 이들 3국의 경제 성장 동력인 원유, 천연가스 등 일차산품 가격의 고공행진이 계속될 전망

6) NIC(2004), p. 8.

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근거는 이들 3국의 높은 인구 성장이다. 통상적으로 자본 축적과 인구 성장을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본다. 유엔중남미 경제위원회(CEPAL)⁷⁾에 따르면 2010~20년 기간 안데스 3국의 평균 인구 증가율은 중남미 평균을 크게 상회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중남미의 평균 인구 증가율은 1%에 불과할 전망인데 반해 볼리비아는 1.5%, 베네수엘라는 1.4%, 에콰도르는 1.1%를 기록할 전망이다.

둘째, 안데스 3국이 속한 경제통합체의 규모를 감안할 경우 이들 시장은 결코 작지 않다. 먼저 안데스 3국은 ‘미주를 위한 볼리바르동맹(ALBA)’의 주축국이다. ALBA는 미국 주도의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에 대한 대안으로서 차베스 대통령의 주창으로 설립되었다. 현재 회원국은 안티과바부다, 볼리비아, 도미니카, 에콰도르, 니카라과,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등 8개국이다. 2011년 기준으로 ALBA의 경제 규모는 4,909억 달러, 1인당 소득 수준은 6,853달러다.

다음으로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볼리비아와 에콰도르는 중남미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통합체인 안데스공동체(CAN)의 원년 회원국이다. 2006년 베네수엘라의 회원국 탈퇴로 위상이 과거만은 못하지만 최근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가장 역동적인 페루와 콜롬비아가 포함된 성장시장이다. CAN의 경제 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6,000억 달러에 달한다.

마지막으로 베네수엘라는 중남미 최대 경제통합체인 MERCOSUR의 정식 회원국이다. 베네수엘라의 MERCOSUR 가입은 2006년 결정되었으나 그간 파라과이 의회의 승인 반대로 지연되어오다 2012년 7월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현재 브라질이 볼리비아와 에콰도르의 정회원국 가입

7) CEPAL(2011a), p. 24.

표 2-4. 안데스 3국이 속한 경제통합체의 경제 규모(2011년 기준)

| | 회원국 | 인구 (백만 명) | GDP (10억 달러) | 1인당GDP (달러) |
|--------------------------------------|--------|--------------|-----------------|----------------|
| A L B A | 안티과바부다 | 0.1 | 1.1 | 12,165 |
| | 볼리비아 | 10.1 | 23.9 | 2,371 |
| | 쿠바 | 11.3 | 73.6 | 6,539 |
| | 도미니카 | 0.1 | 0.5 | 7,174 |
| | 에콰도르 | 14.7 | 66.1 | 4,503 |
| | 니카라과 | 5.9 | 7.3 | 1,243 |
| | 세인트빈센트 | 0.1 | 0.7 | 6,559 |
| | 베네수엘라 | 29.5 | 317.8 | 10,776 |
| | 합계 | 71.6 | 490.9 | 6,853 |
| M E R C O S U R | 베네수엘라 | 29.5 | 317.8 | 10,776 |
| | 브라질 | 196.7 | 2,476.7 | 12,594 |
| | 아르헨티나 | 40.8 | 446.1 | 10,942 |
| | 파라과이 | 6.6 | 25.3 | 3,859 |
| | 우루과이 | 3.4 | 46.9 | 13,874 |
| | 합계 | 276.9 | 3,312.8 | 11,965 |
| C A N | 볼리비아 | 10.1 | 23.9 | 2,371 |
| | 콜롬비아 | 46.9 | 333.3 | 7,101 |
| | 에콰도르 | 14.7 | 66.1 | 4,503 |
| | 페루 | 29.4 | 176.7 | 6,009 |
| | 합계 | 101.1 | 600 | 5,935 |

자료: IHS Global Insight(2012. 7), "GLOBAL INSIGHT'S LATIN AMERICA AND CARIBBEAN OVERVIEW,"
www.ihs.com(2012. 8. 10).

을 희망하고 있어, 안데스 3국이 모두 MERCOSUR 정회원국이 될 날도 머지않았다. 2011년 현재 MERCOSUR의 경제 규모는 3조 3,128억 달러로 EU, NAFTA에 이은 세계 3대 경제통합체다.

다. 개발협력 대상국

세 번째로 안데스 3국의 경제적 중요성은 개발협력 대상국으로서 가치가 높다는 점이다. 안데스 3국 중 볼리비아는 대표적인 저소득국에 해당한다. 2007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빈곤층에 속한다. 2006년 모랄레스 정부에서 시작된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에 힘입어 빈곤층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있지만 극빈층의 비중은 31.2%에 달한다. 이는 중남미지역의 평균 극빈층 비율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은 것이다. 특히 전체 농촌 인구의 59%가 극빈층에 해당하는 등 농촌의 빈곤층 비중이 더욱 높은 상황이다.

에콰도르의 경우 소득 분류상 중소득국에 해당하나 빈곤층의 비중은 매우 높다. 2010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약 40%가 빈곤층에 속하며, 그 중 약 절반인 16%가 극빈층에 속한다. 에콰도르의 경우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달리 농촌보다 도시 빈곤이 더 심각하다. 중남미지역의 경우 평균적으로 전체 도시 인구 중 8%가 극빈층에 속하는데 반해 에콰도르에서 그 비율은 두 배인 14%에 달한다.

중위 고소득국에 속하는 베네수엘라의 경우 빈곤층의 비중과 극빈층의 비중은 중남미 평균 이하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에콰도르와 마찬가지로 농촌보다 도시의 빈곤 상황이 더 열악하다.

소득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인 지니계수를 통해 안데스 3국을 비교할 경우 볼리비아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기준 베네수엘라의 지니계수는 0.394로 중남미 국가 중에서 가장 낮았다.

안데스 3국 중 볼리비아와 에콰도르는 2000년대 중반 좌파 정부 집권 이후 정치사회적 불안정, 반(反)서방 외교노선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국가

표 2-5. 안데스 3국의 빈곤지수 현황

| | 볼리비아 (2007) | 에콰도르 (2010) | 베네수엘라 (2010) | 중남미 (2010) |
|------|----------------|----------------|-----------------|---------------|
| 빈곤층 | 54.0 | 39.2 | 27.8 | 31.4 |
| 도시 | 42.4 | 37.1 | 27.8 | 26.0 |
| 농촌 | 75.8 | 43.2 | 10.7 | 52.6 |
| 극빈층 | 31.2 | 16.4 | 10.7 | 12.3 |
| 도시 | 16.2 | 14.2 | - | 7.8 |
| 농촌 | 59.0 | 20.8 | - | 30.0 |
| 지니계수 | 0.565 | 0.485 | 0.394 | |

자료: CEPAL(2011a), p. 66, p. 70.

표 2-6. 중남미 상위 10대 ODA 수원국

(단위: 백만 달러, %)

| | 2007 | 2008 | 2009 | 3년 평균 (2007-09년) | 비중 (3년 평균 기준) |
|-----------|-------|-------|-------|---------------------|------------------|
| 1. 콜롬비아 | 723 | 972 | 1,060 | 918 | 11 |
| 2. 아이티 | 702 | 912 | 1,120 | 911 | 11 |
| 3. 니카라과 | 840 | 741 | 774 | 785 | 9 |
| 4. 볼리비아 | 477 | 628 | 726 | 610 | 7 |
| 5. 온두라스 | 464 | 564 | 457 | 495 | 6 |
| 6. 과테말라 | 454 | 536 | 376 | 456 | 5 |
| 7. 페루 | 309 | 463 | 442 | 404 | 5 |
| 8. 브라질 | 321 | 460 | 338 | 373 | 4 |
| 9. 에콰도르 | 217 | 231 | 209 | 219 | 3 |
| 10. 엘살바도르 | 88 | 233 | 277 | 199 | 2 |
| 기타 | 2,391 | 3,547 | 3,311 | 3,083 | 36 |
| 총 ODA | 6,987 | 9,288 | 9,089 | 8,455 | 100 |

자료: OECD.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2012, 8, 11\)](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2012, 8, 11)).

중 대표적인 ODA 수혜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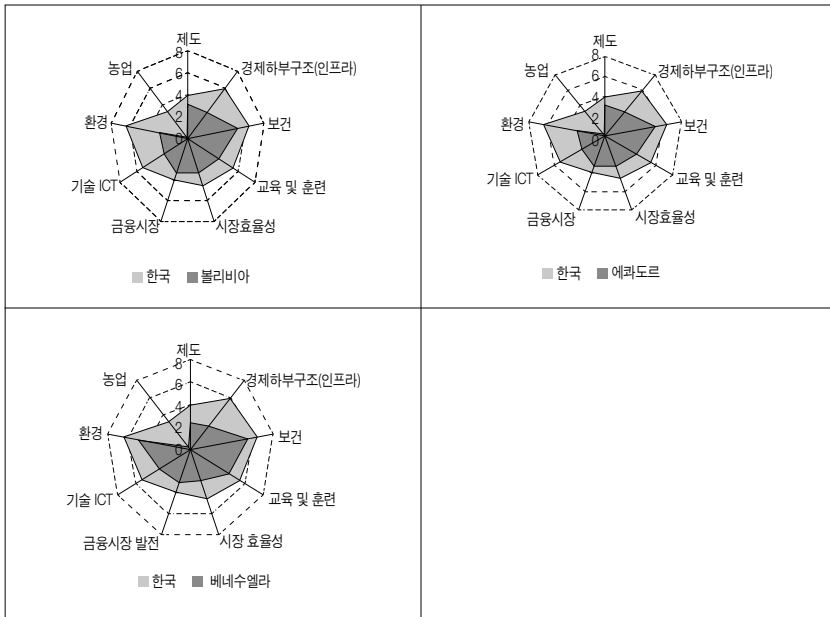
볼리비아는 최근 3년간 평균적으로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네 번째로 많은 지원(6억 달러)을 받았으며, 에콰도르는 아홉 번째로 수혜(2억 1,900만 달러)를 받았다.

한국과 안데스 3국 간 분야별 개발협력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제도, 보건, 경제하부구조, 시장효율성, 금융시장 발전, 교육 및 훈련, 기술/ICT, 환경, 농업 등 9개 분야로 나누어 발전 정도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볼리비아와 에콰도르에서는 경제하부구조, 농업, 환경, 기술/ICT 등의 분야에서 개발협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현재 높은 소득 수준 때문에 한국의 주요 ODA 대상인 아닌 베네수엘라의 경우도 경제하부구조, 농업, 기술/ICT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안데스 3국은 우리와 비교할 때 소득 수준 및 경제발전 격차가 커 개발협력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평가된다. 그러나 단

그림 2-6. 분야별 안데스 3국과 한국의 발전 격차(2011년 기준)



자료: 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Index(GCI) Data 2005-2011을 토대로 필자 작성.

순히 경제발전 격차가 크다고만 해서 안데스 3국이 우리의 유망한 개발 협력 파트너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개발협력 대상국의 대한(對韓) 협력 의지나 태도도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안데스 3국은 한국과 개발협력 파트너로서 필요충분조건을 갖춘 최적의 파트너로 평가된다. 안데스 국가들의 대한(對韓) 협력 의지는 최근 볼리비아 및 에콰도르 정상의 연이은 방한을 통해서 확인된다. 2010년과 2011년 한국을 방문한 에콰도르의 코레아 대통령과 볼리비아의 모랄레스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높이 평가해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 전수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특히 코레아 대통령은 2010년 11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대표단의 에콰도르 방문 시 “한국의 정책 경험 전수뿐만 아니라, 경제특구 및 과학특구 설립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한국기업의 참여와 한국 내 유수의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도 희망하며 이를 위해 대통령으로서 관심을 갖고 필요한 지원을 적극 제공토록 하겠다”⁸⁾라고 언급하며 한국과의 협력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2. 경제협력 환경

여기서는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3국의 거시경제 현황을 병렬적으로 나열해 분석하기보다는 3국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8) 김인완(2010), 「에콰도르 대통령, “한국의 경제개발 모델수출 지원하겠다” 밝혀」, 『한경닷컴』(11월 18일),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11184380h<ype=1&nid=280&sid=0001&page=5> (2012. 9. 10).

가. 경제 환경

1) 거시경제 현황

가) 경제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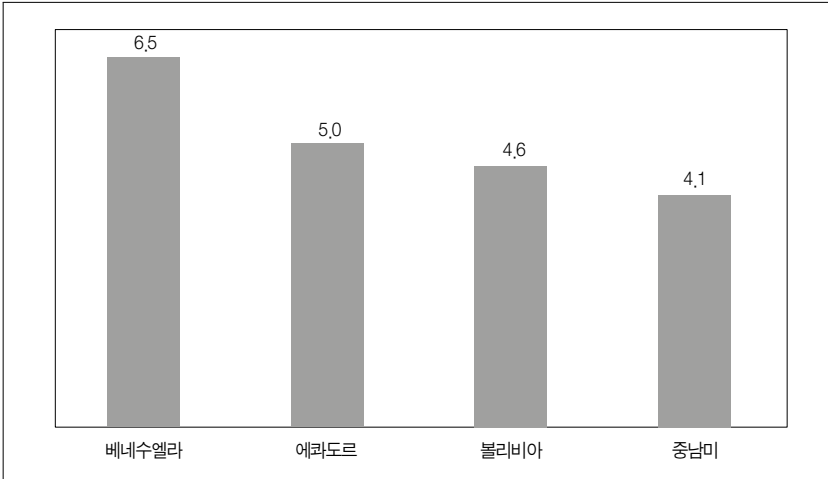
안데스 3국은 경제성장 측면에서 2000년대 들어 뚜렷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시장친화적 경제정책을 추진한 국가나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에서처럼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추진한 국가에 상관없이 2000년대 들어 중남미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2004년 이후 2011년까지 안데스 3국과 중남미 경제의 성장세를 비교한 결과, 안데스 3국 모두의 경제성장세가 중남미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데스 3국 중에서는 베네수엘라의 성장세가 6.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에콰도르(5.0%), 볼리비아(4.6%)가 이었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안정도 측면에서는 볼리비아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인 베네수엘라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2010년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인 바 있다. 그에 반해 볼리비아 경제는 중남미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인 2009년에도 3.4%의 안정적 성장세를 보였다.

2000년대 들어 안데스 3국의 높은 경제성장세는 무엇보다도 주요 수출품인 일차산품의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증대에 힘입은 바 크다. 일차산품의 국제가격 급등에 힘입어 교역조건이 크게 개선되었다. 이 같은 교역조건 개선에 힘입어 안데스 3국의 수출 증가율은 중남미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최근 8년간(2004~11년) 중남미지역의 수출이 연평균 13.8% 증가에 그친 데 반해 볼리비아의 수출 증가세는 24.8%로 2배 가까이 빨리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베네수엘라의 수출도 20.2%, 에콰도르의

그림 2-7. 안데스 3국과 중남미 경제성장률 비교
(2004~11년 평균 성장률 기준)

(단위: %)



자료: IHS Global Insight(2012, 7), "GLOBAL INSIGHT'S LATIN AMERICA AND CARIBBEAN OVERVIEW,"
www.ihs.com(2012, 8, 10).

수출도 16.3% 증가하는 등 중남미지역의 평균 수출 증가세를 상회했다.

특히 볼리비아와 에콰도르에서는 해외교민들이 보내오는 송금이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이들 국가에서 해외송금은 수출 다음으로 중요한 외화소득원이다. 볼리비아에서 해외송금 유입액은 2006년 6억 달러에서 2011년에는 약 2배 증가한 12억 달러에 달했다. 에콰도르에서도 해외송금 유입액은 2000~05년 기간 평균 17억 달러에서 2006~11년 기간 평균 27억 달러로 증가했다.

나) 물가 안정

안데스 3국 중에서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볼리비아와 에콰도르의 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이다. 먼저 볼리비아의 경우 수입 식료품 가격 상승, 에

그림 2-8. 안데스 3국과 중남미의 수출 증가율 비교(2004~11년 평균 성장률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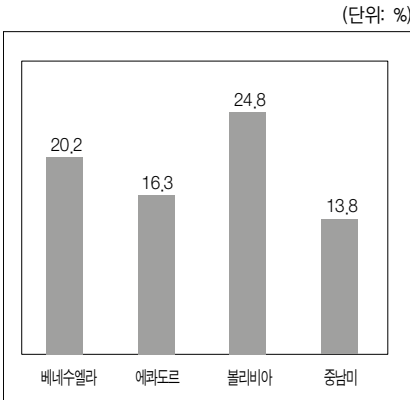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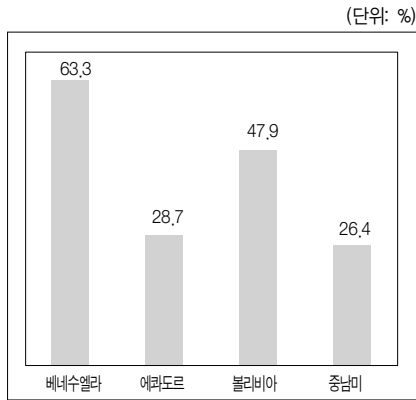


그림 2-9. 안데스 3국과 중남미의 교역조건 개선율 비교(2004~11년 기준)



자료: IHS Global Insight(2012, 7), "GLOBAL INSIGHT'S LATIN AMERICA AND CARIBBEAN OVERVIEW,"
www.ihs.com (2012, 8, 10); CEPAL(2012a), Estudio economico de America Latina y el Caribe, p. 79.

너지 보조금 삭감 조치에 따른 연료가격 급등 등의 요인으로 다소 불안한 양상을 보이기도 했으나 한 자리수의 안정적인 물가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다.

연 100%에 달하는 물가 상승에 시달려 왔던 에콰도르의 경우 2000년 달러 공용화 제도(dollarization) 도입⁹⁾ 이후 안정적인 물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달러화 공용제는 에콰도르의 물가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이나 중앙은행의 발권 기능이 사라짐으로써 사실상의 통화주권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¹⁰⁾

비교적 안정적인 물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볼리비아 및 에콰도르와

9) 에콰도르는 2000년 9월 1884년 이후 사용해온 고유화폐인 수크레를 포기하고, 미국 달러화를 공식화폐로 채택했다.

10) 시중 은행이 유동성 부족에 직면할 경우 중앙은행은 더 이상 최종대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또한 미국 달러화의 환율 변동에 의해 에콰도르 수출품의 경쟁력이 좌우됨에 따라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지게 된다.

는 달리 베네수엘라는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으로 지속적인 물가 불안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1년 현재 베네수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26%에 달한다. 베네수엘라의 만성적인 물가 불안은 엄격한 외환통제와 생필품 가격 통제 정책을 실시한 결과 발생한 공급 부족에 기인하는 측면이 강하다. 베네수엘라는 2003년부터 외자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외환통제정책을 실시했다. 또한 차베스 정부는 빈곤층에게 보다 값싸게 생필품을 공급하기 위해 가격을 통제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외환통제로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줄고, 가격통제로 국내 생산업자들이 생산을 포기함에 따라 국내 생필품의 공급 능력이 크게 떨어졌다.¹¹⁾

다) 재정 건전성

2000년대 들어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안데스 3국의 재정 건전성은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서와 달리 안데스 3국에서 재정 건전성 개선은 재정개혁 등 정책적인 측면보다는 일차산품 호황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에 힘입은 바 컸다.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일차산품 의존형 국가인 안데스 3국은 일차산품에 대한 재정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다. 안데스 3국 모두에서 석유 등 일차산품에 대한 재정수입 의존도는 50%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0년대 들어 10년 가까이 지속된 일차산품 붐은 이들 3국의 재정수입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 대표적으로 에콰도르의 경우 2007~11년 중 일차산품에 의한 재정수입(GDP 대비)은 29.6%에서 47.3%로 크게 증가했다.

11) 김기현, 권기수(2011), pp. 357~358.

표 2-7. 볼리비아의 거시경제지표

| 구분 | 단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 GDP 증가율 | % | 4.6 | 6.1 | 3.4 | 4.1 | 5.2 | |
| 소비자물가상승률 | 연말, % | 11.7 | 11.8 | 0.3 | 7.2 | 6.9 | |
| 대외 수지 | 수출 | 10억 달러 | 4.5 | 6.5 | 4.9 | 6.3 | 8.3 |
| | 수입 | 10억 달러 | 3.2 | 4.8 | 4.1 | 5.0 | 7.1 |
| | 무역수지 | 10억 달러 | 1.2 | 1.8 | 0.8 | 1.3 | 1.2 |
| | 경상수지 | 10억 달러 | 1.6 | 2.0 | 0.8 | 0.9 | 0.5 |
| GDP 대비, % | | 12.2 | 12.0 | 4.7 | 4.6 | 2.1 | |
| 총외채 | 10억 달러 | 5.0 | 5.5 | 5.7 | 5.3 | 5.5 | |
| | GDP 대비, % | 38.2 | 33.1 | 33.1 | 27.2 | 23.1 | |
| DSR | % | 12.0 | 7.2 | 8.5 | 8.4 | | |
| 외환보유고 | 10억 달러 | 5.3 | 7.7 | 8.6 | 9.7 | 12.0 | |
| | 수입 개월수 | 20 | 19 | 25 | 23 | 20 | |
| 환율 | 달러 대비, 연말 | 7.64 | 7.07 | 7.07 | 7.07 | 6.96 | |
| 공공 부문 | 수입 | GDP 대비, % | - | - | 31.3 | 30.8 | 30.9 |
| | 지출 | | - | - | 32.4 | 30.9 | 31.4 |
| | 재정수지 | | 1.7 | 3.2 | 0.1 | 1.7 | 0.8 |
| | 순부채 | | 44.0 | 45.2 | 42.6 | 38.6 | 34.4 |

자료: EIU Viewswire(2012), "Bolivia: 5-year forecast," <http://viewswire.eiu.com>(2012, 8, 10); IHS Global Insight(2012, 7), "GLOBAL INSIGHT'S LATIN AMERICA AND CARIBBEAN OVERVIEW," www.ihsglobal.com(2012, 8, 10).

안데스 좌파 3국은 개혁을 통해 제시한 21세기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 사회정책 확대, 국영기업 설립, 대규모 인프라 건설 등에 지출을 크게 확대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지출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 수입을 상회하는 지출 확대로 베네수엘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재정적자가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볼리비아와 에콰도르에서는 재정 수입과 지출이 비교적 균형을 이루며 재정수지는 흑자를 보였다.

GDP대비 정부부채 규모 면에서 안데스 3국의 부채 수준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볼리비아와 에콰도르에서는 비교적인 안정적인 재정

표 2-8. 에콰도르의 거시경제지표

| 구분 | 단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 GDP 증가율 | % | 2.0 | 7.2 | 0.4 | 3.6 | 7.8 | |
| 소비자물가상승률 | 연말, % | 3.4 | 8.8 | 4.3 | 3.3 | 5.4 | |
| 대외 수지 | 수출 | 10억 달러 | 14.9 | 19.5 | 14.4 | 18.1 | 23.1 |
| | 수입 | 10억 달러 | 13.0 | 17.9 | 14.3 | 19.6 | 23.2 |
| | 무역수지 | 10억 달러 | 1.8 | 1.6 | 0.1 | -1.5 | -0.1 |
| | 경상수지 | 10억 달러 | 1.9 | 1.6 | 0.1 | -1.6 | -0.3 |
| GDP 대비, % | | 4.3 | 3.0 | 0.3 | -2.8 | -0.4 | |
| 총외채 | 10억 달러 | 17.8 | 17.4 | 14.1 | 14.8 | 18.6 | |
| | GDP 대비, % | 39.1 | 32.1 | 27.2 | 25.6 | 28.2 | |
| DSR | % | 19.0 | 11.3 | 27.4 | 8.3 | 15.4 | |
| 외환보유고 | 10억 달러 | 3.5 | 4.5 | 3.8 | 2.6 | 3.0 | |
| | 수입 개월수 | 3 | 3 | 3 | 2 | 2 | |
| 환율 | 달러 대비, 연말 | 1 | 1 | 1 | 1 | 1 | |
| 공공 부문 | 수입 | GDP 대비, % | 29.6 | 40.7 | 35.3 | 40.0 | 47.3 |
| | 지출 | | 27.6 | 40.1 | 39.6 | 41.6 | 47.2 |
| | 재정수지 | | 2.0 | 0.6 | -4.3 | -1.6 | 0.1 |
| | 순부채 | | 30.4 | 25.2 | 19.6 | 22.9 | 21.9 |

자료: EIU Viewswire(2012), "Ecuador: 5-year forecast," <http://viewswire.eiu.com>(2012. 8. 10); IHS Global Insight(2012. 7), "GLOBAL INSIGHT'S LATIN AMERICA AND CARIBBEAN OVERVIEW," www.ihs.com (2012. 8. 10).

운영에 힘입어 정부부채 규모가 감소 추세에 있다. 최근 5년간(2007~11년) 볼리비아의 정부부채(GDP 대비)는 44%에서 34.4%로, 에콰도르의 정부부채는 30.4%에서 21.9%로 크게 감소했다. 최근 재정수지 적자 확대로 정부부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부채 규모(2011년 기준)도 25.1%로 중남미 평균 부채 규모(28.1%)를 하회한다.

문제는 앞서 지적하였듯이 이들 3국의 일차산품에 의한 재정수입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될 경우 일차산품의 수출 급락은 재정수입 급감으로 이어져 이들 3국의

표 2-9. 베네수엘라의 거시경제지표

| 구분 | 단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 GDP 증가율 | % | 8.8 | 5.3 | -3.2 | -1.5 | 4.2 | |
| 소비자물가상승률 | 연말, % | 22.5 | 30.9 | 27.1 | 28.2 | 26.1 | |
| 대외 수지 | 수출 | 10억 달러 | 70.0 | 95.0 | 57.6 | 65.7 | 92.6 |
| | 수입 | 10억 달러 | 46.7 | 51.0 | 39.6 | 38.6 | 46.4 |
| | 무역수지 | 10억 달러 | 23.3 | 44.1 | 18.0 | 27.1 | 46.2 |
| | 경상수지 | 10억 달러 | 17.4 | 34.1 | 6.0 | 12.1 | 27.2 |
| | | GDP대비, % | 7.5 | 10.8 | 1.8 | 3.1 | 8.6 |
| 총외채 | 10억 달러 | 48.3 | 52.8 | 55.2 | 55.6 | 59.5 | |
| | GDP대비, % | 21.0 | 16.7 | 16.8 | 14.2 | 18.8 | |
| DSR | % | 7.2 | 5.8 | 6.4 | 8.7 | 8.6 | |
| 외환보유고 | 10억 달러 | 33.5 | 42.3 | 35.0 | 29.5 | 29.9 | |
| | 수입개월수 | 9 | 10 | 11 | 9 | 8 | |
| 환율 | 달러대비, 연말 | 2.15 | 2.15 | 2.15 | 2.59 | 4.29 | |
| 공공 부문 | 수입 | GDP대비, % | 32.7 | 31.2 | 24.8 | 21.3 | 28.0 |
| | 지출 | | 35.5 | 33.8 | 32.7 | 31.6 | 39.5 |
| | 재정수지 | | -1.2 | -1.2 | -6.5 | -8.5 | -9.4 |
| | 순부채 | | 19.1 | 4.0 | 18.2 | 18.3 | 25.1 |

자료: EIU Viewswire(2012), "Venezuela: 5-year forecast," <http://viewswire.eiu.com> (2012. 8. 10); IHS Global Insight (2012. 7), "GLOBAL INSIGHT'S LATIN AMERICA AND CARIBBEAN OVERVIEW," www.ihs.com (2012. 7. 10)

재정수지 악화를 크게 부추길 수도 있다.

라) 대외지급능력

대외경제지표상으로 안데스 3국의 대외지급능력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는 듯 보인다. 국가의 외채상환능력을 가늠하는 척도로 사용되고 있는 DSR¹²⁾을 살펴보면 3국 모두 경제무국으로 분류된다. 2011년 기준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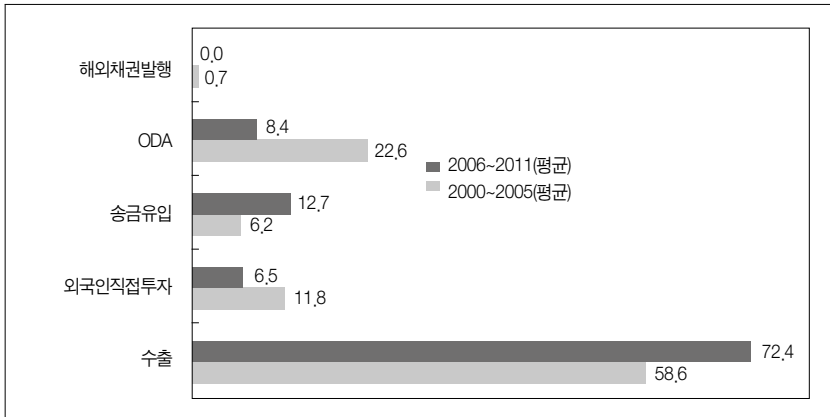
12) 외채원리금 상환부담률(DSR: debt service ratio)은 외채원리금상환액(장기외채원금+장기외채이자+단기외채이자)을 경상수입액(상품수출+서비스수지 수입+소득수지 수입)으로 나누어 구한다. 일반적으로 그 비율이 30% 이상이면 중채무국, 18% 이하이면 경제

각국의 DSR은 볼리비아 8.4%, 베네수엘라 8.6%, 에콰도르 15.4%순이다. GDP 대비 외채 규모도 안데스 3국 중에서는 볼리비아가 23.1% (GDP 대비, 2011년 기준)로 가장 높으나 세계은행¹³⁾ 기준을 따르면 ‘외채 문제없는 국가’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 같은 외견상의 양호한 지표에도 불구하고 안데스 3국의 대외지급능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우호적이지 않다. 먼저 볼리비아의 경우 경상수지 흑자 지속, FDI 유입 증가, 외환보유고 증가, 외채 탕

그림 2-10. 볼리비아의 해외자본 유입 비중

(단위: %)



자료: UNCTAD, "UNCTAD STAT," <http://unctadstat.unctad.org/ReportFolders/reportFolders.aspx> (2012. 7. 10); IHS Global Insight(2012. 7), "GLOBAL INSIGHT'S LATIN AMERICA AND CARIBBEAN OVERVIEW," www.ihs.com (2012. 7. 10); CEPAL(2011b), *Estudio economico de America Latina y el Caribe 2010-2011*, p. 318.

무국으로 분류한다(유병훈 2008, 『외채통계의 이해와 최근 동향』,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p. 29, <http://knsi.org/knsi/admin/work/works/08.07.25.pdf>, 검색일자: 2012. 8. 7).

- 13) 세계은행은 GDP 대비 외채 비중에 따라 외채 문제없는 국가(30% 미만), 경채무국(30~50%), 중채무국(50% 초과)으로 분류한다(KDB 2001, 『우리경제의 중장기전망』, 『KDB 경제이슈』, p. 90. <https://rd.kdb.co.kr/er/cmscontents/.../cmsERFileDown.jsp?> 검색일자: 2012. 8. 7).

감 등에 힘입어 안데스 3국 중 지표상으로 대외지급능력이 가장 양호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경상수지는 무역흑자 지속, 해외교민 송금 증가 등에 힘입어 지속적인 흑자세를 유지해오고 있다. 특히 고채무국(HIPC)에 속하는 볼리비아는 다자간외채감축구상(MDRI) 덕택에 2006년 IMF, 세계은행 등 다자기구의 채무 18억 달러를 탕감 받았다. 외환보유고도 2007년 53억 달러에서 2011년에는 120억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같은 대외지급능력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문제는 수출에 대한 해외자본 유입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해외자본 유입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05년 기간 평균 58.6%에서 2006~11년 기간에는 72.4%로 크게 높아졌다. 해외교민의 송금에 대한 의존도도 같은 기간 6.2%에서 12.7%로 증가했다. 그에 반해 같은 기간 FDI의 비중은 11.8%에서 6.5%로 크게 감소했다.

표 2-10. 볼리비아의 해외자본 유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 수출 | 외국인 직접투자 | 송금유입 | ODA | 해외채권발행 | 합계 |
|---------|-------|-------------|-------|-----|--------|--------|
| 2000-05 | 1,733 | 350 | 182 | 669 | 22 | 2,956 |
| 2006-11 | 5,716 | 514 | 1,005 | 663 | 0 | 7,898 |
| 2006 | 3,874 | 281 | 612 | 768 | 0 | 5,535 |
| 2007 | 4,458 | 366 | 1,065 | 442 | 0 | 6,331 |
| 2008 | 6,526 | 513 | 1,144 | 693 | 0 | 8,876 |
| 2009 | 4,917 | 423 | 1,069 | 641 | 0 | 7,050 |
| 2010 | 6,290 | 643 | 953 | 772 | 0 | 8,658 |
| 2011 | 8,230 | 859 | 1,188 | | 0 | 10,277 |

자료: UNCTAD, "UNCTAD STAT," <http://unctadstat.unctad.org/ReportFolders/reportFolders.aspx>(2012. 7. 10); IHS Global Insight(2012), "GLOBAL INSIGHT'S LATIN AMERICA AND CARIBBEAN OVERVIEW," www.ihs.com (2012. 7. 10); CEPAL(2011b), *Estudio economico de America Latina y el Caribe 2010-2011*, p. 318.

에콰도르의 대외지급능력도 지표상으로는 아직까지 양호한 편이다. 수출을 상회하는 수입 증가세로 2010년부터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며 경상수지도 적자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규모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비교적 양호한 대외지급능력 지표에도 불구하고 에콰도르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 가장 최근 외채 디폴트를 선언했다는 점이다. 2008년 12월 코레아 정부는 충분한 대외지급능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2012년 글로벌채권(Global Bond)에 대한 이자지급액 3,000만 달러를 갚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2009년 3월에는 2030년 만기 글로벌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액(1억 3,000만 달러)에 대해서도 지불을 거부했다.¹⁴⁾ 에콰도르 정부가 이같이 잇달아 외채에 대한 이자지급 상황을 거부한 공식적인 이유는 채무 도입 과정에서 부정부패의 소지가 발견되었다는 것이다.¹⁵⁾ 일부에서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수출 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상황 악화를 그 이유로 들기도 한다. 이유야 어쨌든 코레아 정부의 일방적인 디폴트 선언은 에콰도르의 대외신인도를 크게 실추시켰다. 이에 따라 코레아 대통령 집권 이후 국제자본시장에서 에콰도르의 자본 차입은 사실상 차단된 상태다.

다른 안데스 국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출에 대한 해외자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도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수출에 대한 해외자본 의존율은 2000~05년 기간 70.0%에서 2006~11년 기간에는 83.1%

14) 한국수출입은행(2010), 『에콰도르 국가신용도 평가 리포트』, 『국별 리포트』, p. 11.

15) 코레아 대통령은 2006년 말 대통령 당선 직후 외채감시위원회를 설치, 1976년부터 2006년까지 국채, 이국 간 및 다자 간 채무, 파리클럽 채무 등 대외 채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상당수의 계약 건에서 이증지급, 불공정 조항, 국제기구와 과거 공무원의 직무태만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했다(한국수출입은행 2010, p. 11).

표 2-11. 에콰도르의 해외자본 유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 수출 | 외국인 직접투자 | 송금유입 | ODA | 해외채권발행 | 합계 |
|---------|--------|-------------|-------|-----|--------|--------|
| 2000-05 | 6,671 | 839 | 1685 | 178 | 163 | 9,536 |
| 2006-11 | 16,538 | 420 | 2733 | 220 | 0 | 19,911 |
| 2006 | 13,156 | 271 | 2,934 | 176 | 0 | 16,538 |
| 2007 | 14,851 | 194 | 3,094 | 337 | 0 | 18,476 |
| 2008 | 19,446 | 1,006 | 2,828 | 213 | 0 | 23,492 |
| 2009 | 14,403 | 321 | 2,502 | 264 | 0 | 17,490 |
| 2010 | 18,135 | 158 | 2,332 | 110 | 0 | 20,735 |
| 2011 | 19,236 | 568 | 2,711 | | 0 | 22,51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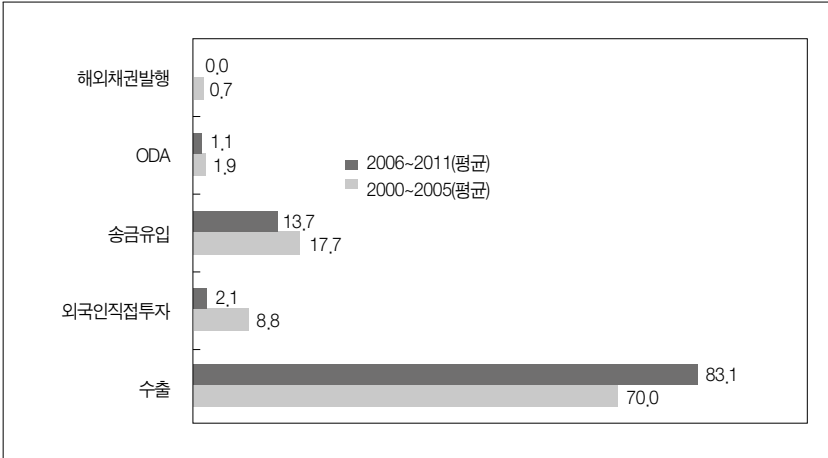
자료: UNCTAD, "UNCTAD STAT," <http://unctadstat.unctad.org/ReportFolders/reportFolders.aspx>(2012. 7. 10); IHS Global Insight(2012), "GLOBAL INSIGHT'S LATIN AMERICA AND CARIBBEAN OVERVIEW," www.ihs.com (2012. 7. 10); CEPAL(2011b), *Estudio economico de America Latina y el Caribe 2010-2011*, p. 318.

로 크게 증가했다. 그에 반해 FDI에 대한 의존도는 8.8%에서 2.1%로, 송금에 대한 의존도도 17.7%에서 13.7%로 크게 낮아졌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2007년 코레아 대통령 집권 이후 해외채권 발행은 한 건도 없는 상황이다. 에콰도르는 부족한 외자를 충당하기 위해 석유를 담보로 중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오고 있다. 2009년 PetroChina 10억 달러, 2010년 중국개발은행 10억 달러, 2011년 중국개발은행 20억 달러 등 2009년부터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차관은 72억 5,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베네수엘라의 대외지급능력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높은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경상수지는 여전히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안데스 3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해외자본시장에서 국채를 발행해 자본을 조달하고 있다. 안데스 3국 중에서 가장 엄격한 외환통제를 실시하고 있음에

그림 2-11. 에콰도르의 해외자본 유입 비중

(단위: %)



자료: UNCTAD, "UNCTAD STAT," <http://unctadstat.unctad.org/ReportFolders/reportFolders.aspx> (2012. 7. 10); IHS Global Insight(2012), "GLOBAL INSIGHT'S LATIN AMERICA AND CARIBBEAN OVERVIEW," www.ihs.com (2012. 7. 10); CEPAL(2011b), *Estudio economico de America Latina y el Caribe 2010-2011*, p. 318.

도 불구하고 외채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등 외채 상환 태도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¹⁶⁾

문제는 다른 안데스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출에 대한 해외자본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이다. 수출에 대한 해외자본 의존율은 2000~05년 기간 86.8%에서 2006~11년 기간에는 92.5%로 높아졌다. 그에 반해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의존도는 6.3%에서 1.3%로, 해외채권 발행에 대한 의존도도 7.2%에서 5.6%로 감소했다.

16) 한국수출입은행(2011), 『베네수엘라 국가신용도 평가 리포트』, 『국별 리포트』, p. 15.

표 2-12. 베네수엘라의 해외자본 유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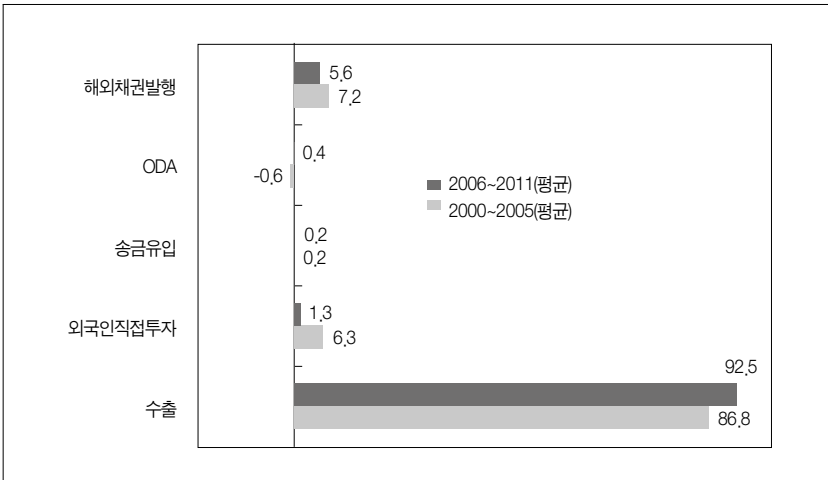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 수출 | 외국인직접투자 | 송금유입 | ODA | 해외채권발행 | 합계 |
|---------|--------|---------|------|-------|--------|---------|
| 2000~05 | 34,967 | 2546 | 92 | -223 | 2,880 | 40,262 |
| 2006~11 | 74,123 | 1047 | 144 | 338 | 4,467 | 80,119 |
| 2006 | 65,534 | -508 | 165 | -386 | 100 | 64,905 |
| 2007 | 69,226 | 1,620 | 151 | 1,445 | 7,500 | 79,942 |
| 2008 | 93,673 | 1,195 | 137 | 124 | 4,000 | 99,129 |
| 2009 | 57,437 | -2,536 | 131 | 195 | 5,000 | 60,227 |
| 2010 | 66,266 | 1,209 | 143 | 310 | 3,000 | 70,928 |
| 2011 | 92,602 | 5,302 | 138 | | 7,200 | 105,242 |

자료: UNCTAD, "UNCTAD STAT," <http://unctadstat.unctad.org/ReportFolders/reportFolders.aspx>(2012, 7. 10); IHS Global Insight(2012), "GLOBAL INSIGHT'S LATIN AMERICA AND CARIBBEAN OVERVIEW," www.ihs.com (2012, 7. 10); CEPAL(2011b), *Estudio economico de America Latina y el Caribe 2010-2011*, p. 318.

그림 2-12. 베네수엘라의 해외자본 유입 비중

(단위: %)



자료: UNCTAD, "UNCTAD STAT," <http://unctadstat.unctad.org/ReportFolders/reportFolders.aspx>(2012, 7. 10); IHS Global Insight(2012), "GLOBAL INSIGHT'S LATIN AMERICA AND CARIBBEAN OVERVIEW," www.ihs.com (2012, 7. 10); CEPAL(2011b), *Estudio economico de America Latina y el Caribe 2010-2011*, p. 318.

2)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일반적으로 안데스 좌파 3국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공격적인 국유화 정책 추진에 따른 투자 환경 악화로 외국인투자자들이 투자를 가장 기피하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세계 유수 기관의 국가위험도(country risk) 평가에서도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3국은 전 세계 비교대상국 중 위험도가 가장 높은 국가, 투자 환경이 가장 열악한 국가로 지목되곤 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2000년대 들어 이들 3국의 FDI 유입 현황은 어떠한가?

먼저 안데스 좌파 3국에 대한 FDI 현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 국가들이 속한 중남미지역의 FDI 현황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최근 중남미지역은 안정적 경제성장, 일차산품에 대한 전 세계 수요 확대에 힘입어 외국인직접투자(FDI) 대상지로 각광받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중남미지역의 FDI 유입액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에는 유럽발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제 불확실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중남미 FDI는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도 대중남미 FDI는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2011년 대중남미 FDI 유입 증가율은 31.1%로, 전 세계 및 개도국 FDI 유입 증가율을 크게 상회했다. 그 결과 전 세계 FDI에서 중남미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5.9%에서 2011년에는 10.2%로 크게 증가했다.¹⁷⁾

여기서는 자원산업 국유화 등 안데스 3국 좌파 정부의 경제 개입 확대 정책이 FDI 유입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2000년대

17) 이시은(2012), 「최근 대중남미 FDI 유입 급증 배경과 주요 특징」, 지역경제포커스, 제 06-23호, p. 3.

표 2-13. 2007~11년 지역별 FDI 유입액 및 변화율

| 지역 | 유입액(십억 달러) | | | | | 변화율(%) | | | |
|------|------------|-------|-------|-------|-------|--------|-------|-------|-------|
|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08 | 2009 | 2010 | 2011 |
| 세계 | 1,971 | 1,744 | 1,185 | 1,290 | 1,509 | -11.5 | -32.1 | 8.8 | 17.0 |
| 선진국 | 1,307 | 965 | 603 | 636 | 753 | -26.1 | -37.5 | 5.4 | 18.5 |
| 개도국 | 573 | 658 | 511 | 584 | 664 | 14.8 | -22.4 | 14.4 | 13.7 |
| 중남미 | 117 | 137 | 82 | 121 | 153 | 17.2 | -40.4 | 48.2 | 31.1 |
| 아프리카 | 63 | 73 | 60 | 55 | 54 | 16.3 | -18.0 | -9.1 | -0.5 |
| 중동 | 78 | 92 | 66 | 58 | 50 | 17.1 | -27.9 | -11.8 | -13.4 |
| 아시아 | 262 | 286 | 243 | 310 | 343 | 9.2 | -15.0 | 27.4 | 10.4 |

자료: CEPAL(2012b), *La inversion extranjera directa en America Latina y el Caribe 2011*, p. 23.

를 크게 전기(2000~05년)와 후기(2006~11년)로 나누었다.

그 결과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좌파 정부의 국유화 정책이 본격화된 후기보다 전기에 보다 많은 FDI가 유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에콰도르와 베네수엘라에서 그 차이는 2배에 달했다.

그러나 3국 중에서 볼리비아만은 예외적인 경향을 보였다. 전기(3억 5,000만 달러)보다 후기(5억 1,400만 달러)에 더 많은 FDI가 유입되었다. 볼리비아에 대한 FDI 유입은 2006년 좌파 성향의 모랄레스 정부 들어서 완만하나마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1년 FDI 유입액은 지난 10년간 평균 FDI 유입 규모(3억 9,000만 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8억 5,900만 달러에 달했다.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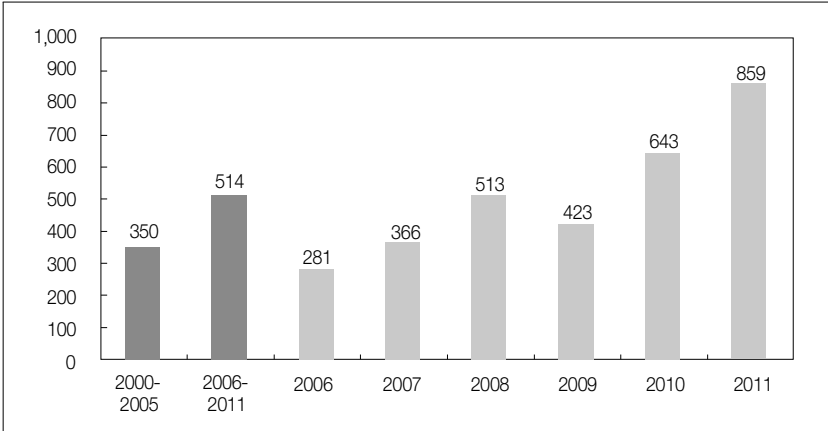
분야별¹⁹⁾로 대볼리비아 FDI는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원개발에 집중(전체 FDI의 56%)되고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광물 탐사 및 개발(34%), 석유·천연가스 탐사 및 개발(22%)에 FDI가 몰리고

18) CEPAL(2012b), p. 41.

19) 2004~08년 누계 기준.

그림 2-13. 볼리비아 FDI 유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CEPAL(2012b), p. 50.

있다. 호텔 및 레스토랑(18%), 도소매(9%), 교통 및 통신(6%) 등 서비스 부문(33%)에도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국별²⁰⁾로는 미국이 전체 투자의 33%(8억 7,000만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뒤를 브라질(1억 9,000만 달러, 7.1%), 네덜란드(1억 8,000만 달러, 6.8%), 케이만군도(1억 4,000만 달러, 5.2%), 스위스(1억 1,000만 달러, 4.3%) 등이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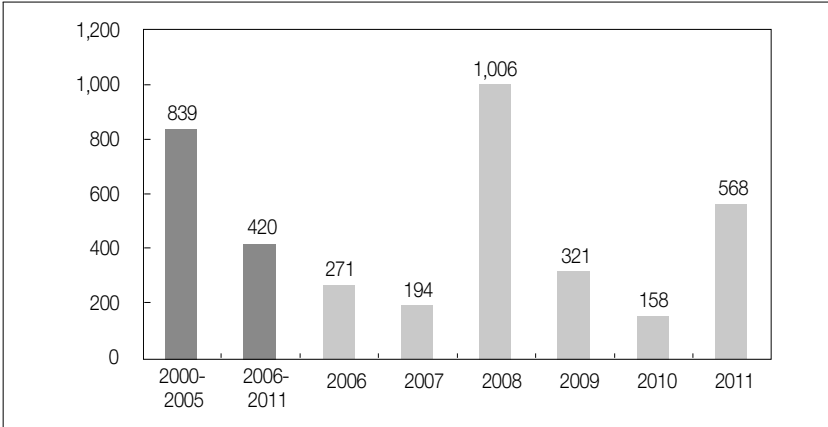
에콰도르의 경우 전기와 후기의 FDI 유입액이 2배 차이가 나는 등 좌파정부의 경제정책이 FDI 유입에 뚜렷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DI 유입액은 전기에 8억 3,900만 달러에서 후기에는 4억 2,000만 달러로 크게 감소했다. 후기의 FDI 규모는 볼리비아의 FDI 규모보다도 크게 낮은 수치다.

2008년 일시적으로 FDI 유입 규모가 급증한 것은 멕시코 America

20) 2006-08년 누계 기준.

그림 2-14. 에콰도르 FDI 유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CEPAL(2012b), p. 50.

Movil사와 스페인 Telefonica사의 통신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의 결과였다. 2011년에 대에콰도르 FDI 유입은 2010년에 비해 약 4배 증가한 5억 6,500만 달러에 달했다. 전체 투자의 70% 이상이 천연자원 부문에 대한 투자였다. 2011년에는 정치경제 불안에 따른 투자 환경 악화 속에서도 신규 투자 계획이 연이어 발표되었다. 독일의 Continental사는 1억 400만 달러를 투자해 재생타이어 공장을 건설하고 스위스의 시멘트 기업인 Holcim사도 1억 2,000만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확장할 예정이다. 에콰도르 현지 기업의 인수도 주목된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POSCO는 7,200만 달러에 현지 엔지니어링 업체인 Santos사를 인수했으며, 미국의 ACE사도 5,500만 달러에 과야킬은행(Banco de Guayaquil)을 매입했다.²¹⁾

분야별로 살펴보면 대에콰도르 FDI는 다른 중남미 국가에서와 달리

21) CEPAL(2012b), p.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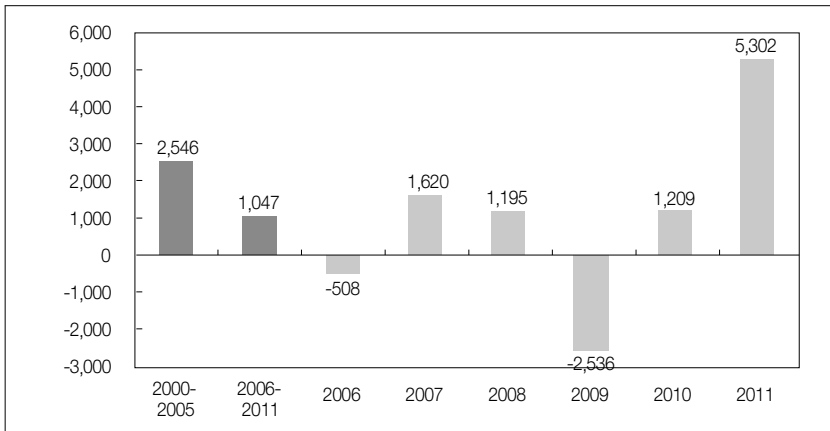
서비스(37.1%), 천연자원(33.2%), 제조업(29.7%) 분야에 고르게 분포되었다. 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 이유는 2008년 스페인과 멕시코 통신사의 대규모 투자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별²²⁾로 에콰도르 FDI는 파나마가 전체 투자의 20.3%(4억 2,000만 달러)를 차지해 가장 컸다. 그 뒤를 캐나다(20.0%), 스페인(15.7%), 중국(14.1%), 베네수엘라(3.5%), 칠레(3.1%) 등이 잇고 있다.

에콰도르에서와 마찬가지로 베네수엘라에 대한 FDI도 2000년대 후기 들어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후기의 FDI 규모는 전기(25억 5,000만 달러)보다 절반 이상 감소한 10억 5,000만 달러에 그쳤다. 특히 후기 들어서 시작된 차베스 정부의 강도 높은 전(全) 산업에 대한 국유화 정책으로 인해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본을 철수함에 따라 FDI는 마이너스를 보이곤 했다.

그림 2-15. 베네수엘라 FDI 유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CEPAL(2012b), p. 51.

22) 2007~11년 누계 기준.

표 2-14. 분야별 대베네수엘라 순FDI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분야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천연자원 | 1,021 | -1958 | -1,728 | -1,163 | 371 | 2,785 | 3,424 |
| 서비스업 | 492 | 358 | 123 | 96 | 52 | 102 | 361 |
| 기타(제조업 포함) | 1,076 | 1,092 | 3,225 | 2,262 | -2,959 | -1,678 | 1,517 |

자료: CEPAL(2012b), p. 54.

투자 환경 악화로 일부 기업들의 탈(脫)베네수엘라 현상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베네수엘라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기업들의 투자는 계속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스페인의 RepsolYPF, 말레이시아의 Petronas, 인도의 Indian Oil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48억 4,800만 달러를 투자해 카라보보(Carabobo) 유전을 인수했다. 이탈리아의 Eni사도 PDVAS와 합작해 석유 생산 및 정제 프로젝트에 진출했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중국의 Great Wall Motors사가 신규 자동차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들어 대베네수엘라 FDI의 두드러진 특징은 신규 투자보다는 현지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재투자나 기업 간 대출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2011년 기준으로 신규 투자는 6억 7,300만 달러가 감소한 반면에 기업 간 대출은 33억 4,500만 달러, 재투자는 26억 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분야별로는 석유 부문에 투자가 집중되었다. 2011년 기준으로 FDI의 65%가 석유 부문에, 나머지 20%는 금융 부문에 투자되었다. 국별²³⁾로는 스페인(8억 5,000만 달러), 네덜란드(2억 7,000만 달러), 파나마(1억 5,000만 달러), 콜롬비아(3,600만 달러)의 투자가 두드러졌다²⁴⁾.

23) 2005~08년 누계 기준.

24) CEPAL(2012b), p. 40.

나. 정치 환경

1) 안데스 3국의 정치 현황

정치적으로 안데스 3국의 공통점은 21세기 사회주의 건설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1년 Corporación Latinobarometro는 중남미 각국 정부를 이념적 성향에 따라 크게 우파, 중도우파, 중도좌파, 좌파, 21세기 사회주의 좌파로 구분했다.²⁵⁾ 21세기 사회주의 좌파에 해당하는 국가는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 안데스 3국 이외에 쿠바와 니카라과가 포함된다. 이념상으로 볼 때 21세기 사회주의 좌파는 좌파 중에서도 가장 급진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1세기 사회주의를 정치적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안데스 3국의 공통점은 정치적 리스크가 높다는 것이다. IHS Global Insight(2012)의 평가에 따르면 안데스 3국 중에서는 볼리비아의 정치리스크가 가장 높아 중남미 및 전 세계 평균 위험도보다 2배 이상 높다. 베네수엘라와 에콰도르의 정치위험도도 볼리비아보다 낮지만 중남미 평균이나 세계 평균보다 2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안데스 3국 중에서는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순으로 정치위험도가 높다.

중남미 국가 중 유독 안데스 3국의 정치리스크가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Global Risk Service를 제공하는 IHS Global Insight의 요인별 정치리스크를 살펴보았다. IHS Global Insight

25) 일부에서는 좌파를 사민주의(온건좌파 혹은 개혁좌파) 세력과 민중주의 세력의 두 유형으로 구분한다. 대체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볼리비아의 모랄레스, 에콰도르의 코레이 정부가 민중주의 좌파(populist left)에 해당한다면,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 파나마의 좌파 정부는 온건 좌파(moderate left)로 분류된다(이성형 2011, p. 15).

표 2-15. 중남미 각국 정부의 이념적 성향(2009~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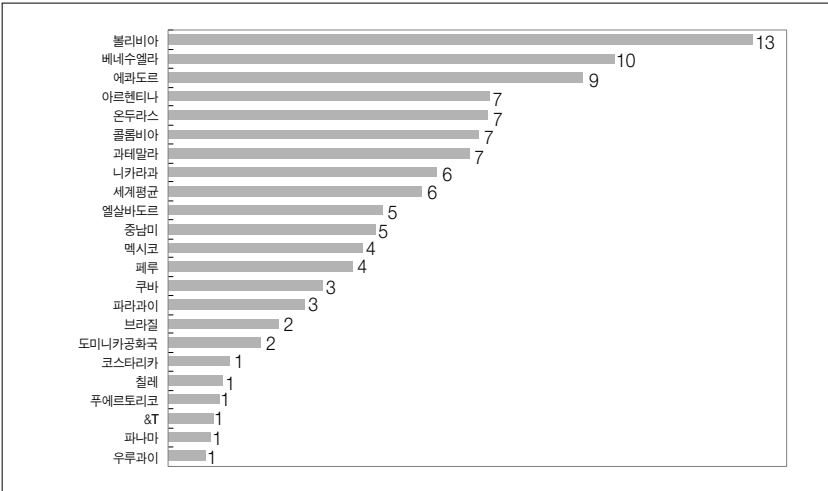
| | 국가 | 대통령 |
|--------------|---------|--------------------|
| 우파 | 파나마 | Ricardo Martinelli |
| 중도우파 | 칠레 | Sebastian Pinera |
| | 콜롬비아 | Juan Manuel Santos |
| | 코스타리카 | Laura Chinchilla |
| | 온두라스 | Profirio Lobo |
| | 멕시코 | Felipe Calderon |
| | 페루 | Alan Garcia |
| | 도미니카공화국 | Leonel Fernandez |
| 중도좌파 | 브라질 | Dilma Rouseff |
| | 엘살바도르 | Mauricio Funes |
| | 과테말라 | Alvaro Colom |
| | 파라과이 | Fernando Lugo |
| | 페루 | Ollanta Humala |
| | 우루과이 | Jose Mujica |
| 좌파 | 아르헨티나 | Cristina Kirchner |
| 21세기 사회주의 좌파 | 볼리비아 | Evo Morales |
| | 쿠바 | Raul Castro |
| | 에콰도르 | Rafael Correa |
| | 니카라과 | Daniel Ortega |
| | 베네수엘라 | Hugo Chavez |

자료: Corporacion Latinobarometro(2011), p. 13.

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정치리스크는 크게 대내 리스크와 대외 리스크로 분류된다. 여기서는 주로 군사쿠데타, 반란, 정치테러, 정치인 암살, 내전, 도시폭동, 노동파업, 외국인 납치, 정부 불안정, 정부의 비효율성, 제도적 실패 등 대내 리스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²⁶⁾

26) 정부의 불안정(government instability)은 고위직 공무원의 교체율 증가, 정부의 비효율성(government ineffectiveness)은 공무원 인력 수준의 질적 저하, 제도적 실패(institutional failure)는 제도적 경직성이나 마비로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의 능력 약화를 의미한다.

그림 2-16. 안데스 3국의 정치리스크 비교



주: 리스크 척도는 100~0으로 100은 고위험, 0은 저위험을 의미.

자료: IHS Global Insight(2012), "Global Risk Service," 3rd Quarter 2012, www.ihs.com(2012. 8. 10).

그 결과 국가마다 리스크 요인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먼저 중남미 국가 중 정치리스크가 가장 높은 볼리비아의 경우 도시폭동, 노동파업, 정부 불안정, 정부의 비효율성, 제도적 실패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에콰도르의 정치리스크 요인도 볼리비아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에콰도르의 경우 반란 및 정치 테러 가능성이 볼리비아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에 반해 베네수엘라의 경우 정부의 비효율성과 제도적 실패가 중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밝혀졌다.

안데스 3국 모두에서 정치적 불안이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된다. 먼저 안데스 3국 정부가 모두 21세기 사회주의를 선언하고 국가주도의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여전히 시장경제에 대해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안데스 3국 중에서는 에콰도르에서 시장경제에 대한 지지율(63%)이 가장 높게 나타

그림 2-17. 안데스 3국의 요인별 정치리스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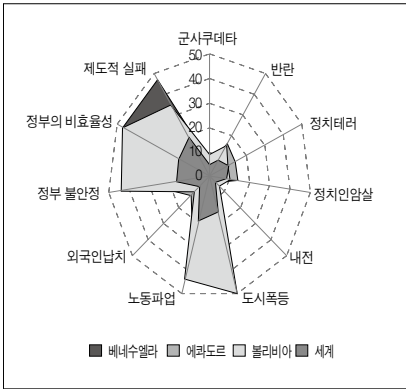


그림 2-18. 볼리비아의 요인별 정치리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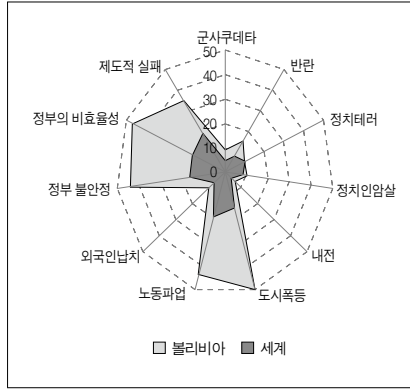


그림 2-19. 에콰도르의 요인별 정치리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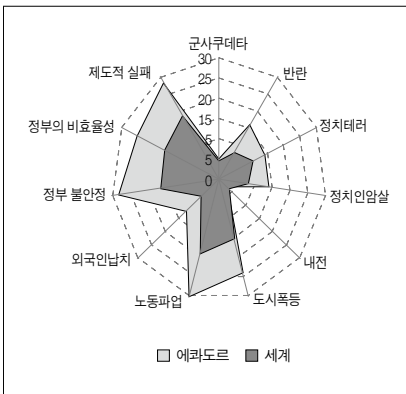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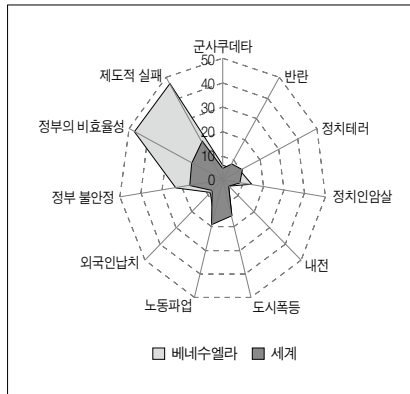


그림 2-20. 베네수엘라의 요인별 정치리스크



자료: IHS Global Insight(2012), "Global Risk Service," 3rd Quarter 2012, www.ihs.com(2012, 8, 10).

났다. 이는 그만큼 정부가 국가 주도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데 거센 국민적 저항을 맞을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베네수엘라에서도 시장경제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은 56%로 높게 조사되었다. 3국 중에서는 볼리비아에서 지지율이 가장 낮았으나 그 비율은 53%로 과반수를 넘었다.

그림 2-21. 중남미 각국의 시장경제에 대한 지지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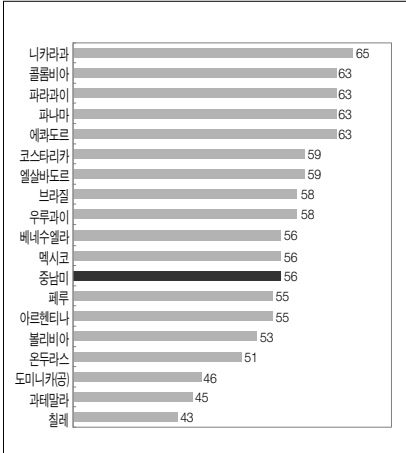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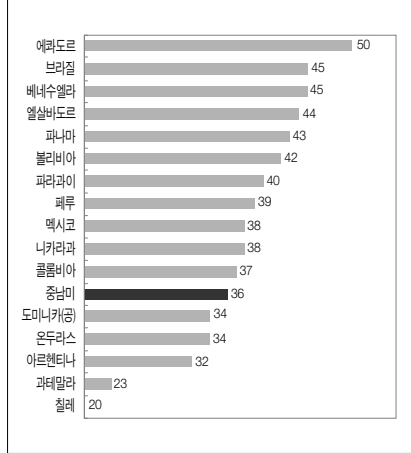


그림 2-22. 중남미 각국의 민영화에 대한 지지율

(단위: %)



자료: Corporacion Latinobarometro(2011), p. 85, p. 87.

둘째, 안데스 3국 모두 정당정치가 취약해 사회운동이나 개인적 리더십이 정치적 공백을 메우고 있는 점도 정치 불안의 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볼리비아의 경우 사회운동과 모랄레스 대통령의 리더십이 주요 정치 동력이다. 에콰도르에서도 코레아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과 볼리비아에서보다 다소 약하지만 사회운동이 정치향방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다. 그에 반해 베네수엘라에서는 정치세력으로서 사회운동의 역할이 약한 반면, 대통령의 리더십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한다. 3국 모두에서 전반적인 정당정치가 취약한 가운데 야당의 이념적 분열에 따른 결집력 부족, 현 정부의 야당 분열 정책 등으로 현 대통령에 대한 대항마가 뚜렷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표 2-16. 중남미 각국의 정치적 대표의 형태

| 국가 | 정치적 대표의 형태 | | |
|-------|------------|------|---------|
| | 정당 | 사회운동 | 개인적 리더십 |
| 브라질 | 상 | 중하 | 중 |
| 아르헨티나 | 중 | 중 | 상 |
| 칠레 | 상 | 하 | 하 |
| 우루과이 | 상 | 상 | 하 |
| 베네수엘라 | 하 | 하중 | 상 |
| 볼리비아 | 하 | 상 | 상 |
| 에콰도르 | 하 | 중 | 상 |

자료: Panizza(2009), p. 193, 재인용: 이성형(2011), p. 18.

2) 안데스 3국의 정치 전망

가) 볼리비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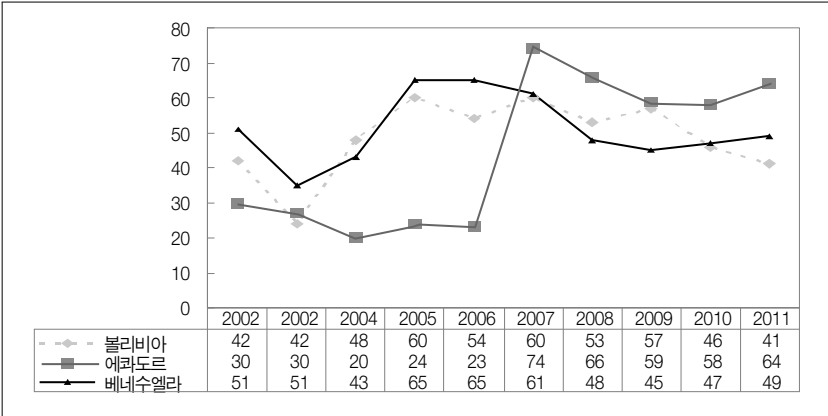
2012년 8월 현재 모랄레스 대통령의 지지율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 증가로 집권 1기의 60%를 크게 하회하는 41% 수준에 그치고 있다.²⁷⁾ 그러나 과거와 같이 이러한 불만 때문에 모랄레스 정부가 실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재정수지 및 대외수지 흑자에 힘입은 풍부한 재정을 바탕으로 정치사회적 불만을 잠재울 만한 충분한 여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모랄레스 대통령은 여당 소속 주정부 및 시정부의 강력한 지지는 물론 일부 충성도가 높은 사회운동 및 노조의 정치적 후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Tipnis²⁸⁾ 사태와 같이 특정 이슈가 폭넓은 지지를 받을 경

27) Consulta Mitofsky(2012), “Aprobación de Mandatarios: América y El Mundo,” p. 8. (Septiembre)

28) 볼리비아 정부는 브라질의 지원을 받아 북부 베니 주에서 남부 코차밤바 주를 잇는 306 km 길이의 도로를 건설하고 있다. 이 도로의 중간 177km 구간이 티프니스(Tipnis) 원주민 보호구역을 포함하는 이시보로 세쿠레(Isiboro Secure) 국립공원을 지난다. 원주민들은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국립공원의 자연이 훼손될 뿐 아니라 자신들의 거주지를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1년 8월부터 시위를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원주민 시

그림 2-23. 안데스 3국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

(단위: %)



자료: Corporacion Latinobarometro(2011), p. 23을 토대로 저자 작성.

우 혹은 모랄레스 정부가 시위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할 경우 이는 보다 조직적이며 불안한 시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또한 여당의 분열을 초래하여 2104년 대선에서 거대 야권세력의 출현을 가져오는 등 정치적 위기로 비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나리오의 발생 가능성은 아직까지 다소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차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2014년 12월 동시에 열린다. 아직까지는 사분오열된 야당이 합세해 모랄레스 대통령에 대항해 단일 대선후보를 낼 가능성은 희박하다. 현재 대부분의 야당은 이념적·지역적 관심사가 다양해 전국적인 지지 기반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야당 정치인은 모랄레스 대통령의 사정작업으로

위대 간에 유혈충돌이 벌어지는 등 반발이 격화하자 예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급기야 2011년 9월 공사 중단을 선언했다(김재순 2011, 『볼리비아 모랄레스 대통령 정치적 위기』, 『연합뉴스』(10월 1일),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1/10/01/0607000000AKR20111001003800094.HTML?audio=Y>, 검색일자: 2012. 8. 5).

현재 사법상의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야당 인사 중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는 전 라파스 시장 출신의 후안 델 그라나도(Juan del Granado) 정도다.

3선 출마를 위해 모랄레스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개헌이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대법관이 친모랄레스 계 인사로 구성되어 있어 개헌을 통한 3선 출마는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 정부의 개혁과제 지연에 따른 점증하는 국민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경제성장과 강력한 대항마의 부재로 2014년 대선에서 모랄레스 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다. 하지만 야당이 여당인 MAS의 응집력 약화를 기회로 의회와 지방에서 전반적인 입지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야당이 2014년 지방 및 의원선거에서 공동 전선을 펼칠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

나) 에콰도르

에콰도르는 전통적으로 해안지역과 고원지역 간의 갈등, 인종적·이념적 대립 등으로 정치적·사회적으로 심한 분열을 겪어왔다. 이러한 만성적인 정치사회적 갈등과 대립은 에콰도르 정치 불안의 주요 원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강력한 지지를 기반으로 2007년 집권한 코레아 대통령은 그간 강력한 정치적 카리스마와 정책 추진력에 힘입어 분열된 에콰도르를 결집시키는 데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코레아 대통령은 제헌의회 구성, 신헌법 제정 등을 관철시켰으며 2009년 5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재선에 성공했다.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상황 악화로 신헌법 제정 시 공약했던 여러 정책의 추진이 지연되면서 지지도가 하락하고는 있지

만 야권의 결속력 부족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인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임기 말인 2013년 4월까지 국정 운영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2월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서도 코레아 대통령의 당선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코레아 대통령의 3선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는 야당의 결속력이다. 현재 에콰도르에서 야당은 이념적으로 사분오열되어 있어 코레아 대통령에 대해 단일 후보를 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야권의 대통령 후보로 유력시되고 있는 인사는 은행가 출신의 기에르모 라소(Guillermo Lasso), 유명한 기업인이며 전 대통령 후보였던 알바로 노보아(Alvaro Novoa) 등이다. 그러나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전국적인 지지 기반을 갖고 있지 못하다. 전 대통령 루시오 구티에레스(Lucio Gutiérrez)가 아마존 지역을 기반으로 전국적인 지명도와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으나 대통령 재임(2003~05년) 시 부정부패 혐의로 재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밖에 사회경제개혁 지연, 불안한 치안 상황, 언론자유 침해 등 헌법권리 침해를 둘러싼 자유주의 세력의 불만 증가, 석유 및 광물 개발과 관련된 환경 문제에 대한 원주민과의 대립 심화 등이 코레아 대통령의 대선 가도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다.

다)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에서는 2012년 10월 7일 개최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차베스 대통령의 건강 악화였다. 2012년 베네수엘라의 대선 구도는 현 차베스 대통령과 통합야권 후보인 카프릴레스(Henrique Capriles)의 2파전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

러나 많은 정치 전문가들은 두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베네수엘라 정국은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차베스 대통령의 건강상의 문제 때문이었다. 차베스 대통령은 암이 완치되어 건강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많은 전문가들은 당선 이후에도 여전히 차베스 대통령의 건강이 주요 정치변수가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기에 주저하지 않았다.

이번 선거는 차베스 대통령의 건강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변화에 대한 점증하는 국민의 열망으로 인해 차베스 대통령에게 가장 어려운 선거였다. 야당의 대선 후보인 카프릴레스가 300만 명이 참석한 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승리하고 야당이 단일후보를 내는 데 성공함에 따라 지난 선거에서와는 달리 야권의 집권 가능성이 높았다.

실제로 이번 대선에서 차베스 대통령과 2위인 카프릴레스 후보 간의 득표율 격차는 역대 선거 중 가장 작았다. 차베스가 55.3%의 득표율을 올리는데 그친 반면 카프릴레스의 득표율은 44.1%를 기록해 득표율 차는 11.2%에 불과했다. 과거 대선과 비교해 차베스 대통령이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한 이유는 최근 경제·사회적인 문제로 중상류층을 중심으로 반 차베스 세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2-17. 역대 차베스 대통령 대선 득표율과 득표율 차

| | 1998 | 2000 | 2006 | 2012 |
|-------------------|------|------|------|------|
| 전체 투표율 | 63.5 | 56.4 | 74.7 | 80.7 |
| 차베스 득표율 | 56.2 | 59.8 | 62.9 | 55.3 |
| 2위와의 득표율 차 | 12.4 | 22.2 | 25.9 | 11.1 |
| 전체 유권자 중 차베스의 득표율 | 33.4 | 32.1 | 46.3 | 43.7 |

자료: El Universal(www.eluniversal.com), 재인용: 임태균(2012), p. 4.

이번 대선에서 승리함으로써 차베스 대통령은 14년에 걸친 장기 집권을 2019년까지 20년으로 연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차베스 대통령의 정치적 앞날은 점증하는 정치·사회적 대립으로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치안 악화, 보건·교육·주택·전력공급 개선 약속 이행의 지연에 따른 국민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제3장 안데스 3국의 국가개발계획과 유망 협력 분야

1. 볼리비아: 정부프로그램
2. 에콰도르: 국가개발계획
3. 베네수엘라: 시몬 볼리바르 국가계획
4. 유망 협력 분야



1. 볼리비아: 정부프로그램 (Programa de Gobierno 2010-2015)

가. 수립 배경

볼리비아 정부의 진단에 따르면 현재 자본주의는 금융위기, 기후위기, 에너지위기, 식량위기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볼리비아 정부는 이 같은 위기의 주요 원인을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경제모델에서 찾고 있다.²⁹⁾

21세기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볼리비아는 이 같은 자본주의 위기 탈출을 위해 ‘경제·사회·공동체·생산모델’이라는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한다. 볼리비아가 지향하는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은 복합경제(Economía Plural)에 근간을 둔다. 복합경제에서는 국가, 민간 부문, 조합 및 공동체 등 4개의 행위자가 주체가 된다.³⁰⁾

한편 새로운 발전 모델은 2개의 축에 기반한다. 먼저 경제적 잉여를 창출하는 전략 부문이다. 탄화수소, 광물, 전력 및 환경자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 소득과 고용을 창출하는 부문이다. 제조업, 관광업, 주택, 농목축 개발 등이 주요 대상이다. 여기서 국가는 전략 부문에서 창출된 경제적 잉여를 소득과 고용을 창출하는 부문에 재분배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³¹⁾

모랄레스 정부는 새로운 발전 모델인 경제·사회·공동체·생산모델을 실현하기 위해 2006년부터 국가개발계획, 정부프로그램 등을 수립해

29) Ministerio de Economía y Finanzas Públicas(2011), pp. 4-5.

30) Ministerio de Economía y Finanzas Públicas(2011), p. 12.

31) Ministerio de Economía y Finanzas Públicas(2011), p. 7.

추진해오고 있다.

나. 주요 내용

1) 모랄레스 1기 정부의 국가개발계획

모랄레스 대통령은 2007년 9월 국가개발계획(PND: Plan Nacional de Desarrollo 2006-2011)을 공식적으로 발표³²⁾했다. 국가개발계획은 기본적으로 모랄레스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사회·공동체·생산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담았다.

특히 국가개발계획은 단합되고 위대하며 잘사는 볼리비아를 건설하기 위해 ① 민주적이고 자율적이며 다민족에 기반한 볼리비아(정치개혁), ② 생산적인 볼리비아(경제정책), ③ 존엄한 볼리비아(사회정책), ④ 주권있는 볼리비아(대외정책) 등 네 개의 정책을 설정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모랄레스 정부 1기의 국가개발계획은 국가 재건을 위한 헌법 개정, 천연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산업의 국유화, 에너지와 원자재 등 일차산품 의존 경제구조 혁신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³³⁾

볼리비아는 지난 6년간 국가개발계획을 통해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루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국가개발계획의 4가지 정책 영역에서 그 성과는 상이했다.

무역수지 흑자 달성, 외환보유고 증가 등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는 성과가 높았다는 평가다. 하지만 향후 이러한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32) PND의 임시 버전은 2006년 6월 공개되었다.

33) 관계부처 합동(2011), 『볼리비아 국별협력전략 2012-2015』, p. 33.

표 3-1. 볼리비아 국가개발계획(PND)의 기본정책 방향 및 세부목표

| 기본정책 방향 | 세부목표 |
|---------------------------------------|--|
| 1. 민주적인 볼리비아 (Bolivia Democrática) | ① 정치, 경제, 사회분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참여 민주주의 강화 ② 원주민으로 대표되는 소외계층의 권리 및 정치 참여 확대 ③ 사회운동, 시민조직과 공동체에 기반한 새로운 정부 형성 ④ 제도적인 역량 강화, 반부패 정책 강화 |
| 2. 생산적인 볼리비아 (Bolivia Productiva) | ① 전략 분야(천연가스, 광업, 전력에너지, 환경자원)에서 정부의 역할 강화 ② 생산 부문(농·목축업, 관광, 제조업, 주거)과 생산인프라(교통, 통신, 생산서비스) 분야에 투자 유치 ③ 안정적인 고용 창출 ④ 내수와 수출을 위한 생산성 증대 ⑤ 일차산업 중심의 경제발전동력 변화(산업화, 경제구조 혁신) ⑥ 부의 형평성 있는 분배를 위한 경제정책 추진 |
| 3. 존엄한 볼리비아 (Bolivia Digna) | ① 식민시대의 경제사회구조와 연관된 지속적인 불평등과 소외계층의 축소를 위한 부와 기회(고용) 창출 ② 보건서비스 접근성 강화 ③ 사회보장 프로그램(Bono Juancito Pinto, Renta Dignidad, Bono Juana Azurduy 등)과 문맹퇴치 프로그램 개선 ④ 식수 접근성 강화 |
| 4. 주권 있는 볼리비아 (Bolivia Soberana) | ① 국가주권과 정체성 강화 ②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 및 생물 다양성 보호 ③ 해상 진출로 확보 및 안정적인 수출시장인 칠레 등 중남미 국가 및 역내 통합체와의 국제적인 연대 강화 ④ 코카 재배 지역의 부활과 코카의 전통성 및 문화적인 가치에 대한 홍보 강화 |

자료: Estado Plurinacional de Bolivia(2009), *Programa de Gobierno MAS-IPSP 2010-2015*, pp. 51-54; 관계부처 합동(2011), 『볼리비아 국별협력전략 2012-2015 2차 초안』, pp. 34~35에서 인용.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산업구조 혁신, 생산성 증대, 고용 창출과 더불어 소득 불균등 완화를 위한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문맹 퇴치나 보건 분야에서도 성과가 비교적 양호했다는 평가다.

광업, 천연가스 등 전략산업의 국유화 정책은 성공적이었고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정책과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재원 확보에 매우 유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원주민을 중심으로 한 현 정부의 개혁에 대해 기존 엘리트 및 중산층이 반발하는 등 지역 간, 계층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다양한 사회계층 간 합의를 통해 안정된 정치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지적을 받았다.

2) 모랄레스 2기 정부의 국가개발계획

가) 배경

2010년 출범한 모랄레스 2기 정부는 향후 6년간 볼리비아의 정치·경제·사회 발전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담은 새로운 국가개발계획을 발표했다. 개발계획의 명칭은 1기 정부시기 발표한 국가개발계획(PND)과는 달리 정부 프로그램(Programa de Gobierno del MAS-IPSP 2010-2015)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기본적으로 정부 프로그램은 1기 정부 때 실시한 국가개발계획의 정책 기초를 유지하되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³⁴⁾

정부 프로그램 서문에서는 2006년 집권한 모랄레스 대통령이 제헌의회 소집, 신헌법 제정, 천연자원 국유화, 지방의 자율성 확보, 문맹 종식, 토지 재분배 등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정부 프로그램은 국가개발계획을 통해 1기 정부에서 거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볼리비아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³⁵⁾

국가개발계획의 모토도 바뀌었다. 1기 정부에서는 “잘 살아보자(Vivir Bien)”가 모토였다면 2기 정부에서는 “볼리비아를 전 세계 리더 국가로 바꾸자(avanzar el Proceso de Cambio para llevar a Bolivia a ser un Pais Lider)”는 게 모토다.³⁶⁾

34) Estado Plurinacional de Bolivia(2009), p. 11.

35) Estado Plurinacional de Bolivia(2009), p. 11.

표 3-2. 볼리비아 정부 프로그램의 30개 실천 방안

| 목표 | 실천 방안 |
|----------------------|---|
| 신헌법을 통해 통일된 조국 | 1. 신헌법을 통해 새롭게 탄생한 국가 2. 다민족 국가 및 복수경제 3. 신헌법 적용을 위한 100개 법안 제정 4. 자율적인 국가: 주별, 지역별 자율성 확보 |
| 위성시대의 위대한 산업조국 | 5. 산업대도약: 가스, 철강, 리튬 및 국영기업 육성 6. 볼리비아 최초의 통신위성(Tupak Katari) 발사 및 운영 7. 고속도로 및 교량 건설을 통한 국가 통합 8. 철도 및 공항 건설 9. 대서양과 연계되는 수로 건설(Mutun-Puerto Bush 수로) 10. 국내외 시장을 겨냥한 에너지 생산 확대 |
| 생산과 고용 확대를 통한 강력한 조국 | 11. 농업 생산 확대: 식량안보 확보 12. 국영농업회사(EMAPA)를 통해 공정가격으로 식량 공급 13. Made in Bolivia 생산 확대 14. 농업개혁: 토지개혁, 식량주권 및 식량안보 확보 15. 교육개혁: 포용적, 민주적, 상호문화적, 생산적 및 공동체적 성격의 교육 개혁 16. 양적·질적 고용 확대 17. 모든 국가 생산활동 분야에 자금을 지원하는 생산개발기금(Fondo de Desarrollo Productivo) 설립 |
| 모두를 위한 안전한 조국 | 18. 빈곤퇴치: 국민층 퇴치계획(Plan Vida) 추진 19. 소득 재분배 정책: 기초교육지원(Juancito Pinto), 보편적 연금혜택(Renta Dignidad), 어린이 및 산모 사망률 감소(Juana Azurduy) 20. 보편적 건강보험제도 도입 21. 국가주택정책 추진 22. 전 국민에게 상수도, 전력, 가스, 통신 등 기초서비스 제공 23. 국가의료산업 육성 24. 시민안전계획 수립 25. 문화산업 육성 및 문화 보호 |
| 자긍심과 품위를 갖춘 자유로운 조국 | 26. 부정부패 척결: 부정부패가 전무한 투명한 국가 건설 27. 마약 퇴치 28. 국제무대에서 볼리비아의 위상 강화 29. 관광산업 육성: 국가관광계획(PLANTUR) 추진 30. 해외동포 보호 |

자료: Estado Plurinacional de Bolivia(2009), pp. 58-157 내용 정리.

정부 프로그램은 크게 5개의 목표와 30개 실천 방안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5개의 목표는 1기 정부 시절 국가개발계획의 4개 축, 즉 민주적인

36) Estado Plurinacional de Bolivia(2009), p. 11.

볼리비아(Bolivia Democrática), 생산적인 볼리비아(Bolivia Productiva), 품위 있는 볼리비아(Bolivia Digna), 독립적인 볼리비아(Bolivia Soberana)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민주적인 볼리비아는 신헌법을 통해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자는 목표와 일치한다. 둘째, 생산적인 볼리비아는 위성시대의 위대한 산업조국 건설, 생산과 고용확대를 통한 강력한 조국 건설과 맥을 같이한다. 셋째, 존엄한 볼리비아는 모두를 위한 안전한 조국 건설과 목표를 같이한다. 마지막으로 주권을 가진 볼리비아는 자긍심과 품위를 갖춘 자유로운 조국 건설과 목표가 부합한다.

나) 주요 개발계획

여기서는 정부 프로그램의 개발계획을 모두 소개하기보다는 우리나라와의 협력 가능성이 높은 개발계획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소개하기로 한다.

(1) 산업대도약

2006년 집권 이후 모랄레스 정부가 추진해오고 있는 신경제모델, 즉 국가생산모델의 핵심은 볼리비아를 일차산품 수출국에서 산업화 국가로 변모시키는 것이다.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모랄레스 정부는 일차적으로 2006년 5월 1일 탄화수소 산업의 국유화를 단행했다. 제헌의회를 소집해 재생 및 비재생 에너지 자원의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법적인 절차도 마무리했다.

일련의 국유화 조치를 성공적으로 마친 모랄레스 정부는 본격적인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산업대도약(Gran Salto Industrial) 계획을 발

표했다. 정부는 2개의 축으로 나누어 산업대도약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첫 번째 축은 천연가스, 리튬, 철, 시멘트 산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산업화 프로그램 추진이다. 그에 반해 두 번째 축은 중소 규모 산업 프로젝트 추진이다. 커뮤니티, 조합 및 지방산업단지 등에서 농목축 생산(우유, 과일, 구연산 등)의 산업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개의 중소 규모의 공장을 건설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³⁷⁾

먼저 정부의 탄화수소 정책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다. 1단계 정책은 2006년 5월 1일 실시한 탄화수소 국유화정책이다. 이 조치로 볼리비아 국영석유회사인 YPFB(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는 천연가스 개발 관련 모든 협상과 생산네트워크를 통제하게 되었다.³⁸⁾

1단계 정책에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2단계 정책은 국가탄화수소정책(Política Estatal de Hidrocarburos)이다. 2단계 정책의 방향은 크게 탄화수소 매장량 확대, 탄화수소 개발 확대로 대별된다. 정부는 2010~15년 중 YPFB와 전략적 파트너 간 혼합회사(Sociedades de Economía Mixta) 설립을 통해 탄화수소 매장량을 50%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천연가스 생산량을 4,100만m³에서 7,000만m³로 확대하기 위해 기존 광구를 개발할 계획이다.³⁹⁾

37) Estado Plurinacional de Bolivia(2009), pp. 73-74.

38) Estado Plurinacional de Bolivia(2009), p. 74.

39) Estado Plurinacional de Bolivia(2009), p. 74.

표 3-3. 볼리비아의 탄화수소 개발 관련 주요 프로젝트

| 프로젝트 명 | 주요 내용 |
|--|--|
| 에코디젤(GTL) 산업화프로젝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수요 및 수출을 위해 GTL(천연가스 액화기술) 공장 건설 - 일일 생산량은 1만 5,000배럴로 Tarja 주 Gran Chaco에 건설 - 연간 2억 달러의 디젤 수입 절약 - 남미 첫 GTL 공장 |
| 암모니아 및 요소 생산을 위한 석유화학 공장 설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물비료 사용 확대를 통해 농산물의 질 및 생산성 제고 도모 - 현재 볼리비아에서 톤당 750달러인 요소를 250~290달러에 제공 - 연간 암모니아와 요소 생산량: 70만 톤 - 석유화학공장 건설지역: Cochabamba의 Carrasco |
| 메탄올 공장 설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가스를 활용한 사업의 일환 - 국내 수요 충족을 위해 Tarja의 Villamontes에 대규모 메탄올 공장 설립 |
| 폴리에틸렌 생산을 위한 석유화학단지 건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탄올 추출 공장, 에틸렌 생산 공장, 폴리에틸렌 생산 공장, 서비스 단지로 구성된 석유화학단지 건설 - 저밀도 및 고밀도 폴리에틸렌 생산 |
| PVC 주택(Petrocasas) 생산 공장 설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PVC를 주요 원료로 하는 주택 건설 - PVC는 탄화수소의 산업화를 통해 조달 - PVC 주택 생산공장은 오루로(Oruro) 주 카라코요(Caracollo) 지역에 건설. 1일 생산 능력은 20채 - 총 투자액: 8,000만 달러 - YPFB Corporativa-PEQUIVEN(베네수엘라 국영석유화학회사) 간 혼합기업 (Sociedad Anónima Mixta) 설립 통해 추진 |
| 탄화수소 연구·기술혁신센터 (CITH: Centro de Investigación e innovación Tecnológica en Hidrocarburo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 목적: 연구 및 기술개발, 탄화수소 산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기술서비스 제공 - 주요 활동: 과학적 조사, 기술혁신, 탐사, 개발, 수송, 정제 및 석유화학 등 탄화수소의 모든 가치사슬 활동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자료: Estado Plurinacional de Bolivia(2009), pp. 74-82 내용 정리.

국가탄화수소정책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는 국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천연가스의 산업화다. 이의 일환으로 YPFB는 서부지역에서 실시되는 모든 중·대규모 산업화프로젝트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대규모 가스공급계획(Plan de Abastecimiento Másivo de Gas)’을 수립했다. 이 계획의 실시로 리튬, 시멘트, 농가공 식품산업 등은 산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게 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천연가스 사용의 대중화를 위해 국가천연가스공급계획

(Plan Nacional de Suministro de Gas Natural por Redes), 국가차량연료 전환계획(Plan Nacional de Conversiones de Vehículos)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천연가스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는 2010년부터 연간 1억 2,400만 달러를 투자해오고 있다. 차량연료전환계획은 액화가스차량을 천연가스차량(Gas Natural Vehicular)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천연가스 이용 차량은 연간 30만 대에 달할 전망이다.⁴⁰⁾

또한 볼리비아 정부는 2010~15년 중 국영정유회사인 YPFB Refinación S.A.의 일일 정제 능력을 4만 3,400배럴에서 9만 5,800배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약 3억 3,800만 달러를 투자해 일일 3만~4만 배럴의 정제 능력을 갖춘 정유공장(Unidad de Topping)을 신규로 건설할 방침이다.⁴¹⁾

(2) 국영시멘트기업 설립

볼리비아 정부는 대규모 공공투자로 급증하는 시멘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영시멘트 공장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볼리비아에서 시멘트 공급은 일부 민간기업이 독점하고 있다.

새롭게 설립될 볼리비아시멘트회사(ECEBOL: Empresa de Cementos Bolivia)의 투자금액은 2억 5,000만 달러, 직접고용은 450명, 간접고용은 3,000명으로 2013년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연간 생산 능력은 70만 톤에 달할 전망이다. 시멘트의 원료인 석회암은 오루로와 포토시에서 조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영시멘트회사 설립으로 볼리비아 전체에서 시멘트

40) Estado Plurinacional de Bolivia(2009), p. 75.

41) Estado Plurinacional de Bolivia(2009), p. 75.

생산이 연간 35~4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⁴²⁾

(3) 위성 및 통신산업 육성

볼리비아 헌법 20조는 “모든 국민은 보편적이며 평등하게 통신에 접근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볼리비아 국민은 통신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다. 특히 국경지대에 살고 있는 국민은 이러한 통신 서비스에서 더욱 소외되어 있다.⁴³⁾

모랄레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위성프로그램(Programa Satelital Nacional)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볼리비아 자체의 통신위성인 투팍 카타리(Tupac Katari) 위성을 개발·운영, 볼리비아 전 국민에게 평등하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Tupac Katari 위성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볼리비아 우주청(Agencia Espacial Boliviana)을 설립했다.⁴⁴⁾

이번 통신위성 개발에 성공하면 볼리비아는 중남미 국가 중 자체 위성을 갖는 다섯 번째 국가가 된다. 현재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베네수엘라만이 자체 위성을 갖고 있다.⁴⁵⁾

(4) 고속도로 및 교량 건설

볼리비아의 도로 길이는 총 6만 7,000km에 달한다. 이 중 23%는 볼리

42) Estado Plurinacional de Bolivia(2009), pp. 89-90.

43) Estado Plurinacional de Bolivia(2009), p. 90.

44) Estado Plurinacional de Bolivia(2009), pp. 90-91.

45) Estado Plurinacional de Bolivia(2009), p. 90.

비아도로청(ABC)이 관리하는 국도(Red Vial Fundamental)이며 26%는 주정부 관할 주도, 나머지 51%는 시정부 관할 지방도로이다.⁴⁶⁾

2006년 취임 후 모랄레스 대통령은 도로 개선 및 복구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 2006년 이전 연평균 도로 건설 길이는 113km에 불과했으나 모랄레스 정부 들어서는 276km로 두 배 이상 늘었다.⁴⁷⁾

모랄레스 1기 정부에서의 도로 건설 성과에도 불구하고 볼리비아의 도로 인프라는 여전히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 인식하에 모랄레스 정부는 ‘도로 대혁명(Gran Revolución Vial)’ 프로젝트라는 기치를 내걸고 다섯 개의 대단위 회랑 건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⁴⁸⁾

표 3-4. 볼리비아의 도로 프로젝트 계획

| | 프로젝트 명 | 주요 내용 |
|--------|-----------------------------|---|
| 회랑 I | 동-서 프로젝트 (볼리바-브라질-칠레 통합) | - 대서양과 태평양 연계 - 볼리비아 사회경제적 물류의 70%가 이 축을 통해 움직임. - 주요 수송품: 대두 |
| 회랑 II | 북-남 프로젝트 | - Transchaco 노선을 통해 볼리비아 중서부와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연결 - 주요 수송품: 농목축 제품 및 천연가스 |
| 회랑 III | 서-북 프로젝트 | - 페루와 칠레의 항구를 통해 볼리비아와 브라질 북부 연계 - 농산물 목축이 풍부한 지역 통합 |
| 회랑 IV | 서-남 프로젝트 | - 볼리비아 중서부와 남부 연계 - 대아르헨티나 대외교역 노선 - 주요 수송품: 광물, 천연가스, 농산물 및 축산물 |
| 회랑 V | 중부-남부 프로젝트 | - Libertadores 노선을 통해 볼리비아 남부 중심과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연계 - 주요 수송품: 농목축 제품 및 천연가스 |

자료: Estado Plurinacional de Bolivia(2009), pp. 92-94 내용 정리.

46) Estado Plurinacional de Bolivia(2009), p. 92.

47) 대표적으로 라파스-베니를 잇는 111개 교량, Diagonal Jaime Mendoza에 5개 교량, 전장 1.5km의 Puente Pailas(Santa Cruz) 교량 건설 등을 들 수 있다.

48) Estado Plurinacional de Bolivia(2009), pp. 92-94.

(5) 철도 건설 계획

철도는 환경에 대한 피해가 적고, 에너지 소비량도 작으며, 안전도도 높아 대규모로 화물과 승객을 수송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볼리비아 정부는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볼리비아 정부는 낙후된 국가철도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복구·현대화하는 한편 동부와 서부지역 연계 철도 건설, 대서양과 태평양 철도 회랑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⁴⁹⁾

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종합철도시스템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코차밤바(Cochabamba) - 산타크루스(Santa Cruz) 간 노선 연결, 대서양-태평양 연결 신철도회랑 건설, 모투쿠시토(Motucusito)-무툰(Mutun) 노선 건설, 엘알토(El Alto)-오루로(Oruro)간 고속철 건설, 도시 중심부와 근교 연결 철도 건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⁵⁰⁾

표 3-5. 볼리비아의 철도 건설 계획

| 주요 계획 | 주요 내용 |
|---------------------------------------|---|
| 대서양-태평양 연결 신철도회랑 건설 | 수아레스 항구(Puerto Suárez)에서 칠레의 아리카나 안토파가스타까지 연계하는 철도 건설, Mutun에서 생산되는 제품 수송 |
| 모투쿠시토(Motucusito)-무툰 (Mutun) 노선 건설 | 무툰에서 생산되는 철강을 수송하거나 브라질산 혹은 브라질로 수송하는 소형 철도노선 건설 |
| 엘알토(El Alto)-오루로(Oruro) 간 고속철 건설 | 2개의 중요한 도시 연결 |
| 도시 중심부와 근교 연결 철도 건설 | 공공교통의 점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 중심부와 근교를 연계하는 철도 건설. 주요 지역은 La Paz-El Alto, Cochabamba-Quillacollo 등 이를 위해 볼리비아철도공사(EBF: Empresa Boliviana de Ferrocarriles) 창설 |

자료: Estado Plurinacional de Bolivia(2009), pp. 96-97 내용 정리.

49) Estado Plurinacional de Bolivia(2009), p. 95.

50) Estado Plurinacional de Bolivia(2009), pp. 96-97.

(6) 공항 건설 및 현대화 프로그램

2005년 이후 볼리비아에서 항공산업은 100% 이상 성장했다. 항공기 등록 대수는 2005년 197대에서 2008년 492대로 증가했으며, 항공기 이용객 수도 같은 기간 86만 명에서 116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항공 시장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공항 사정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현재 볼리비아에는 37개의 국영 공항이 있는데, 이중 14개 공항만이 정기적으로 운영⁵¹⁾되고 있다. 한편 볼리비아 정부는 독점 상태에 있는 항공시장을 타개하기 위해 2007년 국영항공사(BOA: Boliviana de Aviación)를 새롭게 설립했다.⁵²⁾

볼리비아 정부의 공항 현대화 사업은 우선 레이더 시스템 도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정부는 비루비루(Viru Viru), 엘알토(El Alto), 트리니다드(Trinidad) 공항에 1억 달러의 예산을 투자해 레이더 시스템을 설치해 볼리비아 영공의 운항을 통제한다는 계획이다.⁵³⁾

둘째, 디그니다드(Dignidad) 국제공항을 새롭게 건설할 계획이다. 현재 디그니다드 공항은 길이가 1,500미터, 폭이 21미터에 불과해 국제공항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이 공항의 활주로를 4,000미터까지 확장하고 40톤까지 적재한 항공기가 운항할 수 있는 국제공항으로 만들어 남미의 민간화물 허브공항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⁵⁴⁾

51)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항 중 5개가 국제공항이다. 5개 국제공항은 Viru Viru(Santa Cruz), Aeropuerto Internacional El Alto(La Paz), Jorge Wilsterman(Cochabamba), Oriel Lea Plaza(Tarija), Aeropuerto de Puerto Suárez(Santa Cruz) 등이다.

52) Estado Plurinacional de Bolivia(2009), p. 97.

53) Estado Plurinacional de Bolivia(2009), p. 98.

54) Estado Plurinacional de Bolivia(2009), p. 98.

셋째, 관광 잠재력이 큰 도시에 공항네트워크를 건설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La Paz 주의 코파카바나(Copacabana) 공항, Pando 주의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 공항, 베니 주의 과야라메린(Guayaramerín) 공항, 베니 주의 루레나바케(Rurrenabaque) 공항, 산타크루스 주의 산이그나시오데벨라스코(San Ignacio de Velasco) 공항, 포토시의 유유니(Uyuni) 공항, 산타 크루스의 카미리(Camiri) 공항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⁵⁵⁾

(7) 수로 건설 계획: 대서양 연결(Mutún-Puerto Bush) 수로 건설

현재 볼리비아 동부지역의 생산업자들은 유럽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계청(INE)에 따르면 타멩고(Tamengo) 운하를 경유해 수아레스 항구(Puerto Suárez)를 통해 유럽으로 수출되는 물량은 연간 2만 7,000톤에 달한다. 대두, 해바라기씨, 대두유 등 농산물과 아연, 안티모늄, 대리석, 화강암 등 광물이 주요 수출품이다. 한편 무툰(Mutún) 철강단지에서 연간 1,050만 톤의 철강이 생산될 것으로 추정되어 앞으로 철강도 주요 수출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⁵⁶⁾

그러나 수아레스 항구는 일 년 내내 항해가 가능하지 않다. 게다가 타멩고 운하는 브라질과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불편한 점이 많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타크루스 주(州) 헤르만 부시(German Bush)에 수로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 수로가 건설될 경우 파라과이 강을 통해 대서양으로 무툰 지역에서 개발되는 철강과 동부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수출이 가능하게 된다.⁵⁷⁾

55) Estado Plurinacional de Bolivia(2009), pp. 98-100.

56) Estado Plurinacional de Bolivia(2009), p. 100.

수로는 길이가 120km, 깊이는 5m, 폭은 120m가 될 전망이다. 현재 무툰-푸에르토 부시(Mutún-Puerto Bush) 간 수로 건설 프로젝트는 환경영향 평가 등 타당성 검토 단계에 있다.⁵⁸⁾

(8) 전력 생산 및 수출

모랄레스 정부는 볼리비아의 만성적인 전력 부족이 1990년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및 민영화 정책의 추진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전력 부문을 장악한 민간기업들은 투자보다는 전력요금 인상 등을 통해 이익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평가다.

이 같은 전력 부족 사태에 대응해 모랄레스 정부는 집권 이후 첫 번째 조치로 국가에너지모델(Modelo Energético Estatal)을 수립, 전력효율성 프로그램 등을 실시했다. 다음으로 전력 부족 사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영전력회사(ENDE: Empresa Nacional de Electricidad)를 설립하고 전력 생산 확대 계획을 수립했다. 이의 일환으로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인 PDVSA와 협정을 체결, 혼합전력회사(ENDE-Andina)를 설립했다. 또한 3개의 주요 발전소(Guaracachi, Corani, Valle Hermoso)를 국유화해 전력 생산의 80%를 통제하는 등 국영전력회사인 ENDE의 역할을 강화했다.⁵⁹⁾

앞으로 볼리비아 정부는 전력에너지 수출을 위한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볼리비아는 아마존강과 플라타(Plalta)강을 끼고 있어 수

57) Estado Plurinacional de Bolivia(2009), p. 100.

58) Estado Plurinacional de Bolivia(2009), p. 101.

59) Estado Plurinacional de Bolivia(2009), p. 101.

력발전 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로 평가된다. 이를 활용해 향후 5년간 정부는 볼리비아를 남미 에너지 중심지로 부상시키기 위해 전력 수출을 장려할 계획이다. 주요 메가프로젝트를 소개하면 [표 3-6]과 같다.

| 표 3-6. 볼리비아의 전력에너지 메가프로젝트 현황 | | |
|------------------------------|--|---|
| | 프로젝트 명 | 주요 내용 |
| 전력 수출 메가 프로젝트 | Cachuela Esperanza 수력발전 프로젝트 | - 볼리비아 아마존강 유역, Bebi와 Pando 주에 위치 - 전력 생산 잠재력: 800MW - 연간 예상 수입: 3억 5,900만 달러 |
| | Rositas 수력발전 프로젝트 (Rio Grande-Santa Cruz) | - Santa Cruz 주 코르디예라(Cordillera) 군 위치 - 전력 생산 잠재력: 400MW - 연간 예상 수입: 1억 4,600만 달러 |
| | El Bala 수력발전 프로젝트 (Norte de La Paz) | - 위치: 베니(Beni) 강 상류 엘발라(El Bala) 협곡 - 투자 예상액: 24억 달러 - 전력 생산 잠재력: 1,600MW - 연간 예상 수입: 6억 1,900만 달러 - 운영개시 연도: 2022년 |
| 내수용 프로젝트 | Misicuni(Cochabamba) | - 전력 생산 잠재력: 80MW |
| | San Jose(Chapare) | - 전력 생산 잠재력: 120MW |
| | Miguillas(Inquisivi, La Paz) | - 전력 생산 잠재력: 250MW |

자료: Estado Plurinacional de Bolivia(2009), pp. 101-105 내용 정리.

볼리비아 정부는 또한 전력 생산 확대를 통해 전국적인 전력보급률을 2010년 53%에서 2014년까지 7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도시 및 도시 주변부의 전력보급률은 89.1%까지 늘릴 계획이다.⁶⁰⁾

60) Estado Plurinacional de Bolivia(2009), p. 104.

2. 에콰도르: 국가개발계획(PNDBV 2009-2013)

가. 수립 배경

코레아 대통령은 2007년 집권하면서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주류 경제 체제에 반하는 대안적인 체제의 수립을 시도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경제발전은 생산성의 증대를 통해 이루어져왔다. 이 과정에서 생산 요소인 자연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는데, 그 바탕에는 인간의 권리가 자원을 비롯한 모든 대상과 비교해 우선한다는 인간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 자본주의를 포함한 서양 사상에서 자연은 인간을 위해 활용되는 대상이기에 인간이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시장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자연의 상품화와 사유화 정도가 가장 심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 중심적인 자본주의의 경제발전론은 안데스 원주민의 전통 사상과 정반대에 있다. 조영현, 김달관(2012)⁶¹⁾에 따르면 안데스 원주민에게 자연은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과 조화를 이루는 성스러운 존재이고, 인간의 권리와 동등한 권리를 갖는 주체이다. 안데스 원주민의 사상에서 세상의 주요 구성 요소인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신은 서로 동등한 관계 속에서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뤄 살아가는 것을 추구한다. 따라서 자연 또는 생태에 인권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다. 이는 인간을 위해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현대의 자연 존중사상보다 훨씬 발전된 개념이다. 왜냐하면 인간을 위해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도 결국에는 인간이 자연보

61) 조영현, 김달관(2012), 『에콰도르 원주민 사상과 세계관의 복원: 수막 카우사이(Sumak Kawsay)에 대한 이론적 고찰』, 『중남미 연구』, 제31권 2호, p. 130.

다 우선한다는 인간중심적인 사고방식이기 때문이다.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러하듯 에콰도르 역시 자연 자원을 개발하고 수출하는 자원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지속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환경파괴와 빈부 격차, 사회적 갈등, 원주민의 생존권 위협 등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즉 원주민 사상에 의하면 자본주의 체제가 자연권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파괴해 온 것이다. 조영현, 김달관(2012)에 따르면 원주민 사상은 정치적·문화적으로 다국민성(Plurinacionalidad)과 상호문화성(Interculturalidad)을 추구한다.⁶²⁾ 다국민성은 에콰도르를 구성하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 언어 등을 인정하고 이들이 공존하는 것을 의미하고, 상호문화성은 다양한 문화 집단들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 소통하며 조화를 이루어 가는 관계를 의미한다. 자연권의 인정과 다국민성, 상호문화성 등의 원주민 사상이 내포하는 공통적인 이념은 존중과 소통이다. 코레아 정부는 기존의 인간중심적인 경제사회 체제를 거부하고 전통적인 원주민 사상에 입각해 자연권을 존중하고, 다국민성과 상호문화성을 인정함으로써 자연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조화되는 사회를 건설하는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전통적인 원주민 사상을 함축한 단어가 스페인어로는 ‘El Buen Vivir’이다. 이는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이 조화되는 질이 높은 삶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El Buen Vivir는 단순히 경제발전을 통해 소득 수준을 높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좁은 의미의 발전이 아니라 자연을 포함한 국가 구성체가 서로 조화롭게 공생하는 삶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화

62) 조영현, 김달관(2012), p. 129.

로운 삶은 인간중심주의를 버리고 인간과 자연 모두에게 동등한 권한을 부여할 때 가능하다. 코레아 대통령은 집권 다음해인 2008년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신자유주의 헌법인 1998년 헌법을 폐기하고 원주민 사상에 입각한 신헌법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자연의 권한을 헌법에 명시하였다. 신헌법에서는 사람, 공동체, 주민, 국민, 집단, 자연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가진 주체가 되었다. 따라서 헌법이 생태계의 보존과 보호를 보장하고 국가는 훼손된 자연을 복구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그리고 신헌법에 따르면 생태계를 파괴하는 자원 개발은 정당화될 수 없다.

조화로운 삶을 이루기 위한 코레아 정부의 개혁은 ‘시민혁명(Revolución Ciudadana)’이라는 이름으로 실행되고 있다. 그리고 코레아 정부는 시민혁명의 틀 안에서 경제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집권 첫 해에 ‘국가개발계획 2007-2010(Plan Nacional de Desarrollo 2007-2010, PND 2007-2010)’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의 부제는 ‘시민혁명을 위한 계획(Plan para la Revolución Ciudadana)’이다. 2008년 신헌법이 발효되면서 대통령의 임기가 기존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2009년에 대통령 선거를 새로이 실시하였다. 이 선거에서 코레아 대통령은 51.9%를 득표하며 연임에 성공하였으며, 집권 2기인 2009년에는 ‘국가개발계획 2009-2013(Plan Nacional de Desarrollo para el Buen Vivir 2009-2013, PNDBV 2009-2013)’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원주민 사상을 함축하는 El Buen Vivir를 제목으로 달고 있다. 이는 국가개발계획이 시민혁명과 2008년 신헌법의 정신을 근간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에콰도르의 국가개발계획은 원주민 사상에 입각한 경제사회개혁안으로 기존의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발전론과는 차

별화된 새로운 개념의 발전계획이다.

나. 주요 내용

1) 국가개발계획의 기본 방향과 전략, 목표

에콰도르에서는 국가개발계획부(SENPLADES: Secretaría Nacional de Planificación y Desarrollo)가 국가개발계획을 작성하는데, 현재 실행 중인 계획은 2009년에 발표된 ‘국가개발계획 2009-2013(PNDBV 2009-2013: Plan Nacional de Desarrollo para el Buen Vivir 2009-2013)’이다.

국가개발계획은 시민혁명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시민혁명은 ① 민주·헌법 혁명 ② 윤리 혁명 ③ 경제·생산성·농업 혁명 ④ 사회 혁명 ⑤ 존엄성·주권·중남미 통합⁶³⁾ 등 5개의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헌법 혁명을 통해 에콰도르는 민주적이고 헌법적인 절차를 거쳐 국민의 다양성과 상호문화성이 인정되고,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정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⁶⁴⁾ 윤리 혁명은 변화의 과정에 투명성과 책임, 견제와 균형을 보장하여 윤리적으로 올바른 변화를 이루어내고자 한다.⁶⁵⁾ 경제·생산성·농업 혁명은 발전의 성과가 일부 계층과 지역에 분배되거나 특정 계층이 발전 과정에서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층이 경제발전 과정에 참여하는 통합적인 경제 변화를 추구한다.⁶⁶⁾ 이를 위해

63) SENPLADES(2009), p. 9.

64) SENPLADES(2009), p. 9.

65) SENPLADES(2009), p. 9.

66) SENPLADES(2009), p. 9.

표 3-7. 에콰도르 시민혁명과 국가개발계획의 기본 방향

| 기본방향 | 목표 |
|------------------------------|---|
| 1. 민주적이고 헌법적인 혁명 | - 전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정치 체제 마련 - 공정하고 다양성이 인정되며, 다국민성과 상호문화성, 사회 주권이 보장되는 국가 건설 |
| 2. 윤리 혁명 | - 투명성, 책임, 견제와 균형을 보장하여 개인과 집단 간에 상호 이해하고 신뢰하는 사회를 건설하고, 장기 변혁을 위한 기반을 마련 |
| 3. 경제 · 생산성 · 농업 혁명 | - 특정 계층을 소외시키는 기존의 경제 모델을 배제하고, 국가 자원을 교육, 보건, 교통망, 주택, 과학기술 연구 등에 투자하여 생산성과 고용을 높이고,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을 달성 |
| 4. 사회 혁명 | - 사회통합적인 경제정책의 실행과 맞추어 함께 개인과 공동체, 민족, 국민의 권리를 보장 |
| 5. 중남미의 존엄성 · 주권 · 통합을 위한 혁명 | - 국제사회에서 에콰도르의 입지를 분명히 하고, 주권을 강화하며, 중남미 통합을 달성하고, 나아가 에콰도르가 국제 사회에 전략적으로 편입함. |

자료: SENPLADES(2009), pp. 9-10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국가의 자원을 교육, 보건, 교통망 구축, 주택 건설, 과학기술 연구 등에 투자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고용을 늘릴 계획이다. 사회혁명은 통합적인 경제정책을 추구하는 가운데 개인, 공동체, 민족, 국민 등 사회 모든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한다.⁶⁷⁾ 마지막으로 중남미의 존엄성 · 주권 · 통합을 위한 혁명은 국제사회에서 에콰도르의 주권을 강화하고 입지를 분명히 하여 중남미 통합을 달성하고 에콰도르가 국제사회에 전략적으로 편입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⁶⁸⁾

기본 방향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에콰도르 국가개발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워싱턴 컨센서스로 불리는 신자유주의 경제제도에 반하는 대안적인 경제발전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⁶⁹⁾ 이러한 시도는 에콰도르

67) SENPLADES(2009), p. 9.

68) SENPLADES(2009), p. 10.

69) SENPLADES(2009), p. 10.

뿐만 아니라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등에서도 있었다. 국가개발계획은 기존의 경제체제에서 소외되었던 경제주체들을 경제발전 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⁷⁰⁾ 또한 결과물로서의 경제발전의 성과뿐만 아니라 자본과 재화가 축적되는 과정에서 자연자원과 인간 간의 조화와 각 경제주체로의 합리적인 생산물의 분배도 경제발전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경제발전 모델이 환경보다는 인간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발전을 위해 자연 자원이 소진되고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어느 정도 용인했다면, 이 계획은 경제발전을 위해 자연 자원이 사용된다면 이 자원이 재생과정을 거쳐 회복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⁷¹⁾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그들의 문화·주권·삶의 방식 등을 인정하고 그 가치를 존중하여 사회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고자한다.⁷²⁾

이러한 대안적인 개발계획을 통해 에콰도르가 도달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는 천연자원을 고갈시키는 지속 불가능한 발전이 아니라, 기존의 석유와 일차산품 중심의 수출경제에서 탈피하여 경쟁력 있는 새로운 상품을 발굴하고 포스트석유 시대의 새로운 부의 생산 방식과 분배 방식을 수립하는 것이다.⁷³⁾ PNDBV 2009-2013은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2009~13년에 실천해야 할 12가지 중단기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⁷⁴⁾

70) SENPLADES(2009), p. 10.

71) SENPLADES(2009), p. 10.

72) SENPLADES(2009), p. 10.

73) SENPLADES(2009), p. 11.

74) SENPLADES(2009), p. 11.

표 3-8. 에콰도르 국가개발계획 2009-2013의 중단기 전략

| 전략 |
|--|
| 1. 생산과 분배 방식의 민주화, 재산과 조직 형태의 다양화 |
| 2. 일부 수입품의 대체산업화를 통해 새로운 비교우위 분야 육성 |
| 3. 실질 생산성 향상, 수출상품·수출기업·수출대상지의 다변화 |
| 4. 자주적이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세계경제에 편입, 중남미 국가와의 통합 |
| 5. 고등교육 개선, 과학과 혁신 기술 이전 |
| 6. 인터넷 연결 확대와 통신망 구축을 통해 정보통신 사회 건설 |
| 7. 새로운 에너지 매트릭스 구축 |
| 8. 지속가능한 거시경제의 틀 안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El Buen Vivir) 투자 실행 |
| 9. 권리와 정의의 보호, 헌법에 의한 인권 보장 |
| 10. 자연 유산의 보존, 보호, 지속 가능성 보장과 지역사회 관광 활성화 |
| 11. 지방분권, 탈집중, 국토 개발 |
| 12. 시민 사회의 권한 강화 |

자료: SENPLADES(2009), p. 11.

2) 12대 목표

에콰도르 정부는 중단기 전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12가지로 설정하였다. 이 목표는 국가개발계획 2007-2010의 목표와 연장선상에 있지만 그동안의 정부 역량, 각 지역과 경제 부문의 개발 수요, 신헌법 등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다.

첫 번째 목표는 국민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사회 구성원과 국토의 평등, 화합, 통합을 강화하는 것이다.⁷⁵⁾ 국가의 발전 단계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소외되는 현상이 지난 30여 년 동안 심각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이 현 정부의 평가다. 따라서 코레아 정부는 이러한 소외 현상의 진행을 막고 시민권이 충분히 발현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국가의 자원을

75) SENPLADES(2009), p. 137.

표 3-9. 에라도르 국가개발계획 2009-2013의 12대 목표

| 목표 | |
|-------|---|
| 목표 1 |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사회와 국토의 평등과 화합, 통합을 강화 |
| 목표 2 | 시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개발 |
| 목표 3 | 국민의 삶의 질 개선 |
| 목표 4 | 자연권과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
| 목표 5 | 주권과 평화를 보장하고, 에라도르 전략적인 국제사회 편입과 중남미 통합을 추구 |
| 목표 6 | 안정적이고 공정하며 품위 있는 다양한 일자리 보장 |
| 목표 7 | 상호문화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공장소의 건설 |
| 목표 8 | 국가 정체성, 다양성, 다국민성, 상호문화성을 강화 |
| 목표 9 | 권리와 정의 보장 |
| 목표 10 | 국민의 정치참여 보장 |
| 목표 11 | 사회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연대적인 경제 시스템 구축 |
| 목표 12 | 질 높은 삶(El Buen Vivir)을 위한 민주 국가 건설 |

자료: SENPLADES(2009), pp. 11-12.

사회보장제도, 국토 통합, 취약 계층의 생활 개선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⁷⁶⁾ 특히 보건, 교육, 사회보장, 영양, 물, 주택 등의 보급에 중점을 두어 경제적인 불평등을 개선하고 생산수단의 민주화를 달성하고자 한다.⁷⁷⁾

두 번째 목표는 시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이다.⁷⁸⁾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보건 서비스와 질 높은 교육의 보급, 정체성 형성을 위한 문화 체험, 스포츠 활동, 개인의 사회화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코레아 정부는 진단한다.⁷⁹⁾ 이를 위해 정부는 임산부와 5세 이하 영유아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⁸⁰⁾ 또한 외국어 교육

76) SENPLADES(2009), p. 137.

77) SENPLADES(2009), p. 138.

78) SENPLADES(2009), p. 161.

79) SENPLADES(2009), p. 161.

80) SENPLADES(2009), p. 171.

과 문화 교육을 장려하고, 과학기술 등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은 분야의 고등교육과 연구활동을 활성화하며, IT 기술을 확대 보급하고, 스포츠 활동을 촉진할 계획이다.⁸¹⁾

세 번째 목표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다.⁸²⁾ 부문별로는 건강, 교육, 음식, 주택, 여가, 스포츠, 사회 및 정치 참여, 근로, 사회보장 등에 관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깨끗한 환경 보존, 근로와 학업 조건 개선, 공공 서비스 개선, 제도 개선 등을 이룩한다는 목표다.⁸³⁾ 이를 위해 코레아 정부는 △질병 예방과 관리 역량 강화 △통합 무상 의료서비스 제공 △여성과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전통의학과 대안 의학의 사용 장려 △주거 환경 개선 및 안전 강화 등을 통해 계층 간의 신뢰를 높인다는 계획이다.⁸⁴⁾

네 번째 목표는 자연권과 환경 보장이다.⁸⁵⁾ 그동안 자연은 생산 활동을 위한 자원으로서만 인식되었다. 그러나 에콰도르의 신헌법은 자연을 인간의 생산활동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 주체임을 처음으로 인정하여 자연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⁸⁶⁾ 따라서 개인과 공동체, 국민, 민간 부문, 공공 부문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자연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할 책임을 갖게 된다. 에콰도르 정부는 자연권과 지속 가능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자연유산과 종다양성을 보호하고, 사회문

81) SENPLADES(2009), pp. 171-173.

82) SENPLADES(2009), p. 189.

83) SENPLADES(2009), pp. 189-190.

84) SENPLADES(2009), pp. 202-206.

85) SENPLADES(2009), p. 217.

86) SENPLADES(2009), p. 217.

화적·환경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수자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 재생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 및 방지하며,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 정책에서 환경 영향을 고려할 방침이다.⁸⁷⁾

다섯 번째 목표는 에콰도르의 주권과 평화를 보장하면서 전략적으로 국제사회에 편입하고 중남미 통합을 추구하는 것이다.⁸⁸⁾ 전통적으로 주권이라는 개념이 영토와 법적 권한의 행사 범위에 한정되었다면, 신헌법에서 주권이란 정치·영토·식량·경제·문화 등의 영역에서 자주권을 행사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⁸⁹⁾ 이에 입각해 에콰도르의 대외정책은 △주권적인 국가로 국제사회 편입 △국제사회에서 국가간 상호 존중 △국경을 넘어 시민의 권리 보호 △남남협력을 통한 내생적인 발전 토대 구축을 목표로 한다.⁹⁰⁾ 특히 에콰도르 정부는 일차산품 의존적인 무역관계에서 탈피하여 석유 수출보다 공산품의 수출을 늘리고, 수출대상 국가와 수입대상 국가를 다변화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와 식량에 대한 외부 의존도를 줄이고 국제 협력과 외국인투자가 에콰도르 발전전략과 일치하도록 하며, 중남미 국가와의 통합도 추진할 계획이다.⁹¹⁾

여섯 번째 목표는 안정적이고 공정하며 품위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이다.⁹²⁾ 신헌법은 노동권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87) SENPLADES(2009), pp. 231-234.

88) SENPLADES(2009), p. 243.

89) SENPLADES(2009), p. 243.

90) SENPLADES(2009), p. 244.

91) SENPLADES(2009), pp. 254-261.

92) SENPLADES(2009), p. 271.

작업장 규모와 소유 형태에 상관없이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정당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의무화하고, 양질의 업무환경을 조성하며,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할 계획이다.⁹³⁾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노동자의 교육훈련을 강화하며, 외국인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에콰도르로 돌아오는 해외 노동자들이 국내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할 계획이다.⁹⁴⁾

일곱 번째 목표는 문화교류가 활발해지도록 공공장소의 건설을 확대하는 것이다.⁹⁵⁾ 문화·학업·예술·교류 등과 관련된 공공장소를 확대 건설하고 시민의 이용을 독려하여 시민 간의 그리고 문화적으로 다른 집단 간의 이해를 높여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는 목표다.⁹⁶⁾ 이를 위해 2013년까지 여가활동 인구를 현재의 3배로 늘리고, 문화 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을 현재보다 40% 늘리며, 교통사고 사망률을 20% 줄이고, 살인율을 50% 줄일 계획이다.⁹⁷⁾

여덟 번째 목표는 국가의 정체성과 다양성, 다국민성, 상호문화성을 강화하는 것이다.⁹⁸⁾ 에콰도르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 집단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여 다양성과 다국민성이 인정되고 존중되는 사회를 건설할 계획이다.⁹⁹⁾ 이를 위해 2013년까지 토착어 사용에 능

93) SENPLADES(2009), p. 271.

94) SENPLADES(2009), pp. 278-279.

95) SENPLADES(2009), p. 285.

96) SENPLADES(2009), pp. 291-293.

97) SENPLADES(2009), p. 294.

98) SENPLADES(2009), p. 297.

99) SENPLADES(2009), pp. 300-301.

한 원주민의 비중을 80%로 늘리고, 유적지의 30%를 일반에 공개할 방침이다.¹⁰⁰⁾

아홉 번째 목표는 법적 권리와 정의의 보장이다. 이를 위해 사법제도의 효율성과 적시성,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¹⁰¹⁾ 또한 수감자와 수감자 가족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감자들이 출감 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활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¹⁰²⁾ 보다 구체적으로 2013년까지 소송 해결률을 75%로 늘리고, 범죄 해결의 효율성을 60%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줄이는데, 물리적 폭력은 8%, 심리적 폭력은 5%, 성폭력은 2% 줄이는 것이 목표다.¹⁰³⁾ 학교에서 교사들의 폭력을 줄이고, 사회재활훈련소의 적자를 60% 줄이며, 감옥에서의 결핵 감염도 줄일 계획이다.¹⁰⁴⁾

열 번째 목표는 국민의 정치 참여 보장이다.¹⁰⁵⁾ 이를 위해 시민단체의 활동을 장려하고, 시민의 정치활동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정치와 선거 참여를 독려하고, 공공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며, 시민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¹⁰⁶⁾ 보다 구체적으로 2013년까지 18세 이상 시민의 시민단체 활동을 50%로 늘리고, 선거 출마인 중 여성의 비중을 30%로 확대하며, 젊은 층의 비중을 15%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100) SENPLADES(2009), p. 301.

101) SENPLADES(2009), p. 303.

102) SENPLADES(2009), p. 304.

103) SENPLADES(2009), p. 311.

104) SENPLADES(2009), p. 311.

105) SENPLADES(2009), p. 315.

106) SENPLADES(2009), pp. 323-326.

해외 거주 에콰도르인의 선거 참여를 0.7%까지 늘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중남미 평균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¹⁰⁷⁾

열한 번째 목표는 사회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연대적 성격이 강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¹⁰⁸⁾ 2008년 헌법은 사회적이고 연대적인 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이 부의 편중, 민영화, 극단적인 중상주의, 투기적 경제행위, 노동력과 환경의 무분별한 이용 등을 초래했다면, 새로운 경제 시스템은 경제주체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내생적인 발전 동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¹⁰⁹⁾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다양한 생산 방식을 적용하고, 생산수단의 민주화를 이루며, 기존의 일차산품 주도의 수출경제를 탈피하여 지식과 종다양성에 기반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생산품을 다양화하는 것이 중요하다.¹¹⁰⁾ 종다양성에 기반한 제품의 예로는 자연친화적 관광상품과 바이오의약품 등이 있다. 생산 수단의 민주화를 통해 경제 주체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생산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¹¹¹⁾ 국가는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기능에서 벗어나 재분배와 생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재국유화, 전략 자원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국가 통제 등도 수행해야 한다.¹¹²⁾ 또한 저발전 지역과

107) SENPLADES(2009), p. 326.

108) SENPLADES(2009), p. 329.

109) SENPLADES(2009), p. 329.

110) SENPLADES(2009), p. 330.

111) SENPLADES(2009), p. 330.

112) SENPLADES(2009), p. 330.

표 3-10. 에콰도르 국가개발계획의 2013년 주요 달성 목표

- 수출 상품의 집중도 완화(2008년 0.78 → 2013년 0.72)
- 비석유 광공업 성장률 5% 달성
- 정부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참여 비중 확대(2008년 40% → 2013년 45%)
- 농산물 자급률 확대(2008년 95.2% → 2013년 98%)
- 석유 생산 증대(2008년 일일 48만 1,900배럴 → 2013년 일일 50만 500배럴)
- 석유 파생물의 생산 확대(2009년 일일 6만 8,000배럴 → 2013년 일일 7만 1,000배럴)
- 금속광물 생산 79% 확대
- 비금속 광물 수입 비중 8%포인트 감축(수입비중: 2007년 25% → 2013년 17%)
- 세관통관 기간 단축(2008년 8.76일 → 2013년 5일)
- 도시간 평균 물류 이동 시간 10% 단축
- ICT 개발 지수 개선(2007년 2.75 → 2013년 3.34, ITU지수 기준)
- 항공기 이용 승객 수 5% 확대
- 수출업자당 수출집중도 완화(2008년 0.933 → 2013년 0.873)
- 비석유부문 수출대비 관광수입 비중 확대(2008년 11.2% → 2013년 15.1%)
- 총 수입대비 미등록 수입 비중 축소(2008년 0.9% → 2013년 0.45%)
- 총 수출대비 미등록 수출 비중 축소(2007년 1.6% → 2013년 1%)
- GDP 대비 투자 비중 확대(2009년 7.4% → 2013년 8.1%)
-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FDI) 비중 확대(2008년 1% → 2013년 3%)
- 해외송금유입액을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가정 비중 3배 확대(2007년 2% → 2013년 6%)
- 국영은행의 신용대출건수 69% 확대
- 국영은행의 신용대출금액 110% 확대

자료: SENPLADES(2009), p. 340.

생산 부문의 활성화를 위해 투자 하고 서비스를 공급하며, 내생적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에콰도르 정부의 생각이다.¹¹³⁾

에콰도르 정부는 새로운 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활동을 장려하고, 식량 자급을 위한 생산 활동을 촉진하며, 전략 부분의 발전을 진흥하고, 기초적인 인프라와 공공서비스를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다.¹¹⁴⁾ 또한 △불공정거래 규제 △사치재의 수입 축소 △내생적 경제발전에 부합하는 소비문화 정착 △청정에너지 기술 사용 장려 △거시경제의 안정성 제고 △안정된 금융시스템을 통한 저축과 투자 제고 등을 정책 목표로

113) SENPLADES(2009), p. 330.

114) SENPLADES(2009), p. 335-336.

제시했다.¹¹⁵⁾ 에콰도르 정부는 이를 위해 2013년까지 [표 3-10]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열두 번째 목표는 민주국가의 틀 내에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여 질 높은 삶(El Buen Vivir)을 달성하는 것이다.¹¹⁶⁾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국가가 특정 경제 주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새로운 경제체제에서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국가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국가가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것이 에콰도르 정부의 생각이다.¹¹⁷⁾ 코레아 정부는 이를 위한 첫 단계로 국가의 계획 기능과 규제와 재분배 역량을 강화하고 민영화를 방지하며, 효율적인 제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두 번째 단계로는 다양성과 상호문화성을 존중하여 원주민과 소수자 집단의 거주지를 선거구로 지정하고,¹¹⁸⁾ 세 번째 단계로 다핵거주공간과 탈집중화, 지방분권화를 이룩할 계획이다.¹¹⁹⁾ 마지막으로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¹²⁰⁾

3) 지역개발 전략

국가개발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사회 분야별로 실행 방안을 마련하지만, 분야별 접근은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개발계획은 국가 전체의 계획뿐 아니라 지

115) SENPLADES(2009), pp. 337-339.

116) SENPLADES(2009), p. 353.

117) SENPLADES(2009), p. 353.

118) SENPLADES(2009), p. 353.

119) SENPLADES(2009), p. 354.

120) SENPLADES(2009), p. 354.

역별 개발 계획(La Estrategia Territorial Nacional)도 포함하고 있다. 지역별 계획은 에콰도르 영토를 7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별 개발 수요와 잠재력, 한계를 파악하고 지역별 개발 모델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에콰도르는 서쪽 해안지방과 중앙의 안데스 산악지역, 동쪽의 아마존 밀림지역으로 구분된다. 지역별로 발전 격차가 큰데 이는 에콰도르 수출 경제 역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먼저 1920년대 이전까지 카카오 수출에 주력하면서 해안지방, 특히 과야킬(Guayaquil)을 중심으로 도시들이 형성되고 발전하였다. 1940~60년대에는 바나나 수출이 늘어나면서 항구와 항구 도시들이 발달하게 된다. 1960년대에는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고산지대에 도로망이 구축되었다. 1970년대에는 석유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북쪽 아마존 지역에 도로망이 건설되게 된다. 그러나 해안지역이 농산물 수출 덕분에 상업이 발달하고 인프라도 상대적으로 잘 정비된 데 비해 아마존 지역은 석유개발에도 불구하고 개발에서 소외된 낙후지역으로 남아 있다. 에콰도르에는 발달된 해안도시인 과야킬, 만타, 푸에르토 볼리바르, 에스메랄다를 따라 남북의 축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아메리카 대륙을 관통하는 판아메리카 고속도로가 키토, 이바라, 암바토, 쿠엔카 등의 도시를 지나고 있는데, 에콰도르의 발전된 도시들은 이 두 개의 축을 따라 위치하고 있고, 교통 기반시설도 이 축에 집중되어 있다.

역사적인 발전 과정을 통해 두 개의 중요한 도시가 형성되었는데, 수도인 키토와 상공업 도시인 과야킬이다. 키토는 안데스 고산 지역에 위치한 반면, 과야킬은 열대 해안 도시로 국제적인 항구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 두 도시에 전체 인구의 30%가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불균형적인 국토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개발계획은

표 3-11. 에콰도르 지역개발계획의 목표

| 목표 | |
|------|--|
| 목표 1 | 다핵화되고 상호보완적인 거주 지역 구축 |
| 목표 2 | 농촌지역에서 삶의 질 개선(El Buel Vivir)과 식량 주권 달성 |
| 목표 3 | 교통, 통신, 에너지 망의 효율성 개선 |
| 목표 4 | 자연자원의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사용을 통해 자연유산의 지속가능성을 보장 |
| 목표 5 | 다양성과 상호문화성을 강화 |
| 목표 6 | 전략적이며 주권적으로 국제사회에 편입하고 중남미 통합 달성 |
| 목표 7 | 지방 분권화 실현 |

자료: SENPLADES(2009), p. 377.

낙후된 지역의 개발수요를 파악하고 이 지역에도 동일한 개발 기회를 주고자 한다. 특히 기본적인 기반시설, 보건, 교육, 영양, 주택 등을 균등하게 보급하고자 한다. 국가개발계획에 포함된 지역개발계획은 지역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역별 개발 계획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단위에서 수립될 것이다.

지역개발의 목표는 주제별로 7개로 구분된다. 첫째, 급속한 도시화로 형성된 빈민지역과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도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나 생산 활동에서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갖는 도시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다핵화된 주거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¹²¹⁾ 네트워크 도시 내에서 연쇄적인 생산 활동을 장려하고, 도시의 팽창을 조절하며, 쓰레기 처리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것이다. 특히 다핵화된 주거 지역 각각에서 의료, 교육, 사회보장 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식수, 하수처리, 쓰레기 처리 시설을 공급할 때에 분권화된 지방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또한 도농 간의 발

121) SENPLADES(2009), p. 380.

전 격차와 이원화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농촌에서 생산된 농산품이 도시에서 가공 과정을 거쳐 생산되도록 도농 간의 연쇄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¹²²⁾

둘째, 농촌에서 삶의 질을 향상(El Buen Vivir)시키고 농업 주권을 확립할 계획이다.¹²³⁾ 이를 위해 생산수단을 민주화하고, 짧은 생산 체인(Short Production Chain)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물을 다양화하고, 농산물 판매를 지원하는 조합을 설립하며, 적절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셋째, 교통과 통신망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발전시설과 송·배전망을 확대할 계획이다.¹²⁴⁾ 특히 에너지 발전 계획을 실행할 때 환경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헌법의 자연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연자원을 합리적이고 책임 있게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¹²⁵⁾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완충지역을 설정하고, 노후한 토양을 복구하며, 재산림화, 지속가능한 방식의 토지 이용, 농경지 확장의 제한 등이 필요하다.¹²⁶⁾ 국가 전체적으로는 수자원이 풍부하지만 인구가 밀집된 지역 등에서는 물 부족을 겪고 있는데,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를 통해 지역적인 물 부족을 해결할 것이다.¹²⁷⁾ 또한 전체 전력 생산에서 수력 발전의 비중을 높일 것이다. 에콰도르 국토의

122) SENPLADES(2009), pp. 381-382.

123) SENPLADES(2009), p. 382.

124) SENPLADES(2009), p. 383.

125) SENPLADES(2009), p. 386.

126) SENPLADES(2009), pp. 387-388.

127) SENPLADES(2009), p. 389.

20%는 자원이 매장된 지역이나 자원개발은 환경 파괴를 수반하게 된다.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자원개발을 허용할 것이며, 현재 개발 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 복원 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¹²⁸⁾ 그리고 해당 지역사회는 자원개발 프로젝트의 계획과 실행의 모든 단계에 참여해야 한다.

다섯째, 다민족성과 상호문화성을 강화 할 것이다.¹²⁹⁾ 에콰도르는 14개의 민족과 18개의 원주민, 아프리카계인, 몬투비오(montubio) 그룹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2개의 언어가 사용된다. 따라서 각 민족과 문화, 그들의 거주 지역을 존중하고, 그 문화의 가치를 재평가하며, 지역 문화 유적지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역 문화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할 것이다.

여섯째, 개인이나 기업 등 특정 집단이 아니라 에콰도르 국민 전체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에콰도르가 국제사회에 편입 할 것이다.¹³⁰⁾ 또한 남-남 협력을 통해 남미 국가가 조화롭게 통합되도록 할 것이다. 특히 남미국가연합(UNASUR)과 미주를 위한 볼리바르동맹(Alternativa Bolivariana para las Américas, ALBA)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긴다.¹³¹⁾ 또한 저개발국에 대한 원조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전 세계 국가 중 우선협력 대상 국가를 제시하고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몽골과 북한이 최우선 협력 대상 국가로 선정되었다.

일곱째, 지방분권화를 위해 국가개발계획은 국토를 7개로 구분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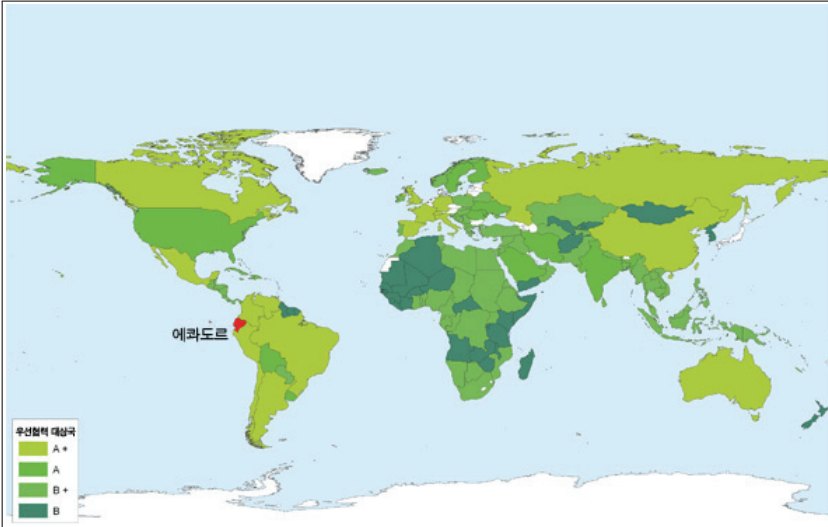
128) SENPLADES(2009), pp. 390-391.

129) SENPLADES(2009), p. 392.

130) SENPLADES(2009), p. 3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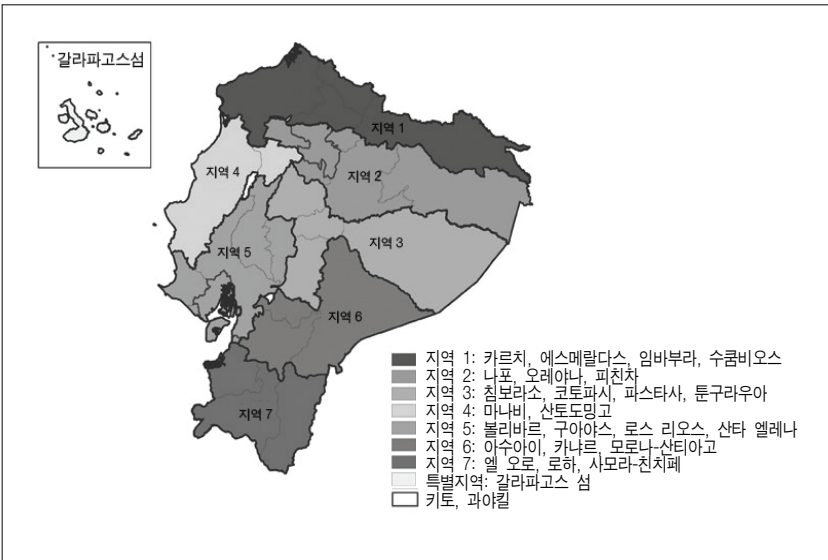
131) SENPLADES(2009), p. 397.

그림 3-1. 에콰도르의 우선 협력 대상 국가



자료: SENPLADES(2009), p. 398.

그림 3-2. 에콰도르의 국토개발계획에 따른 7개 지역 구분



자료: SENPLADES(2009), p. 401.

각 지역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분산시킬 계획이다.¹³²⁾

4) 공공투자계획

에콰도르는 국가 내의 생산역량을 강화하여 내생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과정에서 공공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공공투자의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공공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부문의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인적자원의 형성과 고용 기회 확대와 관련된 기초적인 사회서비스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¹³³⁾ 인적자원 형성과 관련된 투자 분야는 영양, 교육, 예방 보건, 주거, 기초 위생 인프라와 서비스, 사회보장제도 등이다. 그리고 역량을 갖춘 노동자들이 충분한 고용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고용 확대 관련 분야에도 우선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진다. 둘째는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에 자본 축적을 위해 투자한다.¹³⁴⁾ 구체적으로는 전력, 바이오 에너지, 통신, 도로, 물류, R&D 등의 인프라 부문, 과학기술 분야의 역량 강화 관련 고등교육, 기술 교육, 기술이전 부문, 유치산업 부문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정부가 공공투자로 육성하고자 하는 유치산업은 ① 국민의 기초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식품, 섬유와 가죽, 주택 건설, 일반의약품 산업 ② 농산물·에너지·통신에서 국가의 자급력을 높이기 위해 바이오화학, 석유화학,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야금산업 ③ 지역 관광과 환경 서비스 산업 등이다.

132) SENPLADES(2009), p. 398.

133) SENPLADES(2009), p. 405.

134) SENPLADES(2009), p. 406.

표 3-12. 에콰도르의 분야별 공공투자 시나리오

(단위: 백만 달러, %)

| 분야 | 시나리오 1 | | 시나리오 2 | | 시나리오 3 | |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사회 발전 | 4,304 | (22.8) | 4,441 | (21.1) | 4,596 | (20.6) |
| 생산 | 1,704 | (9.0) | 2,005 | (9.5) | 2,051 | (9.2) |
| 자연 및 문화 유산 | 481 | (2.5) | 517 | (2.5) | 543 | (2.4) |
| 정치 | 81 | (0.4) | 89 | (0.4) | 96 | (0.4) |
| 경제정책 | 70 | (0.4) | 180 | (0.9) | 188 | (0.8) |
| 전략 부문 | 7,269 | (38.4) | 7,501 | (35.6) | 8,191 | (36.8) |
| 안보 | 2,455 | (13.0) | 2,545 | (12.1) | 2,813 | (12.6) |
| 기타 | 2,544 | (13.5) | 3,807 | (18.1) | 3,807 | (17.1) |
| 전체 | 18,908 | (100) | 21,084 | (100) | 22,285 | (100) |

자료: SENPLADES(2009), p. 500.

이러한 국가적인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각 투자 부문의 우선순위를 평가하기 위해 공공투자우선순위지수(Indice de Prioridad de la Inversión, IPI)¹³⁵⁾를 사용하고 있다. IPI는 각 프로젝트가 ① 고용 창출 ② 지역균형 발전 ③ 생산성 증대 ④ 지속가능한 방식의 환경 사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국가개발계획은 세 가지 투자 규모별 공공투자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분야별 투자계획에서는 전략산업 육성에 시나리오별로 전체 공공투자의 35.6~38.4%가량을 투자하고, 사회발전 부문에 20.6~22.8%를 투자할 계획이다.

국가개발계획의 12개 목표별로 투자금액을 구분해보면 목표 11인 ‘지속가능하고 연대적인 사회 경제 시스템 구축’에 전체 투자액의 44.7~45.3%를 투자할 계획이다. 다음으로는 목표 5인 ‘주권과 평화를 보장하고, 에

135) SENPLADES(2009), p. 407.

표 3-13. 에콰도르 국가개발계획 목표별 공공투자 시나리오

(단위: 백만 달러, %)

| 구분 | 시나리오 1 | | 시나리오 2 | | 시나리오 3 | |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목표 1 | 1,737 | (9.2) | 1,884 | (8.9) | 1,941 | (8.7) |
| 목표 2 | 1,048 | (5.5) | 1,104 | (5.2) | 1,138 | (5.1) |
| 목표 3 | 1,607 | (8.5) | 1,680 | (8.0) | 1,745 | (7.8) |
| 목표 4 | 1,378 | (7.3) | 1,519 | (7.2) | 1,604 | (7.2) |
| 목표 5 | 2,038 | (10.8) | 2,181 | (10.9) | 2,379 | (10.7) |
| 목표 6 | 869 | (4.6) | 1,186 | (5.6) | 1,199 | (5.4) |
| 목표 7 | 299 | (1.6) | 327 | (1.6) | 354 | (1.6) |
| 목표 8 | 189 | (1.0) | 209 | (1.0) | 218 | (1.0) |
| 목표 9 | 196 | (1.0) | 236 | (1.1) | 247 | (1.1) |
| 목표 10 | 569 | (3.0) | 792 | (3.8) | 797 | (3.6) |
| 목표 11 | 8,562 | (45.3) | 9,424 | (44.7) | 10,099 | (45.3) |
| 목표 12 | 418 | (2.2) | 544 | (2.6) | 563 | (2.5) |
| 합계 | 18,908 | (100.0) | 21,084 | (100.0) | 22,285 | (100.0) |

자료: SENPLADES(2009), p. 500.

과도르 전략적인 국제사회 편입과 중남미 통합 추구에 10.3~10.8%를 투자할 계획이다.

3. 베네수엘라: 시몬 볼리바르 국가계획 (PNDSB 2007-2013)

가. 수립 배경

2012년 현재 실행 중인 베네수엘라의 국가개발계획은 ‘제1차 사회주의 계획: 국가경제사회개발(Primer Plan Socialista: Desarrollo Económico

y Social de la Nación para el período 2007-2013)’로 불리는 ‘시몬 볼리바르 국가계획(Proyecto Nacional Simón Bolívar)’이다.¹³⁶⁾ 시몬 볼리바르 국가계획은 “새 정부 출범 첫째 3/4분기에 행정부가 제출하는 국가경제사회개발계획을 국회가 승인해야 한다”는 헌법 제187조(국회의 기능) 제8항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다.

시몬 볼리바르 국가계획은 ‘21세기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목표를 전면 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베네수엘라 국가개발(PND) 5개년 계획들과는 매우 차별적이지만,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공통의 특징을 지닌다. 1956년부터 시작된 기존의 5개년 국가개발계획에서 사회주의 국가계획에 이르기까지 베네수엘라에서 국가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강조된 이유는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는 개발정책의 주기가 다른 독특한 역사적 과정 때문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베네수엘라와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점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20세기 들어 변화해 온 정치체제의 유형이다. 즉, 중남미 국가들에서 대공황 이후 포퓰리스트 정권이 득세할 때 베네수엘라에서는 군사정부가 집권했고, 1980년대 중반까지 중남미 국가들에서 군사정부가 득세할 때 베네수엘라에서는 양당 구도의 안정적인 민주적인 문민정부가 유지되었다. 또 다른 주요한 차이점은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1980년대 외채위기를 계기로 시장경제에 입각한 개혁과 개방정책 조류가 형성된 반면, 베네수엘라에서는 개혁 및 개방정책이 국민과 군부의 저항으로 저지된 이후 1999년부터 급진좌파정부 등장과 함께 새로운 유형의 사회주의 발전전략이 시도되었다.

136) 제1차 사회주의 국가개발계획은 PPS, PNDSB, LGPDESN 등의 약어로 사용되고 있다.

제1차 사회주의 국가개발계획은 1999년 차베스 대통령이 집권하면서부터 구상된 새로운 국가 건설 계획을 충실하게 이끌어가는 기준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차베스 정부의 세계관, 집권하기 직전까지 구상한 각종 정책들, 그리고 차베스 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 발표한 ‘국가경제사회개발계획(Plan de Desarrollo Económico y Social de la Nación 2001-2007)’ 및 ‘국가경제사회개발계획 일반방침(Líneas Generales del Plan de Desarrollo Económico y Social de la Nación 2001-2007)’을 통해 달성한 목표들을 정부가 더욱 심화시키려는 노력이 있었다. 첫째, 차베스 정부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 베네수엘라가 주변국가로서 중심국과의 종속관계에 매몰되어 생존해왔다는 역사관을 지니고 있다. 즉, 차베스 정부는 베네수엘라가 자본주의 체제하의 국제 노동 분업에서 원자재 공급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해외자본을 위해 유도된 발전 과정과 중심국 경제가 지배하는 무역체제를 따랐으며, 무역·금융·사상 권력의 중심부로부터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요받았다고 인식하였다.¹³⁷⁾ 둘째, 전술한 세계관에 기초하여 국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발표한 정책 구상들이 있었다.¹³⁸⁾ 마지막으로 볼리바르 혁명 추진의 실질적인 최초 실험인 ‘차베스 혁명안(Propuesta de Hugo Chavez para continuar la Revolución)’을 구체화시킨 ‘국가개발계획(Plan Nacional de Desarrollo Económico y Social, PNDES 2001-2007)’이 있었다. ‘PNDES 2001-

137) Parra(2008), p. 4.

138) 대표적인 정책 구상으로는 1996년의 ‘Agenda Alternativa Bolivariana: Una Propuesta patriótica para salir del Laberinto’, 1998년의 ‘La Propuesta de Hugo Chavez para transformar a Venezuela: Una Revolución Democrática’, 그리고 2000년의 ‘La Propuesta de Hugo Chavez para continuar la Revolución’이 있다.

표 3-14. PNDES 2001-2007의 목표 및 전략

| 분야 | 목표 | 전략 |
|------|--------------------|--------------|
| 경제 | 생산적 경제 개발 | 생산 다각화 |
| 사회 | 사회적 평등 달성 | 점진적 통합(포용) |
| 정치 | 볼리바르 민주주의 건설 | 공동책임의 주체적 참여 |
| 국토 | 국토 관리 강화 | 분산적인 지방분권화 |
| 대외관계 | 주권 강화 및 세계 다극체제 촉진 | 다극적인 다양화 |

자료: Parra(2008), p. 6.

2007'은 경제, 사회, 정치, 국토, 대외관계 등 5대 부문에서 21세기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토대 구축에 목표를 두었고, 5대 분야에서 달성한 성과는 제1차 사회주의 개발계획의 기초가 되었다.

전술한 배경 이외에 PNDSB가 실질적인 추진력을 얻을 수 있었던 요인은 차베스 대통령의 국정 방향이 일관성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특히 차베스는 시몬 볼리바르 국가계획(Proyecto Nacional Simón Bolívar 2007-2021)을 ‘볼리바리안 사회주의(Socialista Bolivariano)’로 나아가는 핵심적인 요소임을 강조하고, 실질적인 사회주의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기본적인 동력으로서 집권 2기에 수행해야 할 5대 국정과제(수권법, 개헌, 대중교육, 지방분권, 공동체 권력 확대)를 발표했다.¹³⁹⁾ 5대 국정과제는 사회주의 국가개발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5대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차베스 대통령으로 하여금 특정 기간 동안 법률이 지정하는 분야에 대해 법률로서

139) Rumbo al Socialismo Bolivariano(2010), p. 4.

글상자 3-1.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부의 대통령 비상입법권 역사

- 1999년 차베스정부 최초 대통령 비상입법권 승인
 - 부가가치세법을 비롯한 53개 법령 제정 및 개정

- 2000년 11월 13일, 국회에서 대통령 비상입법권 승인
 - 토지법(Ley de Tierras y Desarrollo Agrario), 어업법(Ley de Pesca), 협동조합법(Ley Especial de Asociaciones Cooperativas), 석유법(Ley Orgánica de Hidrocarburos) 등 53개 개혁법안 제정

- 2007년 2월 1일, 'Ley Habilitante 2007' 공표
 - 18개월간 국가제도, 국민참여, 경제사회, 금융조세, 시민안전, 과학기술, 국토정비, 안보국방, 인프라 및 교통, 에너지 등 분야 법률 제·개정권 부여
 - 2007년 20개 법안 제정: 서훈법(Ley sobre la Condecoración "Orden 4 de Febrero"), 통화법(Ley de Reversión Monetaria), 전력산업재조직법(Ley Orgánica de Reorganización del Sector Eléctrico), 식량 등 필수품 및 가격통제제품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매점, 투기, 보이콧 등에 대한 국민방어특별법(Ley Especial de Defensa Popular contra el Acaparamiento, la Especulación, el Boicot y Cualquier Otra Conducta que Afecte el Consumo de los Alimentos o Productos Declarados de Primera Necesidad o Sometidos a Control de Precios), 특별사면법(Ley Especial de Amnistía) 등
 - 2008년 44개 법안 제정
 - 2008년 5월 11개: 식량안보주권법(Ley Orgánica de Seguridad y Soberanía Agroalimentaria), 군사법(Ley Orgánica de la Fuerza Armada Nacional Bolivariana) 등
 - 2008년 9월 26개: 경제·재정 분야(7개), 농업(6개), 영토 및 국가권력(4개), 주택(3개), 공공행정(3개), 치안(2개), 국방(1개)

- 2010년 12월 17일, 'Ley Habilitante 2010' 공표
 - 18개월간 인프라 및 교통, 주택 및 주거지, 국토정비, 금융조세, 치안, 국방, 대외협력, 국가 사회경제체제 등 분야 법률 제·개정권 부여
 - 2011년 12월 28일 현재 26개 법령 제정
 - 도시지역토지소유규제법(Ley para Regularizar la Tenencia de la Tierra en Asentamientos Urbanos), 시몬볼리바르재건기금설립법(Ley Orgánica de Creación del Fondo Simón Bolívar para la Reconstrucción), 토지주택비상법(Ley Orgánica de Emergencia para Terrenos y Vivienda) 등

- 2011년 12월 28일까지 대통령 비상입법권으로 제정된 법령은 143개

자료: Procuraduría General de la República(2012), "Leyes Habilitantes," http://www.pgr.gob.ve/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2911, (10, 22)

효력을 지니는 대통령 포고령 발표를 허용하는 대통령 비상입법권(수권법, Ley Habilitante/Enabling Law)이다. 2007년에 제정된 비상입법권은 21세기 사회주의로의 진행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mother law’라고도 하는데, 사적 자본의 이익을 위해 제정된 이전의 수많은 법률들을 개정하기 위해 비상입법권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차베스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의 비상입법권은 1999년, 2000년, 2007년 그리고 2010년에 각각 부여되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2012년 6월 30일 현재 215개 법령이 제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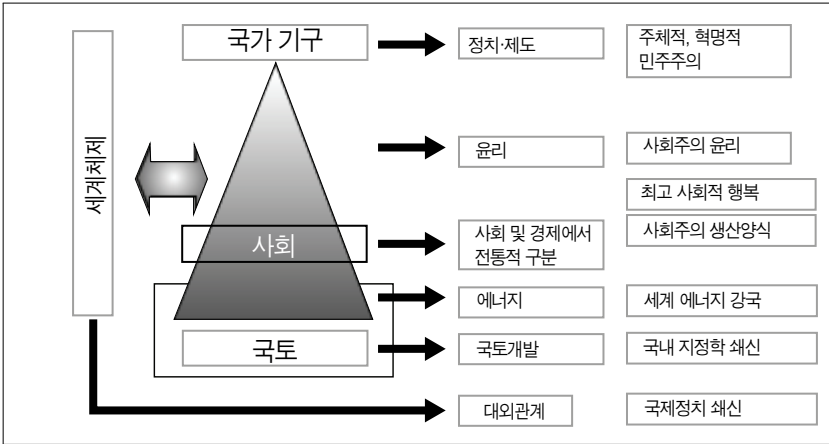
둘째, 헌법 개정으로 차베스 대통령의 장기집권과 21세기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근간을 마련하려 했다. 1999년 1차 개헌 이후 재집권한 차베스 대통령은 2007년 연임 직후 ‘사회주의 헌법’ 제정에 주력했고, 2009년 2월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안을 승인 받아 장기집권체제를 더욱 공고화했다.

셋째, 개인주의, 자본주의, 이기주의와 같은 낡은 가치관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을 심화시키기 위해 볼리바리안 대중교육(Moral y Luces)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넷째, 지자체 간의 면적이나 인구 규모의 비대칭성에 기초하여 지역별 권력분산(Nueva Geometría del Poder)이 추진되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위원회(Communal Council)의 권한을 강화하고 점진적으로 기득권을 약화시키며, ‘공동체 국가(Communal State)’ 건설이라는 궁극의 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체 권력의 확대(Explosión del Poder Comunal)가 시도되었다.

그림 3-3. PNDSB 2007-2013의 기본 구조



자료: Parra(2008), p. 10.

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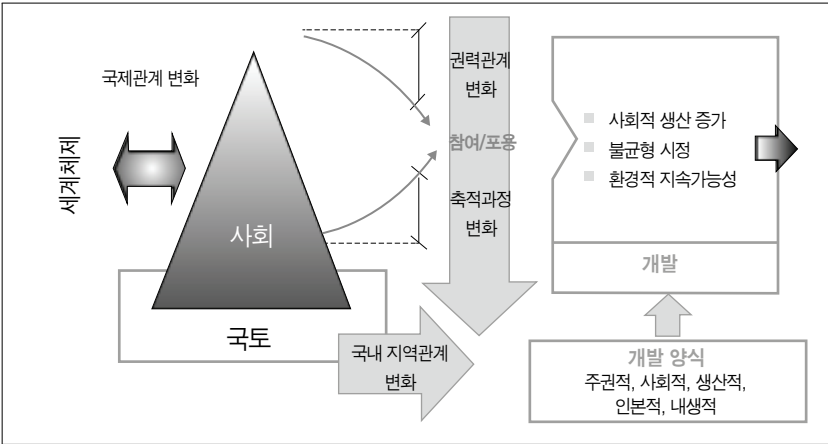
1) 국가개발계획의 주요 내용

PNDSB 2007-2013은 사회주의 국가 건설 완성에 필요한 7대 지침을 마련하고,¹⁴⁰⁾ 각각의 추진 목표와 전략, 그리고 주요 정책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내용면에서는 실질적인 정책수단 활용이나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재정 규모 및 조달 방안 등을 규정하기보다는 기본적인 개념과 일반적인 방침을 규정하고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7대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주의 윤리’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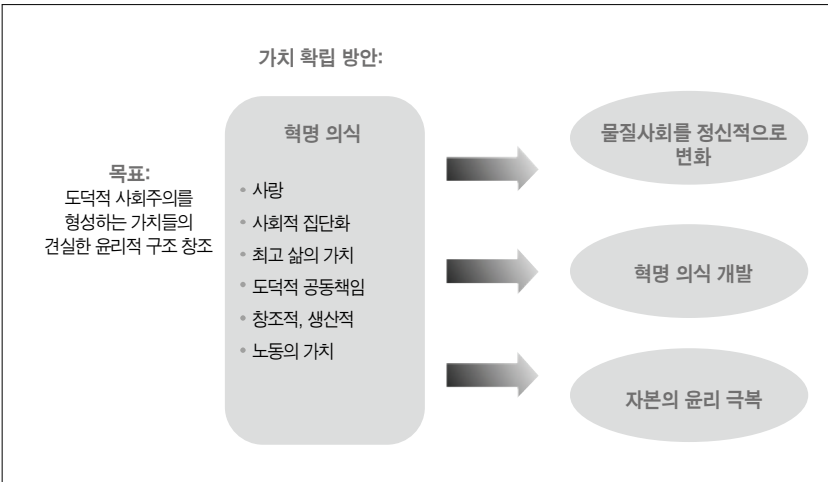
140) PNDSB의 7대 지침: △사회주의 윤리(Nueva Ética Socialistas) △최고의 사회적 행복(Suprema Felicidad Social) △주체적이고 혁명적인 민주주의(Democracia Protagónica Revolucionaria) △사회주의 생산양식(Modelo Productivo Socialista) △국토 개발(Nueva Geopolítica Nacional) △에너지 강국(Venezuela potencia Energética Mundial) △국제정치 역할 쇄신(Nueva Geopolítica Internacional). Presidencia de República Bolivariana de Venezuela(2007a), pp. 3-4.

그림 3-4. PNDSB 2007-2013의 다차원성



자료: Parra(2008), p.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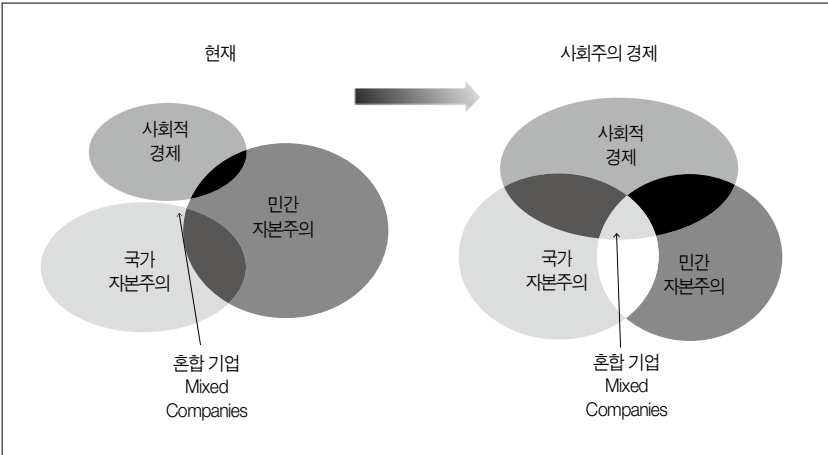
그림 3-5. 사회주의 윤리 구축 지침



자료: Rumbo al Socialismo Bolivariano(2010), p. 12.

침은 베네수엘라라는 국가의 윤리 및 도덕 확립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도덕적 사회주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인간적인 연대, 윤리교육, 공정하고

그림 3-6. 사회주의 생산양식



자료: Rumbo al Socialismo Bolivariano(2010), p. 20.

공평한 권리, 시민의식, 다원적인 사회와 같은 가치의 회복과 21세기의 새로운 인간 형성을 위한 자유, 독립, 평화, 연대 등의 가치 공고화에 목표를 두었다.¹⁴¹⁾

둘째, ‘최고의 사회적 행복’이란 새로운 사회적·생산적·인본적·내생적 양식인 포용적인 사회구조 건설을 시작으로 모두가 비슷한 조건에서 생활하는 환경을 추구하려는 지침이다.¹⁴²⁾ 즉, 베네수엘라는 모두가 동등한 정의 국가에서 민주적인, 참여적인, 주체적인, 다인종의, 다문화의 사회를 확립하여 성, 인종, 사회계급에 따른 배제 없이 평등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관계 변화, 극빈 감축, 보건·교육·문화서비스의 무상 제공을 확대·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체의 참여 확대를 독려했다.

141) Presidencia de República Bolivariana de Venezuela(2007a), pp. 5-7.

142) Presidencia de República Bolivariana de Venezuela(2007a), pp. 9-10.

셋째, ‘주체적이고 혁명적인 민주주의’ 지침은 공화주의에 기초한 국민주권, 인간적인 삶의 보호·보존·개발 지지, 그리고 보편적 복지를 위한 모든 권리상의 정의 보장 등을 의미한다.¹⁴³⁾

넷째, ‘사회주의 생산양식’이란 국민의 일자리 추구하고 수요 만족, 사회적 분열 및 계급구조 등의 철폐에 목적을 둔 생산양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식량주권 강화, 식량안보 공고화,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촉진을 모색하는 것이다.¹⁴⁴⁾

다섯째, 지역별 문화와 생태적 환경을 고려한 생산적인 투자 단행과 국토통합을 위한 개발망 형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 교육, 공공서비스의 양적·질적 개선을 촉구하였다.¹⁴⁵⁾

여섯째, 중남미 역내 및 세계 에너지 통합과 천연자원의 활용을 연결시키는 국가개발전략 추진을 모색했다.¹⁴⁶⁾ 석유자원을 국제정치의 수단으로, 즉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 및 사회동맹을 형성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이다. 이를 통해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는 외자 유치, 국내 투자 촉진, 에너지 수요 충족, 사회주의 생산양식 강화 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베네수엘라가 추구하는 세계체제는 패권국가 중심에서 다극체제로의 이동이며, 이러한 다극체제에서 사회정의, 연대, 평화보장 등을 모색한다.¹⁴⁷⁾

143) Presidencia de República Bolivariana de Venezuela(2007a), pp. 14-16.

144) Presidencia de República Bolivariana de Venezuela(2007a), pp. 20-22.

145) Presidencia de República Bolivariana de Venezuela(2007a), pp. 27-28.

146) Presidencia de República Bolivariana de Venezuela(2007a), pp. 35-37.

147) Presidencia de República Bolivariana de Venezuela(2007a), pp. 40-42.

표 3-15. PNDSB 2007-2013의 지침별 목표 및 전략

| 지침 | 목표 | 전략 |
|---------------------|--|---|
| I. 사회주의 윤리 | I-1. 국민, 공화국, 도덕적인 사회주의 국가가 형성하는 가치들의 견실한 윤리적 구조 창조(헌법 21조) | I-1.1. 물질사회를 정신적으로 변화 I-1.2. 혁명적 의식 개발 I-1.3. 자본의 윤리 극복 |
| II. 최고의 사회적 행복 | II-1. 국민 0%로 감축 및 빈곤 감축 가속화(헌법 3편, 5장) II-2. 사회적 재산에 기초한 사회주의 유형을 포함한 생산의 사회적 관계 변화(헌법 118조) II-3. 생산적 노동을 위한 기초능력 강화(헌법 87-89조 및 91조) II-4. 무상의 연대적인 윤리, 문화, 교육 촉진(헌법 3편 6장) II-5. 중남미지역 소외계층과의 연대 심화(헌법 152-153조) | II-1.1. 빈곤 극복 및 국민 상태와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된 계층을 통합적으로 지원 II-1.2. 보건 분야 보편적 통합 지원 심화 II-1.3. 적절한 주택 접근 보장 II-2.1. 보편적이며 연대적인 사회보장 및 노동시장의 제도적 장치 보장 II-2.2. 지속가능한 복지 산출을 위한 생활권 관리 보장 II-3.1. 생산계획 및 잉여물의 균등한 사회화에 대한 국민의 조직적 참여 촉진 II-4.1. 불리바리안 교육 보편화 심화 II-4.2. 민족 및 중남미 정체성을 강화하는 문화 대중화 |
| III. 주체적, 혁명적인 민주주의 | III-1. 취소할 수 없는 주체적이고 혁명적인 민주주의 달성과 그러한 민주주의에서 다수의 주권이 의사결정의 실질적인 절차를 구현(헌법 62조, 67조, 70조, 184조) III-2. 21세기 사회주의의 사회정치적 기초 건설 및 시민의 연대적, 권리 및 책임에 기초한 새로운 정치문화 형성(헌법 70조) III-3. 시민에 봉사하는 공공 부문 건설로 사회 변화 유도(헌법 141조) III-4. 공공정책 시민 참여 공간 확대(헌법 62조, 184조) III-5. 대중매체를 통한 진실되고 시의성이 높은 정보 실천 강화(헌법 58조) III-6. 대중매체가 국가 주권의 촉진 및 보호 역할 강화(헌법 58조) III-7. 주체적이고 혁명적인 민주주의 및 시민 양성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국내언론 체제 공고화(헌법 58조) | III-1.1. 국민의 의사결정 능력 촉진 III-2.1. 학교 공간을 민주주의 교육 및 실천 공간으로 전환 III-3.1. 공적 활동의 공정, 효과, 효율, 품질 등의 수준 제고 III-3.2. 공무원 신규 윤리 마련 III-4.1. 국민권리 개발에 필요한 제도적 구조 구축 III-4.2. 국가 공공행정에 국민의 주체적인 참여 보장 III-4.3. 부패의 체계적인 척결 III-5.1. 대국민 효과적인 정보도모방 및 교육망 개발 III-6.1. 언론 주권 촉진 III-7.1. 시민양성 수단으로서 언론매체 활용 촉진 III-7.2. 시민의 정보 및 언론 권리 및 의무의 균형 촉진 III-7.3. 다양한 언론 유형에의 접근 보편화 |
| IV. 사회주의 생산양식 | IV-1. 21세기 사회주의 경제 기초로서 새로운 내생적인 생산양식 개발 및 지속가능한 성장 달성(헌법 308조) IV-2. 식량주권 향상 및 식량안보 강화(헌법 305조) | IV-1.1. 부와 소득 분배의 실질적인 개선 IV-1.2. 사회적 경제 부문 확대로 소유양식 및 잉여분 배 변화 IV-1.3. 경제에 대한 국가의 효과적인 참여 보장 IV-1.4. 경제의 내생적 특성 강화 IV-2.1. 생산자 참여 증대 및 농업에 대한 국가 정책 조화 IV-2.2. 농업혁명 강화 및 대농장제 폐지 IV-2.3. 농업 생산용 정책, 서비스, 기금 등의 틀 개선 및 확대 |

표 3-15. 계속

| 지침 | 목표 | 전략 |
|--|--|--|
| IV. 사회주의 생산양식 | IV-3. 국가개발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촉진 및 지식접근 격차 축소(헌법 110조) IV-4. 비에너지 기초산업, 제조업, 기초서비스업 개발(헌법 302조) | IV-3.1. 국가의 필요성 및 잠재력을 지향한 국내 과학기술혁신 생산 증대 IV-3.2.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SNCT) 재설계 및 조직 IV-3.3. 과학문화 증진 IV-3.4.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개선 IV-4.1. 국내 제조업 및 기타 서비스 부문 강화 IV-4.2. 농촌지역 인프라 및 생산 개선 및 확대 |
| V. 국토개발 | V-1. 국토의 통합 및 균형 심화(헌법 128조, 300조) V-2. 활동 및 인구 분산(헌법 128조, 300조) | V-1.1. 축 및 지역을 통한 국토 통합 및 개발 V-1.2. 국토 정비를 통한 생태적 지속성 기초 확보 |
| | V-3. 지역 강화로 지역간 시너지 창출(헌법 153조) | V-3.1. 중남미지역과의 통합을 위한 인프라 개선 |
| | V-4. 삶의 질을 보유한 포용적인 도시(헌법 128조, 300조) | V-4.1. 중간도시체제 보장 |
| | V-5. 수자원과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공간 보호 및 오염된 토양과 수자원 회복(헌법 127조, 304조) | V-5.1. 주요 도심 주거지 개선 V-5.2. 자연환경 보존 및 유지 |
| | V-6. 국민의 환경의식 고취 및 인간의 개입에 따른 환경 영향 축소(헌법 127조, 129조) | V-6.1. 도시 신진대사 조정을 통한 환경 부담 축소 |
| | V-7. 생물다양성에서 풍부한 생태시스템 보존(헌법 129조) | V-7.1. 국토정비를 통한 생태적 지지 기초 확보 |
| | V-8.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생산 및 축적양식 달성(헌법 127~129조) | V-8.1. 비재생자원 개발 대안 마련 |
| | VI. 에너지 강국 | VI-1. 지역 에너지 강국으로의 변모 및 중남미 에너지통합 강화(헌법 12조, 153조, 302조) |
| VI-2. 석유개발 가속화로 생산 다각화 및 사회적 포용 강화를 위한 탄화수소의 내재화 강화(헌법 302조) | | VI-2.1. 탄화수소 내재화 강화 VI-2.2. 에너지원으로 탄화수소 활용에 따라 영향을 받는 공동체의 환경 및 삶의 질 보존 및 개선 VI-2.3. 전체 공정에서 석유수의 획득 최대화를 위한 정책 심화 |
| VI-3.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환경 보존에 기여하도록 보장 | | VI-3.1.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촉진 |
| VI-4. 가스 및 기타 대체에너지원에 기초한 추가적인 발전으로 방향 전환(헌법 302조) | | VI-4.1. 탄화수소 및 에너지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투자 우대 |

표 3-15. 계속

| 지침 | 목표 | 전략 |
|--------------------------|---|---|
| VII. 국제정치 역할 쇄신 | VII-1. 주권 강화로 지역의 지정학적 블록화 및 세계 다극체제 형성 촉진(헌법 152~153조) | VII-1.1. 세계 패권 블록에 대한 주권관계 유지 VII-1.2. 세계, 지역, 역내 협력 및 통합의 다극체제 형성 추진 |
| | VII-2. 지리전략적 관심 분야 설정으로 정치, 경제, 문화관계 다각화(헌법 153~155조) | VII-2.1. 중남미 국가 간 통합 발전 VII-2.2. 신금융통합질서 제도화 및 공정무역 구축 VII-2.3. 문화교류 심화 및 과학기술 독립 |
| | VII-3. 국가 간 우호대화 심화 및 사상, 종교, 자결 존중(헌법 전문) | VII-3.1. 개도국 간 연대관계 강화 VII-3.2. 신국제외사소통질서 창출 |

자료: Presidencia de República Bolivariana de Venezuela(2007b) 활용 필자 정리.

2) 국가개발계획의 평가 및 전망

PNDSB 2007-2013은 21세기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개념적으로 정리하고 필요한 전략과 정책들을 수사적으로 나열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헌법 개정과 대통령의 비상입법권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변화의 양상들은 개발계획에 수록된 내용들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2007년 이후 베네수엘라 경제정책에서 나타난 변화들은 사회주의 생산양식으로서의 변화라는 지침 아래에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저소득층 지원 정책, 사회적 생산기업(EPS) 육성, 경제에 대한 국가 참여 확대, 토지 관리를 포함한 농업 및 농촌 정책 등이 대표적인 정책적 변화였다.

이와 같은 21세기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차베스 정부의 국가개발계획은 2012년 10월 대선에서 연임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차베스 대통령은 2012년 6월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차기에 실시할 2차 사회주의 계획(Segundo Plan Socialista 2013-2019)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¹⁴⁸⁾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 차베스가 “현재 베

표 3-16. 제2차 사회주의계획의 5대 역사적 목표

| 5대 역사적 목표 | 국가 목표 |
|---|---|
| I. 독립 200년 이후 회복해 온 가치 보호, 확대, 공고화 | I-1. 볼리바르혁명 지속성과 강화 보장 I-2. 석유자원 및 기타 전략자원에 대한 주권 유지 및 강화 I-3. 국민소득의 주권적 관리 보장 I-4. 국민의 먹거리 권리 보장을 위한 식량주권 달성 I-5. 국민의 요구에 부합된 과학기술 능력 개발 I-6. 미래세대를 위한 자원과 부를 확보하면서 국가 독립 및 주권 보호를 위한 국방력 강화 |
| II. 21세기 볼리바르사회주의 건설 지속 | II-1. 볼리바르사회주의로의 이행에 따른 경제체제 변환 추진: 자본주의적 석유 불로소득 모델에서 생산력 개발에 기초한 사회주의 생산경제로의 전환 II-2.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건설 II-3. 국민권력 및 사회민주주의 공고화 및 확대 II-4. 사회주의 해방자 가치에 근거한 사회의 새로운 윤리적, 도덕적, 정신적 방향 소집 및 촉진 II-5. 법치와 정의의 새로운 사회민주주의 국가를 위한 최종 돌파구 달성 |
| III. 지역 평화구축을 보장하는 중남미통합체 내에서 정치, 경제, 사회 강국으로 변모 | III-1. 세계 에너지 강국으로서의 역할 강화 III-2. 국민의 최대 행복 창출을 위해 자원이 제공하는 잠재력과 볼리바르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물질 토대의 최적 활용을 통한 국가 경제력 개발 III-3. 군사력 형성 및 확대 III-4. 국가적, 지역적 및 중남미의 새로운 지정학 개발 심화 |
| IV. 보편적 균형 달성과 지구평화를 보장하는 다극체제 중심의 신국제 지정학 개발에 기여 | IV-1. 중남미 동맹 구축에서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 지속 IV-2. 국가 및 중남미 정체성 구축 IV-3. 제국적인 지배가 없으면서 자결을 존중하는 다극 세계 발전 지속적인 추진 IV-4. 반역사적이고 신파시스트적인 제국주의 및 신식민주의 체제의 해체 기여 |
| V. 지구생명 보호 및 인류 구원 | V-1.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에 기초한, 천연자원의 합리적인·최적의·지속가능한 사용을 보장하는 생태사회주의 생산경제 모델 건설 및 촉진 V-2. 국민의 지고한 편익을 위해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 영구주권 보호 V-3. 국가 및 중남미의 역사 및 문화유산 보호 V-4. 약탈적 자본주의 모델의 결과인 기후변화 원인 억제 및 효과 복구를 위한 글로벌 노력에 기여 |

자료: Chavez(2012), Propuesta del Candidato de la Patria Comandante Hugo Chávez: Para la Gestión Bolivariana Socialista 2013-2019, p. 9.

네수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경제적 현상은 자본주의이고, 사회주의는 겨우 역동성을 주입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라고 평가함으로써 차기

148) Propuesta del Candidato de la Patria Comandante Hugo Chávez: Para la Gestión Bolivariana Socialista 2013-2019는 선관위에 제출한 대선공약이다.

집권 기간 동안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더욱 매진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임을 예상케 했다.¹⁴⁹⁾ ‘2차 사회주의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PNDSEB 2007-2013에 포함된 전략과 정책의 개념들이 더욱 세부적으로 확대되었고, 이념적 문제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정책 시행의 단계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자원, 주택 및 보건 등 일부 분야에서는 기존 정책을 강화하는 수준에 그치기도 하겠지만 세제, 공동체위원회, 토지제도, 경제민주화 등에서는 질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즉, 자원 관련 세제 강화, 대농장제도의 완전 폐지, 모든 기초생활품 분야 및 주요 자원 생산 수단에 대한 노동자와 국가의 참여 확대 계획 등이 ‘2차 사회주의 계획’에 포함된 주요 경제 정책 목표들이다.

3) 주요 개발계획

베네수엘라와의 유망 협력 분야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1차 및 2차 사회주의계획(Segundo Plan Socialista 2013-2019)에 포함된 주요 목표에 기반한 정책들을 세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2차 사회주의계획에서 제시된 경제 및 사회 부문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개발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가) 자원민족주의 강화

베네수엘라의 석유 및 광물자원 개발정책은 자원민족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 및 민간 부문에 대한 국가 통제, 특히 석유공사(PDVSA)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 및 강화하면서 다수 지분 확보를 통하

149) Mathaba.Net(2012), p. 1. <http://mathaba.net/news/?x=631046> (2012. 8. 14.)

여 공공-민간-사회 부문이 참여하는 혼합기업(empresa mixta)에서의 국가 역할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국가는 석유 부문에서처럼 영토 내 광물자원을 개발하는 국유기업을 포함하여 탄화수소자원 및 광물자원 개발망에 포함된 기업들을 통제할 수단(세제 강화, 유통 통제, 개발재원 확보)¹⁵⁰⁾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 석유 및 광물자원개발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가 광물가격 산정에 참여하고, 자원개발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사상적 의식 고취와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정책 방향을 수립하면서 베네수엘라의 투자 환경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나) 석유 및 가스산업 개발 계획

2차 사회주의계획에 포함된 베네수엘라 석유개발정책에는¹⁵¹⁾ 첫째, 대규모 탄화수소 매장량을 기초로 적극적인 개발정책과 보호정책을 병행하면서 원유 생산 능력을 2014년 400만 b/d과 2019년 600만 b/d로, 천연가스 생산 능력을 92억 4,700만 ft/d와 119억 4,700만 ft/d로 각각 제고시킬 계획이다.

둘째, 오리노코유전지대(Faja Petrolífera del Orinoco)를 개발할 계획이다. 확인매장량 추가 확보를 통해 생산 능력을 2019년에 400만 b/d까지 제고할 계획인데, 여기에는 원유 생산 및 가공을 목적으로 신규로 설립된 6개 혼합기업의 생산량 계획(2019년 209만 b/d)이 포함되어 있다.

150) 베네수엘라는 국가가 주도하는 개발프로젝트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베네수엘라 공동기금(Fondo Conjuntado Chino-Venezolano)을 강화하고, 유사한 기금을 설정할 상대국을 모색하고 있다.

151) Chavez(2012), p. 27.

또한 오리노코유전지대에서 생산되는 초중질류(8°API)를 32~42°API로 전환하는 신규 설비(100만 톤/d)와 총 정유 능력 72만 b/d의 2개 신규 정유소(입지: Cabruta 및 José Antonio Anzoátegui 산업단지)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 외에도 베네수엘라는 오리노코유전지대 개발과 관련하여 2,000만 배럴 규모의 원유 저장설비, 송유관과 회석관(diluenducto)을 연결하는 연장 2,000km 배관, 하상터미널(200만 b/d), 5개 화력발전소(2,620MW),¹⁵²⁾ 2개 산업주택지(카라보보 및 후닌), 6개 사회주의석유산업기지(BPISOS: Bases petroindustriales Socialistas)¹⁵³⁾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셋째, 유정 시추, 재개발 및 정비를 통해 전통적인 석유 및 가스 유전에서 생산을 지속할 계획이다.

넷째, 베네수엘라는 Rafael Urdaneta, Mariscal Sucre, Plataforma Deltana 프로젝트 등의 해상가스전 개발을 통해 가스 생산 능력을 2014년 7억 2,000만 b/d, 2019년 20억 3,000만 b/d로 향상시키고, 신규의 비수반 천연가스 매장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Blanquilla, Golfo de Venezuela, Ensenada de Barcelona, Mariscal Sucre 및 Fachada Atlántica 등에서의 탐사활동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다섯째, 베네수엘라는 Paraguana 정유단지를 포함하여 국내에 6개 정유공장(130만 b/d)을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 유전개발로 생산되는 중질류

152) 오리노코유전지대 초중질류 업그레이드 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석유코크스를 연료로 사용한다.

153) Palital, Chaguaramas, San Diego de Cabrutica에 건설될 6개 기지는 유전개발에 필요한 금속기계, 유정서비스, 선박, 드릴 · 밸브 · 도관 · 신관 등의 제조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및 초중질류를 정제할 목적으로 기존 정유소의 개보수 및 신규 건설을 포함한 정유설비 투자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¹⁵⁴⁾ 이 계획에 따라 2018년까지 349억 달러를 투자하여 국내 정유능력을 180만 배럴로 확대하고, 연료유 생산을 감축하는 대신 고부가가치의 정제유 공급 능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여섯째, 베네수엘라는 석유 및 가스의 수송, 저장 및 배송 설비를 최적화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기존의 Sumandes와 Sisor 송유관을 확장하고 Maturín(Puerto La Cruz), Planta Ramón Laguna(Bajo Grande), La Fría(El Vigía), Barquisimeto(El Palito) 등 신규 송유관을 건설할 예정이다. 또한 El Guamache와 Puerto Pesquero Güiría 간의 연료공급 시설망을 확장하고, Planta del Oeste de Caracas, Catia La Mar, Batalla de Santa Inés, Cabruta, Jose 등 신규 설비를 건설할 예정이다. 가스 수송을 위해서는 José Francisco Bermúdez(SINORGAS), Norte Llanero, Eje Orinco 등 신규 가스관을 건설하여 국가 전체 가스관을 총 1,965km로 연장하고자 한다. 한편 Soto I, Soto II, Piritál I 및 San Joaquín IV 프로젝트를 통하여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 능력을 12만 b/d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베네수엘라는 LPG 수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메탄 공급망을 연장 1만 1,760km로 확장할 계획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석유 및 파생상품의 수출시장을 다각화할 계획인데, 중남미지역에서의 에너지통합전략과 중국과의 에너지협력이 시장다각화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즉, 베네수엘라는 에너지 시장 다각화를 통하여 2019년에 아시아지역에 220만 b/d, 중남미지역에 125만

154) 확장 및 개보수 대상 정유소: El Palito, Puerto La Cruz, Complejo Refinador Paraguaná; 3개 신규 건설 정유소: Batalla de Santa Inés(10만 b/d), Petrobicentenario(35만 b/d), Cabruta(22만 b/d).

b/d, 유럽에 55만 b/d, 그리고 북미에 115만 b/d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¹⁵⁵⁾

다) 석유화학산업 육성 계획

베네수엘라는 산유국이라는 지위를 활용하여 석유화학산업 육성 계획을 2차 사회주의계획에 포함시켰다. 이는 천연가스, 나프타, 정유 유분 등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자원산업화를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Ana María Campos, Morón, José Antonio Anzoátegui, Paraguaná, Navay, Puerto de Nutrias, Guiria 등이 주요 석유화학 개발 사업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개발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 목표는 다음 네 가지다.¹⁵⁶⁾ 첫째, 질소 및 인산 비료 생산량을 43% 증대시켜 내수를 충족시키고 베네수엘라를 비료 수출국으로 전환시킨다. 둘째, 현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올레핀과 플라스틱수지 생산 능력을 300% 제고시킨다. 셋째, 방향족 유도제품 생산과 메탄올 및 요소의 생산체인 개발을 위하여 화학부문 생산설비를 87% 확장한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주택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국 10개 신규 공장에 주택 및 비품 제조모듈(Petrocasas)을 개발하여 주택(연간 5만 채)과 창호(연간 각 80만 개)를 2013년 2/4분기부터 생산한다.

라) 국가전력체계 개발 계획

기존의 전력공급량 부족 상황을 해소하고 산업정책(석유, 가스, 광업,

155) Chavez(2012), p. 28.

156) Chavez(2012), pp. 27-28.

석유화학) 및 주택프로그램(Gran Misión Vivienda) 시행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가 전력체계를 통제 및 관리하는 방안이 2차 사회주의계획에서 제시되었다.¹⁵⁷⁾ 주요 목표는 국가전력체계의 강화 및 확대, 천연가스, 코크스 및 기타 에너지를 활용하는 발전 매트릭스 다각화, 개발 중인 수력발전소 완공 및 후속사업 추진,¹⁵⁸⁾ 기존 화력발전소의¹⁵⁹⁾ 효율적인 발전기술 활용 촉진, 송·배전망 확대 및 활용 개선,¹⁶⁰⁾ 전력서비스의 효율성 및 품질 개선, 풍력 등 대체에너지를 활용한 전기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 촉진 등에 두었다.

4. 유망 협력 분야

가. 볼리비아

볼리비아의 국가개발계획은 중남미 다른 국가들의 개발계획보다 비교

157) Chavez(2012), pp. 28-29.

158) 수력발전소: Tocomá, Uribante Caparo, El Chorrín.

159) 화력발전소: Planta Josefa Camejo, Planta Termo Termobarranca, Planta Pedro Camejo, Planta Termozulia III, Planta El Sitio, Planta Alberto Lovera, Planta Ezequiel Zamora, Planta San Diego de Cabrutica, Planta Cumaná.

160) △Plan Robusto 프로젝트: 하위 변전소(San Carlos II-400/115kV, Chivacoa II-400/115kV, Portuguesa 400/115kV, Carabobo II 400/230kV)와 연결된 송전설비 및 계열(SCV) 송전체계(Horqueta 230kV, Línea N°2 Uribante - El Vigía II 등) 확충 △서부지역전력체계 확장 및 통합프로젝트: Barinas, Mérida, Táchira, Alto Apure, Trujillo, Zulia 등 서부지역 전력체계를 통합하고, 45개 변전소, 4,044km 송전선로, 7,096km 배전선로, 8,654MW 발전소 등을 건설 △중부지역전력체계 확장 및 통합프로젝트: Apure, Aragua, Carabobo, Cojedes, Capital, Falcón, Guárico, Lara, Miranda, Portuguesa, Vargas, Yaracuy 등 중부지역 전력체계를 통합하고, 69개 변전소, 4,075km 송전선로, 3,179km 배전선로, 5,542MW 발전소 등을 건설 △동부지역전력체계 확장 및 통합프로젝트: Anzoátegui, Bolívar, Delta Amacuro, Monagas, Nueva Esparta, Sucre 등 동부지역 전력체계를 통합하고, 48개 변전소, 4,110km 송전선로, 4,743km 배전선로, 6,780MW 발전소 등을 건설.

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제시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유망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볼리비아 국가개발계획 분석을 토대로 우리 정부 및 기업의 협력·진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 분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 차원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천연가스산업, 철도산업, 전력산업 등 볼리비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들 산업의 육성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볼리비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심 산업 분야에서 풍부한 정책개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ODA나 KSP를 활용해 볼리비아 정부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이 산업들의 종합육성계획 프로젝트를 선제적으로 제안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력 플랜트, 석유화학플랜트 등 플랜트 분야도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판단된다. 이미 삼성엔지니어링은 2012년에 볼리비아 정부가 국가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8억 4,000만 달러 규모의 요소-비료플랜트 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주한 바 있다. 볼리비아 정부는 현재 전력난 해소 및 전력 수출을 위해 다수의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고려하고 있어 이들 부문에서의 사업 기회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더욱 큰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볼리비아 정부는 천연가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석유화학산업단지 건설, GTL 공장 건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볼리비아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택난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PVC 주택 사업에도 LH 공사를 비롯한 우리 기업의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표 3-17. 유망 협력 분야: 볼리비아

| 협력 분야 | 선정 근거 |
|---------------------------|--|
| 천연가스산업 종합육성계획 수립 지원 | - 천연가스 산업화 정책 추진 - 국가천연가스공급계획 추진 - 국가차량연료전환계획 추진 |
| 중장기 전력수급계획 수립 지원 | - 만성적 전력난 타개를 위한 국가에너지모델 수립 및 전력효율성 프로그램 추진 - 국영전력회사(ENDE) 설립 통해 전력 생산 확대 도모 - 전력 수출을 위한 메가프로젝트 추진 |
| 철도산업 육성계획 수립 지원 | - 종합철도시스템 계획 수립 |
| 플랜트 | - 전력 플랜트 · 전력 수출을 위한 메가프로젝트 추진 · 주요 프로젝트: Cachuela Esperanza, Rositas, El Bala, Misicuni, San José, Miguillas - 석유화학플랜트 · GTL(천연가스 액화기술) 공장 건설 · 메탄올 공장 설립 · 폴리에틸렌 생산 석유화학단지 건설 · PVC 주택(Petrocasas) 생산 공장 설립 |
| 건설 · 인프라 | - 도로 및 교량 · 도로 대혁명 프로젝트 추진 · 5개의 대단위 회랑 건설 사업 추진 - 철도 · 동서부 연계 철도 건설 · 대서양-태평양 연결 신철도회랑 건설 · El Alto - Oruro간 고속철 건설 - 공항 · 공항 현대화: 레이더 시스템 도입(Viru Viru, El Alto, Trinidad 공항) · 신공항 건설: Dignidad, Copacabana, Puerto Rico, Guayaramerín, Rurrenabaque, San Ignacio de Velasco, Uyuni, Camiri - 수로 · 대서양 연결(Mutún-Puerto Bush) 수로 건설 |

자료: 필자 정리.

셋째, 도로, 철도, 공항, 수로 등 건설 · 인프라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도로 부문에서 볼리비아 정부는 5개의 대단위 회랑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철도 부문에서도 고속철 건설, 대서양-태평양 연결 신철도회랑 건설 등 대단위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우리 기업이 주목할 분야는 공항 현대화 및 신공항 건설

프로젝트다. 공항 현대화 사업의 요체는 레이더 시스템 도입이다. 이미 일부 우리 기업이 레이더 시스템 도입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진출을 타진 중이다. 8개에 달하는 신공항 건설 사업도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대서양을 연결하는 대단위 수로 건설 사업도 우리 기업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 에콰도르

에콰도르의 국가개발계획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기존의 일차산품에 의존하는 지속불가능한 경제발전 시스템에서 탈피하고 자원 외에도 새로이 경쟁력 있는 산업과 상품을 개발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국가개발계획은 중단기적으로 달성하고자하는 12개 목표를 선정하고 각 목표의 달성을 위해 어떤 산업 부문을 발전시키고자 하는지 관심 산업을 제시하고 있다.

에콰도르 정부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산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인적자원을 형성하고 노동자의 고용기회를 늘리는 데 관련된 기초적인 사회서비스 부문이다. 관련 부문으로는 교육, 보건, 주거, 위생 인프라, 사회보장제도 등이다. 둘째는 고부가가치 산업과 이와 관련된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부문이다. 구체적으로 전력, 바이오 에너지, 의약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야금산업, 통신, 도로, 물류, R&D, 고등교육, 기술교육, 기술이전 등이 해당된다. 셋째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그리고 환경보호를 위한 환경서비스 산업이다.

한국이 에콰도르와 협력할 수 있는 유망 분야는 에콰도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문 중에서 한국이 경쟁력이 있고 진출이 가능한 분야에서

선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최근 한국기업과 공공기관이 에콰도르에 진출 관심을 보이고 있거나 진출하고 있는 분야를 참고하여 유망 진출 분야를 선정하였다. 선정 분야는 고등교육과 기술이전, IT 기술, 플랜트, 교통 인프라이다.

첫째, 고등교육과 기술이전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개발계획은 고등교육과 연구활동을 활성화하여 산업생산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였다. 한국은 ODA 사업으로 에콰도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력, 재생에너지, 석유, 소프트웨어, 농축산업, 물류, 도로, 공공행정 개선, 나노기술, 화학 부문 등에 한국의 산업 전문가를 파견하여 중소득국가인 에콰도르의 개발 수요에 부응하는 ODA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기관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컨설팅 등의 협력 사업도 가능할 전망이다.

둘째, IT 기술 부문에서는 전자정부, 전자통관시스템, 지능형교통시스템 등에서 협력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개발계획은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IT 기술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에콰도르의 관세청 현대화를 위해 키토와 과야킬 등 일부 도시에서 통관자동화와 통관단일창구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향후 한국은 사업 대상 도시를 확대하면서 디지털국가회계시스템(Digital Brain)과 국가 데이터 센터 구축 등의 전자정부 사업과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분야 등에서 양국간 협력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플랜트 부문에서는 정유공장 확장 및 신설,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상하수도 시설 건설, 쓰레기 처리시설 건설, 신재생에너지 플랜트 건설 등에서 협력 기회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에콰도르가 석유 이외의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석유는 여전히 에콰도르의 중요한 자원이므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원유를 탐사하고 확인 매장량을 늘리며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여 자원의 고부가가치 상품화를 실현하는 것에도 여전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에콰도르는 현재 전력 생산의 96%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데, 정부는 현재 4% 정도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여 기존의 에너지 매트릭스를 변화시킬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수력발전, 지열, 바이오매스, 풍력, 태양광, 태양열 등의 발전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또한 상하수도과 같은 기초적인 위생 서비스 보급률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기업의 에콰도르 정유공장 건설 분야 진출이 활발한 추세이다. 특히 SK 건설은 에콰도르 정유공장 보수와 신설 프로젝트에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외국기업 중 하나이다. 2009년에는 노후한 에스메랄다스 정유공장을 보수하는 7,600만 달러 규모의 공사를 단독 수주했고, 2010년에는 2억 6,000만 달러의 마나비 정유공장 기본 설계도 수주했다. 상하수도 건설에도 한국의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

넷째, 교통인프라 개선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고 건설하는 부문이다. 에콰도르 정부는 국가개발계획에서 지역 개발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과 서비스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교통인프라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에콰도르의 지형을 고려한 교통인프라 수립계획을 지원하고, 지하철, 신항만, 도로, 공항 등의 건설 사업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18. 유망 협력 분야: 에콰도르

| 협력 분야 | 선정 근거 |
|------------|--|
| 고등교육과 기술이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DA 사업으로 한국의 산업전문가 파견: 전력, 재생에너지, 석유, 소프트웨어, 농축산업, 물류, 도로, 공공행정 개선, 나노기술, 화학, 의학 등 - 교육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
| IT 기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정부 - 전자통관시스템 - 지능형교통시스템 |
| 교통 인프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 - 신항만 - 도로 - 공항 |
| 플랜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유공장 - 석유화학 플랜트 - 상하수 플랜트 - 쓰레기 처리 시설 - 신재생에너지 플랜트(수력, 풍력, 태양열, 태양광 등)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생산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고등교육과 연구활동을 활성화할 계획 - 생산성 향상을 위해 IT 기술 보급을 확대할 계획 - 세관통관기간을 5일로 축소할 계획 - 도시 간 물류이동 시간을 10% 감축할 계획 - 교통시스템의 효율성 개선 -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석유 개발을 확대할 계획 - 원유 수출국에서 정유 수출국으로 전환할 계획 - 석유화학제품 생산량을 증대할 계획 -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할 계획 - 상하수도 공급을 확대할 계획 - 쓰레기 처리시설을 확대할 계획 |

자료: 필자 정리.

다.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의 1차 사회주의계획(PNDSB 2007-2013)은 21세기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개념적으로 정리하고 필요한 전략과 정책들을 수사적으로 나열한 한계가 있지만, 2013년부터 실시될 2차 사회주의계획의 초안은 개발이 필요한 주요 산업 부문과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전술한 국가개발계획과 주요 부문별 개발계획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 및 기업의 협력 가능성과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먼저 베네수엘라는 국가가 경제 전반을 장악하고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안데스 3국 가운데에서도 민간 부문이 단독으로 진출하기 가장 어려운 시장임을 인식해야 한다. 즉, 정부와 기업이 협력없이 독자적으로 진출을 모색할 경우 성공할 가능성이 낮음을 의

표 3-19. 유망 협력 분야: 베네수엘라

| 협력 분야 | 선정 근거 |
|----------|---|
| 자원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리노코유전지대 확인매장량 추가 확보 계획 - 전통 유정의 시추, 재개발 및 정비 계획 - 해상가스전 개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개발프로젝트: Blanquilla, Golfo de Venezuela, Ensenada de Barcelona, Marical Sucre 및 Fachada Atlántica 북부지역 |
| 플랜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유플랜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리노코유전지대 초중질류 정유설비 신규 건설 계획 · 기존 정유소 확장 및 개보수 계획: El Palito, Puerto La Cruz, Complejo Refinador Paraguáná · 3개 정유소 신규 건설 계획: Batalla de Santa Inés(10만 b/d), Petrobicentenario(35만 b/d), Cabruta(22만 b/d) - 가스플랜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 신규 건설: Soto I, Soto II, Pirital I 및 San Joaquín IV 프로젝트 - 석유화학플랜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화학단지 개발프로젝트: Ana María Campos, Morón, José Antonio Anzoátegui, Paraguaná, Navay, Puerto de Nutrias, Guiria · 질소/인산 비료 생산설비 확장 계획 · 올레핀 및 플라스틱수지 생산설비 확장 계획 · 방향족 유도제품 생산설비 및 메탄올/요소 생산체인 개발 계획 · PVC 주택(Petrocasas) 생산공장 10개 건설 계획 - 전력 플랜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력발전소 건설 후속사업 추진 계획 · 오리노코유전지대 5개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 |
| 건설 · 인프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리노코유전지대 인프라 개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유 저장설비, 송유관, 하상터미널, 배후지 주택, 사회주의석유산업기지(BPISOS) 건설 계획 - 송유관 확장 및 신규 건설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Sumandes 및 Sisor 송유관 확장 · 신규 송유관 건설: Maturín(Puerto La Cruz), Planta Ramón Laguna(Bajo Grande), La Fria(El Vígía), Barquisimeto(El Palito) · 메탄 공급망 확장(연장 1만 1,760km) 계획 · 가스파이프라인 건설 계획: José Francisco Bermúdez(SINORGAS), Norte Llanero, Eje Orinoco · 권역별 송 · 배전망 확장 및 통합프로젝트 |
| 금융협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베네수엘라 공동기금(Fondo Conjunto Chino-Venezolano) 강화 및 유사 기금 설정 상대국 모색 |

자료: Chavez(2012), Propuesta del Candidato de la Patria Comandante Hugo Chávez: Para la Gestión Bolivariana Socialista 2013-2019 활용 필자 작성.

미한다. 또한 베네수엘라 정부가 헌법을 통해 사회주의 건설을 명시하고 주권과 자립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국가 간의 협력 사업은 대등한 관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베네수엘라와의 협력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자원개발과 플랜트 부문이다. 전술한 석유 및 가스 부문, 석유화학 부문, 전력 부문에서 제시된 대부분의 개발 계획들이 자원 개발, 플랜트 및 인프라 건설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문별 개발 계획에서 무역협력, 기술협력, 금융협력, 환경협력 등이 더불어 제시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와 중국 간에 베네수엘라의 주요 수출품인 원유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역, 투자, 기술 및 금융협력 사례는 국가 간의 협력이 다차원적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¹⁶¹⁾

161) 제2차 사회주의계획 초안에서 나타난 중국과 베네수엘라 간의 협력 사례를 보면, 양국은 'Loans-for-Oil'의 대표적인 협력사례인 '중국-베네수엘라공동기금'을 바탕으로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 말까지 중국이 베네수엘라에 제공한 320억 달러의 차관은 베네수엘라가 추진한 인프라프로젝트(철도, 고속도로, 항만, 통신망), 사회개발프로젝트(주택, 병원, 보건소), 에너지개발프로젝트(정유소, 천연가스공설비, 원유 및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액화가스공설비, 석탄 생산·수송·마케팅프로젝트), 원유와 2차 가공품 운송 및 저장프로젝트, 산업통합프로젝트(상선 건조, 천연가스, 비료, 화학제품), 자동차산업프로젝트, 농산업·고기술회업·석유산업서비스업·철강·알루미늄·광업 프로젝트 등에 활용되고, 중국기업들은 이러한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했다. 또한 중국에서는 베네수엘라의 정유기술을 활용한 초중질류 정유시설을 공동으로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Chavez(2012), p. 13.

제4장 주요국의 부문별 경제협력 사례

1. 개발협력
2. 산업기술협력
3. 자원협력
4. 금융협력
5. 한국에 대한 시사점



1. 개발협력

가. 스페인의 국가개발계획 지원

스페인의 해외원조 공여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스페인은 1977년까지는 해외원조를 받는 수원국이었으나 1995년을 기점으로 공여국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1997년에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였다.

원조를 집행하는 기관은 무상원조와 유상원조 기관으로 구분된다. 무상원조는 1998년 외교부 산하에 설립된 스페인국제개발협력청(AECID: La Agencia Española de Cooperación Internacional para el Desarrollo)이 담당하는데, 많은 사업이 중남미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유상원조는 주로 경제부에서 담당하는데 개발협력기금(FAD: Fondo de Ayuda al Desarrollo)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스페인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원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식민지 역사가 있는 중남미에 큰 비중을 할애하고 있다는 데서 다른 공여국의 원조와 차이를 갖는다. 그리고 많은 원조사업이 ‘빈곤퇴치’를 목표로 실시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스페인의 대중남미지역 개발협력사업 중 주목할 사례로 평가되는 에콰도르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스페인의 대에콰도르 ODA 사업 중 두드러진 특징은 에콰도르의 국가개발계획에서 스페인이 협력할 수 있는 부문을 발굴해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원조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파리선언 이후 스페인은 자국의 ODA 사업이 수원국의 개발수요와 일치하도록 전략을 바꾸었다. 현재 에콰도르는 2009년부터 ‘5

개년 국가발전계획(Plan Nacional para el Buen Vivir 2009-2013, PNBV)'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스페인과 에콰도르 정부는 이 발전계획의 각 부문에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스페인의 ODA 사업으로 실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에콰도르-스페인 협력계획 2011-2013 (Marco de Asociación Ecuador-España 2011-2013)'¹⁶²⁾을 2010년 발표하였다.

양국간에 협력계획 수립에 대한 논의는 2010년 3월부터 시작되었다. 에콰도르 쪽에서는 주요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대표들의 논의를 거치고, 스페인 측에서는 AECID가 에콰도르에서 활동하는 스페인계 NGO, 시민사회, 지역사회, 행정부 등의 논의를 수렴하여 양국간의 협력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계획 수립 과정에서 UN을 비롯한 다자간개발기구와 기타 원조공여국의 자문도 반영하였다.¹⁶³⁾

양국은 에콰도르의 국가발전계획(PNBV)과 스페인의 '2009-2012 3차 해외원조 계획(III Plan Director de la Cooperación España 2009-2012, PDCE)' 간의 중복 분야와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선정하여 양국 협력사업의 목표를 정하였다. 구체적으로 PNBV의 12개 목표 가운데 5개, 그리고 PDCE의 세부 부문 중 5개 항목이 양국 협력 사업의 실행 부문으로 선정되었는데, 제도 개선과 인적자원 개발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에콰도르의 국가개발계획에 우선순위를 두어 협력 분야와 목표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 현재 스페인 ODA 사업의 70%가 에콰도르의 국가개발계획의 목표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¹⁶⁴⁾

162) AECID(2010), "Marco de Asociación Ecuador-España 2011-2013."

163) AECID(2010), p. 2.

164) AECID(2010), p. 2.

표 4-1. 에콰도르-스페인 협력사업의 주요 목표

에콰도르의 국가발전계획 목표 중 양국 협력사업의 목표로 선정된 항목

- 목표2. 시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개발
- 목표4. 자연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 목표9. 권리와 정의 보장
- 목표11. 사회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연대적인 경제 시스템 구축
- 목표12. 질 높은 삶(El Buen Vivir)을 위한 민주 국가 건설

스페인 해외원조 계획의 세부 부문 중 양국 협력사업 목표와 일치되는 항목

- 부문1. 민주적인 지배질서
- 부문3. 기초 사회서비스: 교육
- 부문5. 기초 사회 서비스: 물과 위생
- 부문6. 빈곤 감축을 위한 경제 성장
- 부문7. 지속가능한 환경과 기후와 환경 변화 방지

자료: AECID(2010), pp. 2-3.

둘째, 스페인의 ODA는 분권화되어 있다. 이는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카탈루냐, 마드리드, 갈리시아, 발레아레스, 바스코 등의 지방정부나 자치정부가 자체 재정으로 독립적으로 원조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이다.¹⁶⁵⁾ 이들은 직접 원조 사업을 실행하기도 하지만, NGO나 국제기구에 자금을 지원하고 이들 기관이 원조사업을 실제 실행하도록 하기도 한다. 현재 에콰도르에서 ODA 사업을 수행하는 스페인의 NGO는 40개 이상으로 집계된다.¹⁶⁶⁾ AECID의 조사에 의하면 이 중 31개 단체는 에콰도르에 상설 대표사무소를 두고 있다. 한해 평균 스페인 NGO의 사업 규모는 500만 달러로 추정되는데, 주 지원 분야는 에콰도르 국가개발계획의 달성 목표를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 교육, 보건, 환경, 생산성 향상, 지역 개발 등이다.¹⁶⁷⁾ 2005년부터 이 중 24개 기구는 에콰도르 주재 스페인 NGO 연합

165) AECID(2010), p. 26.

166) AECID(2010), p. 23.

167) AECID(2010), p. 23.

(COOEC)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스페인의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공헌(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일환으로 ODA를 수행하는데,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Mapfre, Repsol, Santillana, Telefónica 등이 있다.¹⁶⁸⁾ 이들은 주로 환경, 교육, 어린이 관련 분야를 지원한다.

지방정부, NGO, 기업 등 다양한 원조기관의 원조사업은 AECID 산하 에콰도르기술협력원(OTC: Oficina Técnica de Cooperación en el Ecuador)이 총괄하여 조정한다.¹⁶⁹⁾ OTC는 1987년에 스페인 대사관 산하에 설치된 기구로 에콰도르에서 진행되는 스페인의 다양한 원조 공여 단체의 사업발굴, 평가, 조율하는 업무는 물론 에콰도르 정부와 약속한 협력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는 역할 등을 담당한다.

셋째, 스페인의 원조가 2008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는 스페인의 중남미 전체에 대한 ODA 지원이 감소하고 있는 데서 기인한다. 스페인의 원조가 감소하는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스페인의 재정이 악화된 것과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은 여전히 안데스 3국에 대한 최대 원조 공여국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스페인의 재정위기가 지속되는 한 스페인의 원조는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스페인 대사관과 OTC는 자국의 ODA 사업이 에콰도르의 국가개발계획 실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대화 기구를 마련할 계획이다.¹⁷⁰⁾ 이 대화 기구는 스페인 대사,

168) AECID(2010), p. 24.

169) AECID(2010), p. 23.

표 4-2. 안데스 3국에 대한 ODA 주요 공여국(2009~10년 평균)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 볼리비아 | | 베네수엘라 | | 에콰도르 | |
|----|--------------|------|-------|------|--------------|------|
| | 공여국 | 지원금액 | 공여국 | 지원금액 | 공여국 | 지원금액 |
| 1 | 스페인 | 124 | 스페인 | 11 | 스페인 | 71 |
| 2 | IDB Sp. Fund | 102 | 미국 | 10 | 미국 | 48 |
| 3 | 미국 | 94 | 독일 | 8 | EU | 44 |
| 4 | EU | 71 | 프랑스 | 7 | 독일 | 29 |
| 5 | 독일 | 62 | GEF | 7 | 일본 | 19 |
| 6 | 네덜란드 | 46 | EU | 5 | 벨기에 | 13 |
| 7 | 일본 | 44 | 일본 | 3 | 프랑스 | 9 |
| 8 | IDA | 40 | 영국 | 2 | IDB Sp. Fund | 8 |
| 9 | 덴마크 | 38 | UNFPA | 2 | Global Fund | 7 |
| 10 | 스웨덴 | 29 | UNCHR | 1 | GEF | 5 |

자료: OECD Statistics, <http://www.oecd.org/statistics>, (2012, 11, 1)

AECID 에콰도르 대표 그리고 에콰도르에서 ODA를 진행하는 스페인 행정부와 스페인 자치정부, NGO, 기업 등의 대표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나. 다국적 기금의 연구기관 지원

‘Think Tank Initiative’는 개발도상국의 정책연구기관을 지원하여 이들의 연구 역량을 강화시키고 정부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을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의 국제개발연구센터(IDRC: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er)¹⁷¹⁾와 William and Flora Hewlett Foundation, 미국의 the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이 개발도상국

170) AECID(2010), p. 42.

171) IDRC는 개도국 연구자를 지원하기 위해 1970년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IDRC는 각국의 연구자들이 해당 국가의 경제·사회·환경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구기관이 직면한 재정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2008년부터 시작하였다.¹⁷²⁾ 프로그램은 총 10년간 시행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영국의 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와 네덜란드의 국제협력 집행위원회총국(the Netherlands Directorate-General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이 자금을 공여하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공여기관은 개발도상국 연구기관에 연구 자금을 제공하는데, 특정 연구에 대한 자금이 아니라 연구기관의 운영 전반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원 대상 연구기관을 독립연구기관에 한정한다. 대부분 개발도상국의 독립된 연구기관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해당국에 필요한 주제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계획을 수립하려 해도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국제 공여기관으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특정 프로젝트에 한정되거나 공여기관 또는 공여국과 관련된 연구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Think Tank Initiatives는 이러한 개도국 독립연구기관의 재정 문제를 해결해줄 목적으로 핵심적인 운영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5개 공여기관들은 연구기관 지원 자금으로 2010년 3월까지 약 1,100만 달러를 제공하였다.¹⁷³⁾ 자금제공 이외에도 연구의 질·의사소통 능력·연구기관 조직 등을 개선할 목적으로 자문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현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남미, 남아시아의 23개 국가에서 51개

172) IDRC(2011), “Think Tanks: Informe Anual 2010-2011 de la Iniciativa Think Tank,” p. 2.

173) IDRC(2011), p. 36.

표 4-3. Think Tank Initiatives 공여 금액과 집행액

(단위: 달러)

| | 2007.12월 ~2009. 3월 | 2009.4월 ~2010.3월 | 전체 |
|---|-----------------------|---------------------|------------|
| 전체 공여 금액 | 1,936,355 | 9,206,689 | 11,143,044 |
| 1) William and Flora Hewlett Foundation | 119,812 | 1,823,165 | 1,942,977 |
| 2)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 0 | 6,314,117 | 6,314,117 |
| 3) IDRC | 1,816,543 | 1,069,407 | 2,885,950 |
| 전체 지출 | 1,936,355 | 9,206,689 | 11,143,044 |
| 1) 운영비 | 1,299,156 | 1,923,560 | 3,222,716 |
| 2) 대상기관 선정 비용 | 368,217 | 123,074 | 491,291 |
| 3) 감독과 평가 | 43,154 | 164,703 | 207,857 |
| 4) 연구비 | 212,991 | 6,154,330 | 6,367,321 |
| 5) 행정비 | 12,837 | 841,022 | 853,859 |

자료: IDRC(2011), p. 36.

의 연구기관을 지원하고 있다.¹⁷⁴⁾ 공여국의 연구기관이 수원국과 관련된 정책 연구를 직접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각국 연구기관을 재정적으로만 지원하는 이유는 수원국의 국별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현지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각국의 연구기관이 가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¹⁷⁵⁾ 현재 많은 개발도상국은 국가의 공공정책에 대한 연구를 직접적으로 수행하기보다는 외국의 연구자나 연구기관에 의뢰하고 있다. 따라서 현지인의 수요가 정확하게 정책 연구에 반영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정책 연구는 해당국의 역사와 국민이 미래에 희망하는 수요를 모두 반영해야 하는데 해당 국가의 연구기관과 연구자가 이러한 정

174) IDRC(2011), p. 2.

175) Think Tank Initiatives.

http://www.idrc.ca/EN/Programs/Social_and_Economic_Policy/Think_Tank_Initiative/Pages/About.aspx(2012. 11. 15)

표 4-4. IDRC의 Think Tank Initiatives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

| 대상국 | 지원 연구기관 | 기관 설명 |
|------|---------------|--|
| 볼리비아 | Fundación ARU | 볼리비아의 경제를 주로 연구하는 비영리 연구기관. 연구 범위는 거시경제, 사회보호, 분권화, 교육 등 |
| | INESAD | 개도국 관련 이슈를 연구하는 독립된 사회과학 연구기관. 연구 범위는 환경, 지역경제, 복지, 거시경제 |
| 에콰도르 | CEDA | 환경법을 연구하는 독립된 연구기관.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연구 |
| | Grupo FARO | 시민사회와 기업, 공공기관의 공공정책 참여를 지원하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이며 평등한 공공정책의 실현을 달성하고자 하는 초당파 독립 연구기관. 연구 분야는 환경과 사회, 공공 거버넌스, 평등과 기회, 정보와 사회, 성장과 경쟁의 5개 |

자료: Think Tank Initiatives(2012. 11. 15).

책연구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지원 대상 연구기관은 개발도상국에서 각국이 당면한 경제 성장, 분배, 빈곤 감축 등의 문제를 연구하는 독립된 연구기관 중에서 선정된다.¹⁷⁶⁾ 선정된 연구기관에는 2년 또는 4년 동안 운영비를 지원하여 재정적인 취약성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재정 지원 외에도 외국 전문가와의 교환 프로그램,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특히 역량 강화는 연구 방법론, 공보, 연구기관 발전의 세 분야를 중심으로 수행한다.

중남미에서는 볼리비아,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파라과이, 페루 7개 국가의 12개 연구기관을 지원하고 있다. 볼리비아에서는 ARU 재단(Fundación ARU)과 개발연구원(INESAD: Instituto de Estudios Avanzados en Desarrollo)을, 에콰도르에서는 환경권 연구소(CEDA: Centro Ecuatoriano de Derecho Ambiental)와 개혁과 기회의

176) Think Tank Initiatives(2012. 11. 15).

개선을 위한 재단(Grupo Faro: Fundación para el Avance de las Reformas y las Oportunidades)을 지원한다.

볼리비아의 Fundación ARU는 2007년에 설립된 신생 연구기관이다.¹⁷⁷⁾ 설립 초기에는 경제정책 연구와 정책 평가 두 부문에만 주력하였다. 2010년도에는 Think Tank Initiatives의 지원 대상 연구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관의 조직을 안정화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현재는 고용, 교육, 보건, 복지, 기회 균등 등에 대한 정책 평가팀, 경제정책팀, 거시경제팀, 에너지와 경제발전팀의 연구 조직을 갖추고 있다.

볼리비아의 INESAD는 젊은 연구자를 중심으로 사회경제 분야의 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2006년도에 설립되었다.¹⁷⁸⁾ 2010년에는 연구기관의 성격을 비영리연구기관으로 규정하였다. INESAD는 볼리비아 정부와 중남미 국제기구나 지역협력체를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 분야는 크게 환경경제, 지역경제, 복지, 거시경제의 네 가지로 나뉘며, 세부적으로 분권화, 지역개발, 노동, 교육, 복지, 재정, 통화, 세계화 등의 분야를 연구한다. INESAD는 향후 5년간 Think Tank Initiatives의 재정 지원을 받는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INESAD는 이 기회를 통해 연구의 질과 기관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에콰도르의 Grupo FARO는 2004년 설립된 초당파 연구기관이다.¹⁷⁹⁾ 설립 목적은 정부와 민간,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여 이를 기반으로 효

177) Fundación ARU, <http://www.aru.org.bo>(2012. 11. 15).

178) INESAD, www.inesad.edu.bo(2012. 11. 15).

179) Grupo FARO, www.grupofaro.org(2012. 11. 15).

을적인 공공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연구 분야는 환경과 사회, 공공 거버넌스, 평등과 기회, 정보와 사회, 성장과 경쟁의 5개 분야이다. Grupo FARO는 다양한 국제기구와 지역기구로부터 재정을 지원 받고 있다. 재정지원 기관 중에는 World Bank, 미주개발은행(IDB), 안데스개발공사(CAF) 등이 있다. IDRC는 2010년에 약 7만 3,000달러를, 2011년에 약 18만 5,000달러를 지원하였는데 이는 Grupo FARO 전체 재정의 7.32%와 9.8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에콰도르의 CEDA는 1996년에 설립된 환경권을 연구하는 독립된 연구기관이다.¹⁸⁰⁾ 특히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공공정책을 연구하고, 연구 이외에도 교육훈련, 기술 자문, 교육, 자료 출간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2010년부터 Think Tank Initiatives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CEDA는 이 지원이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정책 연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고 평가한다.

다. 브라질의 경제발전 경험 공유

2003년 룰라 대통령 집권 이후 브라질과 베네수엘라는 전략적동맹(strategic alliance) 관계를 맺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양국의 전략적 협력은 룰라 정부의 전통을 계승한 지우마 정부에 들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최근 양국의 협력에서 주목되는 것은 개발 경험 공유 사업이다. 특히 브라질의 앞선 개발 경험을 베네수엘라에 전수하는 협력사업이 활발하게

180) CEDA, www.ceda.org.ec(2012. 11. 15).

추진되고 있다. 이 같은 개발 경험 전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브라질의 대표적인 연구기관 및 금융기관이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 대표 사무소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현재 양국간에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개발 경험의 전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브라질연방저축은행(CEF)을 통한 주택·금융분야 경험 전수

베네수엘라는 만성적인 주택공급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약 300만 호의 추가 주택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차베스 정부도 이 같은 주택 부족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카라카스 등 대도시의 주거지역 개선 사업에 관심이 많다.

2010년 4월 브라질리아에서 개최된 제9차 양국 정상회의에서 카라카스의 지속가능한 주거지역 개발계획 협력지원 협정이 체결되었다. 브라질의 연방저축은행(CEF: Caixa Economica Federal)은 베네수엘라 주택·공공사업부와 주택 개선 자문 및 카라카스 남부지역 산아구스틴델수르(San Agustin del Sur)에서의 주택 10만 호 건설 사업에 합의했다.

또한 양국은 주택건설 등 도시개발에 대한 공동연구 의향서에도 합의했다. 브라질의 대표적인 건설회사인 Norberto Odebrecht S.A.사는 베네수엘라 주택·공공사업부와 함께 베네수엘라 빈곤지역의 공공주택 건설에 합의했다. 브라질 건설회사인 Consilux사도 베네수엘라 주택·공공사업부와 볼리바르주의 볼리바르(Bolivar)시 및 라라주의 바르키시메토(Barquisimeto)시의 주거 개선 및 리모델링 등 관련 공동연구에 합의했다.

금융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브라질 CEF는 베네수엘라 은행(Bank of Venezuela)에 서민금융 확대를 위한 기술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2008년 8월 국내 은행 및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베네수엘라은행(Bank of Venezuela)을 국유화한 바 있다.

글상자 4-1. 브라질연방저축은행(Caixa Economica Federal)

브라질연방저축은행은 1861년 설립되었으며 자산 규모 기준으로 브라질에서 두 번째로 큰 공공은행이다. 주택금융, 상하수도 건설, 전력공급 등 도시개발프로그램에 대한 금융 지원, 국민주택건설에 대한 금융 지원, 주택금융제도나 저축은행 등에서 시행하는 주택유자 등을 지원·감독한다. CEF는 공무원 연금 및 기타 정부 재원을 포함해 약 2,000억 달러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브라질 전역에 수천 개의 지점을 갖고 있는데, 지점 수 기준으로는 브라질 금융기관 중 세 번째로 많다. CEF는 브라질은행(Banco do Brasil), 브라질경제사회개발은행(BNDES)과 더불어 브라질 정부의 대표적인 금융 지원 창구다. CEF는 또한 복권사업을 관리하고 있는데, 수익금은 스포츠 발전과 초등교육에 지원된다. CEF는 브라질 전국에 산재한 1만 7,000개 복권판매소에서 예금 예치 및 인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서민금융 확산을 주도한바 있다.

특히 최근 들어 CEF는 브라질 정부가 야심차게 진행해오고 있는 서민주택 보급정책(Minha Casa Minha Vida)을 맡아 추진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2009년 3월 서민주택 100만 호 건설 계획(Minha Casa, Minha Vida)을 발표하고 2009년부터 2010년 기간 중 서민주택 100만 호 건설을 추진한 바 있다. 브라질 정부는 2단계 서민주택 공급 확대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서민주택 200만 호를 건설할 계획이다. 브라질 정부는 성장촉진계획(PAC-2)의 일환으로 주택 분야에 2014년까지 1,656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서민주택 건설 프로그램(Minha casa, Minha vida)을 위해서는 426억 8,0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자료: 브라질연방저축은행(Caixa Economica Federal) 홈페이지(www.caixa.gov.br; 2012. 8. 7) 자료를 토대로 필자 정리.

2) 브라질국책연구소를 통한 개발 경험 전수

베네수엘라와 브라질 간 개발 경험 전수사업은 브라질의 대표적인 국

책연구소인 응용경제연구원(IPEA: Instituto de Pesquisa Econômica Aplicada)을 통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IPEA가 베네수엘라와의 개발 경험 전수 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하게 된 배경은 무엇보다도 IPEA의 역할 변화 때문이었다.

가) 브라질 대외정책 및 협력 과정에서 IPEA의 참여

최근 브라질-베네수엘라 양국간 전략적 협력 추진 과정에서 브라질의 국책연구기관인 IPEA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IPEA는 대통령실 산하 전략처(SAE) 소속 국책연구기관으로 1964년 9월 응용경제조사연구소(EPEA)라는 이름으로 출범했다. 설립 초기에는 기획부와 연방정부의 경제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데 주력했다. 현재 IPEA의 주요 연구 활동은 모든 정부정책에 대한 기술적·제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¹⁸¹⁾

그동안 IPEA는 브라질 국내 정책 수립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역할은 미미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IPEA의 연구 활동 범위가 국내 공공정책에 국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IPEA는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힘입어 대외정책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먼저 IPEA가 종전 기획부 산하에서 대통령실 산하 전략처(SAE) 소속으로 바뀌었다. 그 결과 IPEA의 연구 활동 범위가 종전 국내정책에서 대외정책으로 확장되었다. 둘째, 대외정책 연구에 대한 브라질 정부 내의 수요를 반영해 IPEA 내에 대외경제관계 연구부서(DINTE)가 새롭게 설립되었으며, 공채를 통해 대외경제전문가를

181) Barros and Dasso Junior(2012), p. 6.

선발하게 되었다. 현재 IPEA는 7개의 커다란 연구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중 2개가 국제협력에 관한 것이다.¹⁸²⁾

대외협력 업무 수행을 위해 IPEA가 취하고 있는 전략 중 하나는 외교부의 협조를 얻어 해외에 한시적으로 체류하는 조사단을 파견하는 것이다. 해외 파견 조사단이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UN MDG, 중남미 통합, 브라질 대외정책의 우선순위 과제, 남남협력 등과 관련된 것이다.¹⁸³⁾

IPEA 해외 조사단의 업무 추진 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여러 정부 부처와 공동으로 협력 대상국과 기술협력협정(ACT)을 체결한다. 둘째, 이에 근거해 구체적인 작업계획을 작성한다.¹⁸⁴⁾

IPEA 조사단의 파견 목적은 우방국과 개발협력을 추진하는 것 이외에 인접국에 대한 지식 부족을 해소하는 것이다. 특히 지우마 대통령의 취임식 선언(“브라질은 적극적인 열의를 갖고 브라질의 정치·경제·사회 발전 경험을 중남미 국가들과 공유한다”)을 달성하는 데 있다.¹⁸⁵⁾

나) IPEA의 베네수엘라 개발 경험 전수사업 참여

이 같은 IPEA의 역할 변화의 첫 시험대는 베네수엘라였다. 2009년 10월 브라질과 베네수엘라 정상은 공동 선언문에서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 IPEA 사무소 설립을 선언했다.¹⁸⁶⁾

2010년 5월 브라질 전략처 장관과 베네수엘라 에너지석유부 장관 간

182) Barros and Dasso Junior(2012), p. 6.

183) Barros and Dasso Junior(2012), p. 7.

184) Barros and Dasso Junior(2012), p. 7.

185) Barros and Dasso Junior(2012), p. 8.

186) Barros and Dasso Junior(2012), p. 8.

의 회담에서 오리노코 석유벨트 및 수크레주 가스생산지역의 국토개발을 IPEA의 우선 활동 분야로 정했다. 또한 베네수엘라 석유공사(PDVSA)를 IPEA의 현지 협력 파트너 기관으로 정했다.¹⁸⁷⁾

2010년 6월에는 IPEA 실무진이 베네수엘라를 방문했다. 당시 방문에서 제도 수립,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거시경제, 파이낸싱, 생산 구조 강화, 인프라, 지역개발, 도시 및 환경, 사회개발 등 7개가 주요 협력 분야로 정해졌다.

2010년 8월에는 IPEA와 PDVSA 간 협력협정이 체결되었다. 또한 이 협정에 근거해 베네수엘라에서 활동할 IPEA 조사단의 구체적인 임무가 결정되었다. 주요 임무는 베네수엘라 정부기관 및 연구기관과 제도협력 확대, 공공정책 자문, 브라질 북부와 베네수엘라 남부 간 생산통합 촉진을 위한 연구 수행 및 관련 세미나 개최, 석유생산네트워크 개발 조사, 지역통합 조사 등이다.

2010년 9월 마침내 카라카스에 IPEA 사무소가 설립되었다. 현지 사무소 설립 이후 지금까지 현지 파견 조사단의 임무는 크게 세 단계를 거쳐 발전해왔다. 먼저 2010년 11월 이후 IPEA는 베네수엘라 중앙은행과 거시경제 및 금융통합에 관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11년 3월에는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에서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공동협력 과제를 발굴했다. 설립 초기 현지에서 IPEA의 활동은 오리노코강(江) 및 수크레주(州) 석유벨트 개발 자문에 집중되었다.¹⁸⁸⁾

시간이 지나면서 IPEA의 활동 반경은 더욱 확대되었다. IPEA의 직접

187) Barros and Dasso Junior(2012), p. 9.

188) Barros and Dasso Junior(2012), p. 9.

적인 지원 아래 현지 기관들과 다양한 주제로 많은 행사가 추진되었다. 인플레이션에 관한 공동 세미나 개최, 과학기술 및 혁신정책 과정 지원, ALBA-MERCOSUR 행사 참여, 아마존-오리노코강(江) 생산통합 프로젝트 참여, 아마존 유역 기후변화 및 개발 세미나 참여 등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현재 IPEA는 브라질 개발상공부(MDIC)를 비롯한 여러 브라질 공공기관과 더불어 브라질 마나우스 산업단지와 베네수엘라 시우다드 가이아나(Ciudad Guayana) 산업단지의 생산적 통합을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2011년 2월에는 브라질 외무장관과 지우마 대통령 대외정책 특별보좌관이 베네수엘라를 방문, 농업개발, 주택개발, 브라질 북부와 베네수엘라 남부 간 생산통합 등을 양국간 최우선 협력분야로 선정했다.¹⁸⁹⁾

2011년 6월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IPEA 및 브라질연방저축은행(CEF)과 PDVSA 간 주택개발프로그램 자문을 위한 MOU가 체결되었다. 특히 양국 정상은 브라질 북부와 베네수엘라 남부의 생산통합에 대한 연구에 지속적인 지원을 하기로 합의했다.

3) IPEA 조사단의 주요 연구 결과

여기서는 지금까지 IPEA 조사단이 수행한 연구조사 결과를 몇 가지 소개하기로 한다. 먼저 브라질 북부지역과 베네수엘라 남부지역의 생산통합 확대를 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브라질 북부지역과 베네수엘라 남부지역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양국간 전략적 동맹 강화를

189) Barros and Dasso Junior(2012), p. 9.

표 4-5. 브라질-베네수엘라 간 인프라 통합을 위한 방안

| 구분 | 주요 내용 |
|-------------|---|
| 현재 상황 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간 인프라 통합 미비 · 도로, 수로, 항로 통합 불충분 · 철도 시스템 부재 - 남미 북부지역 통합을 위해 남미인프라통합프로젝트(IIRSA) 불충분 - 남미국가연합(UNASUR) 등 새로운 경제통합체 출현 |
| 주요 정책 제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인프라 통합 축(Eixo Escudo Guianense)을 아마존-오리노코 축(Eixo Amazonia-Orinoco)으로 대체 - 수송체계 통합 · 마나우스-카리카스 간 고속도로 재건 · 항만 개선 등 수로 개선: 브라질 브랑코 및 네그로 강과 베네수엘라 오리노코 및 카시키아레(Casiquiare) 강 간 수로 개선 · 아마존 유역과 오리노코 유역의 수로 통합 연구 · 공항 통합: 브라질 도시(브라질리아, 마나우스, 리우데자네이루)와 베네수엘라 간 직항로 개설 타당성 연구 |

자료: IPEA(2011), pp. 3-12 내용 정리.

통해 남미 통합 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국경지역 통합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¹⁹⁰⁾

IPEA는 남미국가연합(UNASUR)과 같은 남미지역을 포괄하는 새로운 경제통합체가 출현하는 등 브라질 북부와 베네수엘라 남부 간 협력 확대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양국간의 인프라 통합은 매우 불충분하다고 평가한다. 도로, 수로, 항로 간 통합은 미비하며 양국을 잇는 철도 시스템은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평가다. 특히 남미인프라통합 프로젝트(IIRSA)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존 프로젝트(Eixo Escudo Guianense)로는 불충분하다는 평가다.¹⁹¹⁾

이 같은 평가를 토대로 IPEA는 기존 인프라 통합 프로젝트를 아마존-오리노코 간 인프라 통합 프로젝트로 대체하여, 양 지역 간 수송체계를

190) IPEA(2011), p. 2.

191) IPEA(2011), pp. 9-11.

표 4-6. 브라질 북부지역과 베네수엘라 남부지역 간 생산 통합을 위한 방안

| 구분 | 주요 내용 |
|----------|---|
| 현재 상황 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미지역은 식량 및 대부분의 광물자원 분야에서 자급자족 가능, 브라질은 비료의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음. - 베네수엘라와 브라질 북부지역 간 교역은 파라(Para)주와 쇠고기에 집중 - 브라질과 베네수엘라 간, 특히 아마존-오리노코 축 간 생산 통합 가능성 다대 |
| 주요 정책 제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리노코 석유벨트지역에서 코오크와 유황 생산 확대 - 브라질 광물조사기관(CPRM)과 베네수엘라 지질광물연구소(INGEOMIN) 간 협정 체결 - 농업용 비료 생산을 위한 양국간 협력 확대 - 아마존-오리노코 지역 및 국경지역에서 민간건설 지원 확대 - 브라질의 로라이마(Roraima)와 베네수엘라 볼리바르(Bolivar)주에서 생산통합네트워크 개발 촉진(주요 협력 우선 분야: 건설, 금속기계, 농업, 유리 및 관광업) - 브라질-베네수엘라 간 육상물류 확대 및 생산 통합을 위한 물류 구축 - 브라질 마나우스자유무역지대-베네수엘라 푸에르토 오르다스(Puerto Ordaz) 자유무역지대 간 협력 재활성화 - 브라질 북부-베네수엘라 남부 간 생산 통합 타당성 연구 심화 |

자료: IPEA & MCTI(2011), pp. 3-13 내용 정리.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IPEA는 브라질 북부지역과 베네수엘라 남부지역 간 생산 통합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베네수엘라 남부와 브라질 북부를 포괄하는 남미지역, 특히 브라질의 아마존 지역과 베네수엘라의 오리노코를 잇는 축은 생산 통합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다. 이 같은 높은 생산 통합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생산 통합 정도는 초기단계다. 이 지역에서 양국간 교역은 쇠고기 등 일부 품목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¹⁹²⁾

연구 결과, IPEA 조사단이 제시한 협력 방안은 먼저 베네수엘라 오리노코 석유벨트지역에서 많이 생산되거나 생산 잠재력이 높은 분야를 개발해 수입해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코오크와 비료가 대표적이다. 특히 브라질은 연간 49억 달러 규모의 비료를 수입하는데, 베네수엘라에

192) IPEA & MCTI(2011), pp. 3-8.

서 수입하는 규모는 800만 달러에 불과하다. 그런데 베네수엘라 타치라(Tachira)주 나바이(Navay) 광산에는 비료의 주 원료인 인광석이 1억 톤이나 매장되어 있다. 따라서 베네수엘라에서 인광석을 개발해 수입할 경우 브라질은 비료 수입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평가다. 양 지역 간 생산 통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브라질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와 베네수엘라 푸에르토 오르다스(Puerto Ordaz) 자유무역지대 간 협력이 재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게 IPEA의 제언이다.¹⁹³⁾

2. 산업기술협력

가. 중국의 통신위성개발 협력

1) 협력 배경

중국은 안데스 3국과 포괄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통신위성 부문 협력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브라질,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이 중국과 통신위성 부문에서 활발한 협력사업을 벌여오고 있다.

중국과 안데스 국가 간 통신위성 부문 협력은 양측의 전략적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¹⁹⁴⁾ 먼저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남미 국가들에게

193) IPEA & MCTI(2011), pp. 8-13

194) 중국이 우주개발에 집중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된다. 먼저 폭넓은 경제적 이익의 도모다. 둘째, 국방현대화 달성 등 군사력의 획기적 발전이다. 마지막으로 우주 공간에서 취득할 수 있는 자원과 권리에 대한 기득권 확보다. 중국의 우주개발은 21세기에 우주 공간이 새로운 '전략국경' 확대의 각축장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기인한다

상업용 위성의 개발 및 발사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베네수엘라의 주문을 받아 개발된 통신위성(Venesat-1)이 성공적으로 발사·운영되면서 중남미 시장에서 중국의 위성개발 기술 및 발사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높아졌다. 그 결과 중국은 차베스 대통령의 적극적인 권유로 볼리비아와도 위성개발 및 발사 계약을 쉽게 성사시켰다. 현재 중국은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에서의 성공적인 경험을 토대로 사회주의 이념을 공유하지 않는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멕시코 등과도 위성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타진하고 있다.¹⁹⁵⁾ 중국은 제12차 5개년 개발계획이 끝나는 2015년까지 세계 상업 위성 발사 시장의 15%, 상업 위성 수출시장의 10%를 점유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둘째, 위성 분야에서 성공적인 사업 경험은 통신 산업 등 관련 사업의 진출 기회로 이어지고 있다. 통신위성 분야에서 성공적인 협력 사례에 힘입어 전자·통신 분야에서 중국기업들의 베네수엘라 진출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Huawei사는 베네수엘라 광통신망 구축 사업에 깊숙이 참여하고 있으며, ZTE사는 베네수엘라 기업과 합작으로 2009년 5월에 팔콘(Falcon)주에 첫 번째 핸드폰 공장을 설립했다. 2010년 5월에는 Huawei사가 미란다(Miranda)주에 두 번째 핸드폰 공장을 설립했다. Haier사도 베네수엘라에 가전제품 공장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2010년 4월에 중국은행은 베네수엘라 국적기(Linea Área Bolivariana Socialista) 설립에 3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했다. 차관 제공의 반대급부로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중국산 항공기를 판매하기로 합의했다.¹⁹⁶⁾

(박병광 2006, pp. 39~42).

195) Ellis(2010), pp. 5-7.

셋째, 보다 전략적인 측면에서 중국은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의 전략 산업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된다. 중국에서 훈련을 받은 양국의 위성 분야에서 활동할 핵심인력들은 필요시 중국의 이해를 지지하게 된다.¹⁹⁷⁾

한편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의 입장에서 통신위성 보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득을 제공한다. 먼저 양국 국민의 복지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이다. 특히 소외계층의 통신 접근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국가의 통신 주권에 크게 기여한다. 차베스 대통령은 통신위성 조인식에서 “통신위성을 보유함으로써 서방의 독점과 봉쇄를 타파하고 자주적인 통신과 TV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¹⁹⁸⁾라고 강조했다.

2) 중국-베네수엘라 간 협력

2001년 중국과 베네수엘라는 전략적동맹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고위급위원회를 설립한 이후 2011년 말까지 에너지, 인프라, 과학기술, 농업, 교육, 문화 및 사회분야 등에서 약 318개의 협력협정을 체결했다.¹⁹⁹⁾

베네수엘라에서 위성의 역사는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4년 중반 베네수엘라 과학기술부는 Venesat-1으로 알려진 시몬 볼리바르 위성(Satelite Simón Bolívar)을 계획했다. 같은 해 베네수엘라 정부는 러시

196) Ellis(2011), pp, 37-38.

197) Ellis(2011), p. 38.

198) ChinaWatch(2005), “중국 베네수엘라에 통신위성 매각 2008년 발사”(11월 3일), http://chinawatch.co.kr/chinawatch.php3?_Number=30502(2012. 10. 4)

199) 양국간 협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Gobierno Bolivariano de Venezuela(2010), “Acuerdos Suscritos entre La República Bolivariana de Venezuela y La República Popular China” 참고.

아 연방우주청과 일련의 협상을 개시했다. 본래 베네수엘라 정부는 러시아와 협정을 체결해 통신위성을 개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몬 볼리바르 위성 운영을 담당할 전문인력 육성 등을 포함한 기술이전 제안에 대해 러시아 측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베네수엘라는 당초 계획했던 러시아와의 협정 체결을 포기했다. 대신에 2004년 10월 베네수엘라 정부는 베네수엘라 측의 제안을 수락한 중국과 협상을 시작했다.

한편 베네수엘라 정부는 위성사업 전담기관으로 베네수엘라 우주청(ABAE: Agencia Bolivariana para Actividades Espaciales)을 설립했다.²⁰⁰⁾ 우주청은 과학기술·중간재산업부(MCTI) 산하 기관으로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위성 개발 및 발사를 위해 중국 CASC의 자회사인 GWIC와 계약을 체결했다. 총 프로젝트 비용은 4억 600만 달러가 소요되었는데, 이중 2억 4,100만 달러는 순전히 인공위성 개발에 사용되었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국은 베네수엘라 카마타구아(Camatagua)와 엘 솜브레로(El Sombrero)에 2개의 지상국(ground control stations)을 건설했다. 당초 계약대로 90명의 베네수엘라 전문가들이 중국에 파견되어 관련 교육 및 훈련을 받았다. 이 중 박사(15명) 및 석사과정(15명) 학생 총 30명이 학위과정을 밟았다. 중국은 이들 30명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했다.²⁰¹⁾

베네수엘라의 첫 통신위성인 시몬 볼리바르 위성은 2008년 10월 29일 중국 쓰촨성 위성발사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2009년 1월부터 본

200) 본래 베네수엘라 우주청은 2005년 11월 베네수엘라 우주센터(CEV)라는 이름으로 출범했다.

201) Ellis(2011), pp. 34-35.

격적으로 가동되었다. 시몬 볼리바르 위성에 힘입어 현재 약 45만 명의 국민이 교육, 보건, 시민안전, 통신, 경제개발, 영양 등의 분야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베네수엘라 정부는 평가한다.

베네수엘라는 Venesat-1 위성의 성공적인 개발 경험을 발판으로 2010년부터 중국과 두 번째 위성을 개발 중에 있다. 미란다 위성(Miranda Satellite)으로 명명된 VRSS-1(Venezuelan Remote Sensing Satellite) 위성은 베네수엘라의 첫 지구관측 위성으로 영토 감시, 환경보호, 재해 모니터, 농산물 수확 예측, 도시환경 계획 등에서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총 프로젝트 비용은 4,600만 달러다. 현재 VRSS-1 위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국에 52명의 베네수엘라 전문가가 파견되어 훈련을 받고 있거나 위성 건설에 참여 중이다.²⁰²⁾

3) 중국-볼리비아 간 협력

볼리비아 정부는 정부프로그램(2010~2015)에서 우주기술시대 참여를 위한 국가위성프로그램(Programa Satelital Nacional)을 제안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투팍 카타리(Tupac Katari)²⁰³⁾ 통신위성을 개발해 쏘아 올리는 것이다. 현재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베네수엘라만이 자체 위성을 갖고 있다. 볼리비아 정부는 Tupac Katari 위성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2010년 볼리비아 우주청(AEB: Agencia Espacial Boliviana)을 설립했다.²⁰⁴⁾

202) 중국 CASC의 자회사인 CGWIC는 베네수엘라 과학기술·중간재산업부(MPPCTII)와 VRSS-1 위성 인도 계약을 체결했다.

203) Tupac Katari는 18세기 식민지배자인 스페인에 맞서 독립운동을 벌인 원주민 출신의 영웅을 일컫는다.

볼리비아는 통신위성 개발 업체 선정 시 공개입찰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다. 대신에 볼리비아 정부는 프랑스, 러시아, 중국 업체와 직접 접촉을 거친 이후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중국 업체를 최종 계약 대상으로 선정했다. 볼리비아 정부가 중국을 통신위성 개발 최종 파트너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중국은 볼리비아가 계획하는 국가위성프로그램을 전 과정에 걸쳐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통신위성의 제작, 발사, 지상국 건설, 인력 훈련 및 기술이전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에 대한 보험 서비스 제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협력이 가능했다. 둘째, 다른 국가와 비교해 평균적으로 통신위성 발사 성공률이 높았다. 셋째, 기술이전을 제공할 의향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경쟁업체와 비교해 패키지 비용이 가장 저렴했다.²⁰⁵⁾

2010년 4월 2일 모랄레스 정부는 Tupac Katari 통신위성 개발 및 발사를 위해 중국의 CASC와 계약을 체결했다. 볼리비아 측 계약 당사자는 볼리비아 우주청(AEB)이었다. 총 프로젝트 비용 3억 달러 중 15%만을 볼리비아가 부담한다. 나머지 비용은 중국개발은행(China Development Bank)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²⁰⁶⁾

베네수엘라 통신위성(Venesat-1)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중국항공공업총회사(CGWIC)가 중국에서 볼리비아의 위성 개발 및 발사를 맡는다. 또한 산타크루스(Santa Cruz)주 판파아시(Panpahasi)와 라과르디아(La Guardia)에 지상국이 건설되며 여기에서 근무할 전문 인력은 중국에서

204) Estado Plurinacional de Bolivia(2009), pp. 90-91.

205) AEB(2012), "Por que adquirir un satellite de una empresa china?" <http://www.abe.bo/satellite/index.html>. (2012. 10. 8)

206) Ellis(2011), p. 35.

훈련을 받는다.

나. 중국의 정보통신(IT) 분야 협력

중국과 베네수엘라 간의 산업협력은 ICT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먼저 대표적으로 산업기술단지 건설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IT 기업인 랑차오(Langchao) 그룹은 2006년에 베네수엘라 과학기술부(MPPCT)에 산업기술단지 설립을 제안했다. 이후 동 프로젝트는 베네수엘라 정부 측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같은 해 8월에 양국은 산업기술단지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11월에는 미란다(Miranda) 주 쿠아(Cua)에 단지 건립을 위한 기초석을 세웠다.

산업기술단지는 일련의 첨단기술 공장·R&D 센터·전문인력 양성학교 설립, 컴퓨터 기술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MPPCT에 따르면 산업기술단지는 5~10년이 걸리는 중장기 프로젝트로 컴퓨터, 서버 및 통신장비, 휴대폰, 통신안테나 등을 생산하는 첨단기술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²⁰⁷⁾

산업기술단지 건설 비용에는 총 3억 5,000만 달러가 소요되었는데, 이 중 일부는 중국-베네수엘라 공동기금에서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서 공장 건설 비용은 공단에 입주하는 기업 스스로 부담하기 때문에 제외된다.

207) *Business News Americas*(2009), "Alliance with China to create IT hub in state of Miranda"(February 20), http://www.bnamericas.com/news/technology/Alliance_with_China_to_create_IT_hub_in_state_of_Miranda. (2012. 11. 7)

표 4-7. 중국 Langchao 그룹과 베네수엘라 과학기술개발공사(CODECYT) 간 협정의 주요 내용

- 목적
 - 미란다(Miranda) 주 쿠아(Cua) 지역에 건설되는 산업기술단지(Parque Tecnológico Industrial)의 개념 정립, 실행, 연구개발 및 혁신토대 강화를 위한 양국간 실무그룹 결성
- 협력 방식
 - 베네수엘라 측은 국내 기관과 협력,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적용되는 재정인센티브 정립
 - 중국 측은 베네수엘라인의 능력 배양, 훈련 및 자격 부여 등을 지원
 - 중국 측은 연구, 디자인, 생산, 조립, 베네수엘라에서 일반적인 기술 활동과 관련된 자연인 및 법인의 능력 배양 및 훈련에 대한 자문, 컨설팅 및 기술적 지원 제공
 - 양측은 국내 공급업체가 양질의 부품을 개발하도록 지원
- 협력 분야
 - 인력 육성
 - 서비스 인프라 구축
 - 재정인센티브
 - 투자 촉진
 - 기타 산업기술단지 개발을 위해 양국이 합의한 분야
- 실무그룹
 - 실무그룹은 중국 측 4명, 베네수엘라 측 4명의 총 8명으로 구성
 - 산업기술단지 개발을 위한, 방법, 메커니즘 및 절차 수립
 - 자금 조달 방안 및 프로젝트·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산업기술단지 건설 과정에서 모니터링, 통제 및 평가를 위해 정기적으로 회합
 - 미란다 주정부 및 현지 기관들과 기술과정 운영 등 조정
 - 산업기술단지에 국내외 투자자 유치를 위해 국내외 홍보 활동 강화
 - 산업기술단지의 계획 수립, 건설 및 투자, 기능 개발
 - 산업기술단지의 활동 영역 IT능력 배양센터, 교육기관, 산업 촉진, ICT·가전·농기계생산센터,
- 자금 조달
 - 특정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자금 조달은 양측의 예산을 통해 조달
- 분쟁 해결
 - 분쟁 발생 시 양측 간 직접협상 등 협의를 통해 최대한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
 - 협상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측이 수용하고 베네수엘라 법률에서 인정하는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

자료: 중국 Langchao 그룹과 베네수엘라 과학기술개발공사(CODECYT) 간 협정(Convenio entre la Corporación para el Desarrollo Científico y Tecnológico, CODECYT, S.A y la Empresa Langchao Group, Co.,Ltd.)²⁰⁸⁾ 내용을 토대로 필자 작성.

208) http://www.google.co.kr/#hl=ko&newwindow=1&tbo=d&sclient=psy-ab&q=Langchao+CODECYT+acuerdo&oq=Langchao+CODECYT+acuerdo&gs_l=hp.3...18906.21672.1.2.2172.8.8.0.0.0.266.1438.0j6j2.8.0...0.0...1c.1.kmN60ZO5riE&pbx=1&bav=on.2,or.r_gc_r_pw.r_qf.&bvm=bv.1355534169,d.aGc&fp=21e08ec1dab487cb&bpcl=40096503&biw=1280&bih=829. (2012. 9. 10)

동시에 랑차오(Langchao) 그룹은 2005년 10월에 베네수엘라 산업부(MPPI) 산하의 베네수엘라중간재산업공사(CORPIVENSA: Corporación de Industrias Intermedias de Venezuela)와 합작으로 베네수엘라기술공사(VIT: Venezolana de Industria Tecnológica C.A)를 설립했다. VIT는 저가로 컴퓨터를 생산하는 등 하드웨어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²⁰⁹⁾ 합작회사의 지분은 베네수엘라 측이 51%, 중국 측이 49%를 갖고 있다. 현재 직원은 400명이다.

VIT는 베네수엘라에서 조립 컴퓨터를 생산하는 첫 사회주의 기업으로 판매 등에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설립 이후 첫 3년간 베네수엘라 정부는 VIT가 생산하는 컴퓨터의 70~80%를 구매했다. 이후 정부의 구매 비중은 줄어들긴 했지만 정부 구매는 여전히 VIT 판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1년 현재 VIT는 데스크탑, 랩탑 및 태블릿 PC 등 6개 모델의 PC를 생산하고 있다. PC 생산규모는 2007년 4만 9,000대에서 크게 증가, 2011년에는 17만 대에 달했다. 2012년 상반기 현재 11만 9,000대의 PC를 생산해 2012년 목표치 24만 대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²¹⁰⁾

209) Agencia Bolivariana de Noticias(2008), “China y Venezuela fortalecen convenios en materia tecnológica”(November 25), <http://www.aporrea.org/tecno/n124617.html>. (2012. 11. 8)

210) Business News Americas(2012), “VIT produces 119,000PCs in H1, in line for annual target”(July 5), <http://site.securities.com>. (2012. 11. 19)

3. 자원협력

가. 인도 JSB의 광산개발 철수

1) 진출 배경

인도의 3대 철강회사인 JSB(Jindal Steel Bolivia)는 2007년 7월 18일 볼리비아 정부로부터 무툰(Mutún)광산의 50%에 해당하는 55.25km²에 대한 광산개발권을 획득하였다. 무툰 광산은 볼리비아의 산타크루즈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중남미 대륙 제2의 철광산 매장지역으로, 추정 철광석 매장량이 400억 톤(추정품위 50~60%)에 이르며, 이밖에도 부수광물로 망간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¹¹⁾

양측이 맺은 무툰 광산 개발 계약서상의 조건에 따르면 JSB 측은 초기 15억 달러를 투자하고 향후 8년간 21억 달러 규모의 추가적인 투자를 하여 170만 톤 규모의 철강공장, 600만 톤의 해면철, 1,000만 톤 규모의 철광석 팔레트(pallet)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볼리비아 정부는 가스관, 철도, 항만시설, 수도관 등과 같은 철광 생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는 데 동의하였으며, 부지 제공, 물과 가스 공급 등을 약속하였다.²¹²⁾ 이 프로젝트는 볼리비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외국인투자이자 인도기업의 중남미 지역 단일투자로서도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집중시켰다.

211) Chantal Liégeois(2009), p. 14.

212) Chantal Liégeois(2009), p. 19.

2) 분쟁의 발생

문제는 2010년 4월 볼리비아 정부가 JSB측이 당초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서 시발되었다. 볼리비아 정부는 계약불이행을 사유로 탐사개발을 위해 JSB가 예치한 투자이행담보금 1,800만 달러를 인출하였다. 투자이행담보금은 JSB가 첫 두 해간 투자하기로 약속한 금액인 6억 달러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양측이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면 투자불이행 시 볼리비아정부가 이를 인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한편 JSB측은 오히려 볼리비아 정부가 광산개발을 위해 도로 등의 인프라 구축과 가스 공급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볼리비아 정부가 당초 철광석 개발에 필요한 천연가스를 1,000만 CMPD만큼 제공해줄 것을 약속하였으나, 250만 CMPD만을 공급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 약속했던 공장 부지 이전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JSB 측의 주장이다. 결국 JSB는 원활한 개발생산을 위한 가스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기존의 계약을 변경하여 당초 건설하기로 했던 공장 규모를 축소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볼리비아 정부는 이를 거절하고 투자이행담보금을 인출하였다. JSB측은 이 문제를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해 중재를 요청하겠다고 대응하였으나, 결국 2011년 5월 17일 다시 투자보증금을 예치하고 사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하였다.

2011년 당시 JSB는 이미 1,2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실험실을 설치하고 광석분쇄 및 분류기를 갖추었고, 볼리비아 정부는 광물 수출항구인 푸에르토 부시까지 이르는 도로공사에 1,400만 달러를 투자한 상황이었다. 또한 생산된 철광석은 중국과 중동, 유럽과 남미로 수출하기 위해 파라나 파라과이 수로(Parana Paraguay Hidrovia)를 통해 운송이 시작된 상태였다.²¹⁴⁾

표 4-8. 인도 JSB와 볼리비아 정부 간 합작투자계약서의 주요 내용

| 분야 | 주요 내용 |
|-----------|--|
| 투자 비용 | 2007년 서명이 된 합작투자계약서상에는 JSB 측이 볼리비아 측에 10년간 탐사비용인 1,000만 달러가량을 지불하고, 매년 100만 달러를 예치해 놓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투자는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단계는 투자 첫해부터 5년까지를, 두 번째 단계는 6년부터 8년까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9년까지만 연장이 가능하다. |
| 투자 이행 보증금 | JSB가 지불해야 하는 투자이행보증금은 첫 두 해간 투자하기로 약속한 금액인 6억 달러의 3%에 해당하는 1,800만 달러이다. 그리고 향후 3년부터 5년에 해당하는 투자보증금은 2,700만 달러로, 해당 기간 투자하기로 한 금액인 9억 달러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리고 다음 6년부터 8년까지는 6억 달러의 투자를 보증해줄 1,800만 달러를 예치하여야 한다. |
| 가스 공급 | YPFB는 JSB 측에 가스를 공급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철 산업을 위해 3.91달러/1MBTU로 가스를 공급해야 하며,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1,955달러/1MMBTU 가격으로 공급해야 한다. |
| 조기 생산 | 계약서상에는 조기생산에 대한 고려도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단계 2년부터 5년까지, 연간 최대 1,000만 톤까지 JSB측은 철을 수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금은 판매액의 5%이다. |

자료: 인도 JSB와 볼리비아 정부 간 합작투자계약서(Contrato de Riesgo Compartido ESM-JSB)를 토대로 필자 작성²¹³⁾

같은 해 11월, JSB가 생산한 철광석의 운송을 위해 이용하던 타멩고 운하(Canal Tamengo)의 수위가 낮아졌다는 이유로 다음 연도까지 운송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자 모랄레스 정부는 해군병력을 동원해 협박하기도 했다. 결국 볼리비아 정부는 JSB 측이 천연자원 잠재력만 보고 충분한 자본금 없이 투자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고소하는 한편, 2012년 5월에는 JSB가 예치해둔 두 번째 투자이행담보금마저 인출하였다. 이후 JSB 측은 6월 8일 볼리비아 측에 프로젝트 사전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이 사건은 현재 투자이행담보금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중재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213) Obie(2010), <http://plataformaenergetica.org/obie/content/8215>. (2012. 7. 29)

214) El Diario(2012), “Jindal Steel Bolivia reanuda exportaciones”(February 16), http://www.eldiario.net/noticias/2012/2012_02/nt120216/economia.php?n=21&jindal-steel-bolivia-reanuda-exportaciones. (2012. 8. 2)

3) 실패 요인

이 프로젝트의 실패 요인은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현지 인프라 부족이다. 무툰 광산은 볼리비아의 남동쪽, 브라질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내륙지역에 위치해 철광석 운송을 위한 교통 인프라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다. JSB의 진달(Naveen Jindal) 사장은 “무툰 광산에서 생산한 철광석의 운송을 위해 푸에르토 부시(Puerto Busch)에 항구를 건설하고 철로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볼리비아 정부 측은 이러한 투자를 지지하기보다는 방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JSB는 파라과이 국제 하천을 통하여 대서양으로 철광석을 운송할 계획이었으나 강의 수심이 낮아 포기한 바 있다.

둘째, 현지 철광산의 경제성 저하다. 볼리비아 측 합작투자 기업인 ESM(Empresa Siderúrgica Mutún)에 따르면 무툰 광산은 많은 인 성분(0.07~0.289%)을 함유하고 있어 인을 제거하는 데 추가 비용이 많이 든다.²¹⁵⁾ 한국기업들도 볼리비아 정부로부터 무툰 광산 개발사업 참여제안을 받았으나, 매장량에 비해 제련비용이 많이 들고 기반시설 구축 등이 필요해 사업성이 낮다는 판단하에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셋째, 사회주의 정부와 다국적 기업의 이해 상충이다. JSB는 이번 계약 파기의 이유로 볼리비아 정부의 계약불이행을 주장했다. 투자 개시와 동시에 볼리비아 정부는 JSB 측에 광산 부지 5,250헥타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JSB는 철강 생산을 위한 가스 공급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으나,²¹⁶⁾ 볼리

215) Córdova(2012), “¿Por qué fracasamos con la Jindal?” *La Razón*. (July 29)

216) Latino minería(2012), “Bolivia-Government and Jindal Steel clash over future of

비아 측은 이에 대해 늦장 대응을 하거나 요구에 훨씬 못 미치는 양의 공급을 약속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볼리비아의 경험 및 인적자원 부족이다. 이는 볼리비아 정부가 인정하는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실패 요인이기도 하다. 볼리비아 국영광물공사(Comibol) 사장인 엑토르 코르도바(Héctor Córdova)는 볼리비아의 국제협력 경험 부족과 인적자원 부족을 이번 프로젝트의 실패 이유로 들었다.²¹⁷⁾ 볼리비아가 사실상 이렇게 큰 규모의 국제협력을 성사시킨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코르도바 사장은 경험이 없는 일부 장관들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하였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볼리비아에 철광 개발과 관련된 엔지니어가 크게 부족해 외국 기업에 대한 의존이 지나치게 높았다는 점도 볼리비아 정부가 지적하는 실패 요인이다.

나. 미국 셰브론의 사회적공헌 활동

1) 셰브론의 진출 현황²¹⁸⁾

베네수엘라 정부가 에너지 부문을 국유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표하자 2007년 엑손 모빌(Exxon Texaco)과 코노코 필립스(ConocoPhillips)는 베네수엘라 내 유전 사업을 철수했다. 엑손은 23억 달러에 달하는 오리노코 유전 개발 프로젝트를, 코노코 필립스는 당시 45억 달러 규모의

Mutun project”(June 4), http://www.latinomineria.com/noticias/imprimir_noticia_neo_en.php?id=1847(2012. 7. 16)

217) Córdova(2012), “¿Por qué fracasamos con la Jindal?” *La Razón*. (July 29)

218) Chevron(2012), “Venezuela Fact Sheet,” p. 1. (April)

투자를 포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들과 달리 셰브론(Chevron Texaco)이나 영국의 BP, 프랑스의 Total, 노르웨이의 StatoilHydro는 계약 변경 조건을 수용하고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전략을 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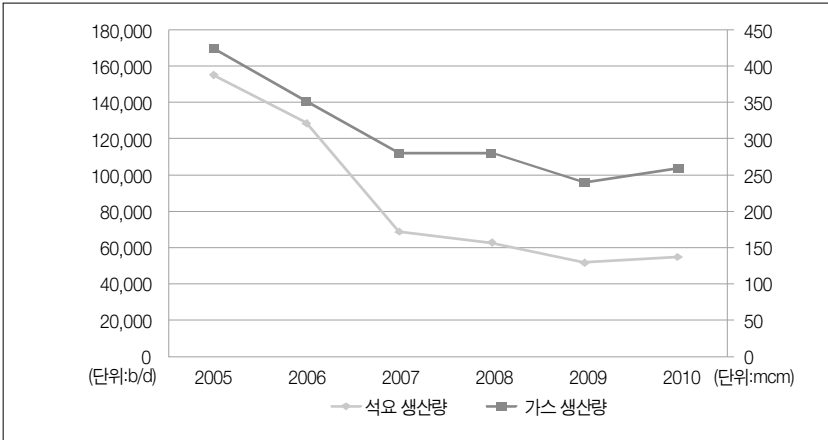
특히 반미감정이 강한 베네수엘라에서 국유화 조치가 취해진 후에도 미국 기업이 계속해서 남아 있기로 결정하자 일부에서는 경제 논리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판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유화 조치 발표 당시 셰브론 측 대변인은 베네수엘라 측과의 협의 사항이 수용할 만한 조건이었으며, 베네수엘라와의 장기 파트너십을 기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셰브론이 국유화 조치 이후에도 베네수엘라에 남아 있기로 한 중요한 이유는 베네수엘라 유전의 높은 잠재력과 막대한 철수비용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셰브론은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6개의 유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서부지역에 위치한 페트로보스칸(Petroboscan)과 페트로인덴데펜디엔테(Petroindependiente)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특히 베네수엘라 서부 Zulia주의 Boscan지역에 위치한 페트로보스칸 유전은 PDVSA와 합작 형태로 개발되고 있는데 셰브론의 지분은 39.2%다. 또한 동부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페트로피아르(Petropiar) 프로젝트는 초중질유(extra-heavy crude oil)를 생산하고 이를 합성 원유로 정제하는 성격이다. 이밖에 셰브론은 플라타포르마 델타나(Plataforma Deltana) 지역의 제2, 3블럭에서도 천연가스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2) 셰브론의 중장기 생존전략: 기업의 사회적공헌 활동

반미 성향이 강한 베네수엘라에서 셰브론의 중장기 생존전략은 한마

그림 4-1. 베네수엘라에서 셰브론의 석유 및 가스 생산량 추이



자료: BMI(2012), "Venezuela Oil and Gas Report Q4 2012," p. 57.

다로 표현하면 사회적공헌(CSR) 활동의 강화다. CSR 활동을 통해 셰브론은 우선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우호적인 활동 여건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CSR 전략을 기업의 생존전략으로 삼고 있는 기업은 셰브론만이 아니다. 베네수엘라에 진출한 많은 외국 기업들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발생하는 높은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CSR을 비즈니스 모델 속에 통합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셰브론은 CSR 활동을 통해 베네수엘라 경제, 교육, 보건 부문에 6,000만 달러를 투자했다. 먼저 셰브론의 CSR 활동은 교육 분야에서 두드러진다.²¹⁹⁾ 셰브론은 개발지역의 공동체를 대상으로 초등교육이나 직업 관련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2005년부터 셰브론은 교육부와 협력하여 개발지역 공동체의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한 교수법 개선을 위해

219) Chevron(2012), p. 2.

투자해왔다. 2011년부터는 Discovery Channel Global Education Partnership 프로그램을 활용해 줄리아(Zulia), 안소아테기(Anzoategui), 카라카스(Caracas) 지역의 빈곤층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해오고 있다. 특히 줄리아(Zulia) 지역에서 11개 학교의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한편 교육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세브론은 수유물라 와쿠아이파(Suürula Wakualpa), 와이우(Wayúu) 초등학교를 대상으로도 이러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세브론은 또한 베네수엘라에서 에너지 관련 전문가 육성에도 적극적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8년간 카라카스(Caracas) 소재 시몬볼리바르 대학(Universidad Simón Bolívar)에 천연가스사업 관련 석사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지원해오고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이러한 형태의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은 세브론의 지원이 유일하다. 세브론은 이 프로그램에 지금까지 130만 달러를 투자하여 200명의 석사과정 학생을 지원하였다.

세브론은 저소득층 청소년의 직업훈련 사업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대표적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 직업훈련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라카이보 지역의 산프란시스코 직업훈련센터(Centro de Formación Profesional San Francisco in the Maracaibo)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이곳에서 배출되는 전문인력은 300명에 달한다. 페트로보스칸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 지역의 첫 고등학교를 세워주었다. 이 밖에도 세브론은 현장의 석유 근로자 양성을 위해 보스칸 훈련센터(Boscan Training Center)도 건설할 계획이다.

세브론은 한 NGO 단체(Center for the People's Action)와 협력하여 '엠프레레드(Emprered)'라는 기업간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

다.²²⁰⁾ 이 프로그램은 세브론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영세 및 소기업들의 훈련을 지원하는 성격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프로젝트 개발, 마케팅, 금융 등 실무 분야에서 1,400명의 전문가가 배출되었다. 또한 엠프레무헤르(Empremujer)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여성 기업가들에게 대출과 훈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브론은 보건분야에서도 다양한 CSR 활동을 하고 있다.²²¹⁾ 먼저 여러 NGO 단체들과 협력하여 산 라파엘 가정 병원(Hogar Clínica San Rafael)에서 2,800여 명의 두개골 기형과 구개 파열 어린이들을 치료하였다. 안소아테기(Anzoategui)와 델타 아마쿠로(Delta Amacuro) 주에서는 외래환자 진료를 위한 의료기기 및 질병 예방 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베네수엘라에서 기업들에게 CSR 활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 될 전망이다. 이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법적으로 CSR 활동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 법에 따르면 정부 발주 사업에 입찰하는 기업은 공사액의 5%를 CSR 관련 활동에 할당해야 한다.²²²⁾

세브론은 막대한 투자와 이를 기반으로 한 고용 창출을 통해서도 베네수엘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투자 환경 악화에다 세계경제 침체로 외국인 투자 유치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상황에서 2012년 7월 세브론의 2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는 차베스 정부에게는 단비와도 같은 것이었다.²²³⁾ 세브론은 또한 페트로피아르(Petropiar)

220) Chevron(2012), p. 3.

221) Chevron(2012), p. 2.

222) U.S. Department of State(2012), “2012 Investment Climate Statement - Venezuela,” <http://www.state.gov/e/eb/rls/othr/ics/2012/191262.htm>. (2012. 11. 18)

223) Parraga and Ellsworth(2012), “Venezuela’s PDVSA, Chevron reach \$2 billion

에도 대규모 투자를 통해 향후 34년간 약 1,000명을 추가로 고용할 계획이다. 특히 셰브론은 석유정제 관련 기술이전 등을 통해서도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²²⁴⁾

4. 금융협력²²⁵⁾

가. 브라질/이탈리아의 발전 부문 협력

1) 프로젝트 내용 및 비즈니스 구조

국영전력회사(CORPOELEC)가 사업주인 Tocoma 수력발전소(Planta Hidroeléctrica Manuel Piar-Tocoma)는 차베스 정부의 전력 부문 최대 국책사업으로서 Caroní강에 건설되는 마지막 수력발전프로젝트다. 총 발전능력 2,160MW(216MW급 10개 발전기)인 Tocoma 발전소는 2012년 1단계 준공에 이어 2014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데, 엔지니어링과 건설(E&C)만 Consorcio OIV Tocoma에 발주했을 뿐 주요 자재 및 자금 등은 사업주인 CORPOELEC이 별도 계약으로 조달하는 베네수엘라의 전형적인 개발사업 형태를 띠고 있다. OIV Tocoma는 2006년에 브라질의 ODEBRECHT(50%), 이탈리아의 IMPREGILO(40%) 그리고 베네수

financing deal,” *Reuters*. (2012. 10. 23)

224) Chevron(2012), Business Portfolio. <http://www.chevron.com/countries/venezuela/businessportfolio>. (2012. 11. 19)

225) 본 절에서의 금융협력은 해외 자원개발, 플랜트·인프라 건설시장 등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한 협력으로 정의한다.

엘라의 VINCCLER(10%)의 지분 참여로 구성된 SPC로서 2007년에 9억 7,000만 달러 규모의 E&C 계약을 CORPOELEC과 체결했다.

2) 자금 조달 구조

2003년 기준으로 댐 및 발전소 건설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30억 달러였으나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2012년 기준으로 43억 달러까지 증가되었다. 사업주인 CORPOELEC은 총사업비 가운데 50%를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IDB와 CAF로부터 정부 보증하에 조달하기로 했다. 이러한 자금 조달 구조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Guri댐을 비롯하여 기존 Caroní강 유역 수력발전소 프로젝트에 IDB와 CAF가 차관을 제공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Tocoma 프로젝트 시행 초기에 IDB와 CAF는 7억 5,000만 달러와 3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약정했으나 사업비가 증액되면서 2012년 현재 15억 5,000만 달러와 15억 달러를 각각 대출한 상태이다.

Tocoma프로젝트는 사업주인 CORPOELEC이 매년 정부로부터 받은 예산과 정부가 보증한 역내 개발은행으로부터 받은 차관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으로서는 SPC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 외에 추가적인 자금 조달 및 자금 주선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었다. 또한 댐 건설에 주요 자재를 공급하는 기업(suppliers)도 베네수엘라 정부가 실질적인 차주가 되는 다자개발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지불받기 때문에 위험이 거의 없었다. 예를 들면 2004년에 아르헨티나의 IMPSA는 경쟁 입찰을 통하여 Tocoma댐에 10기의 Kaplan 터빈(5억 2,000만 달러)을 공급하는 계약을 CORPOELEC과 체결했는데, 이 계약에 필요한 자금도

CAF가 베네수엘라에 추가로 대출한 6억 달러였다. 즉, Tocoma댐 프로젝트는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자금조달 및 주선 능력보다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자금 조달 및 주선 능력이 우선시되었던 사업이었다.

나. 중국의 자원개발 및 발전 부문 협력

1) 중국의 베네수엘라 오리멀전 개발프로젝트 사례

가) 프로젝트 내용 및 비즈니스 구조

오리노코(Orinico) 유전지대 MPE-3 구역 및 동북 방향 확장구역 등 총 면적 114.6km²에 대한 탐사 및 개발프로젝트로서 ▲ 同 지역 자원개발 ▲지표 수송 설비 건설 ▲베네수엘라 José항 유화(emulsion) 시설 준공 등 세 가지 공정으로 구성되었다. 2001년 중국석유가스그룹(CNPC) 계열사인 중국석유가스개발공사(CNODC, 40%) 및 중국석유연료공사(30%)와 BITOR(30%)²²⁶⁾의 출자로 설립된 중국-베네수엘라 오리멀전공사(Orifuels Sinoven S.A.)가 프로젝트 수행사이고, 생산되는 오리멀전은 중국석유연료공사의 전담하에 모두 중국에서 판매하기로 계획되었다. 이러한 목적으로 중국석유연료공사는 별도의 판매 비축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발전소 등 직접적으로 연료를 소비하는 설비를 구비하기로 하였다.

나) 자금 조달 구조: 옵션 및 선택 결과

총투자 소요자금은 3억 6,000만 달러이고 등록자본만 27%였다. 등록자본 가운데 70%는 중국 기업이 부담하고, 등록자본 소요 비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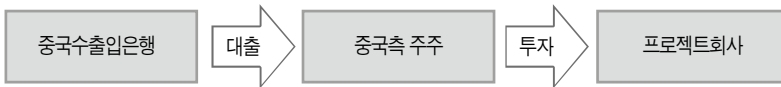
226) 1988년 설립된 베네수엘라석유공사(PDVSA)의 자회사(Bitumenes Orinoco)로 오리멀전을 취급한다.

CNODC와 중국석유연료공사가 지분에 따라 부담하기로 계획되었다. 그리고 등록자본 이외의 비용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조달하기로 합의되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외국 투자자의 국내 대출을 허용했지만 국내 자금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고, 낙후된 금융시스템과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대출을 위해서는 제3국 은행의 담보를 필요로 하는 등 금융 조달 환경이 열악했다. 이와 같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금 조달 방안은 상업적 이익(내부수익률, 순현재가치, 투자회수기간)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처 확보라는 국가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중국수출입은행에 의하여 수용되었다.

한편 중국수출입은행은 복잡한 지배구조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용자형식을 선택하기 위해 기준통화는 달러, 이자율은 변동금리로 합의한 가운데 [표 4-9]와 같이 세 가지 옵션을 제시하여 장단점을 파악한 후, 결론적으로 세 번째 금융 조달 구조를 선택했다. 이 방법은 중국수출입은행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해외투자 대출을 실시한 최초의 사례라는 의미가 있다.

표 4-9. 중국의 금융 조달 방식

〈옵션 1〉 중국 측 주주에게 직접 대출(Seller's Credit)



파이낸스 구조: 대출 당사자를 중국 측 주주로 하여 수출입은행이 두 회사에 자금을 대출하고, 주주는 프로젝트 투자를 책임지고 진행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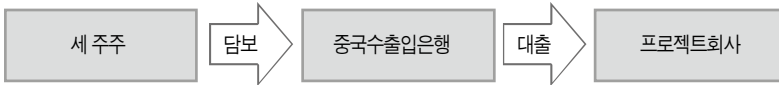
1. 전통적인 방법이어서 수출입은행의 시행이 용이하고 절차가 간단함. 이자와 담보 등에 있어 부담보 등을 포함하여 대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음.
2. 대출인이 국내에 소재하여 관리 및 감독이 용이함. 특히 대출인이 베이징에 소재한 대형국유기업이어서 수출입은행은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를 겪을 소지가 거의 없음.
3. 두 주주가 각각의 지분에 따라 대출을 받으므로 리스크를 분담

표 4-9. 계속

단점:

1. 중국 측 주주의 부채율을 증가시키고, 장기적으로 상환 압력을 발생시킴.
2. 베네수엘라가 지분투자용 대출에 높은 이자세를 부가하고 있어서 중국 측의 부담이 커짐. 베네수엘라는 2001년부터 외국계 은행이 국내기업에 대출할 경우 이자소득의 4.95%만을 징수하는 반면, 외국의 모회사가 베네수엘라에 등록된 합자기업에 대출할 경우 이자소득의 34%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 중국 측 주주가 직접 정부와 거래하게 되므로 수출입은행의 통제권이 약해지고, 베네수엘라와의 거래에서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음.

<옵션 2) 프로젝트회사에 용자하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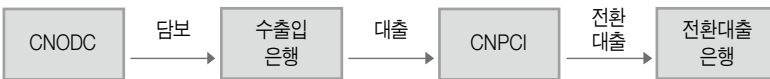
파이낸스 구조: 수출입은행이 프로젝트회사에 직접 용자하여 세 주주가 지분에 따라 담보를 제공
장점:

1. 주주회사의 부채부담 경감(부채가 회사의 BS에 나타나지 않음)
2. 담보 부담이 세 주주에 분담되어 대출을 받는 쪽이나 대출을 하는 쪽 모두 바람직함. 또한 베네수엘라 기업에도 일정한 부담을 부과하게 됨.
3. 자금이 프로젝트 집행자에 직접 전달되어 수출입은행이 자금 사용을 통제하기 수월함.
4. 34%의 높은 이자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음.

단점:

1. 세 주주가 중국과 베네수엘라에 소재하여 담보 설정이 복잡함. 자산, 부채, 신용등급 등 모든 기준이 상이하여 이 조사 수행에 따른 비용이 높음.
2. 프로젝트회사가 해외에 소재하여 사후 관리가 어려움.

<옵션 3) 해외 자회사에 대출



파이낸스 구조: 프로젝트회사의 주주인 CNODC가 담보를 제공하고, 그 자회사인 중국석유국제공사(CNPCI)에게 대출. CNPCI는 제3의 은행에 전환대출을 한 후 전환대출은행이 프로젝트회사에 용자

장점:

1. 대출자금이 바로 해외로 나가므로 자금이 국내로 역류될 가능성을 배제
2. 전환대출은행이 자발적으로 관리감독의 의무를 수행하므로 해외대출에 따른 관리부담을 경감
3. 중국 측의 담보 부담이나 이자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면에서 옵션 2와 동일
4. 실제 사용자인 프로젝트회사에 대출이 실시되므로 중-베네수엘라 양측이 공평하게 책임을 분담
5. SNODC의 담보 상환 능력을 신뢰

단점:

1. 파이낸싱 구조가 복잡하여 관리감독이 어려움.
2. 프로젝트회사가 해외에 소재하여 사후 관리가 어려움.

자료: 최필수 외(2011), 『중국의 해외건설 현황 및 전망』, 국토해양부, pp. 135~137 참고 필자 정리.

2) 중국의 에콰도르 수력발전소 프로젝트 진출 사례

에콰도르 수력발전소 프로젝트에 대한 중국기업의 진출 구조는 베네수엘라에서처럼 ‘loans-for-oil’을 바탕으로 한 EPC 혹은 턴키 방식이다. 따라서 정부가 차주이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방안도 매우 간단 명료하다. 그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Paute-Sopladora 발전소와 관련한 협력이다. Sopladora 발전소(87MW, CDM 프로젝트)는 에콰도르 최대 발전소인 Paute-Molino(1,075MW)의 하류에 건설되는데, Mazar(건설중) 및 Cardenillo(F/S) 발전소 등과 더불어 Paute강 발전단지를 구성한다.²²⁷⁾ Sopladora 프로젝트는 댐이 없는 발전소이지만 상류에 위치한 Paute-Molino 발전소에서 방출되는 수자원을 활용한다. 2010년 중국과 에콰도르의 컨소시엄인 Gezhouba Group(CGGC)-Fopeca가 국영수력발전회사(Hidropaute)²²⁸⁾가 발주한 이 프로젝트(총사업비 6억 7,200만 달러)를 수주하였고, 중국과 에콰도르는 1년간에 걸쳐 자금 조달 협상을 진행했다. 그 결과 2011년 10월 중국수출입은행이 총사업비의 85%인 5억 7,100만 달러(15년, 거치기간 4년, 금리 6.35%)를 에콰도르 정부에 차관으로 제공하고, 나머지 15%는 정부가 사회연대기금(FSS), CAF(2012. 3, 5,000만 달러) 및 IDB(5,000만 달러)로부터 조달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2년 11월 현재 CAF와 IDB로부터는 관련 자금 지원을 확정받지 못하였다.

둘째, Hydrochina Corp.는 2010년 10월 Zamora Chinchipe 지역

227) Paute-Sopladora 프로젝트는 최상류의 Mazar 발전소를 시작으로 Paute강 유역에 건설되는 4개 발전소 가운데 세 번째임. Cardenillo 프로젝트는 하류의 마지막 발전소로서 설계 단계에 있다.

228) Hidropaute는 지주회사인 에콰도르국영발전회사(CELEC)의 자회사이다.

Delsitanisagua(115MW) 수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송전망(36km) 건설을 포함하는 이 프로젝트는 투자자인 에콰도르 전력공사(Empresa Pública Estratégica Corporación Eléctrica)의 관리하에 2015년 9월 완공될 예정이다. 총사업비 2억 1,500만 달러는 중국개발은행(CDB)으로부터 전액 지원받기로 했다.

셋째, 2010년 10월 Canar 지역 Dudas/Mazar 강에 건설될 3개 소규모 발전소(Mazar Dudas, 22.3MW, 4,930만 달러) 건설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7월에 이미 중국개발은행(CDB)은 Mazar Dudas 수력발전소 프로젝트와 Quijos(50MW) 프로젝트에 6억 8,000만 달러를 지원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마지막으로 중국기업인 Sinohydro Andes(사업자, 시공사)는 시행사인 COCASINCLAIR E.P.로부터 아마존유역 Coca강의 Coca-Codo-Sinclair(1,500MW, 건설비 19억 8,000만 달러) 수력발전소 건설을 수주하여 2015년 말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중국수출입은행과 에콰도르 정부가 프로젝트 개발비를 포함한 사업비(26억 7,000만 달러)를 조달하는데, 2010년 10월 중국수출입은행은 63%인 16억 8,000만 달러(15년 만기, 금리 6.9%)를 구매자 신용 혹은 원유판매수익 상황을 조건으로 에콰도르 정부에 지원했다. 나머지 37%인 9억 8,800만 달러는 정부가 COCASINCLAIR E.P.의 지분으로 출자한다.

다. 한국의 정유플랜트 부문 협력

1) 프로젝트 내용 및 비즈니스 구조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그리고 중국의 Wison 엔지니어링 컨소시엄

(Consortio Hyundai-Wison)은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PDVSA)가 발주한 29억 9,500만 달러 규모의 Puerto La Cruz(PLC) 정유공장 확장(가솔린, 디젤, 항공유) 및 설비 개선(중질류 정유설비 일산 18만 7,000→21만 배럴) 공사 EPC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PLC 정유공장 확장 및 설비 개선 공사는 시설과 설비를 고부가가치 석유제품을 생산하도록 개선하는 프로젝트로서 공사기간만 착공일로부터 42개월이다. 컨소시엄의 지분구조를 보면 현대건설이 13억 4,800만 달러(45%), 현대엔지니어링이 7억 1,832만 달러(25%) 그리고 Wison엔지니어링이 9억 2,780만 달러(30%)이다.

2) 자금 조달 구조

차베스 정부 등장 이후 소원해진 양국관계에 비추어 볼 때 PLC 프로젝트 수주는 규모 면에서나 향후 베네수엘라와의 협력 확대 가능성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비록 수주한 한국기업의 풍부한 해외사업 경험과 선진화된 설계기술이 수주의 주된 배경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양국관계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베네수엘라가 필요로 하는 투자자금을 주선하는 수주기업의 PF 능력이 있었다. 특히 발주처인 PDVSA가 시공비 조달 주선을 수주 조건으로 제시한 상태이기 때문에 PF 능력은 매우 중요한 관건이었다.

PLC 프로젝트를 위한 PF 방식의 특징은 베네수엘라와 협력관계가 돈독한 중국과 해외 PF 경험이 풍부한 국제상업은행을 활용했다는 점이다. 먼저 Wison엔지니어링을 협력기업으로 선정함으로써 중국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의 풍부한 자금(9억 달러)을 끌어들이 수 있었다. 이는 부족

한 해외사업 경험을 보완하기 위해 해외 실적이 풍부한 기업과의 협력을 선호하고 있는 중국기업들과 이를 지원하려는 중국 정부의 이해가 일치한 결과였다. 특히 중국 정부는 2010년 이후 베네수엘라에 협력자금으로 400억 달러를 제공하여 관계를 강화해왔는데, 자국 기업들이 기술력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베네수엘라에 제공한 공적자금 원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필요로 했다. 다음으로는 발주처인 PDVSA의 높은 신용도를 신뢰하면서 베네수엘라의 국채 발행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국제상업은행을 끌어들었다. 특히 Mitsubishi Corp.는 15년 만기 7억 5,000만 달러를 제공할 계획인데, 대주단에는 JIBC와 일본무역보험기관(NEXI)의 보증을 받은 일본 은행들이 참여하고 있다.

5. 한국에 대한 시사점

스페인, 캐나다 및 브라질의 개발협력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이들 국가는 수원국의 개발 수요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원조를 시행하고 있다. 에콰도르는 스페인의 ODA를 우수한 사례로 꼽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에콰도르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원조 사업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페인은 에콰도르 정부와 공식 대화를 통해 자국의 해외원조 정책과 에콰도르의 경제발전 계획에 기반하여 에콰도르에 대한 ODA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계획하였다. 수원국의 수요에 맞추어 원조를 시행하는 것이 최근 공여국들이 국제적으로 합의하여 추구하는 방향인데, 스페인은 이를 선도적으로 잘 실행하고 있다. 한국의

ODA도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수원국의 개발 수요를 ODA 사업에 반영하는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아직은 완전하게 수원국의 수요를 반영하는 단계는 아니다. 따라서 수원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원국의 필요성을 파악하여 ODA 정책을 수립하고 수원국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둘째, 캐나다와 브라질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필요성을 인식하여 경제발전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거나 공여국의 발전 경험을 전수하는 원조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를 중심으로 한 다국적 기금은 안데스 국가의 경제정책 연구기관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이들 연구기관이 중장기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있다. 또한 브라질은 재정 지원보다는 주택·금융·에너지·인프라·도시개발·환경·사회개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 경험을 전수하고 정책자문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이 가장 배우고 싶어 하는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한 나라로 재정 지원과 경제발전 경험의 전수가 모두 가능한 국가이다. 한국이 직접적으로 수원국의 경제정책 수립 과정에서 자문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의 역량으로 수원국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수원국의 정책연구기관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자문 및 역량 강화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 안데스 국가의 경제정책 연구기관을 한국의 KSP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원한다면 한국의 경쟁력을 살리고 수원국의 개발 수요에 부응하는 원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베네수엘라, 볼리비아와의 산업기술협력 사례를 통해서도 다음 두 가지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다. 먼저 전략적 분야에서의 기술협력은

과급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점이다. 중국은 위성 분야에서의 성공적인 사업 경험을 토대로 폐쇄적인 베네수엘라 전자, 통신, 항공기 서비스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둘째, 중국은 베네수엘라와의 성공적인 통신위성 개발 사업에 힘입어 볼리비아에 이어 사회주의 이념을 갖고 있지 않은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멕시코 등의 위성개발 산업에도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안데스 3국과의 경제협력 추진 시 과급효과가 큰 산업기술협력을 우선적인 협력 분야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도와 미국 기업의 자원개발 사례를 통해서도 다음과 같은 함의를 얻을 수 있다. 먼저 인도 기업인 진달(JSB)의 볼리비아 진출 사례는 투자 결정 시 사전 타당성 분석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진달의 실패 요인으로 지적되는 현지 인프라 부족, 철광산의 경제성 하락, 현지 파트너인 광물공사(Comibol)의 경험 및 인적자원 부족 등은 투자 결정 시 좀 더 철저한 사전 조사가 수행되었다면 미리 파악할 수도 있는 요인이었다. 다음으로 미국 세브론의 베네수엘라 석유시장 진출 사례는 안데스 좌파 국가에서 CSR 활동이 리스크를 억제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인식시켜주는 예다. 세브론은 교육, 보건 분야에서 다양하고 적극적인 CSR 활동을 통해 반미 정서가 가장 높은 베네수엘라에서 성공적으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도 이들 3국 시장 진출 시 CSR 활동을 필수적인 투자요소로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협력 사례 분석을 통해서도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안데스 3국이 발주하는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사업자가 정부 혹은 국유기업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정부가 보증을 제공하는

등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따라서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에서 발주되는 국책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경우 금융 조달에 있어서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다.

둘째, 자금 조달 구조에서 안데스 3국은 비교적 뚜렷한 차이점을 갖고 있다. 안데스 3국은 시장경제체제에서 벗어나 정책적으로 국가가 시장을 주도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 국가 간 협력사업과 개발프로젝트의 주도권도 국가가 행사한다. 그 결과 프로젝트 시행에 필요한 자금은 국가 재정에서 조달되거나 국가 보증을 바탕으로 해외의 개발금융기관과 민간 상업은행으로부터 조달되고 있다. 그러나 3국의 경제구조와 재정 여력의 차이로 인하여 실질적인 자금 조달 구조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와 같이 국가의 직접적인 투자 비중이 높은 경우와 에콰도르와 같이 민간 자본에 더 의존하는 경우다. 이와 같은 차별성은 재정구조와 낮은 국가신용에 따른 해외자금 조달 능력에서 나타나는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PPP 사업에 대한 인식에서 나타나듯이 전략 부문에 대한 국가의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정책에서 더욱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안데스 3국과의 우호적인 협력관계 구축 여부, 해외시장 진출 경험 및 기술 수준 등을 제외할 경우 기업의 자금 조달 능력이나 자금 주선 능력의 중요성이 제고되고 있다. 정부를 비롯한 프로젝트 사업자가 입찰참여 조건으로 금융 주선을 선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에콰도르는 다소 예외적이지만 일반적으로 안데스 3국은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개발사업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PPP 사업을 기피하지만 시행사의 PF 능력을 중시하고 있다.

제5장 안데스 3국과의 경제협력 현황 및 평가

1. 경제협력 현황 및 평가
2. 경제협력 환경의 SWOT



1. 경제협력 현황 및 평가

가. 교역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 안데스 3국과 우리나라의 교역관계는 아직까지는 미미한 편이다. 본 절에서는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순으로 우리나라와의 교역관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최근 10년간(2002~11년) 대볼리비아 수출은 연평균 14.7% 증가했다. 볼리비아의 경기부침에 따라 수출은 커다란 변동을 겪기도 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볼리비아 경제가 안정적 성장을 구가하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볼리비아로부터의 수입은 더욱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10년간 그 성장세는 연평균 57.4%에 달했으며, 2010년과 2011년에는 100%를 상회하는 성장 속도를 보였다. 이는 아연광 등을 비롯한 광물자원의 수입 증가에서 비롯되었다.

표 5-1. 대볼리비아 연도별 수출입 추이

(단위: 천 달러, %)

| 연도 | 수출 | | 수입 | | 무역수지 |
|------|--------|-------|---------|-------|----------|
| | 금액 | 증감률 | 금액 | 증감률 | |
| 2002 | 7,782 | 19.2 | 8,133 | -39.1 | -351 |
| 2003 | 6,586 | -15.4 | 23,121 | 184.3 | -16,535 |
| 2004 | 5,711 | -13.3 | 43,067 | 86.3 | -37,356 |
| 2005 | 8,466 | 48.2 | 34,158 | -20.7 | -25,692 |
| 2006 | 7,669 | -9.4 | 161,641 | 373.2 | -153,972 |
| 2007 | 10,191 | 32.9 | 182,013 | 12.6 | -171,822 |
| 2008 | 15,112 | 48.3 | 202,540 | 11.3 | -187,428 |
| 2009 | 13,127 | -13.1 | 66,185 | -67.3 | -53,058 |
| 2010 | 19,783 | 50.7 | 213,861 | 223.1 | -194,078 |
| 2011 | 26,636 | 34.6 | 482,470 | 125.6 | -455,834 |

자료: 한국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KOTIS, www.kita.net, 2012. 9. 2) 자료 재구성.

수출 증가세를 크게 상회하는 수입 증가세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볼리비아와의 교역에서 지속적인 적자를 보고 있다. 2002년 35만 달러에 불과했던 적자 규모는 2011년에 4억 5,583억 달러로 급증했다.

2011년 기준으로 대볼리비아 수출은 자동차와 농약 및 의약품이 주도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는 전체 수출의 45%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이다. 이 밖에 플라스틱, 고무, 기호식품 등이 주요 수출상품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07~11년) 수출상품의 구성에서는 자동차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건설광산기계가 새롭게 10대 수출품목에 합류한 점이 주목된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볼리비아로부터 아연광 등 금속광물을 수입해왔다. 2011년 기준으로 아연광과 기타 금속광물을 합한 비중은 전체 수입의 99%에 달했다. 최근 5년 사이(2007~11년) 아연광의 비중이 크게

표 5-2. 대볼리비아 10대 수출품목 현황

(단위: 천 달러, %)

| 2007 | | | 2011 | | |
|----------|--------|-------|----------|--------|-------|
| 품목 | 금액 | 비중 | 품목 | 금액 | 비중 |
| 농약 및 의약품 | 2,336 | 22.9 | 자동차 | 11,889 | 44.6 |
| 시멘트 | 1,240 | 12.2 | 농약 및 의약품 | 2,955 | 11.1 |
| 합성수지 | 1,045 | 10.3 | 플라스틱 제품 | 1,319 | 5.0 |
| 자동차 | 989 | 9.7 | 고무제품 | 1,160 | 4.4 |
| 플라스틱 제품 | 537 | 5.3 | 기호식품 | 1,134 | 4.3 |
| 계측제어분석기 | 385 | 3.8 | 전자응용기기 | 825 | 3.1 |
| 서적 | 347 | 3.4 | 건설광산기계 | 626 | 2.4 |
| 고무제품 | 335 | 3.3 | 편직물 | 581 | 2.2 |
| 도료 및 잉크 | 330 | 3.2 | 인조섬유 | 536 | 2.0 |
| 자동차부품 | 304 | 3.0 | 표면활성제 | 469 | 1.8 |
| 소계 | 7,848 | 77.0 | 소계 | 21,494 | 80.7 |
| 총계 | 10,191 | 100.0 | 총계 | 26,636 | 100.0 |

자료: 한국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KOTIS, www.kita.net, 2012. 9. 2) 자료 재구성.

표 5-3. 대볼리비아 10대 수입품목 현황

(단위: 천 달러, %)

| 2007 | | | 2011 | | |
|---------|---------|--------|--------|---------|--------|
| 품목 | 금액 | 비중 | 품목 | 금액 | 비중 |
| 아연광 | 152,383 | 83.72 | 아연광 | 325,782 | 67.52 |
| 기타 금속광물 | 18,286 | 10.05 | 기타금속광물 | 153,212 | 31.76 |
| 동광 | 6,535 | 3.59 | 의류 | 1,398 | 0.29 |
| 의류 | 1,735 | 0.95 | 목재류 | 1,197 | 0.25 |
| 가죽 | 1,300 | 0.71 | 주석광 | 163 | 0.03 |
| 곡실류 | 817 | 0.45 | 기호식품 | 137 | 0.03 |
| 목재류 | 416 | 0.23 | 가죽 | 113 | 0.02 |
| 정밀화학원료 | 350 | 0.19 | 알루미늄 | 108 | 0.02 |
| 기호식품 | 92 | 0.05 | 천연섬유사 | 86 | 0.02 |
| 알루미늄 | 37 | 0.02 | 정밀화학원료 | 66 | 0.01 |
| 소계 | 181,951 | 99.97 | 소계 | 482,262 | 99.96 |
| 총계 | 182,013 | 100.00 | 총계 | 482,470 | 100.00 |

자료: 한국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KOTIS, www.kita.net, 2012. 9. 2) 자료 재구성.

감소(84%→68%)한 데 반해 기타 금속광물의 비중은 큰 폭으로 증가(10%→32%)했다.

에콰도르는 안데스 국가 중에서도 우리의 주력 수출시장 중 하나다. 최근 10년간 수출은 연평균 20.3% 증가했다. 그 결과 수출액은 2002년 1억 6,749만 달러에서 2011년에는 약 5배 증가한 8억 8,661만 달러에 달했다. 높은 수출 증가세에 비해 에콰도르로부터의 수입은 지난 10년간 큰 폭으로 감소(연평균 22.8%)했다. 이에 따라 2011년 대에콰도르 수입 규모는 2002년 대비 1/10 수준으로 하락했다. 2005년부터 무역수지는 흑자로 돌아섰으며, 2010년부터 그 규모는 8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²²⁹⁾

229) 우리나라는 에콰도르와의 교역에서 2004년까지 원유 수입으로 적자를 기록했으나 2005년부터 원유 수입이 중단되면서 흑자로 돌아섰다.

표 5-4. 대에콰도르 연도별 수출입 추이

(단위: 천 달러, %)

| 연도 | 수출 | | 수입 | | 무역수지 |
|------|---------|-------|---------|-------|----------|
| | 금액 | 증감률 | 금액 | 증감률 | |
| 2002 | 167,493 | -0.1 | 315,198 | 6.2 | -147,705 |
| 2003 | 178,088 | 6.3 | 257,667 | -18.2 | -79,579 |
| 2004 | 263,020 | 47.7 | 443,838 | 72.3 | -180,818 |
| 2005 | 344,301 | 30.9 | 28,797 | -93.5 | 315,504 |
| 2006 | 386,086 | 12.1 | 12,931 | -55.1 | 373,155 |
| 2007 | 428,595 | 11 | 23,277 | 80 | 405,318 |
| 2008 | 626,426 | 46.2 | 25,957 | 11.5 | 600,469 |
| 2009 | 438,410 | -30 | 10,053 | -61.3 | 428,357 |
| 2010 | 887,194 | 102.4 | 12,254 | 21.9 | 874,940 |
| 2011 | 886,612 | -0.1 | 30,634 | 150 | 855,978 |

자료: 한국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KOTIS, www.kita.net, 2012. 9. 2) 자료 재구성.

에콰도르는 우리나라의 첫 자동차 수출대상국으로 유명하다. 1976년 현대자동차는 역사상 처음으로 포니 자동차 다섯 대를 에콰도르에 수출했다. 이후 자동차는 대에콰도르 최대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2007년 60%를 차지했던 자동차 수출 비중은 2011년 37%까지 떨어졌으나 여전히 최대 수출 품목의 위상을 지키고 있다. 자동차 부품을 포함할 경우 2011년 현재 자동차 관련 제품의 수출 비중은 50%를 상회한다. 자동차 관련 제품 이외에 선박, 합성수지, 섬유 및 화학기계, 철강관, 건설광산기계 등도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상품이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에콰도르로부터 동 및 철 관련 제품을 수입해왔다. 2007년에 두 품목의 비중은 70%를 넘었다. 그러나 2011년 들어서 그 양상은 조금씩 바뀌고 있다. 동제품이 여전히 1위를 지키고 있으나 그 비중은 5년 전에 비해 크게 하락(45.1%→29.2%)했다. 2위 자리를 차지했던 합금철선철·고철은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그에 반해 갑각류

표 5-5. 대에과도르 10대 수출품목 현황

(단위: 천 달러, %)

| 2007 | | | 2011 | | |
|-----------|---------|-------|--------------|---------|-------|
| 품목 | 금액 | 비중 | 품목 | 금액 | 비중 |
| 자동차 | 258,771 | 60.4 | 자동차 | 325,933 | 36.8 |
| 합성수지 | 32,064 | 7.5 | 자동차부품 | 143,675 | 16.2 |
| 자동차부품 | 15,196 | 3.5 |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 43,880 | 4.9 |
| 건설광산기계 | 13,947 | 3.3 | 합성수지 | 39,838 | 4.5 |
| 섬유 및 화학기계 | 10,809 | 2.5 | 섬유 및 화학기계 | 38,996 | 4.4 |
| 고무제품 | 10,431 | 2.4 | 철강판 | 35,504 | 4.0 |
| 정밀화학원료 | 9,423 | 2.2 | 건설광산기계 | 24,943 | 2.8 |
| 인조섬유 | 8,256 | 1.9 | 정밀화학원료 | 22,357 | 2.5 |
| 철강판 | 5,332 | 1.2 | 인조섬유 | 17,777 | 2.0 |
| 플라스틱 제품 | 5,261 | 1.2 | 원동기 및 펌프 | 16,854 | 1.9 |
| 소계 | 369,490 | 86.2 | 소계 | 709,757 | 80.1 |
| 총계 | 428,595 | 100.0 | 총계 | 886,612 | 100.0 |

자료: 한국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KOTIS, www.kita.net, 2012. 9. 2) 자료 재구성.

표 5-6. 대에과도르 10대 수입품목 현황

(단위: 천 달러, %)

| 2007 | | | 2011 | | |
|-------------|--------|-------|--------|--------|-------|
| 품목 | 금액 | 비중 | 품목 | 금액 | 비중 |
| 동제품 | 10,501 | 45.1 | 동제품 | 8,939 | 29.2 |
| 합금 철선철 및 고철 | 6,846 | 29.4 | 갑각류 | 8,179 | 26.7 |
| 기타 생활용품 | 1,015 | 4.4 | 수산가공품 | 2,694 | 8.8 |
| 알루미늄 | 993 | 4.3 | 알루미늄 | 1,524 | 5.0 |
| 수산가공품 | 783 | 3.4 | 기타생활용품 | 1,495 | 4.9 |
| 어육 및 어란 | 660 | 2.8 | 곡실류 | 1,456 | 4.8 |
| 기호식품 | 361 | 1.6 | 어육및어란 | 1,335 | 4.4 |
| 곡실류 | 338 | 1.5 | 산식물 | 1,242 | 4.1 |
| 종이제품 | 321 | 1.4 | 어류 | 1,133 | 3.7 |
| 제지원료 | 313 | 1.3 | 제지원료 | 492 | 1.6 |
| 소계 | 22,131 | 95.1 | 소계 | 28,489 | 93.0 |
| 총계 | 23,277 | 100.0 | 총계 | 30,634 | 100.0 |

자료: 한국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KOTIS, www.kita.net, 2012. 9. 2) 자료 재구성.

(26.7%), 수산가공품(8.8%) 등 수산물의 수입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최근 10년간(2002~11년) 대베네수엘라 수출은 연평균 10.6% 증가했으나, 2007년 12억 달러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하락세다. 이 같은 수출 급감은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외환공급 감소, 베네수엘라 정부의 자국산업 보호 정책,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수입수요 하락에 기인한다.

지난 10년간 대베네수엘라 수입은 연평균 12.9% 증가했다. 그 결과 2002년 4,587만 달러에 불과했던 수입액은 2011년 1억 3,715만 달러로 약 3배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와의 교역에서 1981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기록해오고 있다. 무역흑자 규모는 최근 5년간(2007~11년) 연평균 6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대베네수엘라 주력 수출품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이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이들 제품은 여전히 최대 수출품목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 비중에서는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2007년에는 자동차가 75%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 데 반해 자동차부품의 비중은 약 5%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1년에는 자동차부품의 비중이 약 48%로 크게 증가한 데 반해 자동차의 비중은 9%로 급감했다. 자동차 관련 제품 이외에 원동기 및 펌프, 합성수지, 고무제품 등도 우리 기업의 주력 수출품으로 조사되었다.

2011년 기준으로 대베네수엘라 수입은 원유, 알루미늄, 합금철선철·고철 등 3개 품목이 전체의 95%를 차지한다. 특히 그중에서도 원유 수입 비중은 70%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이다. 사실 그간 베네수엘라로부터 원유 수입은 높은 물류비용과 파나마 운하의 화물 수용 능력 부족 등의 이

표 5-7. 대베네수엘라 연도별 수출입 추이

(단위: 천 달러, %)

| 연도 | 수출 | | 수입 | | 무역수지 |
|------|-----------|-------|---------|-------|-----------|
| | 금액 | 증감률 | 금액 | 증감률 | |
| 2002 | 247,486 | -55.4 | 45,873 | 8.6 | 201,613 |
| 2003 | 106,977 | -56.8 | 50,171 | 9.4 | 56,806 |
| 2004 | 229,902 | 114.9 | 93,609 | 86.6 | 136,293 |
| 2005 | 570,523 | 148.2 | 212,009 | 126.5 | 358,514 |
| 2006 | 995,909 | 74.6 | 75,645 | -64.3 | 920,264 |
| 2007 | 1,232,506 | 23.8 | 99,785 | 31.9 | 1,132,721 |
| 2008 | 728,387 | -40.9 | 23,906 | -76 | 704,481 |
| 2009 | 353,387 | -51.5 | 30,568 | 27.9 | 322,819 |
| 2010 | 643,537 | 82.1 | 124,549 | 307.5 | 518,988 |
| 2011 | 614,683 | -4.5 | 137,153 | 10.1 | 477,530 |

자료: 한국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KOTIS, www.kita.net, 2012. 9. 2) 자료 재구성.

표 5-8. 대베네수엘라 10대 수출품목 현황

(단위: 천 달러, %)

| 2007 | | | 2011 | | |
|---------|-----------|-------|--------------|---------|-------|
| 품목 | 금액 | 비중 | 품목 | 금액 | 비중 |
| 자동차 | 917,629 | 74.5 | 자동차부품 | 293,966 | 47.8 |
| 자동차부품 | 55,345 | 4.5 | 자동차 | 54,316 | 8.8 |
| 합성수지 | 25,299 | 2.1 | 원동기 및 펌프 | 28,833 | 4.7 |
| 건설광산기계 | 24,060 | 2.0 | 합성수지 | 17,145 | 2.8 |
| 가정용회전기기 | 19,121 | 1.6 | 고무제품 | 16,509 | 2.7 |
| 냉장고 | 15,694 | 1.3 | 동제품 | 12,886 | 2.1 |
| 전선 | 11,557 | 0.9 | 기타가구 | 12,675 | 2.1 |
| 무선통신기기 | 11,436 | 0.9 |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 12,474 | 2.0 |
| 영상기기 | 11,353 | 0.9 | 건설광산기계 | 12,253 | 2.0 |
| 기타 가구 | 11,185 | 0.9 | 컴퓨터 | 11,706 | 1.9 |
| 소계 | 1,102,679 | 89.5 | 소계 | 472,763 | 76.9 |
| 총계 | 1,232,506 | 100.0 | 총계 | 614,683 | 100.0 |

자료: 한국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KOTIS, www.kita.net, 2012. 9. 2) 자료 재구성.

표 5-9. 대베네수엘라 10대 수입품목 현황

(단위: 천 달러, %)

| 2007 | | | 2011 | | |
|-------------|--------|-------|------------------------|---------|-------|
| 품목 | 금액 | 비중 | 품목 | 금액 | 비중 |
| 합금 철선철 및 고철 | 88,015 | 88.2 | 원유 | 95,939 | 70.0 |
| 동제품 | 4,293 | 4.3 | 알루미늄 | 19,267 | 14.0 |
| 연제품 | 2,958 | 3.0 | 합금 철선철 및 고철 | 15,683 | 11.4 |
| 알루미늄 | 2,808 | 2.8 | 정밀화학원료 | 3,615 | 2.6 |
| 정밀화학원료 | 662 | 0.7 | 기타금속광물 | 550 | 0.4 |
| 농산가공품 | 485 | 0.5 | 압연기용접기 및 주조설비 | 530 | 0.4 |
| 고무제품 | 122 | 0.1 | 연제품 | 372 | 0.3 |
| 기계요소 | 108 | 0.1 | 계측제어분석기 | 272 | 0.2 |
| 침대 | 63 | 0.1 | 정전(static electric) 기기 | 271 | 0.2 |
| 천연섬유사 | 42 | 0.0 | 동제품 | 183 | 0.1 |
| 소계 | 99,556 | 99.8 | 소계 | 136,682 | 99.7 |
| 총계 | 99,785 | 100.0 | 총계 | 137,153 | 100.0 |

자료: 한국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KOTIS, www.kita.net 2012. 9. 2) 자료 재구성.

유로 전무했다. 그러나 2011년 들어 GS 칼텍스가 처음으로 베네수엘라로부터 원유를 수입했다.

나. 투자

한국의 투자 대상으로서 안데스 3국의 위상은 아직까지 미미하다. 안데스 3국 중에서는 볼리비아에 대한 투자액이 가장 크나 그 규모는 1억 달러를 넘지 못하고 있다. 먼저 우리 기업의 대볼리비아 투자는 2012년 6월 말 현재 7,913만 달러다. 아직까지 그 규모는 크지 않으나 2008년 이후 투자 활동은 비교적 활발한 편이다.

주요 투자 분야는 구리, 아연 등 자원개발이다. 전체 투자의 92%가 광업 부문에 집중되고 있다. 2008년 코로코로 동광 공동 탐사 및 개발,

표 5-10. 대볼리비아 연도별 투자(2012년 6월 누계 기준)

(단위: 천 달러)

| 연도 | 신고건수 | 신규법인수 | 신고금액 | 송금횟수 | 투자금액 |
|----------|------|-------|---------|------|--------|
| 1989 | 2 | 1 | 1,268 | 4 | 640 |
| 1990 | 1 | 0 | 160 | 2 | 788 |
| 1992 | 0 | 0 | 0 | 0 | 0 |
| 1993 | 1 | 1 | 625 | 1 | 160 |
| 1994 | 5 | 1 | 1,522 | 6 | 685 |
| 1995 | 3 | 1 | 1,113 | 6 | 188 |
| 1996 | 2 | 1 | 4,700 | 1 | 105 |
| 1997 | 2 | 1 | 14,590 | 2 | 2,620 |
| 1998 | 1 | 1 | 17,000 | 8 | 15,444 |
| 1999 | 2 | 0 | 25,300 | 10 | 18,680 |
| 2000 | 2 | 0 | 84,436 | 7 | 10,200 |
| 2001 | 1 | 0 | 900 | 3 | 1,359 |
| 2002 | 1 | 0 | 9,500 | 10 | 4,330 |
| 2003 | 1 | 0 | 9,500 | 8 | 3,916 |
| 2004 | 0 | 0 | 0 | 2 | 650 |
| 2005 | 0 | 0 | 0 | 4 | 970 |
| 2006 | 0 | 0 | 0 | 1 | 146 |
| 2008 | 4 | 2 | 5,338 | 6 | 312 |
| 2009 | 11 | 3 | 5,803 | 23 | 3,867 |
| 2010 | 10 | 2 | 12,043 | 21 | 9,865 |
| 2011 | 4 | 0 | 2,240 | 7 | 2,046 |
| 2012 1~6 | 1 | 0 | 2,000 | 2 | 2,160 |
| 총계 | 54 | 14 | 198,038 | 134 | 79,131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http://www.koreaexim.go.kr/kr/work/check/oversea/use.jsp>, 2012. 9. 4) 자료 재구성.

2009년 포토시 지역 선광장 인수 등이 최근의 대표적인 투자 프로젝트다. 2012년 6월에는 한국 컨소시엄과 볼리비아 광업공사인 코미볼(Comibol) 간에 양극재 생산을 위한 R&D 투자 및 공동 조인트벤처 설립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다.

표 5-11. 대볼리비아 업종별 투자(2012년 6월 누계 기준)

(단위: 천 달러, %)

| 업종 | 신고 건수 | 신규 법인수 | 신고 금액 | 송금 횟수 | 투자 금액 | 비중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4 | 1 | 2,228 | 6 | 1,428 | 1.8 |
| 광업 | 32 | 4 | 176,806 | 98 | 73,045 | 92.3 |
| 제조업 | 8 | 3 | 2,731 | 11 | 945 | 1.2 |
| 건설업 | 1 | 1 | 206 | 1 | 52 | 0.1 |
| 도매 및 소매업 | 7 | 4 | 16,000 | 13 | 3,639 | 4.6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2 | 1 | 66 | 5 | 22 | 0.0 |
| 총계 | 54 | 14 | 198,038 | 134 | 79,131 | 100.0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http://www.koreaexim.go.kr/kr/work/check/oversea/use.jsp>, 2012. 9. 4) 자료 재구성.

에콰도르에 대한 투자 진출도 아직까지 미미하다. 2012년 6월 말 현재 총 투자액은 3,596만 달러에 불과하다. 삼성전자(2001년), LG전자(2002년) 레오콘사(2007년),²³⁰⁾ SK건설(2008년) 등이 지사 형태로 진출해 있다. 그러나 대우자동차(2003년 1월), 대우일렉트로닉스(2009년 초) 등 일부 기업의 철수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1992년 철수했던 KOTRA는 2012년 하반기에 무역관을 재설치할 계획이다.

최근 우리 기업의 에콰도르 투자 진출에서 눈에 띄는 사항은 2011년에 포스코건설이 계열사인 대우엔지니어링과 함께 에콰도르 최대 플랜트 시공업체인 산토스 시엠아이(SANTOS CMI S.A)를 800억 원에 인수한 것이다. 산토스 시엠아이는 브라질, 칠레, 멕시코 등 중남미 인근 지역은 물론 미국에도 현지 법인을 두고 있으며 화공, 발전 및 토목 분야에서 풍부한 시공 경험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²³¹⁾

230) 키토 교통카드 시스템 설치.

231) 전병윤(2011), 『포스코건설, 에콰도르 플랜트시공업체 인수』, 『머니투데이』, <http://stock>.

표 5-12. 대에콰도르 연도별 투자(2012년 6월 누계 기준)

(단위: 천 달러)

| 연도 | 신고건수 | 신규법인수 | 신고금액 | 송금횟수 | 투자금액 |
|------|------|-------|--------|------|--------|
| 1980 | 2 | 1 | 59 | 2 | 59 |
| 1993 | 1 | 1 | 40 | 1 | 40 |
| 1994 | 4 | 2 | 1,500 | 2 | 294 |
| 1995 | 1 | 1 | 800 | 2 | 649 |
| 1996 | 2 | 1 | 10,000 | 6 | 4,294 |
| 1997 | 1 | 0 | 5,000 | 0 | 0 |
| 2006 | 3 | 3 | 520 | 4 | 93 |
| 2007 | 7 | 4 | 7,818 | 11 | 5,038 |
| 2008 | 9 | 3 | 28,712 | 19 | 3,687 |
| 2009 | 4 | 4 | 294 | 8 | 424 |
| 2010 | 1 | 0 | 42 | 0 | 0 |
| 2011 | 13 | 3 | 25,234 | 9 | 21,221 |
| 2012 | 6 | 3 | 1,618 | 5 | 163 |
| 총계 | 54 | 26 | 81,638 | 69 | 35,963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http://www.koreaexim.go.kr/kr/work/check/oversea/use.jsp>, 2012. 9. 4) 자료 재구성.

업종별로 대에콰도르 투자는 건설업에 집중(전체 투자의 60%)되고 있다. 포스코건설의 현지 시공업체 인수가 대표적이다. 이밖에 농림어업(11.8%), 출판·영상·방송통신업(23.1%) 등도 우리 기업이 최근 관심을 갖고 진출하는 분야다. 다른 안데스 국가에서와 달리 광업 부문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는 아직까지 매우 미미(0.5%)하다.

2012년 6월 말 현재 우리 기업의 대베네수엘라 투자는 6,664만 달러에 불과하다. 1997년 이후 실질적인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기업의 대베네수엘라 최대 투자는 포스코가 철강 원료인

mt.co.kr/view/mtview.php?no=2011020916163721357&type=1&outlink=2&EVEC. (2011. 2. 9)

표 5-13. 대에과도르 업종별 투자(2012년 6월 누계 기준)

(단위: 천 달러, %)

| 업종 | 신고 건수 | 신규 법인수 | 신고 금액 | 승금 횟수 | 투자 금액 | 비중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6 | 3 | 15,099 | 8 | 4,230 | 11.8 |
| 광업 | 7 | 5 | 24,902 | 8 | 167 | 0.5 |
| 제조업 | 5 | 3 | 1,292 | 5 | 813 | 2.3 |
| 건설업 | 9 | 3 | 25,514 | 9 | 21,408 | 59.5 |
| 도매 및 소매업 | 3 | 2 | 1,330 | 3 | 457 | 1.3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5 | 1 | 10,898 | 19 | 8,324 | 23.1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1 | 1 | 250 | 2 | 250 | 0.7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11 | 4 | 234 | 11 | 239 | 0.7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6 | 3 | 2,102 | 3 | 58 | 0.2 |
| N/A | 1 | 1 | 17 | 1 | 17 | 0.0 |
| 총계 | 54 | 26 | 81,638 | 69 | 35,963 | 100.0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http://www.koreaexim.go.kr/kr/work/check/oversea/use.jsp>, 2012. 9. 4) 자료 재구성.

HBI 생산을 위해 푸에르토 오르다스(Puerto Ordaz)시에 합작법인(POSVEN: Posoco Venezuela)을 설립한 것이다. 우리 기업이 75%의 지분(포스코 40%, 포스틸/포스코개발/동부 각 10%, 현대 5%)을 보유했으며 나머지는 미국 및 멕시코 기업이 소유했다. 현지 합작법인은 1997년 5월 착공해 2000년 6월 완공되었으나 HBI 가격 하락에 노동 분쟁 등의 요인이 겹쳐 2003년에 폐쇄되었다.²³²⁾

업종별로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94.4%)을 차지하고 있다. 삼성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등 6개 기업이 판매법인이나 지점 형태로 진출해 있다. 특히 2009년 들어서는 현지 건설플랜트시장 진출을 겨냥해 포스코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이 법인 및 지점을 개설했다.

232) 지식경제부, 한·중남미협회(2012), p. 173.

표 5-14. 대베네수엘라 연도별 투자(2012년 6월 누계 기준)

(단위: 천 달러)

| 연도 | 신고건수 | 신규법인수 | 신고금액 | 송금횟수 | 투자금액 |
|-------|------|-------|--------|------|--------|
| 1980 | 1 | 0 | 0 | 0 | 0 |
| 1982 | 1 | 1 | 60 | 1 | 60 |
| 1993 | 1 | 1 | 500 | 1 | 500 |
| 1994 | 2 | 0 | 19,846 | 0 | 0 |
| 1995 | 0 | 1 | 0 | 3 | 300 |
| 1996 | 3 | 2 | 5,200 | 5 | 7,901 |
| 1997 | 4 | 1 | 72,800 | 9 | 57,670 |
| 2000 | 1 | 1 | 150 | 2 | 60 |
| 2001 | 1 | 0 | 0 | 0 | 0 |
| 2002 | 1 | 0 | 250 | 0 | 0 |
| 2008 | 0 | 0 | 0 | 0 | 0 |
| 2009 | 3 | 2 | 1,023 | 2 | 143 |
| 2011 | 1 | 1 | 9 | 1 | 9 |
| 2012 | 1 | 0 | 45 | 0 | 0 |
| Total | 20 | 10 | 99,882 | 24 | 66,642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http://www.koreaexim.go.kr/kr/work/check/oversea/use.jsp>, 2012. 9. 4) 자료 재구성.

표 5-15. 대베네수엘라 업종별 투자(2012년 6월 누계 기준)

(단위: 천 달러, %)

| 업종 | 신고건수 | 신규법인수 | 신고금액 | 송금횟수 | 투자금액 | 비중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1 | 1 | 60 | 1 | 60 | 0,1 |
| 제조업 | 7 | 4 | 89,805 | 12 | 62,940 | 94,4 |
| 건설업 | 1 | 1 | 1,000 | 1 | 120 | 0,2 |
| 도매 및 소매업 | 7 | 4 | 8,973 | 10 | 3,523 | 5,3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1 | 0 | 45 | 0 | 0 | 0,0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3 | 0 | 0 | 0 | 0 | 0,0 |
| 총계 | 20 | 10 | 99,882 | 24 | 66,642 | 100,0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http://www.koreaexim.go.kr/kr/work/check/oversea/use.jsp>, 2012. 9. 4) 자료 재구성.

표 5-16. 대베네수엘라 한국기업 투자 진출 현황

| 업체명 | 진출연도 | 진출형태 | 업종 |
|---------|------|-------|--------------------|
| 삼성전자 | 1994 | 지점 | 핸드폰 및 가전제품 판매 |
| LG전자 | 2000 | 지점 | 핸드폰 및 가전제품 판매 |
| 대우전자 | 2007 | 지점 | 가전제품 판매 |
| 세라젬 | 2009 | 판매법인 | 의료온열기, 건강생활용품, 화장품 |
| 포스코건설 | 2009 | 서비스법인 | 건설, 공사업 |
| 삼성엔지니어링 | 2009 | 지점 | 건설, 공사업 |
| 현대건설 | 2011 | 지점 | 건설, 공사업 |

자료: 지식경제부 · 한중남미협회(2012), p. 173.

다. 자원개발 및 건설플랜트

1) 자원개발

2012년 6월 현재 우리나라는 중남미 10개국에서 39개의 광물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진행사업의 누적 투자금액은 약 21억 4,600만 달러에 달한다. 사업 단계별로는 생산사업이 7개, 개발사업이 15개, 탐사사업이 17개다.

안테스 3국 중에서는 볼리비아에서 가장 활발한 광물자원 사업(총 7개)이 전개되고 있다. 광종도 연아연, 주석, 동, 금, 망간 등 다양하다. 특히 이중에서도 광물자원공사가 볼리비아 광업공사(Comibol)와 합작으로 추진하고 있는 코로코로 동광 개발 프로젝트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²³³⁾ 다음으로 에콰도르에서는 3개의 개발 및 탐사사업이 추진되고 있

233) 광물자원공사는 2008년 2월 계약 체결 이후 2009년 4월 현지 법인을 설립했으며, 2009년 10월에는 탐사보증금(bank bond)으로 투자금 1,000만 달러의 10%를 볼리비아에 예치하였다. 볼리비아에서는 탐사보증금을 예치해야 광업권을 얻게 된다. 2012년 8월 현재 광물자원공사는 광물 탐사를 마치고 탐사 결과 보고서 분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광물자원공사 볼리비아 법인 담당자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정리, 2012. 8. 14).

표 5-17. 우리나라의 안데스 3국 광물자원 개발 진출 현황(2012년 6월 현재)

| 국가 | 사업명 | 광종 | 사업 단계 | 진출 연도 | 참여업체 |
|-----------------|-------------|------|-------|-------|------------------------|
| 베네수엘라 | 오리노코 | 알루미늄 | 개발 | 1990 | 두양상사 |
| | 포토시 | 연아연 | 생산 | 2010 | 고려아연 |
| | 과라요스 | 주석 | 개발 | 2011 | 루나리소스 |
| 볼리비아 (7개 사업) | 코로코로 | 동 | 탐사 | 2008 | KORES, LS니꼬, 대우인터내셔널 등 |
| | 레코스 테오포테 | 금 | 탐사 | 2012 | 유비케이리소스 |
| | 몬테가르시아 | 금 | 탐사 | 2009 | 대국 |
| | 바르헨 데 코파카버나 | 망간 | 탐사 | 2011 | 유비케이리소스 |
| | 탐보 | 금 | 탐사 | 2001 | 웹즈앤인베스트먼트 |
| 에콰도르 (3개 사업) | 비센티나 | 금 | 개발 | 2008 | 골든스타크루드오일 |
| | 이사벨 | 금 | 개발 | 2010 | 개인 |
| | 쿠엔카 | 금 | 탐사 | 2009 | 잉카 |

자료: 지식경제부, www.mke.go.kr. (2012. 11. 9)

다. 모두 금 관련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베네수엘라에서는 알루미늄 개발 사업 1건만이 추진되었다.

2012년 6월 현재 우리나라는 콜롬비아, 페루 등 중남미지역에서 25개의 유전 및 가스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안데스 3국 중에서는 베네수엘라가 유일하다. 한국석유공사는 1997년 베네수엘라 오나두 생산광구에 지분 참여 형태로 진출했다. 지분 구성은 CVP(베네수엘라) 60%, CGC(아르헨티나) 26%, BPE(에콰도르) 8.4%, 한국석유공사 5.6% 순이다. 당초 석유공사의 지분은 14.1%에 달했으나 2006년 베네수엘라 정부의 국유화 조치 이후 5.6%로 축소되었다. 투자 금액은 3,300만 달러로 현재 2,680만 달러가 회수된 상태다.²³⁴⁾

234) 지식경제부, 한·중남미협회(2012), p. 177.

표 5-18. 연도별 중남미 플랜트 수주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6월 | 합계 |
|-------|---------------|-----------------|-----------------|------------------|-----------------|-----------------|-----------------|------------------|------------------|
| 전체 | 15,814 | 25,404 | 42,162 | 46,207 | 46,304 | 64,480 | 64,498 | 28,408 | 333,207 |
| 중남미 | 655 (4.1%) | 1,948 (7.7%) | 3,433 (8.1%) | 6,232 (13.5%) | 2,898 (6.3%) | 2,842 (4.4%) | 6,307 (9.8%) | 4,131 (14.5%) | 30,142 (9.0%) |
| 브라질 | 0.2 | 1,171 | 330 | 2,262 | 1,939 | 1,043 | 4,606 | 0.3 | 11,352 |
| 칠레 | - | 423 | 1,331 | 193 | - | 689 | 86 | 1,589 | 4,311 |
| 멕시코 | 156 | 83 | 24 | 627 | 4 | 270 | 362 | 0.05 | 1,526 |
| 베네수엘라 | - | 21 | - | 500 | 23 | - | 35 | 2,161 | 2,740 |
| 페루 | - | - | - | - | 290 | 278 | 4.6 | 0.4 | 573 |
| 콜롬비아 | - | 53 | - | - | - | - | - | 436 | 489 |
| 소계 | 156 | | 1,685 | 3,389 | | | 5,094 | 4,131 | 20,742 |

자료: 한국플랜트협회, www.kopia.or.kr(2012. 11. 9).

2) 건설플랜트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 기업의 대중남미 플랜트 시장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총 플랜트 수주에서 중남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4.1%에서 2012년 1~6월 기간에는 14.5%까지 증가했다. 브라질, 칠레, 베네수엘라 등이 주요 수주 대상국이다.

최근 우리 기업의 대중남미 건설플랜트시장 진출에서 주목되는 점은 주력 진출시장 이외의 시장에서 높은 수주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높은 정치경제 리스크로 우리 기업들이 진출을 기피했던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등이 주요 대상이다.

먼저 SK건설은 2010년 3월 에콰도르에서 2억 6,000만 달러 규모의 마나비(Manabi) 정유공장 신설 프로젝트의 기본설계(FEED: Front-End Engineering & Design)를 단독으로 수주했다. 발주처는 RDP(Refineria

Del Pacifico)사로 에콰도르 국영석유회사인 PetroEcuador와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인 PDVSA의 합작법인이다.²³⁵⁾ 이번 SK건설의 수주는 그간 미국, 유럽 등 선진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기본설계 분야에 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2012년 들어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에 연이어 성공하며 베네수엘라가 우리 기업의 주요 플랜트 진출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먼저 대우건설과 STX건설은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인 PDVSA와 석유 송유관, 저장시설, 수출부두 등 석유 수출을 위한 산업벨트를 건설하는 88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석유수출시설 건설 사업²³⁶⁾ MOU를 체결했다. 대우건설과 STX건설은 50대 50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PDVSA와 기본설계(FEED)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2012년 6월에는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및 중국 위슨엔지니어링(Wison Engineering)으로 이루어진 컨소시엄이 PDVSA에서 발주한 29억 9,500만 달러 규모²³⁷⁾의 푸에르토리크루스(Puerto La Cruz) 정유공장 확장 및 설비 개선 공사를 수주했다. 이번 공사 수주는 다양한 정부 부처의

235) 김관식(2010), 『SK건설, 에콰도르 정유공장 기본설계 수주』, 『프라임경제』(3월 28일), http://www.dnews.in/news_list.php?code=economy&id=516302. (2012. 9. 2)

236) 이 프로젝트는 총 3개의 패키지(Package) 공사로 구성되는데, 기본설계에서부터 구매, 시공 등 수출단지 건설을 위한 전 과정을 일괄도급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첫 번째 패키지(Package 1)는 베네수엘라의 대표적인 산유지역인 오리노코(Orinoco) 유전 중 후닌(Junin) 블록과 카라보보(Carabobo) 블록에서 생산하는 중질유를 아라야(Araya) 해안지역으로 운반하는 600km의 송유관 공사와 후닌 블록, 카라보보 블록에 건설되는 저장시설(Tank Farm)로 구성된다. 두 번째 패키지(Package 2)는 아라야 지역의 원유 저장시설 및 부두시설 공사로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패키지(Package 3)는 오리노코 지역의 고체 생산품을 저장하는 시설과 부두시설 공사로 구성된다 (<http://www.jsbenc.com/cyber/View.asp?idnum=799&type=3>, 2012. 9. 4).

237) 현대건설 지분 13억 4,800만 달러, 현대엔지니어링 지분 7억 1,900만 달러.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거둔 성과라는 면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한국은 베네수엘라와 2009년부터 정부 간 협의체로 『한·베네수엘라 자원협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1년과 2012년 개최된 회의에서 푸에르토리카루스 사업 건이 주요 협력 의제로 다루어졌다.

이밖에도 SK건설은 PDVSA와 산디에이고-호세 산업단지 간 초중질유 저장탱크와 펌프 설치 프로젝트(5억 달러 규모)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또한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화학회사인 PEQUIVEN과는 3,500만 달러 규모의 사업주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LOI를 체결했다.²³⁸⁾

볼리비아에서도 우리 기업은 커다란 공사를 수주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012년 9월 볼리비아의 국영석유회사인 YPFB와 8억 4,000만 달러 규모의 암모니아·요소 플랜트 건설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볼리비아 역사상 최대 프로젝트로 알려진 이 프로젝트는 코차밤바(Cochabamba) 주의 엔트레리오스(Entre Rios) 시에 일산 2,100톤 규모의 요소 비료플랜트를 건설하는 것이다.²³⁹⁾

238) 서윤경(2012), 「대우건설·STX 컨소시엄등 4곳, 베네수엘라 111억弗 사업 수주 눈앞」, 『국민일보』, (4월 25일)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arcid=0006024364&cp=nv> (2012. 9. 5)

239) 삼성엔지니어링(2012), 「볼리비아서 비료 플랜트 계약」, 『엔지니어링 뉴스』(9월 14일), <http://www.samsungengineering.co.kr>. (2012. 9. 20)

표 5-19. 안데스 3국 에너지 인프라 사업 추진 현황

| 국 가 | 프로젝트명 | 참여기업 | 현 황 |
|-----------------------------------|--|---------|---------------------------------|
| 에콰도르 | 에스메랄다 정유공장 개선 공사 | SK건설 | 100만 달러 이상 예상 |
| | 알디피 프로젝트 초기설계 | SK건설 | 4,000만 달러 |
| | 정유공장 기본설계 | SK건설 | 2억 5,000만 달러 |
| | 에콰도르 남부지역 GLP 운송 및 배관 공사 | 진용 | 1,000만 달러 |
| | 갈라파고스 발트라섬 풍력발전소 건설 | 유니슨 | 695만 달러 |
| | 산토도밍고 상수도 확장 프로젝트 | 한솔이엠이 | 3,900만 달러 |
| | Jaramijo 화력발전소 | 현대중공업 | 140MW의 규모로, Equitatis사와 컨소시엄 구성 |
| 베네수엘라 | Polinter El Tablazo 03 U&O Project | 삼성엔지니어링 | 1,200만 달러 |
| | PDVSA Consulting, Technical Assistance Service | 삼성엔지니어링 | 870만 달러 |
| | 엘 따블라소 03 유틸리티/오프사이트 프로젝트 | 삼성엔지니어링 | 5억 달러 |
| | Junin Early Production of Oil Project | SK건설 | 510만 달러 |
| | PLCR EPC 제안서 작성 및 수소 생산 Unit 83의 Early Work | 현대엔지니어링 | 3,000만 달러 |
| Puerto la Cruz 정유공장 확장 및 설비 개선 사업 |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주)위스엔지니어링 | 30억 달러 | |
|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 PDVSA 정유공장 건설사업 기본설계 | SK건설 | 2억 6,000만 달러, 단독수주 |
| 볼리비아 | 암모니아·요소 플랜트 건설 공사 | 삼성엔지니어링 | 8억 4,000만 달러, 단독수주 |

자료: 한국플랜트협회, www.kopia.or.kr. (2012. 11. 9)

라. 개발협력

안데스 3국 중에서 베네수엘라는 소득 수준이 높아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대상국이 아니다. 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 볼리비아와 에콰도르를 중심으로 개발협력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5-20. KOICA의 주요 추진사업 현황(1991~2010)

| 지역 | 프로젝트 내용(사업 기간) |
|-------------|--------------------------------|
| 라파즈(엘알토) | 의료센터 건립사업(1995~1996/2006~2008) |
| 라파즈(엘알토) | 기술교육훈련원 건립사업(2000~2004) |
| 라파즈(엘알토) | 모자보건서비스 개선사업(2007~2008) |
| 산타크루즈(과라요스) | 상수도시설 구축사업(2010) |
| 오루로 | 보건의료시스템 향상 및 의료인력 역량강화사업(2010) |

자료: ODA Korea, <http://www.odakorea.go.kr/oz/support/SAmrc/Bolivia.jsp>. (2012. 11. 15)

1) 볼리비아

볼리비아는 현재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 대상국이다.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볼리비아 이외에 페루, 콜롬비아, 파라과이가 우리의 중점협력 대상국이다. 2010년 초 중점협력 대상국 지정 이후 볼리비아에 대한 ODA 지원은 확대되고 있다. 2011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대볼리비아 지원액은 7,004만 달러로 이중 무상원조액은 598만 달러, 유상원조액은 6,406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주요 지원 사업은 수출입은행의 교통 분야(교량건설 프로젝트) 지원 이외에 보건의료(병원 건립), 농촌개발 사업(농업용수, 댐, 상수도 시설)

표 5-21. 대볼리비아 유상원조 추진 현황

| 구분 | 파일라스 | 바네가스 | 마드레 데디오스 | 베니 | 마모레 |
|----------------|-----------------|---------------|------------|---------------|------------|
| 차관한도 (만 달러) | 2,300 | 4,100 | 4,200 | 3,000 | 4,000 |
| 차관조건 | 2.5%, 30년 | 0.1%, 40년 | 0.1%, 40년 | 0.1%, 40년 | 0.1%, 40년 |
| 교량길이 | 1.4km | 1.4km | 574m | 480m | 1.7km |
| 교량위치 | Pailon-San Jose | 산타크루스 Grande강 | 판도주 13번 국도 | 판도 주와 베니 주 경계 | 베니 주 트리니다드 |

자료: ODA Korea, <http://www.odakorea.go.kr/oz/support/SAmrc/Bolivia.jsp>. (2012. 11. 15)

표 5-22. 형태별 대에콰도르 무상원조 실적

(단위: 천 달러, %)

| 형태 | 명(혹은 건수) | 금액 | 비중 |
|----------|----------|--------|-------|
| 국내초청연수 | 227 | 1,863 | 9.6 |
| 인프라 건축 | 6 | 5,278 | 27.2 |
| 전문가파견 | 6 | 62 | 0.3 |
| 해외봉사단 파견 | 462 | 9,515 | 49.1 |
| 물자지원 | 26 | 2,663 | 13.7 |
| 총계 | | 19,381 | 100.0 |

자료: ODA Korea, <http://www.odakorea.go.kr/oz/support/SAMrc/Ecuador.jsp>. (2012. 11. 15)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2010년 10월에는 우리나라의 정보화 경험을 공유하고 개도국의 정보화, 정보 격차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볼리비아 문화부 강당에 ‘한-볼리비아 정보접근센터’를 구축(30만 달러)했다. 동 센터는 약 100평 규모로 최신형 컴퓨터 60여 대가 설치된 인터넷플라자(PC방), 교육훈련장, 기술지원실, 행정실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라는 볼리비아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0년 9월 KOICA 사무소를 개소한 데 이어 2012년 초에는 볼리비아 국별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수립했다. 또한 2012년 초 양국간 봉사단 파견협정을 체결해 2012년 하반기부터 KOICA 봉사단을 파견하고 있다.

유상원조 측면에서도 볼리비아의 위상은 크게 제고되었다. 2010년 8월 모랄레스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2010~14년 기간 총 2억 5,000만 달러의 EDCF 자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2011년에 볼리비아는 개발 경험공유사업(KSP) 대상 국가로도 선정되었다. 볼리비아 측이 한국과 협력을 희망하는 분야는 ① 공공부채 관리 ② 재정전망 및 재정준칙 ③ 외환보유고 관리 ④ 연금시스템의 지속가능성 ⑤ 자금중개 및 신용공여 방안 ⑥ 국채 관리 ⑦ 지방정부부채 통제기

법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는 2011년에 볼리비아와 ‘중기 재정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KSP 사업을 수행했다.

2) 에콰도르

2011년 말 현재 대에콰도르 원조는 7,823만 6,000달러에 달한다. 이중 무상원조는 1,960만 6,000달러, 유상원조는 5,863만 달러다. 연도별로 대에콰도르 지원 규모는 2007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형태별로 대에콰도르 무상원조는 해외봉사단 파견이 가장 큰 비중(전체의 49.1%)을 차지한다. 이밖에 인프라 건축(27.2%), 물자지원(13.7%), 국내초청연수(9.6%)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최근 실시된 가장 대표적인 무상원조 사업은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산 타크루즈 섬 태양광 발전소 건립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000만 달러로 역대 지원사업 중 가장 큰 규모다. 사업의 주요 목적은 계통형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통한 지역 전력부족 문제 해소 및 수원국의 자연친화적 전력공급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에콰도르 유상원조는 총 2건이다. 먼저 1995년에는 키토(Quito), 암바토(Ambato) 등 전국 주요 지방에 현대화된 전전자교환기(2만 1,100회선)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이 지역의 통신기능을 개선하고 낙후된 지방의 사회경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1,500만 달러를 지원했다. 2006년에는 산토도밍고시의 낙후된 기존 상수도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의 보건위생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4,363만 달러를 제공했다.

2011년에 우리나라는 에콰도르를 안데스 3국 중에서 볼리비아와 더불어

표 5-23. 에콰도르 주요 무상원조 프로젝트 현황

| 프로젝트 명 | 기간/금액 | 사업목적 | 지원내역 |
|-----------------------------------|---------------------|--|---|
| 에콰도르 갈라 파고스 산타크 루즈 섬 태양광 발전소 건립사업 | 2010~12년 /1,000만 달러 | 계통형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통한 지역 전력부족 문제 해소 및 수원국의 자연친화적 전력공급 정책 기반 마련 | - 1.5MW 계통형 태양광 발전소 건립 (PV Array, 인버터, 배터리 뱅크, 수배전반) - 태양광 발전소 홍보관 및 관리실 건립 - 신재생에너지, 전력계통 분야 전문가 파견 - 에너지 분야 연수생 초청 |
| 에콰도르 침보라소주 관개수로 건설 및 영농기술지원 사업 | 2008~10년 /250만 달러 | 관개시설 개보수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재배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 - 관개용수로 21.3km 개보수 - 농업기술지원센터 2동 440m ² 건립 - 관개토목 전문가, 영농기술분야 전문가 파견 - 용수관리과정, 농촌개발과정 연수생 초청 - 트랙터 1대, 탈곡기 1대 등 기자재 지원 |
| 에콰도르 과야스도(道) ICT 훈련센터 건립사업 | 2007~08년 /105만 달러 | 최첨단 ICT 교육센터 건립을 통하여 IT 교육 인프라 개선, 인적자원 개발 및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 | - 네트워크 구축, 교육용 및 행정용 기자재 지원, 학사관리 시스템, 교육센터 홈페이지 구축 등 - 기자재 설치 전문가, 교육센터 운영 관련 전문가 파견 - 교육센터 운영인력 및 강사 교육 국내 초청 연수 |
| 에콰도르 산로렌조시 기초보건 의료서비스 강화사업 | 2007~08년 /103만 달러 | 산로렌조시 빈민층의 의료접근성 향상, 산로렌조시 도로의 쓰레기 감소, 산로렌조시 지역주민들의 보건지식 수준 향상 | - 주민보건센터(2층, 연면적 900m ²) 신축 - 초음파기, x-ray기 등 의료장비 및 쓰레기 압축차량 지원 - 보건의료인력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 |
| 에콰도르 모자보건소 건립사업 | 2001~03년 /56만 달러 | 에콰도르 의료보건 환경개선, Las Lajas 시 모자보건소 건축 및 의료장비 개선 | - 모자보건소 신축 - 의료 분야 기자재 52종 지원 |
| 에콰도르 외무부 행정망 전산화 지원사업 | 1996~97년 /34만 달러 | 에콰도르 외무부 행정전산망 구축 지원을 통한 신속한 정보처리 지원 및 행정능률 제고 | - 전산장비 8종(1차), 전산장비 3종(2차) 지원 - 설치 및 운용 교육전문가 파견(기지원 프린터 수리 및 보수, TCP 전산망 설치, TCP/IP 및 CISCO 설치 교육) |

자료: ODA Korea, <http://www.odakorea.go.kr/oz/support/SAMrc/Ecuador.jsp>. (2012. 11. 15)

어 개발 경험공유사업(KSP) 대상 국가로 선정하고, ‘전략산업의 수출 촉진정책 수립 및 역량 강화’를 첫 사업으로 실시했다.

표 5-24. 대에콰도르 유상원조 현황

| 구분 | 지방통신망확충사업(1995년) | 산토도밍고시 상수도확장사업(2006년) |
|----------|---|---|
| 차관 한도 | 1,500만 달러 | 4,363만 달러 |
| 사업 목적 | Quito, Ambato 등 전국 주요 지방에 현대화된 전자교환기(21,100회선)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동 지역의 통신기능을 개선, 낙후된 지방의 사회경제개발을 도모함 | 산토도밍고시의 낙후된 기존 상수도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의 보건위생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경제발전을 도모 |
| 사업 범위 | TDX 전자교환기(21,100회선) 및 동 부대시설 설치, 교육훈련 및 유지보수 | 도수관로(취수장~정수처리장)건설, 정수처리시설 건설(6.4만톤/일), 송배수관로 및 배수시설 건설, 교육 및 훈련 |

자료: ODA Korea, <http://www.odakorea.go.kr/oz/support/SAMrc/Ecuador.jsp>, (2012. 11. 15)

마. 제도협력

지금까지 상호 간의 관심 부족으로 우리나라와 안데스 3국 간의 제도 협력 기반은 미약하다. 먼저 안데스 3국 중 볼리비아와는 아직까지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하는 사증면제 협정이 미체결된 상태다. 또한 투자자의 안전한 투자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 투자보장 협정이나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도 미흡하다. 현재 안데스 3국 중에서는 베네수엘라와만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그에 반해 투자보장 협정은 어느 국가와도 체결하고 있지 않다. 볼리비아와 체결한 투자보장 협정은 2006년 볼리비아 정부 측이 갱신을 거부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만료되었다.

양자간 포괄적 경제협력 창구인 경제공동위원회도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고위급 협력 채널인 고위정책협의회도 에콰도르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구축되거나 가동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미흡하기는 하나 안데스 3국과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하나둘씩 구축되어 가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자원부

표 5-25. 안데스 3국과 협정 및 협의체 운영 현황

| 협정/협의체 | 볼리비아 | 에콰도르 | 베네수엘라 |
|-------------|-----------------------|---------|---------|
|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 ◎(1986) | ◎(1983) | ◎(1993) |
| 외교관관용사증면제협정 | ◎(1996) | ◎(1983) | ◎(1994) |
| 어업협력협정 | | ◎(1984) | |
| 문화협정 | ◎(1972) | ◎(1985) | ◎(1994) |
| 대외경제협력기금협정 | ◎(2001) | ◎(2003) | |
| 봉사단파견협정 | ◎(2012) | ◎(2005) | |
| 투자보장협정 | ◎(1996) (2006년 만료) | | |
| 이중과세방지협정 | | ◎(2012) | ◎(2006) |
| 사증면제협정 | | ◎(2005) | ◎(2007) |
| 공동위원회 | | ◎(2009) | |
| 자원협력위원회 | | ◎(2007) | ◎(2009) |
| 경제협력센터 | | | ◎(2012) |
| 고위정책협의회 | | ◎(2008) | ◎(1998) |

자료: 외교통상부(www.mofat.go.kr 2012. 11. 10); 기획재정부(www.mosf.go.kr 2012. 11. 10); 지식경제부(www.mke.go.kr 2012. 11. 10) 홈페이지 자료를 토대로 작성.

국으로서 중남미 국가들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우리나라는 중남미 자원부국과 앞다투어 자원협력위원회를 설치했다. 2003년 페루를 필두로 브라질(2004년), 칠레(2004년), 아르헨티나(2004년), 멕시코(2005년), 에콰도르(2007년), 콜롬비아(2009년), 베네수엘라(2009년) 등 8개국과 자원협력위원회를 설립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볼리비아와도 자원협력위원회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중남미 대표적인 자원부국인 안데스 3국과 자원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2012년 들어 지식경제부는 세계경제의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남미 각국에 대한 전문화된 사업 정보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별로 경제협력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중남미 33국

중에서 남미 경제의 선도국가인 페루 및 에너지자원 부국인 베네수엘라와 경제협력센터를 설립했다. ‘한-베네수엘라 경제협력센터’는 2012년 11월 13일 무역투자연구원에 설치되었다. 산학연 협력방식으로 구축된 경제협력센터는 베네수엘라의 무역·산업·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법·제도에 관한 정보 제공, 전문인력 양성사업, 양국간 경제협력 네트워크 조성 등의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²⁴⁰⁾

바. 경제협력 평가

그간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 안데스 3국은 좌파 정부 집권 이후 급진적인 경제정책 추진에 따른 정치·경제적 혼란으로 인한 높은 투자 리스크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협력 대상국으로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본 절에서는 앞서 분석을 토대로 교역, 투자, 자원개발 및 건설플랜트, 제도협력 순으로 나누어 안데스 3국과의 경제협력 현황을 평가하기로 한다.

먼저 우리나라와 안데스 3국과의 교역관계는 아직까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볼리비아를 제외한 에콰도르, 베네수엘라와의 교역에서 우리나라가 큰 폭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이다. 이 같은 불균형적 교역관계 심화는 이들 국가와의 지속가능한 경제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계해야 할 요소다.

둘째, 투자 측면에서도 안데스 3국과의 관계는 아직까지 초기 단계다.

240) 지식경제부(2012),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진출 지원을 위한 전략적 기반 구축 - 한·페루, 한·베네수엘라 경제협력센터 개소,” 보도자료, p. 1(11월 13일), <http://www.mke.go.kr>. (2012. 11. 30)

투자 규모도 미미하고 투자 분야도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안데스 3국이 자원부국임에도 불구하고 자원 분야에 대한 투자는 볼리비아를 제외하고 전무하다시피하다.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갖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석유 부문에 대한 투자는 1997년 한 건의 진출 사례가 전부다. 이 같이 우리 기업의 안데스 3국에 대한 투자 진출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이들 국가의 높은 정치경제적 리스크 때문으로 해석된다. 2000년대 들어 세계적으로 자원산업이 붐을 이루면서 자원의 보고인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우리 기업의 관심은 크게 고조되었다. 그 결과 투자 환경이 양호한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은 우리 기업의 주요 자원개발 투자국으로 부상했다. 그에 반해 안데스 3국은 높은 자원개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급진적인 좌파 정부 집권 이후 자원 국유화 정책 추진 등에 따른 투자 환경 악화로 우리 기업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셋째, 열악한 투자 환경 속에서도 건설플랜트 부문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은 최근 들어 활발한 편이다.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속속 수주하고 있다. 최근 이 같은 수주 성공은 이들 국가의 투자 환경이 전반적으로 크게 열악해 서방기업들이 진출을 꺼리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공격적인 진출 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안데스 3국의 투자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이들 기업의 성공적인 진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넷째, 안데스 3국에 대한 개발협력은 ODA 중점협력 대상국으로 선정된 볼리비아에 편중되어 있다. 2010년 이후 볼리비아, 에콰도르와 KSP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베네수엘라는 아직까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측면에서의 협력 기반도 아직까지 크게 미흡하다.

이는 지금까지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심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등과의 자원협력위원회가 안데스 국가와의 공식적인 협력 채널로서 기능하고 있는 정도다.

2. 경제협력 환경의 SWOT

가. 강점

첫째, 경제협력 대상국으로서 3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자원부국이라는 점이다. 먼저 3국 중에서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로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다. 중동에 편중된 석유수입선 다변화 차원에서 베네수엘라와의 석유개발 협력은 향후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더해질 전망이다. 2차 전지의 핵심원료인 리튬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볼리비아의 전략적 가치도 매우 높다. 2012년 7월 우리나라는 볼리비아 광업공사인 코미볼(Comibol)과 합작회사를 세우기 위한 최종계약을 체결, 경쟁국 중에서는 볼리비아와의 리튬 개발 협력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다.²⁴¹⁾ 중남미 국가 중 양대

241) 계약에 따라 한국진소시엄과 볼리비아 광업공사인 코미볼(Comibol)은 각각 50%의 지분으로 240만 달러를 투자해 양극재 생산을 위한 합작회사를 세운다. 한국 측 지분은 포스코가 26%로 가장 크고, 나머지 24%는 광물자원공사(9%), LG상사(5%), 경동(5%), 유니온(3%), 아주산업(2%)이 갖는다. 볼리비아 코미볼은 양극재 원료인 탄산리튬 등을 공급하고, 한국 측은 포스코 자회사인 ESM의 기술을 이용해 2013년 말까지 양극재를 시범 생산하고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개시할 예정이다(『화학저널』(2012), 『볼리비아와 리튬 합작투자 계약』(7월 9일), <http://www.chemlocus.co.kr/news/view/76677>, 검색일자: 2012. 9. 12).

OPEC 회원국인 에콰도르도 향후 석유자원 개발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일차산품 부문에 힘입어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성장세가 빠르다는 점도 이들 국가들이 가진 장점이다. 석유 등 원자재 가격이 현재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이 국가들은 평균 4%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들 3국을 포함하는 경제통합체를 고려할 경우 시장 규모도 작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베네수엘라를 포함하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제 규모는 3조 3,000억 달러를 상회한다.

셋째,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볼리비아와 에콰도르는 개발협력 대상국으로서도 가치가 높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국과 이들 국가의 분야별 발전 격차를 감안할 때,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협력의 여지가 크다. 특히 고무적인 사실은 이 국가들에서 한국과의 개발협력에 적극적이라는 점이다. 2012년 8월에는 볼리비아 9개 주 가운데 라파스, 코차밤바, 오루로, 판도 등 4개 주의 주지사들이 방한해 한국의 개발 경험을 전수 받았다.²⁴²⁾ 에콰도르의 경우도 한국과의 기술협력 등 개발협력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나. 약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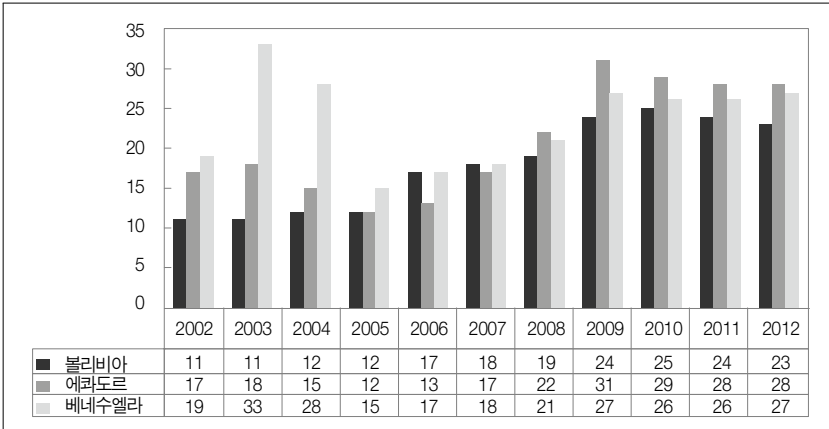
경제적 측면에서 안데스 3국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242) KOICA 연수 과정을 통해 방한한 4개 주 주지사들은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배우기 위해 7일간 인천공항, 농어촌공사, 삼성 엔지니어링, 포스코, 지역난방공사 등을 방문했다(한병규(2012), 『볼리비아 4개주 주지사 방한, 코이카 통해 한국 경제 배워』, 『뉴스 ZUM』, <http://news.zum.com/articles/3457322>, 검색일자: 2012. 9. 10).

은 일차산품에 대한 수출 및 재정수입 의존도가 모두 높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이 국가들은 대외경제 충격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현재 유럽발 금융위기가 장기화되고 주력 수출 대상국인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세가 가시화될 경우 이들 3국이 입을 경제적 충격은 작지 않을 전망이다.

둘째, 정치적 측면에서 3국 모두 리스크가 높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볼리비아와 에콰도르에서는 21세기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목표가 국내의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 이해 집단의 반발 등에 부딪혀 지연되면서 이에 따른 실망감이 정치·사회적 불만으로 표출되고 있다. 특히 2012년 10월 대선을 치른 베네수엘라의 경우 차베스 대통령의 건강을 둘러싼 의혹이 쉽게 가시지 않으면서 지속적인 정치 불안의 소재가 되고 있다. 2013년 차베스 4기 정부가 예상대로 출범한다 해도 차베스 대통령의 건강에 대한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는 한 정치적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사항은 현 좌파 정권의 실각에 따른 급격한 정치체제의 변동이다. 3국 모두에서 좌파 정권의 실각은 그간 이들 정권이 개헌을 통해 추진해온 21세기 사회주의 체제의 폐기를 의미한다. 이는 더 나아가 좌파 정권 시기에 체결한 모든 계약의 무효화를 의미할 수 있다. 현재 3국 모두에서 정치사회적 불만으로 시위나 파업이 빈번하기는 하나 정권을 전복시킬 만한 위협으로까지 비화되지는 않고 있다. 볼리비아와 에콰도르의 경우 야권이 이념적, 지역적으로 크게 분열되어 있어 아직까지 현 정권을 위협할 대항마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 5-1. 안데스 3국의 국가위험도 추이(Global Ins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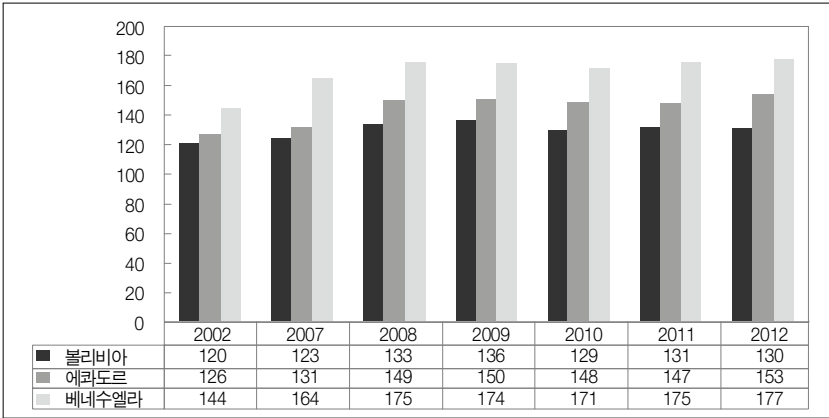
자료: IHS Global Insight(2012), "Global Risk Service: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www.ihs.com, (2012, 8, 9)

셋째, 3국 모두 국가의 경제개입 확대 정책으로 투자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현재 3국 정부가 21세기 사회주의 건설을 표방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경제·산업 부문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민간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국유화 조치는 만성적인 투자 환경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안데스 3국의 투자 환경 악화는 전 세계 국가의 비즈니스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세계은행의 비즈니스 수월성 순위에서도 잘 드러난다. 2012년 현재 안데스 3국의 기업 환경 순위는 전 세계 183국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 3국 중에서는 베네수엘라의 기업 환경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3국 모두 2000년대 들어 비즈니스 환경이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안데스 3국의 투자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추세는 헤리티지 재단이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매년 발표하는 경제자유도 지수에서도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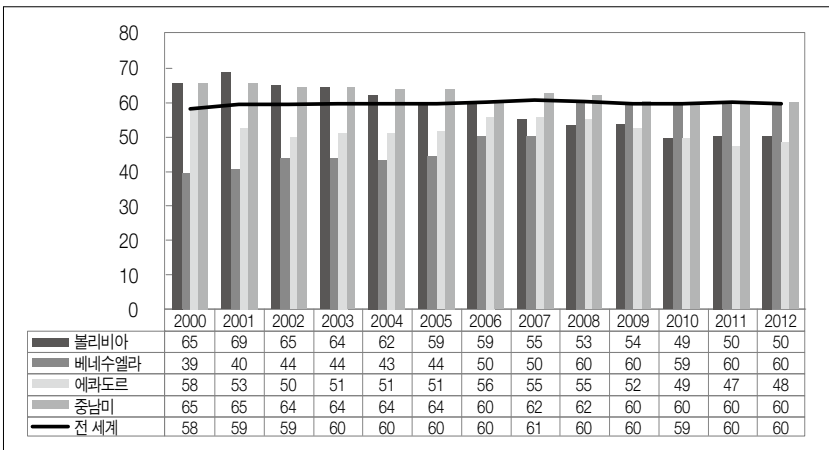
그림 5-2. 안데스 3국의 비즈니스 수월성 순위 추이



주: 비교대상국가: 2006년 155개국, 2007년 175개국, 2008년 181개국, 2009년 181개국, 2010년 182개국, 2011년 183국, 2012년 183국.

자료: World Bank, <http://www.doingbusiness.org/data/exploreeconomies> (2012. 8. 8)

그림 5-3. 안데스 3국의 경제자유도 추이



주: 경제자유도 척도는 0~100을 기준으로 함. 80~100은 자유롭다(free), 70~79.9는 대체로 자유롭다(mostly free), 60~69.9는 적당히 자유롭다(moderately free), 50~59.9는 대체로 자유롭지 않다(mostly unfree), 0~49.9 = 억압당하다(repressed)를 의미.

자료: Heritage Foundation(2012), "Economic Freedom in South and Central America/Caribbean Countries," <http://www.heritage.org> (2012. 8. 4)

경제자유도 지수는 지수가 낮을수록 정부의 개입이 많고 외국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에 제약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데스 3국 중에서는 국별로 베네수엘라의 경제자유도가 가장 낮게 조사되었으며, 3국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볼리비아의 경제자유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국 모두에서 경제자유도는 전 세계 평균 및 중남미 평균보다 크게 낮은 상황이다.

다. 기회

안데스 3국은 정치·사회·경제적 위험도가 매우 높은 국가로 분류된다. 특히 최근 3국 정부의 잇단 국유화 조치 발표는 국가리스크를 더욱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들 3국의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처럼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겉으로 나타나는 높은 국가위험도 및 투자 환경 악화 속에서도 적지 않은 외국계 기업의 진출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 최근 우리 기업들도 안데스 3국에서 대규모 공사를 수주하는 등 커다란 성과를 올리고 있다. 2012년 6월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PDVSA)에서 발주한 29억 9,500만 달러 규모의 푸에르토리크루스 정유공장 확장 및 설비개선 공사를 중국 Wison Engineering사와 공동으로 수주했다. 2012년 8월에는 삼성엔지니어링이 볼리비아 국영에너지회사 YFPB가 발주한 8억 4,300만 달러 규모의 코차밤바 요소-암모니아 플랜트 건설 사업을 수주했다. 이상의 사례는 안데스 3국의 높은 투자 리스크에 따른 비용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쇄하고 남을 충분한 수익(기회)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안데스 3국이 제공하는 사업기회 중 가장 큰 것은 천연자원에 대한 높은 개발 이익이다. 3국 정부가 자원개발의 주권 확보를 위해 국가의 개입을 확대하고 있지만 자본과 기술의 부족으로 민간자본의 참여를 절실히 희망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의 표현과 달리 3국 정부의 자원개발정책은 엄밀한 의미에서 국유화 정책은 아니다. 특히 가장 극단적인 자원정책을 펼치고 있는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에서도 국유화 정책은 외국기업 자산의 완전한 몰수 및 수용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신 국가의 지분 확대와 경영권 장악 그리고 유가 및 천연가스의 가격 인상에 따른 계약 조건의 변화가 주된 내용이다(김기현 2010, p. 31). 2006년 차베스 정부가 운영협약에 기초한 기존의 석유계약법을 국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갖는 혼합기업, 즉 합작투자 단계로 전환했을 때 이를 거부한 기업은 32개 기업 중 2개사에 불과했다.

둘째, 안데스 3국은 중남미 다른 자원부국보다 자원의 고부가가치 산업화에 관심이 많다. 과거 일차산품에 의존한 종속적 경제구조를 혁파하기 위해 일차산품을 토대로 산업화를 추진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갖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자원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정책은 많은 사업기회를 창출시킨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원유를 기반으로 한 석유화학산업 육성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볼리비아는 천연가스를 활용한 가스 산업화 및 대중화에 높은 정책적 의지를 갖고 있다. 실제로 우리 기업들이 최근 이들 국가에서 수주한 사업도 이 같은 자원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정책의 결과물이다.

라. 위협

먼저 안데스 3국의 정치경제적 향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적 위협요인은 유럽발 금융위기의 장기화와 중국의 경제성장세 둔화 등 대외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일차산품 가격 하락과 이에 따른 수출감소다. 특히 이들 3국은 일차산품에 대한 수출 및 재정 의존도가 높아 수출감소는 실물경제는 물론 정부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재정수입 감소는 안데스 3국 정부의 트레이드마크인 사회지출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지출 축소는 좌파 정부의 지지기반을 약화시켜 종내에는 정치사회적 혼란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대외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감소는 안데스 3국에서 외화부족 사태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현재 이들 3국의 대외신인도가 매우 열악²⁴³⁾해 해외차입이 사실상 차단된 상황에서 수출은 대표적인 외화가득원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일차산품 수출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 감소는 다른 중남미 국가에서보다 심각한 외환부족 사태로 이어져 외환통제 사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외환통제는 만성적인 외화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에서 더욱 강화될 소지가 크다.

셋째, 중국, 러시아 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진출 러시도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에게는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현재 안데스 좌파 3국이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상 국가는 이념적으로 동질성을 갖고 있는 중국, 러시아, 이란, 베트남 등 사회주의권 국가다. 특히 그중에서도

243) 2012년 8월 말 현재 안데스 3국의 국가신용등급은 모두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그 중에서도 2008년 채무 디폴트를 선언한 바 있는 에콰도르의 신용등급이 가장 낮다(표 5-25, 그림 5-4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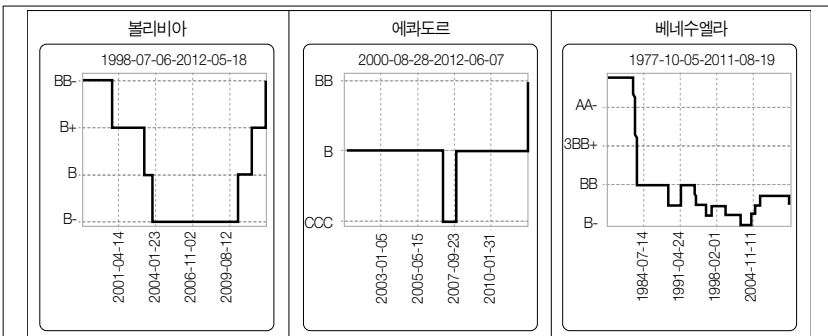
중국과의 전방위적인 협력은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국가들에게도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

표 5-26. 안데스 3국의 국가신용등급 비교(2012년 8월 말 현재)

| | | Moody's | S&P | Fitch |
|-----------|-------|------------------|-----------------|------------------|
| 안데스 3국 | 볼리비아 | Ba3 (12년 6,7) | BB- (12년 5,18) | B+ (10년 10,5) |
| | 에콰도르 | Caa2 (11년 2,1) | B (12년 6,7) | B- (09년 9,4) |
| | 베네수엘라 | B2 (09년 1,15) | B+ (11년 8,19) | B+ (11년 4,11) |
| | 칠레 | Aa3 (10년 6,16) | A+ (07년 12,18) | A+ (11년 2,1) |
| | 페루 | Baa3 (09년 12,16) | BBB (11년 8,30) | BBB (11년 11,10) |
| | 콜롬비아 | Baa3 (11년 5,31) | BBB- (07년 6,12) | BBB- (11년 6,22) |
| | 브라질 | Baa2 (11년 6,20) | BBB (11년 11,17) | BBB (11년 4,4) |
| | 과테말라 | Ba1 (10년 6,1) | BB (06년 7,17) | BB+ (06년 2,22) |
| | 도미니카공 | B1 (10년 4,22) | B+ (11년 6,13) | B (06년 5,5) |
| 비교 대상국 | 아르헨티나 | B3 (05년 6,29) | B (10년 9,13) | B (10년 7,12) |
| | 엘살바도르 | Ba2 (11년 3,24) | BB- (11년 1,14) | BB (09년 6,18) |
| | 코스타리카 | Baa3 (10년 9,9) | BB (05년 6,10) | BB+ (11년 3,4) |
| | 베트남 | B1 (10년 12,15) | B- (10년 12,13) | B+ (10년 7,28) |
| | 몽골 | B1 (09년 6,10) | BB- (07년 12,14) | B+ (10년 11,23) |
| | 필리핀 | Ba3 (11년 6,15) | BB+ (12년 7,4) | BB+ (11년 12,17) |
| | 인도네시아 | Baa3 (12년 1,18) | BB+ (11년 4,8) | BBB- (11년 12,15) |
| 케냐 | | B+ (10년 11,19) | B+ (07년 12,12) | |

자료: 국제금융센터(2012), <http://www.kcif.or.kr/front/data/interCredit.do>, (2012. 8. 22)

그림 5-4. 안데스 3국의 국가신용등급 추이(S&P 기준)



자료: 국제금융센터(2012), <http://www.kcif.or.kr/front/data/interCredit.do>, (2012. 8. 22)

넷째, 최근 볼리비아에서 발생한 Tipnis 사태처럼 안데스 3국에서는 자원 및 인프라 개발에 대한 원주민 및 환경 단체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안데스 3국 중에서도 원주민의 비중이 높은 볼리비아와 에콰도르에서 반발이 큰 편이다.

표 5-27. 볼리비아 경제협력 환경의 SWOT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 세계 최대 리튬 보유 - 높은 성장성과 거시경제적 안정 - 비교적 양호한 대외지급능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차산품에 대한 높은 수출 및 재정수입 의존도 - 높은 정치사회적 불안 - 국가의 경제개입 확대로 투자 환경 악화 |
| | S(강점) W(약점) |
| | O(기회) T(위협)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주도의 국가개발계획 추진 - 일차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추진 - 최근 한국기업의 성공적인 진출 - 한국의 ODA 지원 확대 및 한국과의 개발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발 금융위기 및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에 따른 세계경제의 장기 침체 가능성 - 자원 및 인프라 개발에 대한 원주민 및 환경단체의 저항 - 모랄레스 대통령의 3선 출마를 위한 개헌 시도를 둘러싼 정치적 불안 고조 |

자료: 필자 작성.

표 5-28. 에콰도르 경제협력 환경의 SWOT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부한 자원 보유 - 중남미 양대 OPEC 회원국 - 높은 성장성과 거시경제적 안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차산품에 대한 높은 수출 및 재정수입 의존도 - 높은 정치리스크 - 국가의 경제개입 확대로 투자 환경 악화 - 가장 최근 외채 디폴트 선언에 따른 대외신인도 악화 => 해외자본 차입 차단 |
| | S(강점) W(약점) |
| | O(기회) T(위협)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주도의 국가개발계획 추진 - 일차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추진 - 한국과의 개발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 - 한국과의 FTA 협상에 높은 관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발 금융위기 및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에 따른 세계경제의 장기 침체 가능성 - 자원 및 인프라 개발에 대한 원주민 및 환경단체의 저항 - 2013년 초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불안 |

자료: 필자 작성.

표 5-29. 베네수엘라 경제협력 환경의 SWOT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 세계 최대 석유매장 보유국 - 비교적 양호한 거시경제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차산품에 대한 높은 수출 및 재정수입 의존도 - 높은 정치리스크 - 계속된 국유화 정책으로 투자 환경 악화 - 높은 인플레이션 - 과도한 외환통제, 낮은 대외신용도 - 경제정책의 일관성 부재 |
| S(강점) | W(약점) |
| O(기회) | T(위협)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주도의 국가개발계획 추진 - 일차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추진 - MERCOSUR 정회원국 가입 - 최근 한국기업의 성공적인 진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발 금융위기 및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에 따른 세계경제의 장기 침체 가능성 => 국제유가 하락 - 국내 생산기반 취약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가중 - 차베스 대통령의 건강 악화를 둘러싼 정치적 불안 - 반미 노선으로 미국과의 관계 악화 -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로 이들 국가의 영향력 강화 - 민간 부문의 투자 저조 - 베네수엘라-콜롬비아 간 국경분쟁 |

자료: 필자 작성.

제6장 안데스 3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

1. 경제협력 방향
2. 경제협력 확대 방안



1. 경제협력 방향

먼저 21세기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안데스 3국과의 경제협력 주체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되어야 한다. 최근 안데스 3국에서 국가는 규제자로서의 역할을 넘어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산업이 국유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현지에서 수행되고 있는 사업 중 90% 이상이 정부 발주 프로젝트다. 이 같은 안데스 3국의 정치·경제 체제의 특수성을 반영해 이들 국가와의 협력은 정부 간 협력이 중심이 되고 민간기업의 진출이 뒤를 따르는 ‘선(先) 정부 간 협력, 후(後) 민간 기업 진출’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과 안데스 3국 간의 경제협력은 상호 호혜적이며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헌법을 통해 사회주의 건설을 지향하고 주권과 자립을 강조하고 있는 안데스 좌파 국가들은 국가 간 협력에서도 대등한 관계를 중시한다. 따라서 양자간 경제협력은 상호 윈윈(win-win)하는 동등한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양자간 경제협력은 단기적 성과나 이익에 급급한 근시안적 협력보다는 양국의 발전 가능성을 겨냥한 보다 중장기적인 견지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중남미 지역 내 선발 개도국이며 ALBA 경제통합체의 주축국인 베네수엘라와의 경제협력은 중남미 지역 이슈나 글로벌 이슈에서도 공동 협력하는 ‘보다 책임있고 성숙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지향해야 한다.

셋째, 협력의 범위 면에서 한국과 안데스 3국 간의 경제협력은 포괄적 협력을 지향해야 한다. 안데스 3국이 자원부국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자원협력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현지국의 거부감을 살 뿐만 아니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위험 부담이 크다.

넷째, 국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안데스 3국은 자원부국이며 21세기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국가주도의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들 3국은 자원 부존량, 경제 규모, 경제발전 및 소득 수준, 중남미 지역 내 정치·경제적 영향력, 한국에 대한 인식, 한국과의 경제관계 등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차이점을 거냥한 차별화된 맞춤형 경제협력 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와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구축을 통한 전면적이며 포괄적 협력이 필요하다. 둘째, 안데스 3국 중 중소득국이며 한국에 대한 이미지나 인식이 가장 양호한 에콰도르는 폐쇄적인 좌파 블록(ALBA) 공약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양국간에 진행되고 있는 무역협정 타당성 연구는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안데스 3국 중 저소득국이며 자원개발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볼리비아와는 개발협력과 자원개발을 연계한 협력 전략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안데스 3국과의 경제협력은 우리 기업의 진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 기업들이 안데스 3국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면서 현지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관심을 기울일 시기가 되었다. 안데스 3국에서 우리 기업이 직면할 개연성 높은 위험은 앞서 분석한 사례에서 목격되듯이 계약불이행, 분쟁 발발에 따른 계약 파기 등 다양하다. 특히 중장기 성격의 자원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정권 교체에 따른 계약 파기의 위험도 무시할 수

없다. 좌파 세력에서 자유주의 세력으로 정권이 교체될 경우 좌파 정권시기에 체결된 계약을 무효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이 같은 계약불이행 및 파기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현지 활동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고 분쟁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2. 경제협력 확대 방안

가.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방안

1)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공고화

가) 양자간 협력위원회 설치 확대

개도국 간 협력에서 정부 간 협력(G to G)은 중요하다. 특히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 21세기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좌파 국가와의 협력에서 정부 간 협력은 더욱 큰 중요성을 갖는다.

그간 안데스 3국은 커다란 발전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높은 정치·경제 리스크로 인해 우리 정부 및 기업의 관심 밖에 있었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와의 정부 간 협력 채널은 아직까지 크게 미흡한 상태다. 볼리비아와는 10년간 대사급 관계가 단절되었다가 2008년 들어서야 복원되었다. 볼리비아와 에콰도르²⁴⁴⁾에는 KOTRA 무역관이 2012년 11월에 와서

244) 에콰도르에 설치된 KOTRA 무역관은 1992년 4월 철수한 바 있다.

야 신설되거나 재개설되었다.²⁴⁵⁾ 안데스지역의 높은 자원개발 잠재력을 겨냥해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등과는 양자간 자원협력위원회가 가동 중이나 우리 자원기업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볼리비아와는 대통령 특사 외교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협력채널이 부재한 실정이다.

최근 들어 우리 기업의 진출이 속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리스크를 미연에 차단하고 분쟁 발생 시 이를 해결할 다양한 정부 간 협력 채널 구축의 필요성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먼저 볼리비아와는 자원협력위원회를 신속히 설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남미 자원부국 중 자원협력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지 않은 국가는 볼리비아가 유일하다.

둘째, 안데스 3국과 경제공동위원회나 고위정책협의회 등을 구축하거나 재가동해 포괄적 협력을 협의하고 발굴하는 채널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들 협력 채널은 안데스 3국과의 투자 안전장치가 전무한 상황에서 향후 발생할 분쟁을 해결하는 통로로서도 유용성이 매우 클 것이다.

셋째, 안데스 3국 국영기업들과 신속히 MOU를 체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후속사업 발굴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남미 대표적인 좌파 국가인 안데스 3국에서는 정부가 모든 경제영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이들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정부 발주

245) 2012년 들어 에콰도르 키토에 이어 파라과이 아순시온에도 무역관이 개설됨에 따라 중남미에 운영되는 KOTRA 무역관은 멕시코, 파나마, 과테말라, 쿠바(아바나), 도미니카공화국(산토도밍고), 브라질(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 페루(리마), 콜롬비아(보고타),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 칠레(산티아고), 베네수엘라(카라카스), 에콰도르(키토), 파라과이(아순시온) 등 총 14개로 늘어났다.

프로젝트다.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정부 프로젝트의 발주는 공개입찰 보다는 수의계약이 대세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국영기업 및 정부관련 기관과의 신속하고 긴밀한 협력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보다 중장기적으로는 좌파 블록인 ALBA와의 협력 채널 구축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간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 등 ALBA 국가와 적극적인 협력을 펼치지 못한 이유는 미국의 견제가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중남미 좌파 정부에 대해 비교적 온건한 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우리 정부가 보다 과감한 대ALBA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²⁴⁶⁾

나) 전략적경제보완협정(SECA) 추진

우리나라의 FTA 정책에서 중남미지역은 상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는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FTA 시대의 서막이었다. 이후 우리나라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두 번째로 페루와 2011년 8월 FTA를 발효시켰으며 2012년 6월에는 콜롬비아와 FTA 협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앞으로 중남미 국가와의 FTA 전략은 두 가지 방식(two tracks)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거대 경제권과의 FTA 전략이다. 현재 우리나라와의 FTA 협상에 미온적인 남미공동시장(MERCOSUR) 및 멕시코와는 협상의 우호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속적 협력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46) 우리나라는 현재 MERCOSUR, SICA, CAN 등 대부분 중남미 소지역 경제통합체와의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가동해오고 있다.

둘째는 안데스 좌파 국가, 중미 국가²⁴⁷⁾ 등 틈새협력 국가와의 FTA 추진 전략이다. 틈새협력 국가와의 FTA 협상에서는 특히 좌파 블록인 ‘미주를 위한 볼리바르 동맹(ALBA) 회원국과의 FTA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ALBA의 주축국인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3국이 현재 WTO 구도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FTA를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ALBA가 미국 주도의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에 대한 반발로 탄생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현재 ALBA의 핵심 국가 중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는 중남미 이외의 국가와 FTA 형태의 무역협상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안데스 좌파 3국 중에서 에콰도르는 제3국과의 무역협정 협상에 적극적이다. 그렇다면 안데스 3국 중에서 유독 에콰도르가 제3국과의 무역협정 협상에 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미국, EU 등 선진국과의 특혜무역협정이 조만간 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시장 상실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2013년 중순에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 플러스 특혜가 만료된다. 에콰도르는 지금까지 GSP를 통해 EU시장 진입 시 7,000개 품목에서 무관세 혜택을 받아왔다. 또한 2013년 7월에는 미국의 무역특혜제도인 안데스무역특혜법(ATPDEA)이 만료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국인 페루와 콜롬비아가 미국, 한국 등과 속속 FTA를 체결하면서 에콰도르 내에서는 해외 수출시장 상실에 대한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 같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에콰도르는 제3국과 무역협상 시 ALBA의 이념에 기초한 독자적인 형태의 협상을 고집하고 있다. 대표적

247) 우리나라는 2011년 중미 6개국(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과 FTA 공동연구를 완료했다.

으로 2011년 9월 에콰도르 정부는 FTA에 대한 대안으로 ‘개발을 위한 무역협정(ACD: Acuerdo Comercial para el Desarrollo)’을 제시했다. ACD는 무역을 기본으로 하되 여기에다 이민 및 환경 등 정치적 요소, 그리고 기술이전 등을 통한 협력을 포함한다.

ACD는 정부가 육성하는 산업 분야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시장을 개방한다는 원칙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FTA보다는 개방도가 낮은 무역협정이다. 에콰도르 정부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현재 육성 중인 건설, 금속, 의약 및 화학, 관광, 플라스틱과 합성 고무, 당제, 신발, 목재, 가공식품, 재생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바이오 기술, 환경 서비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 자동차 및 부품, 교통 및 물류 등 14대 산업에 대해서는 ACD체결 시 개방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²⁴⁸⁾

특히 에콰도르 정부는 ACD 체결 시 상대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현재 정부가 육성 중인 14개 산업 부문에서의 기술이전이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다.

현재 에콰도르 정부는 ACD 모델에 입각해 터키,²⁴⁹⁾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등과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에콰도르 정부는 캐나다, EU, 미국²⁵⁰⁾ 등과도 ACD 협상을 고려중이다. 특히 주요 수출대상인 유럽과는 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유럽이 대대적인 시장 개방과 서비스 시장

248) 에콰도르 대외무역위원회(COMEX) 담당자 인터뷰(2012. 8. 27).

249) 에콰도르 정부가 터키와 ACD 협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터키가 에콰도르산 바나나의 주요 수입국으로, 다른 중남미 바나나 수출국과 무역협정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시장을 잃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나 터키와의 협상에서는 아직 기술이전에 대한 논의는 없었는데, 이는 터키가 상대적으로 발전되지 않은 경제권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250) 미국과 추진하던 FTA는 코레아 대통령 집권 후 중단된 상태다.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 지체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콰도르 측의 요청으로 2012년부터 무역협정에 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FTA 정책에서 협상 대상국으로서 에콰도르가 갖는 중요성은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에콰도르와의 FTA는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폐쇄적인 경제블록인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좌파블록(ALBA) 진출의 물꼬를 튼다는 측면에서 커다란 중요성을 갖는다. 둘째, 안데스 국가 중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이며 자원의 보고인 에콰도르 시장에 보다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면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에콰도르와의 FTA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는가. 에콰도르가 FTA라는 용어 자체를 거부하고 ACD라는 명칭을 고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새로운 형태의 방식이 필요하다. 에콰도르가 주장하는 ACD 방식을 수용할 경우 우리의 이해보다는 기술이전 등 에콰도르의 이익이 지나치게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협력을 중시하는 에콰도르 입장과 시장 개방을 희망하는 우리의 입장을 적절히 반영한 형태의 절충적 모델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절충적 협력 모델로 우리나라가 멕시코와 추진했던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 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을 고려해 볼 수 있다. SECA는 당초 한국과 멕시코 간 공동연구 과정에서 FTA 추진을 희망하는 우리와 산업계의 반대에 봉착한 멕시코 측 간의 이견을 절충하는 대안으로 멕시코 측에 의해 제시된 것이었다. 이 같은 형태의 경제보완협정은 중남미 국가 간에 FTA의 전단계로 추진되고 있다.

2) 산업화 전략의 동반자 관계 구축

2000년대 들어 중남미 각국은 일차상품 일변도 경제구조 탈피를 위해 산업화전략을 축으로 한 국가개발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브라질의 성장촉진계획(PAC), 콜롬비아의 국가개발계획(PND 2010-2014), 베네수엘라의 시몬볼리바르 국가계획(PNDSB 2007-2013), 에콰도르의 국가개발계획(PNDBV 2009-2013), 볼리비아의 정부프로그램(Programa de Gobierno 2010-2015) 등을 들 수 있다. 그중에서도 21세기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는 가장 강력한 국가 주도의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다.

앞서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들 국가의 산업정책은 과거와 달리 단순 자원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다. 풍부한 자원을 지렛대 삼아 산업화를 이룩하고 이를 통한 경제발전도 도모하겠다는 것이 안데스 3국의 중장기 비전이다. 따라서 안데스 3국과 경제협력 방안 수립 시에는 이 같은 의도를 간파하여 이들 국가의 산업화 전략을 지원하며 협력기회를 모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체계적이며 포괄적인 산업협력 채널로 양자간 산업협력위원회를 구축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자원부국인 안데스 3국은 자원 의존형 경제구조에서 탈피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기 위해 자원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대표적으로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 산업, 리튬을 가공한 이차전지 산업 육성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먼저 양자간 산업협력위원회를 구축하여 협력 사업을 논의하고 발굴하는 채널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산업협력위원회는 또한 우리의 성공적인 산업정책 추진 및 산업발전 경험을 전수할 수 있는 채널로도 쓰임

새가 클 전망이다. 안데스 3국 중에서는 우선적으로 베네수엘라와 산업 협력위원회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남미 국가 중 브라질, 콜롬비아와 산업협력위원회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페루와는 2013년 중 설치할 계획이다.

둘째, ODA 및 KSP 사업 등을 통한 산업화 전략에 대한 자문 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안데스 3국 중 볼리비아, 에콰도르와만 KSP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다. 따라서 KSP 수혜 대상에 조속히 베네수엘라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2013년 1월 출범하는 차베스 4기 정부의 국가개발계획 수립 과정 참여를 적극 타진해 선제적으로 사업기회를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KSP 사업 추진 시 현지 사정에 정통하며 풍부한 개발 컨설팅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IDB, CAF 등 중남미 지역개발은행이나 중남미지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ECLAC) 등과도 공동으로 정책자문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산업기술협력기금 조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안데스 3국 중에서도 베네수엘라 정부는 석유산업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제3국과 공동기금을 조성해 운영해오고 있다. 현재 베네수엘라는 중국(120억 달러), 러시아(40억 달러), 일본(50억 달러), 브라질(43억 달러) 등과 대규모 공동기금을 조성해 운영 중이다(지식경제부, 한·중남미협회 2012, p. 178). 2013년 출범하는 4기 차베스 정부도 필요한 자원 확충을 위해 보다 많은 국가들과 공동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인 PDVSA는 우리 측에도 20억 달러 규모의 공동기금 조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공동기금은 대규모 에너지 및 인프라개발 사업에 사용된다. 기금을 출연한 기업이나 국가는

그 대가로 석유 현물을 받게 된다. 베네수엘라는 우리 측에 기금 조성 대가로 일일 10만 배럴의 석유 공급을 제안했다.²⁵¹⁾

우리 정부 및 기업의 자금 조달 능력을 감안할 때, 베네수엘라 측이 제안하는 공동기금 조성 제안을 수락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베네수엘라 측의 제안은 보다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신에 소규모 형태로나마 산업협력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산업기술협력 기금 조성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양자간 기금 조성이다. 이 경우 기금 조성 사업에 적극적인 베네수엘라가 파트너가 될 것이다. 차베스 정부가 산업기술협력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산업협력기금 조성 사업은 베네수엘라 측으로부터도 높은 호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들제는 안데스 개발공사(CAF) 내에 기술협력기금을 설치해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을 포함한 안데스 국가들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3)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최근 들어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3국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리스크 관리가 새로운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들 3국은 정치·경제 리스크 등 전반적인 국가리스크(Country Risk)가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

국가 리스크는 진출 단계에서도 커다란 위협요인이지만 현지 경영 과정에서 더 큰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안데스 좌파 3국에 대한 우리 기업

251) 지식경제부, 한·중남미협회(2012), p. 178.

의 진출이 속속 이루어지면서 이제 우리 정부는 현지 활동 기업의 리스크 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리스크 관리가 사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정부 및 기업들의 이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편이다.

가상에서 존재하는 리스크는 현실에서는 분쟁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문제는 안데스 국가와의 분쟁 발생 시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안데스 3국은 분쟁 발생 시 당사자 간 자발적 해결을 일차적으로 권고하고, 이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자국 내 법원에서만 해결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기업과 베네수엘라 기업 간의 계약서에서도 분쟁 해결은 베네수엘라 법률에서 인정하는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안데스 3국 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경우 상당히 편향적일 수 있어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 국가가 ICSID를 비롯한 국제분쟁해결기구의 국제중재를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제분쟁해결기구의 중재를 거부하는 이유는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항소절차가 없기 때문에 중재법원이 잘못 판결할 경우 이를 시정할 방도가 없다, 둘째, 중재인 선정 시 세계은행이 개입할 소지가 있다. 셋째, 소송 절차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공익에 직결되는 투자분쟁의 경우 민주적 절차에 위배된다. 넷째, 소송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²⁵²⁾ 국제중재 거부의 표시로 2007년 볼리비아가 ICSID를 탈퇴한 데 이어 2009년에는 에콰도

252) 정경원 외(2011), p. 209.

르가, 2012년 1월에는 베네수엘라가 탈퇴를 선언했다. 또한 이들 3국은 기존의 투자보장협정(BIT) 체결을 파기하거나 BIT 체결을 기피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안데스 3국 어느 국가와도 BIT를 체결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볼리비아와는 1996년 BIT를 체결했으나 2006년 기간이 만료되었을 당시 볼리비아 측이 갱신을 거부해 자동적으로 폐기되었다.²⁵³⁾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같은 위협을 최소화 하거나 방지할 수 있을까. 먼저 최선의 방법은 리스크 발발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파악하여 차단하는 것이다. 둘째, 각종 협력 채널을 구축해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들 채널을 가동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셋째, 안데스 3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기업과 공동 진출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분쟁의 소지를 사전 차단하는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별 리스크 관리 위원회’를 구축해 리스크를 상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리스크 관리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현지 진출 기업, 현지 공관 및 KOTRA, 관련 부처, 수출입은행, KOICA, 해외건설협회, 플랜트협회,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국가 전문가, 리스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분기별로 정례 회의를 개최, 해당 국가의 리스크를 평가한다. 또한 분쟁의 발발 조짐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시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회에서는 리스크를 모니터링해 평가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해결 방안(solution)을 제시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253) 모탈레스 정부는 기존 투자보장협정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선언하고 국내법하에서 투자 분쟁을 추진하면서 우리와의 협정도 폐기했다.

4) 안데스개발공사(CAF)²⁵⁴와의 협력 강화

우리 건설·플랜트 업체들의 중남미 시장 진출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현지 금융 조달이다.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의 국가위험도가 높아 중남미시장은 중동이나 아시아 시장에 비해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으며, 자금을 조달한다 해도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²⁵⁵⁾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좌파 국가인 안데스 3국의 국가위험도는 가장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자금 조달은 현지 공사 수주의 가장 중요한 열쇠다. 현재 우리 기업들이 중남미 시장 진출 시 이용 가능한 금융 조달원은 수출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국내 개발은행 자금,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미주개발은행(IDB), 안데스개발공사(CAF) 등 국제개발은행 차관, 브라질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 등 현지 국가개발은행의 자금 등이다.²⁵⁶⁾

특히 이 중에서 안데스 지역에 진출하는 우리 업체들은 안데스개발공사(CAF)의 자금 활용을 적극 타진해볼 필요가 있다. 현지 사정에 가장 정통한 CAF는 신속한 자금 지원을 무기로 안데스지역에서 대표적인 자금 조달 창구로 부상했다. CAF는 중남미 지역개발은행 중 현재 우리나라가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유일한 개발은행이다.

CAF는 IDB 등 다른 지역개발은행과 비교해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

254) 2011년 안데스개발공사(CAF)의 명칭은 공식적으로 중남미개발은행(Banco de Desarrollo de America Latina)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CAF라는 명칭이 익숙하고 CAF 홈페이지에서도 CAF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 본 고에서는 CAF라는 명칭을 계속해서 사용하기로 한다.

255) 권기수 외(2010), p. 272.

256) 권기수 외(2010), pp. 272~273.

다. 먼저 CAF는 비회원국에도 자금을 지원한다. CAF의 차관 이용 조건은 공공 부문일 경우 보통의 개발은행이 요구하는 조건과 동일하고, 민간 부문은 상업은행의 조건과 비슷하다. 공공 부문에 적용되는 조건은 사업에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환경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CAF 회원국의 정부나 공공기관에 한해 차관을 제공한다. 그에 반해 민간 부문의 경우 중남미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면 모두 차관을 받을 수 있으며, 중남미 기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차별은 없다.²⁵⁷⁾ 이런 측면에서 CAF는 IDB나 세계은행보다 민간 부문에 훨씬 개방적이다.

둘째, 다른 개발은행에 비해 행정처리가 빠르다. IDB의 경우 차관 신청 이후 승인까지 보통 2년이 걸리지만, CAF는 보통 6~9개월이 소요된다. 이러한 빠른 대출을 장점으로 CAF는 그간 IDB가 차지했던 중남미 개발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²⁵⁸⁾

셋째, IDB와 비교해 CAF는 우리 기업의 진출이 많은 분야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다. IDB가 주로 교육, 의료 등 사회인프라에 지원을 집중하고 있는데 반해, CAF는 도로, 에너지, 수자원 등 경제인프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넷째, 비회원국의 경우에도 기술협력기금을 제공해 운영할 수 있다. 기술자문의 목적이 CAF의 사업 분야와 일치한다면 외국 원조기관 등도 자유롭게 기술자문기금이나 기술협력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외국 원조기관에서 안데스 국가의 특정 사업에 대해 기술자문(예, 타당성

257) 대신에 CAF 차관은 IDB 차관에 비해 상환기간이 짧고 시장 이자율이 적용된다. IDB 차관의 경우 만기는 30년으로 길고 금리도 2% 정도로 낮다.

258) 권기수 외(2008), p. 43.

조사)을 할 경우 원조 국가의 기업이 향후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

이상의 장점에 비추어볼 때 안데스 국가들과 협력 시 CAF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CAF를 우리 기업의 안데스 시장 진출 시 중요한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CAF와의 협력은 단기적, 중장기적 협력으로 나누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작지만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CAF를 우리 기업에게 알리고 협력 여건을 조성해가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CAF와의 공동세미나 개최, 주요 협력기관 간 MOU 체결, 인력 교류 등을 들 수 있다. 다행히도 2012년 9월 엔리케 가르시아(Enrique Garcia) 안데스개발공사 총재가 방한해 수출입은행, KDI 등과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면서 양자간 협력 추진을 위한 일차적인 여건이 자연스럽게 조성되었다. 당시 방문에서 가르시아 총재는 수출입은행과 ‘공동 참여 프로젝트 협조용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했다. 협약은 △녹색성장, 교통, 수자원, 농업, 에너지 분야 공동지원 △KSP 실행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공동 추진사업 발굴을 위한 연례협의 및 정보교환 △인적 교류 등 수출입은행과 CAF 간의 구체적 협력체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²⁵⁹⁾ 또한 KDI와는 KSP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수출입은행 및 KDI와 체결한 협력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CAF와의 협력 확대를 위한 여건을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259) 한국수출입은행(2012), 「한·중남미 경제협력 다지는 포럼 열렸다」 보도자료(9월 14일), http://www.koreaexim.go.kr/kr/bbs/noti/view.jsp?no=11043&bbs_code_id=1311900548729&bbs_code_tp=BBS_2&code_tp=N02_89&code_tp_up=N02&code_tp_nm=TA&req_pg=5. (2012. 11. 4)

글상자 6-1. 안데스개발공사(CAF)란?

중남미 대표적인 지역개발은행인 안데스개발공사(CAF)는 처음에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베네수엘라 등 안데스공동체(CAN) 5개국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통합을 지원하는 지역 금융기구로 출범했다.

그러나 회원국이 18개 국가로 늘어나면서 2011년 명칭을 중남미개발은행으로 개칭했다. 회원국 중 16개는 중남미 국가이고, 나머지 2개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다. 비중남미 국가도 회원이 될 수 있지만 최대 지분은 15%로 제한된다.

CAF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 인프라 통합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설립 이후 40년간 회원국이 CAF 차관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한 적은 한 번도 없다. CAF는 중남미 국가들에 의해 설립된 개발은행이기 때문에 회원국의 주인 의식이 매우 강하다. 1980년대와 1990년대 많은 중남미 국가들이 외채위기를 겪었지만 CAF 차관은 모두 상환했다.

CAF는 유동자산의 비율이 높고,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체 자산 중 68%가 차관(loan)이며, 나머지 29%는 순자산(liquid asset)이다. 전체 차관의 84%가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차관이고, 16%가 민간 부문에 대한 차관이다. 부문별로는 인프라가 70%로 가장 높고, 사회 인프라가 19%, 금융이 9%를 차지한다.

전 세계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자본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을 늘릴 계획이다. 스위스에서 가장 활발하게 자금을 조달하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에서 주로 자금을 조달한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A+상의 신용등급을 부여받고 있다.

CAF는 전 세계의 공적금융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JBIC(일본), KfW(독일)와 30년 이상 co-financing, CAF에 credit line 제공, 중소기업 공동지원, 환경 및 에너지 분야 등에서 협력해왔다. 2007년에는 중국과 credit line, co-financing, 인력교류 등에서 협력했다. 프랑스 개발은행(2011년), 인도 수출입은행, 유럽 투자은행, 노르웨이 투자은행 등과도 협력 중이다.

CAF 본사 직원은 약 500명이고, 각 회원국에 30~50명 인원 규모의 사무국을 두고 있다. 연구부서가 있어 중남미 지역의 주요 이슈에 대해 연구하고, 각국 정부에 정책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중남미 소재 Think Tank, 브루킹스 연구소, 중국사회과학원 등 전 세계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포럼 등을 개최하였다.

자료: 필자의 CAF 인사 인터뷰(2012. 8. 30)를 토대로 작성.

또한 국내에서 인지도가 거의 전무한 CAF를 우리 기업들에게 신속히 소개하는 창구로 공동세미나 개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CAF는 연차 보고서가 발간되면 각국 정부, 대학, 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그 결과를 발표한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사회과학원에서 처음으로 발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도 2013년 중으로 CAF의 연차보고서 발간에 즈음해 CAF 인사

들을 국내로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이 같은 협력 여건 구축을 바탕으로 기술협력기금 출연, 정회원국 가입 등을 통해 CAF와의 관계를 공고히 해나갈 필요가 있다.

5) 삼각협력 모델 개발

최근 국제개발협력 체제는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 중 주목할 점은 선발 개도국이 자신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개도국을 지원하는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의 출현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아직까지 초기 단계이기는 하나 삼각협력(Triangular Cooperation)이 새로운 협력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삼각협력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공여국, 즉 선진국, 중소득국 및 저개발국 등 3개 국가 간 협력을 지칭한다. 그러나 삼각협력은 더 이상 전통적인 공여국들 간의 전유물이 아니다. 최근 들어서는 중남미지역 내 개도국 간의 삼각협력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즉 중남미지역 내 2개의 중소득국이 제3의 저소득국을 지원하는 경우다.²⁶⁰⁾

그렇다면 최근 들어 삼각협력이 새로운 협력 방식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UN DESA에 따르면 그 이유는 다음 네 가지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협력사업 수행 개도국은 수혜대상 개도국과 유사한 개발 문제를 최근 경험했기 때문에 수혜국에 보다 적합하고 적절한 개발 경험을 전수할 수 있다. 둘째, 일반적으로 사업수행 개도국과 수혜국은 경제·사회·지역적 배경이 동질적이며, 동일한 언어, 문화와 역사를 공유해 상호

260) 이 밖에 제3국을 지원하기 위해 2개 이상의 복수국가가 참여하는 협력 방식도 가능하다. 즉 2개의 전통적인 공여국(국가 혹은 국제기구)이 중소득국과 협력하여 제4국을 지원하는 경우다. 또는 역내 2개의 중소득국이 전통적인 공여국과 협력하여 제4국을 지원하는 경우다(SEGIB 2010, pp. 11-12).

연대감이 강하다. 셋째, 개도국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도 효과적이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보다 전문가 자문 비용이나 연수 비용이 저렴하다. 마지막으로 삼각협력에 참여하는 개도국들은 선진 공여국이 다년간 축적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²⁶¹⁾

안데스 3국과의 협력에서도 삼각협력은 매우 유용할 전망이다. 특히 안데스 3국은 위에서 언급한 삼각협력의 네 가지 장점 이외에 이념적으로 동질적이라는 점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안데스 3국과의 삼각협력은 협력사업 수행 파트너를 누구로 정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다.

먼저 안데스 3국 중 소득 수준이 가장 높고 리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베네수엘라를 협력 파트너로 삼아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다. 즉 베네수엘라가 중남미지역 내, 특히 ALBA 회원국 내에서 갖고 있는 강력한 정치·경제적 리더십을 지렛대로 이용해 협력하는 방식이다.

둘째, 중남미 국가 중에서 협력 파트너를 선정하는 경우다. 이 중 대표적인 후보국은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쿠바 등을 들 수 있다. 칠레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삼각협력 사업을 펼치고 있어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브라질도 최근 들어 스페인, 일본, 캐나다 등과 협력하여 볼리비아와 파라과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브라질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책연구소인 응용경제연구원(IPEA), 연방저축은행(CEF) 등을 중심으로 베네수엘라와 다양한 경제 발전 경험 공유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브라질 정부는 자국의 개발 경험을 이웃 국가에 전수하는 데도 매우 적극적이다. 이밖에 아르헨티나, 멕시코, 쿠바 등도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대표적인 삼각협력 수행국이다.

261) 정지원 외(2011), pp. 176~177.

표 6-1. 안데스 3국과 관련된 주요 삼각협력 사례(2009~10년)

| 중남미 공여국 | 전통적 공여국 | 수혜국 | 프로젝트 | 분야 |
|------------|------------|----------------------|---------------------------------|-----------|
| 아르헨티나 | 일본 | 볼리비아 | MDG 모니터링을 위한 통계데이터 작성 능력 배양 | 보건 |
| 볼리비아 | 스페인 | 엘살바도르 | 비전통 오수처리기술 기술 지원 | 환경 |
| 브라질 | ILO | 볼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 어린이 노동 방지 및 근절 프로그램·국가정책 개발 지원 | 정부 및 시민사회 |
| 브라질 | 일본 | 볼리비아 | 보건, 건강한 도시 건설을 위한 국제훈련 과정 | 보건 |
| 브라질 | 캐나다 | 볼리비아 | 양식 및 아마존 물고기 | 수산업 |
| 브라질 | 스페인 | 볼리비아 | 수자원 및 위생 프로젝트 | 상수도 |
| 베네수엘라 | 쿠바 | 볼리비아 | 지재권 관리 전문과정 | 과학기술 |
| | | | 코카 재배 및 안전 | 농업 |
| | | | 일부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가축생산 개발 | 농업 |
| 칠레 | 캐나다 | 볼리비아 | 범죄예방 기술이전 | 정부 및 시민사회 |
| 칠레 | 한국 | 에콰도르 | 전자정부 및 공공행정에서 국제적 학위 | 정부 및 시민사회 |
| 칠레 | 일본 | 에콰도르 | 제4차 장애인 재활정책 및 포용전략을 위한 국제과정 | 사회정책 |
| | | | 제4차 중소농의 지속가능한 가축생산을 위한 국제과정 | 농업 |
| | | | 삼림 및 가축분야 협력 프로젝트 | 환경 |
| 칠레 | 일본 | 에콰도르 | Chimborazo 지역의 분수령 종합관리 | 환경 |
| 칠레 | 일본 | 볼리비아 | 장애인 재활프로젝트 | 사회정책 |
| 쿠바 | PAHO | 에콰도르 | 보건이슈에 대한 기술협력프로젝트 | 보건 |
| 멕시코 | 독일 | 에콰도르 | 통합적 고체 쓰레기 관리를 위한 제2세대 환경전문가 육성 | 환경 |

자료: SEGIB(2010), pp. 71-72; SEGIB(2011), pp. 73-76.

셋째, 안데스지역 개발은행인 CAF와 협력하여 안데스 3국을 지원하는 경우다. 대표적으로 기술협력기금 출연을 들 수 있다. CAF는 현재 7개의 기술협력기금 운영을 통해 회원국의 기술 활동을 보완적으로 지원한다. 2009년말 현재 그 규모는 4,590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동기금을 조성하거나 공동 프로그램을 설립하는 경우도 고려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과 스페인은 칠레와 삼각협력 기금을 조

표 6-2. 중남미지역 내 삼각협력 기금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 기금 명 | 주요 내용 |
|--------------------------|--|
| 칠레-독일 3각협력기금 | - 2003년 설립 - 중남미 제3국에 양국간 협력 성공사례 전수 |
| 칠레-스페인 3각협력기금 | - 2009년 설립 - 기금 출연: 스페인 100만 달러, 칠레 30만 달러 |
| 일본-아르헨티나 파트너십 프로그램(PPJA) | - 2001년 이후 개도국 대상으로 공동 기술 지원 - 파라과이, 볼리비아, 페루 등에 전문가 파견 |
| 일본-칠레 파트너십 프로그램(JCPP) | - 1999년 설립 - 제3국의 경제사회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 |
| 일본-멕시코 파트너십 프로그램(JMPP) | - 2003년 설립 - 제3국 훈련 과정, 포괄적 프로젝트, 멕시코 전문가 파견 등 |
| 일본-브라질 파트너십 프로그램(JBPP) | - 2000년 설립 - 개발우선분야에서 제도 구축, 인적자원 훈련 등 지원 |

자료: SELA(2011), pp. 12-13.

성해 운영 중이며 일본은 중남미 선발 개도국인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브라질 등과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6) 한국의 인지도 및 이미지 제고

한국의 이미지 및 인지도 제고는 중남미 진출 우리 기업들이 우리 정부에 단골로 요구하는 사항 중 하나다. 최근 한류 열풍에 힘입어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에서도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한국의 인지도나 이미지는 크게 제고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한류를 통한 한국의 이미지 제고는 일부 계층에만 국한되는 한계를 갖고 있다. 더구나 최근 들어서 우리 기업의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에콰도르 등에서는 일부 한국기업의 프로젝트 독식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한국의 인지도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

먼저, 안데스 3국 내에서 우리 국가 및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최

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의 지속 및 확대를 위해 이를 전담할 ‘한국문화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현지 우리 기업들도 ‘한국문화원 설립 등을 통한 한국의 이미지 제고’를 정부 차원의 노력이 절실한 분야로 지적하고 있다. 2012년 말 현재 중남미 지역에는 아르헨티나(2006년 11월), 멕시코(2012년 3월) 등 2곳에 ‘중남미 한국문화원’이 설립되어 운영 중이며 브라질에도 추가적인 문화원 개원을 계획 중이다. 안데스 3국 중에서는 우리와의 교역 규모가 가장 크고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가장 높은 에콰도르에 한국문화원 설립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의 사회적공헌(CSR) 활동과 정부의 ODA 사업을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CSR 활동은 기업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 기업들의 안데스 3국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현지 진출 대상국이나 대상지역(local community)에서 CSR 활동이 실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볼리비아 현지 광물 채굴권 입찰 초기부터 현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계획하는 등의 노력을 보였다. 그 일환으로 먼저 볼리비아 현지의 높은 영아 사망률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협력해 모자(母子)보건센터를 설립했다. 또한 현지 자원전문가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기술 연수 등을 통한 공동 발전에도 모호하고 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현지 생태계 보전 및 기초 인프라 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도 일조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기업들이 광물자원공사의 사례처럼 KOICA 등 정부와 협력하에 CSR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중남미 진출 우리 기업

들은 단독으로 CSR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재원 및 아이디어의 부족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진출기업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CSR 활동과 KOICA의 ODA 프로그램을 연계한 ‘CSR-ODA 연계형’ 사업을 강구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미주개발은행(IDB), 안데스개발공사(CAF)와 공동으로 CSR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IDB 신탁기금사업의 일환으로 에콰도르 정부와 합작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한 ‘에콰도르 빈곤지역 청소년 대상 관현악단 교육사업’을 볼리비아 등으로 확대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08년 8월 실시된 동 사업에는 한국 신탁기금 35만 달러, 에콰도르 정부 자금 9만 달러 등 총 44만 달러가 지원되었다.²⁶²⁾

나. 기업 차원의 진출 확대 방안

1) 정부의 공식 채널 활용

사회주의 국가인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에서 모든 기업 활동은 정부 간 공식 채널을 통해야 한다. 이들 3국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대부분은 정부 발주 사업으로 정부 간 교류와 업무협약(MOU, LOI)이 체결되어야 발주처에서 면담과 정보 교류 등을 허용한다. 대표적으로 에콰도르의 경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 90%가 정부조달 사업이다. 특히 안데스 3국 시장은 매우 폐쇄적이어서 정부 채널을 통하지 않고는 관

262) 기획재정부 외(2010), pp. 1~4.

표 6-3. 안데스 3국의 계약 참여 방식

| 국가 | 수의계약 | 입찰 |
|-------|---|-------------------|
| 볼리비아 | - 가능 - 국가간 협약 체결 시, 입찰 단계를 거치지 않고 기업 간 계약 체결 가능 | - 원칙적 공개입찰 |
| 에콰도르 | - 가능 - 참여기관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일 경우 수의계약 가능 - 공무원을 최소 50% 이상 고용한 입찰기업에 대해 수의 계약 가능(정부조달법 2조 8항) | - 기본적으로 경쟁입찰방식 적용 |
| 베네수엘라 | - 가능 - 정치·경제적 관계를 고려해 국가나 정부 간 협정을 통한 계약 체결 | |

자료: 안데스 3국 현지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토대로 필자 작성.

런 통계나 입찰 정보를 입수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현지 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일부 우리 기업들은 다른 중남미 국가나 개도국에서 하던 관행대로 현지 브로커나 에이전트를 통해 진출을 시도하다 낭패를 겪기도 한다.

따라서 안데스 3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외교부 등 정부 부처, 현지 대사관 등 공식적인 정부 채널을 거쳐 진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간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자원협력위원회 등의 공식적인 채널을 협력 기회 발굴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베네수엘라와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식경제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한-베네수엘라 경제협력센터, PDVSA 서울 사무소도 협력 채널로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

2) 중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2000년대 들어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기업의 대중남미 진출 러시는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기업들에게도 커다란 위협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기업의 진출을 더 이상 위협요소로만 간주하지 않고 기회로 활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대건설은 중국의 위슨 엔지니어링(Wison Engineering)과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베네수엘라 시장에서 대규모 공사를 수주했다. 이번 베네수엘라 공사 수주는 한국의 기술과 중국의 자본이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된다. 해외진출이 초기 단계인 중국기업들은 전반적인 기술 수준이 우리 기업보다 크게 낮은 데다 외국에서의 사업 실적이 적어 해외 사업 경험이 풍부한 한국이나 서방 기업과의 합작을 선호한다.

안데스 3국 시장 진출 시 중국 기업이 갖고 있는 장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중국기업들의 높은 자본 동원력이다. 최근 중국기업들이 중남미 시장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막대한 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 때문이다. 그에 반해 우리 기업들은 높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자금 조달 능력의 한계로 번번이 프로젝트 수주에서 고배를 마시고 있다. 둘째, 안데스 3국 시장에서 중국기업의 존재는 현지 시장의 높은 정치·경제 위험을 회피(Risk Hedging)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서도 의미가 크다. 이념적 동질성을 갖고 있는 중국과 안데스 3국은 정치적으로 돈독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데다 경제적으로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높은 정치경제적 위험 때문에 외국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상황에서 중국은 이들 국가의 중요한 외화 공급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구도에서 안데스 3국이 중국기업의 이해에 반하는 행동이나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투자보장협정 등 제도적 안전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중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는

우리 기업들이 이들 시장 진출 시 위험을 최소화하기 방안으로 적극 고려해야 할 요소다.

3) 기업의 사회적공헌(CSR) 활동 강화

최근 한국의 기업 부문에서 가장 주목받는 현상은 기업의 사회적공헌 활동이다. 기업이 공익재단을 설립하거나 소외계층을 위한 단순한 자선 사업 활동을 넘어 이제는 사회적공헌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경영이념에 사회적공헌의 가치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현지 사회에서의 사회적공헌 활동도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중남미 시장에 진출한 대부분의 우리 기업들은 CSR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성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기업들의 CSR에 대한 인식이 대부분 자선활동이나 지역사회 후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중남미 지역에서 우리 기업의 CSR 활동은 대부분 자선활동(재해구호, 빈민구호, 고아원 후원), 지역사회 행사 후원, 교육 지원 활동, 종업원들의 자원봉사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CSR 활동이 기업별 특성이나 핵심 역량과 무관하게 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지원의 장기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다.²⁶³⁾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안데스 3국에서 CSR 활동은 더욱 큰 중요성을 갖는다. 특히 다른 중남미 국가에서와 달리 안데스 3국에서는 CSR 활동

263) 오삼교 외(2011), p. 4.

이 현지 진출 기업의 위험을 억제하는 수단으로서 중요성이 크다. 대표적으로 미국기업인 세브론은 적극적인 CSR 활동을 통해 반미(反美) 정서가 가장 심한 베네수엘라에서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볼리비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미토모 상사도 직업훈련 교육 등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외국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볼리비아 정부의 국유화 정책을 피해갈 수 있었다.

앞으로 안데스 3국에서 CSR 활동은 더욱 더 중요성을 띠 전망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각국이 자원개발 사업 등에서 계약서상에 CSR 활동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2012년 중국기업인 Ecuacorriente는 에콰도르 정부의 요구로 엘 미라도르(El Mirador) 동광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인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1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하였다. 베네수엘라 정부도 법적으로 정부 발주 사업에 입찰하는 기업의 경우 공사액의 5%를 CSR 관련 활동에 할당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안데스 3국에서 CSR 활동이 주목받는 이유는 사회적공헌 활동이 정부의 치적으로 선전하기에 좋은 성과물이라는 점 때문이기도 하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볼 때, 안데스 3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게 CSR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다. 따라서 진출 초기부터 CSR 활동을 투자 진출의 한 요소로서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CSR 사업 추진 시, 진출 기업 단독으로 수행하기보다는 KOICA, 수출입은행 등 정부기관, CAF, IDB 등 중남미지역개발은행 등과의 협력하에 단발성 사업이 아닌, 보다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4) 거점화(Hub & Spoke) 전략

중남미 지역은 다른 지역의 개도국과 비교해 언어적, 문화적, 법적, 제도적 유사성이 크다. 이에 따라 어느 한 국가에서의 성공적 경험을 중남미 인근 국가에 이식시키는 데 유리하다. 특히 안데스 3국은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비교해 이념적으로도 높은 동질성을 갖고 있어 이러한 전략을 추진하기에 더욱 용이하다. 따라서 중남미 시장 진출 시 여러 국가에 걸쳐 산발적인 진출을 추진하기보다는 거점 국가를 선정해 그곳에서 성공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근 국가로 진출하는 거점화(Hub & Spoke)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다.²⁶⁴⁾

이미 중남미 시장에 진출한 많은 국내외 기업들이 이러한 거점화 전략을 통해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포스코건설의 경우 칠레에서 구축한 높은 명성을 바탕으로 페루 등 인근 시장에 진출해 빠른 시간에 중남미지역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업체로 부상했다.

브라질에서 일본 기업의 거점화 전략도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일본은 중남미 시장에서 브라질이 갖고 있는 파급효과에 주목해 일본식의 디지털 지상파 TV(DTT) 표준 전파의 거점으로 브라질을 선정했다. 일본은 브라질이 DTT 표준 방식을 채택하도록 IT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브라질이 일본 DTT 표준을 도입하면서 일본의 표준 방식은 중남미 인근 국가로 급속히 퍼져나갔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표준 방식은 브라질 거점화 전략의 성공에 힘입어 짧은 시간에 미국 및 유럽의 표준 방식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²⁶⁵⁾

264) 권기수 외(2010), pp. 263~264.

265) 권기수 외(2011), pp. 29~40.

안데스 3국에서도 이러한 성공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베네수엘라에서 통신위성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근 볼리비아에서도 통신위성 개발사업을 수주했다. 중국이 볼리비아 통신위성 개발을 수주한 배경에는 중국의 높은 기술력도 한몫을 했지만 자국에서 통신위성 개발의 성공을 지켜 본 차베스 대통령의 강력한 추천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최근 우리 기업들이 에콰도르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세행정망 사업도 거점화 전략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미 볼리비아 등 일부 국가에는 한국식의 관세행정망 사업을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안데스 시장 진출 시 이 같은 거점화 전략을 염두에 두고 진출 초기부터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안데스 좌파 국가 내에서 평판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프로젝트 완공 이후 AS 등 사후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다. 또한 성공적 사업 경험을 체계적으로 메뉴얼화해 인근 국가에 홍보하는 노력도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

5) 금융협력 및 조달 방식의 다각화

가) 안데스 3국에서 금융 조달의 특징

전술한 해외프로젝트 진출 확대를 위한 금융협력 확대의 필요성과 새로운 협력 방안 모색의 필요성은 안데스 3국과의 경제협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들 3국이 불안정한 정치체제와 불확실성이 높은 투자 환경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개발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을 수

주기업이 해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과 정부의 적절한 대응능력 제고를 필요로 한다. 일반적인 차이점은 3국의 정치적 특성상 민간개발업자보다는 정부 및 국유기업이 개발 주체가 되어 금융 조달 및 주선을 우선 요구한다는 점이다.

안데스 3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정책의 주된 특징은 시장경제에서 국가 주도형으로의 변화이다. 그 결과 각종 개발프로젝트는 국가 혹은 국유기업에 의하여 발주되고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은 재정에서 지원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시공사가 자금 조달을 담당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자금 조달 방식은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소 차별적인데, 크게 베네수엘라형(에콰도르 포함)과 볼리비아형으로 편의상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의 주요 기준은 정부가 프로젝트를 위해 조달할 수 있는 자금력을 구비하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최근 개발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자리 잡은 PF와 관련하여 베네수엘라 유형과 볼리비아 유형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베네수엘라에서는 차베스 정부 등장 이후 PF가 주요 개발 형태로 활용되지 않았다. 튼튼한 국영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에너지, 석유, 광업 등 일부 주요 산업에서 PF가 활용되기는 했지만, 이는 국내 자본시장 위축과 국가신용도 하락으로 해외 자본시장에의 접근이 어려워지면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PF에서 대주(lender)는 미국의 해외민간투자공사(OPIC)와 국제금융공사(IFC)이고, 신탁사(trustee)는 상업은행이었으며, 출자자(sponsor, 사업주)는 대부분 석유회사와 주요 인프라 투자를 담당하는 국영기업들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의 변화로는 베네수엘라 프로젝트에 대한 주요 대주로 경제협력 관계가 긴밀해

지고 있는 국가와 해당국 공공금융기관들이 부상하고 있고, 이들 금융기관이 또한 주요 투자자로 진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 베네수엘라와 중국 간에 체결된 40억 달러 공동기금협약,²⁶⁶⁾ 2009년의 공동기금수정협약²⁶⁷⁾ 그리고 2010년의 200억 달러 장기금융협력협정은²⁶⁸⁾ 이러한 대주 및 투자자 변화의 대표적인 사례다.²⁶⁹⁾ 특히 공동기금수정협약(일명 Loans-for-Oil)으로 중국국가개발은행(CDB)은 베네수엘라사회경제개발은행(BANDES)에 수시인출/상환대출(회전여신, revolving facilities)을 제공하고,²⁷⁰⁾ 베네수엘라는 원유로 상환하는 대신에 이 자금을 인프라 건설, 에너지, 광업, 농업 및 사회개발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266) Convenio entre el Gobierno de la República Bolivariana de Venezuela y el Gobierno de la República Popular China sobre el Fondo de Financiamiento Conjunto(BANDES 및 PDVSA).

267) Protocolo de Enmienda entre el Gobierno de la República Bolivariana de Venezuela y el Gobierno de la República Popular China al Convenio entre el Gobierno de la República Bolivariana de Venezuela y el Gobierno de la República Popular China sobre el Fondo de Financiamiento Conjunto.

268) Acuerdo entre el Gobierno de la República Bolivariana de Venezuela y el Gobierno de la República Popular China sobre Cooperación para Financiamiento a Largo Plazo.

269) 이외에도 베네수엘라는 2012년 2월 중국 정부와 약 125억 달러 규모의 베네수엘라 석유 분야 개발에 중점을 둔 투자약정을 체결했다. 원유를 담보로 한 약 40억 달러 규모의 신규 분할 차관(New Tranche)과 40억 달러 규모의 전력, 천연가스, 베네수엘라의 오리노코 유전지대에서의 원유 생산에 필요한 스팀 공급을 위한 2개의 산업 복합단지 건설 투자, 베네수엘라와 중국정부 간의 출자로 설립된 Petrosinovens사의 자본금 증대를 위한 약 4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출자금 그리고 유전 지역에 필요한 석유 굴착 시설(Oil Rig) 건설을 위한 5억 달러 규모의 투자금 등이 포함되었다. 투자 약정에는 국제상업은행(International Commercial Bank of China), 중국석유공사(China National Petroleum Corp.), 중국개발은행(China Development Bank) 등 국유기업 및 금융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270) 장기금융협력 방안으로 협정 체결부터 10년간 100억 달러(700억 위안)로 대출 한도를 설정하고, 판매자와 구매자로 설정된 PDVSA와 China Oil 간의 원유 거래에서 베네수엘라 정부가 징수할 로열티를 상환자금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표 6-4. 중국의 안데스 3국 금융지원 추이(2008-11년)

| 연도 | 차입국 | 차주 | 대주 | 금액 (백만 달러) | 목적 |
|------|-------|--------------|------------|---------------|--------------------------------|
| 2008 | 베네수엘라 | BANDES/PDVSA | CDB | 4,000 | 인프라 및 기타 |
| 2009 | 볼리비아 | YPFB | Ex-Im Bank | 60 | 가정용 가스관, 석유시추장비 |
| 2009 | 에콰도르 | Petroecuador | PetroChina | 1,000 | 원유대금 선지급 |
| 2009 | 베네수엘라 | BANDES/PDVSA | CDB | 4,000 | 인프라(위성 포함) |
| 2009 | 베네수엘라 | CVG | CDB | 1,000 | 광업프로젝트차관 |
| 2010 | 볼리비아 | 정부 | CDB | 251 | 중국 위성 |
| 2010 | 볼리비아 | 정부 | Ex-Im Bank | 67.8 | 인프라 |
| 2010 | 에콰도르 | 정부 | Ex-Im Bank | 1,682.7 | Coca-Codo Sinclair 수력발전소(담) |
| 2010 | 에콰도르 | Petroecuador | CDB | 1,000 | 80%(임의), 20%(석유) |
| 2010 | 에콰도르 | 정부 | Ex-Im Bank | 621.7 | Sopladora 수력발전소(담) |
| 2010 | 베네수엘라 | PDVSA | CDB/BES | 1,500 | 무역신용 |
| 2010 | 베네수엘라 | BANDES/PDVSA | CDB | 20,000 | 인프라기금 |
| 2011 | 볼리비아 | 정부 | Ex-Im Bank | 300 | 헬기, 인프라 |
| 2011 | 에콰도르 | 정부 | CDB | 2,000 | 70%(임의), 30%(석유) |
| 2011 | 베네수엘라 | PDVSA | CDB | 4,000 | 인프라 |
| 2011 | 베네수엘라 | PDVSA | ICBC | 4,000 | 주택 |

자료: 현지 각종 언론 자료를 토대로 필자 작성.

베네수엘라 정부는 높은 정치 및 신용위험 등 다양한 위험들로 외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원을 확보하게 되었다.²⁷¹⁾ 이러한 변화는 베네수엘라의 프로젝트 양허 방식 및 사업(재원

271) 차베스 대통령의 2012년 10월 대선 공약이면서 집권 후 국가개발정책으로 선관위에 제출한 자료(Propuesta del Candidato de la Patria Comandante Hugo Chávez: Para la Gestión Bolivariana Socialista 2013-2019)에서 ‘중국-베네수엘라 공동기금(Fondo Conjunto China-Venezolano)’이 베네수엘라의 대외 경제적 자율성과 주권 회복을 위한 주요 수단임이 강조되었는데, 이를 통해서 향후 유사한 협력 방안들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는데, 대부분이 BOT/BOO 방식과 도급으로 발주된 반면에 PPP는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한편 볼리비아에서는 1990년대 이래 최근 좌파 정부가 수립된 이후 까지도 석유, 전력, 통신 등 기간산업 개발과정에서 PF가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베네수엘라와는 차별적인 이러한 현상은 투자자금이 부족한 볼리비아에서 PF가 개발프로젝트에 필요한 신규자금을 유치하는 주요 수단인 동시에 신기술 및 전문가 유치에 유용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남미에서 최빈국에 속하는 볼리비아로서는 PF 형태의 인프라 개발에 안데스개발공사(CAF)와 미주개발은행(IDB) 등 역내의 개발은행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볼리비아는 모랄레스 정부의 산업 국유화와 국유기업의 역할 강화를 바탕으로 2005년을 전후로 민간 부문에 부여한 양허(concession)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던 PF를 PPP 중심의 PF로 변화시켰다. 그 결과 볼리비아에서 이루어지는 PF의 주요 대주는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의 정책, 위험 그리고 시장을 잘 인지하고 있는 CAF와 IDB 등의 다자개발은행이고, 국유화가 시작된 2005년 이후 상업은행들은 정치적 위험 때문에 PF에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다. 최근 주요 광업프로젝트의 경우에도 미국의 수출입은행과 OPIC가 가장 중요한 대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반면 출자자(sponsor)의 경우에는 베네수엘라에서처럼 석유회사, 광업회사 그리고 국유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즉, 산업 국유화에도 불구하고 석유 및 광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의 대부분은 미국과 유럽 투자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러시아, 베네수엘라, 인도, 중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 신규 투자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3국의 금융 조달 환경으로 인하여 실현된 투자진출의 주요 사례들은 일반적인 해외건설금융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대부분 다음과 같은 범례에 속한다.²⁷²⁾ 첫째,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거나 직접 지역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을 발주하고, 완공 후 국영기업인 시행사나 출자사가 운영 및 소유권을 가지는 형태가 일반화되고 있다. 둘째, 중국의 사례처럼 제3국 공공금융기관이 자금을 제공하고 제3국 국내기업들이 시공사가 되거나 컨소시엄 구성의 주축이 되는 정부 대 정부 협력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셋째, 민간 수주기업이 위험 회피를 목적으로 제3국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제3국 공공금융기관 및 지역개발금융기관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따라서 안데스 3국 건설시장 진출 시 전술한 세 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금융협력 및 조달 방식의 다각화

이상에서 살펴본 안데스 금융 조달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여기서는 우

272) 소요자금과 자금 조달로 이해되는 일반적인 해외건설금융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소요 자금은 △시설자금: 프로젝트 건설자금(EPC금액) △개발비용 및 금융비용 △운전자금 : 프로젝트 완공 후 최초 1회전 운전자금 그리고 △에비비에 해당함. 소요자금은 자기자금 및 차입금으로 조달하는데, 자기자금은 출자금(사업주, MDB, Infra Fund, 일반투자자 등 참여)과 후순위대출(부채와 자본의 중간 성격의 락 CB/BW 등의 중간 자본금으로 사업주, 금융기관, 기금 등에 의해 제공)을, 차입금은 다양한 신용기관을 활용함. 신용기관별 특징: △수출신용기관(ECA)은 OECD협약을 준수하며, 지원대상 거래 및 금액이 정해져 있음. △국제개발금융기관은 공식 지원절차를 보유하며 환경 문제를 중시함. △상업금융기관은 유동성이 풍부하고, 지원 조건 및 절차 등에서 융통성이 있음. △현지 금융은 사업 시행국 금융기관에서 현지화로 조달하고, 환율 위험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기자재 등의 구입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지역금융은 지역적으로 유사한 국가 금융기관에서 조달함. △이슬람금융(이슬람 채권-수국) △인프라펀드 △국제채로 기재자가 해외에서 외국통화로 채권 발행(사무라이 본드, 양키본드 등).

리 정부 및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공동기금 같은 협력기금 설립을 적극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개발사업이 정부 주도형으로 추진되면서 국가 간의 우호적인 협력관계 구축이 선제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3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의 금융협력 사례와 한국기업들의 베네수엘라 프로젝트 수주 사례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중국-베네수엘라공동기금’과 같은 정부 차원의 협력기금을 국가별 혹은 3국과 공동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베네수엘라는 국가개발계획에서 제3국과의 공동기금 설립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있고, 볼리비아와 에콰도르도 유사한 기금 도입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둘째, 중국·일본의 기업 및 은행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안데스 3국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가는 중국과 일본의 기업 및 은행과의 긴밀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동북아 3국은 해외시장 진출 경험, 기술 수준, 자금 조달 능력 등에서 상호 보완성이 높고, 협력을 통한 공동진출 필요성을 상호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 PLC 정유공장 수주 과정에서 중국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과 중국자금의 조달, 그리고 일본 금융기관들과의 금융협력이 결정적인 성공 요인으로 작용한 점은 이러한 동북아 3국간 협력확대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셋째, 지역개발은행의 자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안데스 3국 국책사업의 경우 지역개발은행의 자금 지원에 대한 의존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 정부나 수출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은 CAF 및 IDB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협조융자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안데스 지역에서의 위상을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CAF에, 나아가서는 베네수엘라가 주도하는 남미은행

(Banco del Sur)에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ECA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안데스 3국을 비롯한 해외프로젝트 수주에서 자국기업들을 지원하는 ECA 등 공적금융기관의 역할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수출입은행이나 수출보험공사는 자본 규모 확충, 해외 ECA와의 공조, 리스크 관리능력 배양 등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진출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안데스 3국의 국가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 지나친 정부 보증을 요구하는 관행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수력발전소 건설을 비롯하여 3국에서 발주되는 다수의 개발프로젝트들이 CDM 사업으로 승인 받아 국제적인 지원 아래 시행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바, 국제기구나 환경기금을 관리하는 국제금융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진출 방안도 적극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국문자료]

- 고미혜. 2010. 「'백색황금' 잠자는 소금호수를 가다」. 『연합뉴스』. (11월 15일)
- 고유경. 2010. 「중남미지역의 자원개발 진출 환경 분석 및 진출 전략」. 『중남미 에너지자원 동향』. 외교통상부 중남미자원협력센터.
- 관계부처 합동. 2011. 『볼리비아 국별협력전략 2012-2015』.
- 권기수 · 김원호 · 권율 · 김진오 · 박수완. 2008. 『미주개발은행(IDB)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고희채. 2010. 『중남미 건설 · 플랜트 시장의 특성 분석과 한국의 진출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_____. 2011. 『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한 · 브라질 산업협력 확대 방안』. 대외 경제정책연구원.
- 기획재정부 · 문화체육관광부 · 국토해양부 · 대한축구협회. 2010. 「중남미와의 협력 기반 강화를 위한 스포츠 · 문화 분야 교류 활성화 방안」. 대외경제 장관회의 10-7-7.
- 김관식. 2010. 「SK건설, 에콰도르 정유공장 기본설계 수주」. 『프라이임경제』(3월 28일). http://www.dnnews.in/news_list.php?code=economy&id=516302. (2012. 9. 2)
- 김기현. 2010. 「중남미 탄화수소산업의 국가 통제 강화와 외국인 직접투자」. 『이베로아메리카』, 제12권 1호, pp. 23~54.
- 김기현 · 권기수. 2011.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이해: 자원, 불평등 그리고 개혁』. 한울.
- 김인완. 2010. 「에콰도르 대통령, “한국의 경제개발 모델수출 지원하겠다” 밝혀」. 『한경닷컴』(11월 18일).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11184380h<ype=1&nid=280&sid=0001&page=5>. (2012. 9. 10)

- 김재순. 2011. 「볼리비아 모랄레스 대통령 정치적 위기」. 『연합뉴스』(10월 1일).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1/10/01/0607000000AKR20111001003800094.HTML?audio=Y>. (검색일자: 2012. 8. 5)
- 박병광. 2006. 「중국의 우주개발의 의미와 영향」. 『국가전략』, 제12권 제2호. 세종연구소. pp. 35~39.
- 삼성엔지니어링. 2012. 「볼리비아서 비료 플랜트 계약」. 『엔지니어링 뉴스』(9월 14일). <http://www.samsungengineering.co.kr>. (2012. 9. 20)
- 서윤경. 2012. 「대우건설 · STX 컨소시엄등 4곳, 베네수엘라 111억弗 사업 수주 눈앞」. 『국민일보』. (4월 25일)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6024364&cp=nv>. (2012. 9. 5)
- 오삼교 · 이남섭 · 최윤국 · 홍욱현. 2011. 『중남미 진출 한국기업의 사회적 공헌(CSR) 제고방안 연구』.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유병훈. 2008. 「외채통계의 이해와 최근 동향」.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p. 29. <http://knsi.org/knsi/admin/work/works/08.07.25.pdf>. (검색일자: 2012. 8. 7)
- 이상현. 2007. 『볼리비아의 자원민족주의와 천연가스산업 재편의 전개와 의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성형. 2011. 『라틴아메리카의 중도좌파붐 - 원인, 성격, 그리고 전망』. 서울: 역사비평사.
- 이시은. 2012. 「최근 대중남미 FDI 유입 급증 배경과 주요 특징」, KIEP 지역경제포커스, Vol. 6, No. 23.
- 임배진. 2007. 『차베스 에너지정책의 형성 배경 및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임태균. 2012. 「베네수엘라 4기 차베스 정부의 석유산업 정책 전망 및 시사점」. KIEP 지역경제포커스. (12월 20일)
- 전병윤. 2011. 「포스코건설, 에콰도르 플랜트시공업체 인수」. 『머니투데이』. <http://stock.mt.co.kr/view/mtview.php?no=2011020916163721357&type=1&outlink=2&EVEC>. (2011. 2. 9)
- 정경원 · 조희문 · 문남권 · 유동재. 2011. 『3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자원개발 관련법 비교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지원 · 권율 · 정지선 · 박수경 · 이주영. 2011. 『국제사회의 남남협력 현황과 우리의 추진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조성권 외. 2011. 『베네수엘라 오일샌드에 대한 한국의 진출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조영현 · 김달관. 2012. 「에콰도르 원주민 사상과 세계관의 복원: 수막 카우사이 에 대한 이론적 고찰」. 『중남미연구』, 제31권 2호, pp. 127~160.
- 지식경제부. 2012.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진출 지원을 위한 전략적 기반 구축 - 한 · 페루, 한 · 베네수엘라 경제협력센터 개소」. 보도자료, p. 1(11월 13일). <http://www.mke.go.kr>. (2012. 11. 30)
- 지식경제부 · 한중남미협회. 2012. 『블루오션 라틴아메리카』. 중남미 경제협력 간담회 결과 보고서.
- 최필수 외. 2011. 『중국의 해외건설 현황 및 전망』. 국토해양부.
- 한국수출입은행. 2010. 「에콰도르 국가신용도 평가 리포트」. 『국별 리포트』, p. 11.
- _____. 2011. 「베네수엘라 국가신용도 평가 리포트」. 『국별 리포트』, p. 15.
- _____. 2012. 「한 · 중남미 경제협력 다지는 포럼 열렸다」. 보도자료(9월 14일), http://www.koreaexim.go.kr/kr/bbs/noti/view.jsp?no=11043&bbs_code_id=1311900548729&bbs_code_tp=BBS_2&code_tp=N02_89&code_tp_up=N02&code_tp_nm=TA&req_pg=5. (2012. 11. 4)
- 한병규. 2012. 「볼리비아 4개주 주지사 방한, 코이카 통해 한국 경제 배워」. 『뉴스 ZUM』(8월 21일). <http://news.zum.com/articles/3457322>. (검색일자: 2012. 9. 10)
- 『화학저널』. 2012. 「볼리비아와 리튬 합작투자 계약」(7월 9일). <http://www.chemlocus.co.kr/news/view/76677>. (검색일자: 2012. 9. 12)
- 『ChinaWatch』. 2005. 「중국 베네수엘라에 통신위성 매각 2008년 발사」. (11월 3일). http://chinawatch.co.kr/chinawatch.php3?_Number=30502. (2012. 10. 4)
- KDB. 2001. 「우리경제의 중장기전망」. 『KDB 경제이슈』, p. 90. <https://rd.kdb.co.kr/er/cmscontents/.../cmsERFileDown.jsp?>. (검색일자: 2012. 8. 7)
- KOTRA. 2007. 『자원개발진출가이드 - 베네수엘라』.

[국외자료]

- AEB. 2012. “Por que adquirir un satelite de una empresa china?”
<http://www.abe.bo/satelite/index.html>. (2012. 10. 8)
- AECID. 2010. “Marco de Asociación Ecuador-España, 2011-2013: Documento 1: Lineamientos Generales.”
- Agencia Bolivariana de Noticias. 2008. “China y Venezuela fortalecen convenios en materia tecnológica”(November 25). <http://www.aporrea.org/tecnologia/n124617.html>. (2012. 11. 8)
- Aguirre, Mariano, Isabel Moreno Carballal. 2007. “Re-founding the State in Bolivia.”
- Barros, Pedro Silva and Aragon Erico Dasso Junior. 2012. A Missao do IPEA no Contexto das Relacoes Brasil-Venezuela: Um Novo Formato de Cooperacao. V Cnogresso CONSAD de Gestao Publica. Centro de Convencoes Ulysses Guimaraes. Brasilia/DF - 4, 5 e 6 de junho de 2012.
- BMI. 2012. *Venezuela Oil and Gas Report*. Q4 2012.
- BP. 2012.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2.” <http://www.bp.com/sectiongenericarticle800.do?categoryId=9037130&contentId=7068669>. (2012. 7. 11)
- Business News Americas. 2009. “Alliance with China to create IT hub in state of Miranda”(February 20). http://www.bnamericas.com/news/technology/Alliance_with_China_to_create_IT_hub_in_state_of_Miranda. (2012. 11. 7)
- _____. 2012. “VIT produces 119,000PCs in H1, in line for annual target” (July 5). <http://site.securities.com>. (2012. 11. 19)
- CEPAL. 2011a. Anuario estadístico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 _____. 2011b. Estudio económico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2010-2011.
- _____. 2012a. Estudio económico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p. 79.

- _____. 2012b. La inversión extranjera directa en América Latina y el Caribe 2011, p. 23.
- Chantal Liégeois. 2009. “Hacia dónde va el Megaproyecto del Mutún?” PetroPress, p. 14. (2012. 8. 10)
- Chevron. 2012. Business Portfolio. <http://www.chevron.com/countries/venezuela/businessportfolio>. (2012. 11. 19)
- _____. 2012. “Venezuela Fact Sheet,” p. 1. (April)
- Chavez, Hugo. 1996. “Agenda Alternativa Bolivariana: Una Propuesta patriótica para salir del Laberinto.”
- _____. 1998. “La Propuesta de Hugo Chavez para transformar a Venezuela: Una Revolución Democrática.”
- _____. 2000. “La Propuesta de Hugo Chavez para continuar la Revolución.”
- _____. 2012. “Propuesta del Candidato de la Patria Comandante Hugo Chávez: Para la Gestión Bolivariana Socialista 2013-2019.”
- Consulta Mitofsky. 2012. “Aprobación de Mandatarios: América y El Mundo.” p. 8. (Septiembre)
- Cordeiro, Jose Luis. 2007. *El Desafío Latinoamericano*. Bogota: McGrawHill.
- Cordova, Hector. 2012. “¿Por qué fracasamos con la Jindal?” *La Razón*. (July 29)
- Corporación Latinobarometro. 2011. 2011 Latinobarómetro’s Report.
- EIU Viewswire. 2012. “Bolivia: 5-year forecast.” <http://viewswire.eiu.com> (2012. 8. 10)
- _____. 2012. “Venezuela: 5-year forecast.” <http://viewswire.eiu.com> (2012. 8. 10)
- El Diario. 2012. “Jindal Steel Bolivia reanuda exportaciones”(February 16). http://www.eldiario.net/noticias/2012/2012_02/nt120216/economia.php?n=21&jindal-steel-bolivia-reanuda-exportaciones. (2012. 8. 2)
- Ellis, R. Evan. 2010. “Advances in China - Latin America Space Cooperation(5-7).” *China Brief, A Journal of Analysis and Information*, Volume X. Issue 14. The Jamestown Foundation. (July 9)

- Ellis, R. Evan. 2011. "China-Latin America Military Engagement: Good will, good business, and strategic position." SSI Monograph. (August)
- Estado Plurinacional de Bolivia. 2009. *Programa de Gobierno MAS-IPSP(2010-2015)*.
- Gobierno Bolivariano de Venezuela. 2010. "Acuerdos Suscritos entre La Republica Bolivariana de Venezuela y La Republica Popular China."
- Heritage Foundation. 2012. "Economic Freedom in South and Central America/Caribbean Countries." <http://www.heritage.org> (2012. 8. 4)
- IDRC. 2011. "Think Tanks: Informe Anual 2010-2011 de la Iniciativa Think Tank."
- IHS Global Insight. 2012. "Global Risk Service: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www.ihs.com. (2012. 8. 9)
- _____. 2012. "GLOBAL INSIGHT'S LATIN AMERICA AND CARIBBEAN OVERVIEW"(July), www.ihs.com. (2012. 8. 10)
- _____. 2012. "Global Risk Service"(3rd Quarter). www.ihs.com. (2012. 8. 10)
- IPEA. 2011. *A Integracao de Infraestrutura Brasil-Venezuela: A IIRSA e O Eixo Amazonia-Orinoco, Relatorio de Pesquisa*.
- IPEA & MCTI. 2011. *Regiao Norte do Brasil e Sul da Venezuel: Esforco Binacional para a Integracao de Cadeias Produtivas, Relatorio de Pesquisa*.
- Latino minería. 2012. "Bolivia-Government and Jindal Steel clash over future of Mutun project"(June 4). http://www.latinomineria.com/noticias/imprimir_noticia_neo_en.php?id=1847. (2012. 7. 16)
- Mathaba.Net. 2012. "Planning the Next Six Years of Venezuela's Bolivarian Revolution." (Posted August 9)
- Ministerio de Economía y Finanzas Públicas. 2011. "El Nuevo Modelo Económico, Social, Comunitario y Productive." *Economía Plural*, Año 1 No. 1. (Septiembre)

-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NIC). 2004. "Latin America 2020: Discussing Long-Term Scenarios." Summary of conclusions of the workshop on Latin American Trends. Santiago de Chile. (June 7-8)
- Obie. 2010. <http://plataformaenergetica.org/obie/content/8215>. (2012. 7. 29)
- Panizza, Francisco. 2009. *Contemporary Latin America: development and democracy beyond the Washington Consensus*. London, UK: Zed Books.
- Parra, Edgar. 2008. Líneas generales del Plan Nacional de Desarrollo(Plan Simón Bolívar) 2007-2013.
- Presidencia de República Bolivariana de Venezuela. 2007a. Proyecto Nacional Simón Bolívar, Primer Plan Socialista(PPS): Desarrollo Económico y Social de la nación 2007-2013.
- _____. 2007b. Líneas Generales del Plan de Desarrollo Económico y Social de la Nación 2007-2013.
- Procuraduría General de la República. 2012. "Leyes Habilitantes." http://www.pgr.gob.ve/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2911. (10. 22)
- Rumbo al Socialismo Bolivariano. 2010. Proyecto Nacional Simón Bolívar, Primer Plan Socialista(PPS): Líneas Generales del Plan de Desarrollo Económico y Social de la Nación.
- Secretaría Nacional de Planificación y Desarrollo de Ecuador (SENPLADES). 2009. "Plan Nacional para el Buen Vivir 2009-2013, PNBV."
- SEGIB(Secretaría General Iberoamericana). 2010. *Report on South-South Cooperation in Ibero-America 2010*. SEGIB Studies No. 5.
- _____. 2011. *Report on South-South Cooperation in Ibero-America 2011*. SEGIB Studies No. 6.
- SELA. 2011. "Opportunities, prospects and instruments for financing South-South Cooperation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SENPLADES. 2009. “Plan Nacional para el Buen Vivir 2009-2013, PNBV.”
U.S. Department of State. 2012. “2012 Investment Climate Statement -
Venezuela.” <http://www.state.gov/e/eb/rls/othr/ics/2012/191262.htm>. (2012.
11. 18)
USGS. 2012.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12*. <http://minerals.usgs.gov/minerals/pubs/mcs/2012/mcs2012.pdf>. (2012. 7. 13)
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Index(GCI) Data 2005-2011.

[온라인자료]

국제금융센터. www.kcif.or.kr/front/data/interCredict.do
기획재정부. www.mosf.go.kr
브라질연방저축은행(Caixa Economica Federal). www.caixa.gov.br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지식경제부. www.mke.go.kr
한국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KOTIS). www.kita.net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www.koreaexim.go.kr/kr/work/check/oversea/use.jsp
한국플랜트협회. www.kopia.or.kr
CEDA. www.ceda.org.ec
Convenio entre la Corporación para el Desarrollo Científico y Tecnológico, COD
ECYT, S.A y la Empresa Langchao Group, Co.Ltd. www.google.co.kr/#hl=ko&newwindow=1&tbo=d&sclient=psy-ab&q=Langchao+CODECYT+acuerdo&oq=Langchao+CODECYT+acuerdo&gs_l=hp.3...18906.21672.1.22172.8.8.0.0.0.266.1438.0j6j2.8.0...0.0...1c.1.kmN60ZO5riE&pbx=1&bav=on.2,or_r_gc.r_pw.r_qf.&bvm=bv.1355534169,d.aGc&fp=21e08ec1dab487cb&bpcl=40096503&biw=1280&bih=829. (2012. 9. 10)
El Universal. www.eluniversal.com
Grupo FARO. www.grupofaro.org
Fundación ARU. www.aru.org.bo

INESAD. www.inesad.edu.bo

JSBENC. www.jsbenc.com/cyber/View.asp?idxnum=799&type=3. (2012. 9. 4)

ODA Korea. www.odakorea.go.kr/oz/support/SAmrc/Bolivia.jsp

OECD. 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2012. 8. 11)

Think Tank Initiatives. www.idrc.ca/EN/Programs/Social_and_Economic_Policy/Think_Tank_Initiative

UNCTAD. “UNCTAD STAT.” unctadstat.unctad.org/ReportFolders/reportFolders.aspx, (2012. 7. 10)

World Bank. www.doingbusiness.org/data/exploreconomies. (2012. 8. 8)

Executive Summary

How to Promote Economic Cooperation with Resource-abundant Andean Countries: Focus on Venezuela, Ecuador, and Bolivia

Kisu Kwon, Jin-O Kim, Misook Park, and Siun Y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suggestions for the enhancement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resource-abundant Andean countries including Venezuela, Ecuador, and Bolivia. These three countries have been deemed risky due to political instability and therefore have remained as a major challenge for Korean companies in terms of cooperation despite their great resource potential.

In this sense, this study offers practical ways to enhance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se three countries that are not limited to resource development cooperation. These include creating a friendly environment for Korean companies to encourage their entry into the resource development sector of the region, and building a sustainable model for economic cooperation. Also additional emphasis is put on finding measures to minimize the risks of doing business locally.

This report details the objectives outlined above in 6 chapters. The first introductory chapter lays out the necessity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methodologies, literature review, and the future work.

In the second chapter, the importance of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three countries is analyzed, along with political and economic aspects of the cooperation environment. Here the three 'values' that underlie the economic

importance of these three countries are described: one as a rich repository of natural resources, another as a market, and the last as target countrie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Chapter three is an in-depth analysis of the mid/long-term national development plans of the three countries and their priority sectors which have great potential to promote and enhance cooperation. The analysis of the national development plan concentrates on “the Government Plan 2010-2015(Programa de Gobierno 2010-2015 in spanish)” for Bolivia, “the National Well-being Plan(PNDBV 2009-2013)” for Ecuador, and “the Simon Bolivar National Development Plan 2007-2013(PNDSB 2007-2013)” and “the Second Socialist Plan of the Nation 2013 - 2019” for Venezuela. As a result, it is found that there is high demand from the Bolivian government for support of plans for the development of its natural gas · railroad · electricity sectors, and the electricity · petrochemical plants sector. The Ecuadorian government has made higher education, technology transfer, IT, and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high priorities. Lastly, with the Venezuelan government, resource development, oil refining · gas · electricity plant, and common fund raising seem to be promising areas for cooperation.

In chapter four, specific cases of major countries such as China, Spain, India, Brazil, Canada and the US are analyzed in order to find some implications for Korea. Firstly, in the area of development cooperation, an introduction is made regarding Spain’s support for national development plans, Canada’s “Think Tank Initiatives,” Brazil’s economic development experience sharing. Secondly in industrial technology cooperation, China’s communication satellite development, and also Chin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ctor cooperation are described in detail. Thirdly, in resource development cooperation, India-based JSB’s worst practices in the mining sector in Bolivia and US-based Chevron’s case of successful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in Venezuela are introduced. Lastly in financial cooperation, Brazil, China and Italy's electricity generation business, China's entry to the natural resource development sector, and Korea's oil refinery construction are presented as good examples.

Chapter five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three Andean countries particularly in trade, investment, resource development, plant construction, development cooperation, and institutional cooperation. Based on this analysis, this study proposes some agendas for economic cooperation that Korea should be looking at. In particular, SWOT analysis is conducted in order to review those three countries' environments for the economic cooperation.

Finally in chapter six, based on analyses in the previous chapters, several suggestions are made for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three countries. At the government level, △ building and strengthening the cooperative network, △ promotion of partnership for industrialization strategy, △ risk management system construction, △ reinforcement of cooperation with CAF (Development Bank of Latin America), △ development of the triangular cooperation model, △ public awareness or the image improvement efforts related to Korea are suggested. At the corporate level, △ utilization of government/public channels, △ establishment of strategic partnerships with Chinese companies, △ enhancement of CSR activities, △ Hub&Spoke strategy, and △ diversification of financial methods are proposed.

KIEP 연구보고서 발간자료목록

■ 2012년

- 12-01 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정책 시사점 / 최낙균 · 한진희
- 12-02 DDA 협상 지연의 요인 분석과 국제적 대응방안 / 김준동 · 서진교 · 송백훈 · 안덕근
- 12-03 한국 기발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 배찬권 · 김정곤 · 금혜윤 · 장용준
- 12-04 무역자유화 효과의 실증분석과 정책 대응: 소비자후생을 중심으로 / 서진교 · 정 철 · 이준원 · 정운선
- 12-05 경제개방과 R&D 정책의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 김영귀 · 김종덕 · 강준구 · 김혁황
- 12-06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다자무역규범 간의 조화: 주요 쟁점과 정책 시사점 / Sherzod Shadikhodjaev · 서정민 · 김민성 · 이재형
- 12-07 신기후변화체제하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새로운 감축-지원 통합 메커니즘의 모색 / 서정민 · 정지원 · 박혜리 · 조명환
- 12-08 국가채무가 국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허 인 · 안지연 · 양다영
- 12-0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거시금융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 이동은 · 편주현 · 양다영
- 12-10 금융시장을 통한 효율적 환헤지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 / 윤덕룡 · 박은선 · 강삼모
- 12-11 대규모 외부충격(disasters)이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 안지연 · 이동은 · 박영준 · 강은정
- 12-12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과 유로존의 개혁과제 / 강유덕 · 김군태 · 오태현 · 이철원 · 이현진
- 12-13 한·중·일 경제협업체 구상 / 이창재 · 방호경 · 나승권 · 이보람

- 12-14 **최빈개도국 개발과제와 한국의 ODA 정책방향 /**
권 울 · 정지원 · 정지선 · 이주영
- 12-15 **G2 시대 일본의 대중(對中)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
김규관 · 이형근 · 김은지
- 12-16 **중국 도시화의 시장 창출 효과와 리스크 분석 /**
최필수 · 이상훈 · 문익준 · 나수엽
- 12-17 **중국기업 연구개발 투자의 특징과 시사점 /**
문익준 · 박민숙 · 나수엽 · 여지나 · 은종학
- 12-18 **중국 · 대만 · 홍콩의 경제통합과 정책적 시사점 /**
이승신 · 양평섭 · 문익준 · 노수연 · 정지현 · 여지나
- 12-19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 한국의 투자 유치 확대방안 /**
이재영 · 이성봉 · Alexey Kuznetsov · 민지영
- 12-20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중장기 협력방안: 농업, 인프라 및
인적자원개발을 중심으로 /**
김태운 · 정재완 · 이재호 · 신민금 · 박나리
- 12-21 **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인력송출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
오운아 · 허재준 · 강대창 · 김유미 · 신민금
- 12-22 **아시아 주요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
조충제 · 송영철 · 최윤정 · 이 웅 · 정혜원
- 12-23 **안데스 자원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를 중심으로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 12-24 **중동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대중동 新경제협력 방안 모색 /**
한바란 · 최필수 · 윤서영 · 손성현 · 박재은 · 전해린 · 이시욱
- 12-25 **아프리카 건설 · 플랜트 시장특성 분석 및 한국의 진출방안 /**
박영호 · 광성일 · 전해린 · 장종문
- 12-26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
정형곤 · 김병연 · 이 석
- 12-2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
박복영 · 김종혁 · 고희채 · 박경로
- 12-2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
정성춘 · 김규관 · 이형근 · 김은지 · 이우광

■ 2011년

- 12-2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금융감독 및 규제변화 /
강유덕 · 김균태 · 오태현 · 이철원 · 이현진 · 채희율
- 11-01 미국·캐나다의 녹색성장 전략과 시사점 /
고희채 · 이준규 · 오민아 · 이보람
- 11-02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동아시아 경제통합까지:
동아시아 시대를 향하여 / 이창재 · 방호경
- 11-03 신국제통화체제: 필요성 및 대안 분석 /
윤덕룡 · 오승환 · 백승관
- 11-04 국제금융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와 시사점 /
박복영 · 오승환 · 정용승 · 박영준
- 11-05 대외 위험요인 진단과 거시경제효과 분석 /
이동은 · 강은정 · 박영준
- 11-06 국제 단기자본 규제 효과 분석 및 시사점 /
허 인 · 안지연 · 양다영
- 11-0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방향(1, 2권) / 박복영 편
- 11-08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평가와 향후 과제: 영·미 모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조종화 · 박영준 · 이형근 · 양다영
- 11-09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요인분석과 한국의 정책적 대응 /
서진교 · 이준원 · 김한호
- 11-10 한·EU FTA 이후 대EU 통상정책의 방향과 전략 /
강유덕 · 이철원 · 이현진 · 오현정
- 11-11 한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도입 추진 방향 /
조미진 · 김영귀 · 박지현 · 강준하
- 11-12 개방화 효과 극대화를 위한 경쟁구조에 대한 연구 /
김영귀 · 박혜리 · 금혜윤
- 11-13 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과 생산성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 김영귀 · 강준구 · 김혁황 · 현혜정
- 11-14 무역상 기술장벽(TBT)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응방안 / 장용준 · 서정민 · 김민성 · 양주영

- 11-15 글로벌시대의 보호무역에 대한 경제적 비용분석과 정책 시사점 / 최낙균 · 김정곤 · 박순찬
- 11-16 APEC 경제통합과 원산지규정: 경제적 효과와 APEC의 협력 과제 / 김상겸 · 박인원 · 박순찬 · 임경수
- 11-17 국제사회의 남남협력 현황과 우리의 추진방안 / 권 율 · 정지선 · 박수경 · 이주영
- 11-18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분석과 시사점 / 김규관 · 이형근 · 김은지
- 11-19 한·중·일 서비스산업 직접투자 현황과 역내협력 활성화 방안 / 정형곤 · 방호경 · 나승권 · 윤미경
- 11-20 중국의 보조금 현황과 주요국의 대응사례 연구 / 박월라 · Sherzod Shadikhodjaev · 나수엽 · 여지나 · 마 광
- 11-21 북한의 투자유치정책 변화와 남북 경험 방향 / 정형곤 · 김지연 · 이종원 · 홍익표
- 11-22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생산성 분석 / 김태윤 · 이재호 · 정재완 · 백유진 · 강대창
- 11-23 세계 주요국의 아프리카 진출 전략 및 시사점 / 박영호 · 전해린 · 김성남 · 김민희
- 11-24 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한·브라질 산업협력 확대 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고희채
- 11-25 인도 주별 성장패턴 전망과 정책 시사점 / 조충제 · 최윤정 · 송영철
- 11-26 CIS의 경제통합 추진현황과 정책 시사점: 관세동맹을 중심으로 / 이재영 · Sherzod Shadikhodjaev · 박순찬 · 황지영
- 11-27 대중국 경제협력 및 무역투자 활성화 방안: 내수시장 진출과 투자 활성화를 중심으로 / 이승신 · 최필수 · 김부용 · 여지나 · 박민숙 · 임민경
- 11-28 인도진출 한국기업 경영실태 및 성과분석 / 조충제 · 최윤정 · 송영철 · 손승호
- 11-29 한국·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협력 방안 연구: 지역개발과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 강대창 · 김규관 · 오윤아 · 이재호 · 신민금 · Siwage Dharma Negara · Latif Adam

■ 2010년

- 11-30 남미공동시장(MERCOSUR) 20년 평가와 시사점 /
김진오 · 권기수 · 고희채 · 박미숙 · 김형주
- 11-31 중동 노동시장 현황 및 우리의 대응: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 한바란 · 윤서영 · 박광순
- 10-01 국제무역의 비교우위 패턴 분석과 정책 시사점 /
최낙균 · 이홍식
- 10-02 한국 해외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 생산성, 무역, 고용을
중심으로 / 현혜정 · 장용준 · 강준구 · 김혁황 · 박철형
- 10-03 포스트교토체제하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탄소배출권
시장의 국제적 연계를 중심으로 /
서정민 · 김영귀 · 박지현 · 김정곤 · 금혜윤
- 10-04 동아시아 FTA를 대비한 한국 원산지규정 추진방안 /
조미진 · 김한성 · 김민성 · 양주영
- 10-05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와 APEC의 경제통합과제 /
김상겸 · 박인원 · 박순찬 · 임경수
- 10-06 우리나라의 환율변동 요인분석과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 /
윤덕룡 · 오승환 · 김소영
- 10-0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채권시장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 허 인 · 이동은 · 이윤수 · 양다영
- 10-08 새로운 국제금융질서하에서 동아시아 금융협력 방안 /
박영준 · 이동은 · 오용협 · 안지연
- 10-09 중국의 외환정책과 국제통화질서: 위안화의 절상과
국제화를 중심으로 / 조종화 · 박복영 · 박영준 · 양다영
- 10-10 중국의 경기순환 및 거시경제정책: 구조적 특징과 시사점 /
지만수 · 박월라 · 이승신
- 10-11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미·중 경제관계 /
이장규 · 나수엽 · 여지나 · 박민숙
- 10-12 중국의 미래 내수시장 형성전략과 시사점: 중부지역의 4대
도시군 형성전략을 중심으로 / 중국권역별 · 성별연구단
- 10-13 한·중·일 역내 투자동향과 활성화 방안 /
정형곤 · 이홍식 · 방호경 · 나승권

- 10-14 일본과 EU의 환경협력 추진전략과 시사점 /
정성춘 · 김규관 · 이형근 · 김균태 · 오태현
- 10-15 유로존 10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
김홍종 · 강유덕 · 이철원 · 오태현 · 이현진
- 10-16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20년: 새로운 비전과 실현방안 /
이재영 · 이철원 · 황지영 · 파벨 마나키르
- 10-17 중남미 건설·플랜트시장 특성과 한국의 진출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고희채 · 박미숙 · 허경신
- 10-18 한·중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
김진오 · 권기수 · 고희채 · 박미숙
- 10-19 한·인도 CEPA 이후 대남아시아 통상정책 /
조충제 · 성한경 · 최윤정 · 송영철
- 10-20 ASEAN 주요국의 비관세 장벽 현황과 대응방안 /
김태윤 · 손기태 · 정재완 · 이재호 · 백유진
- 10-21 한국의 대아프리카 환경개발협력 추진방안 /
박영호 · 한바란 · 정지선 · 주진홍 · 김민희 · 전해린
- 10-22 동남아 산업구조 변화와 시사점: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
김태윤 · 손기태 · 정재완 · 이재호 · 백유진
- 10-23 인도의 권역별 특성과 활용 전략 /
조충제 · 최윤정 · 송영철 · 이순철
- 10-24 핵 포기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개발 지원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 조명철 · 김지연 · 홍익표
- 10-25 주요국의 저출산·고령화 대비 성장전략 연구와 정책
시사점 / 김양희 · 강유덕 · 손기태 · 김은지 · 이현진
- 10-26 우리나라 다자원조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
정지원 · 권 율 · 한바란 · 정지선 · 박수경 · 이계우
- 10-27 전략적 동반자 시대의 한·러 경제협력 구상 /
정여천 · 이종화 · 성원용 · 황지영

권기수(權奇洙)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 박사
브라질리아 연방대학교(UnB) 초청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남미팀장
(現, E-mail: kskwon@kiep.go.kr)

저서 및 논문

『브라질 북동부지역의 투자환경과 한국의 진출 확대방안』(공저, 2012)
『안데스 자원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방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를 중심으로』
(공저, 2012) 외

김진오(金眞梧)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관계학과 박사과정 수료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남미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jokim@kiep.go.kr)

저서 및 논문

『안데스 자원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방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를 중심으로』
(공저, 2012)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와 정책 시사점』(공저, 2012) 외

박미숙(朴美淑)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중남미지역학 졸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남미팀 연구원

(現, E-mail: misookp@kiep.go.kr)

저서 및 논문

『브라질 북동부지역의 투자환경과 한국의 진출 확대방안』(공저, 2012)

『안데스 자원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방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를 중심으로』
(공저, 2012) 외

이시은(李時恩)

서강대학교 영문과 졸업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남미팀 연구원

(現, E-mail: suyi@kiep.go.kr)

저서 및 논문

『안데스 자원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방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를 중심으로』
(공저, 2012) 외

『멕시코의 주요 산업: 석유화학,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공저, 2012) 외

연구보고서 12-23

안데스 자원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를 중심으로

2012년 12월 26일 인쇄

2012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채 욱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

전화: 3460-1142 FAX: 3460-1144

인쇄 오롬시스템(주) 전화 2273-7011

등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ISBN 978-89-322-1406-1 94320

978-89-322-1072-8 (세트)

정가 10,000원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 회원종류 | 배포자료 | 연회비 | | |
|------|---|------|------|--------|
| | | 기관회원 | 개인회원 | 연구자회원* |
| S |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 30만원 | 20만원 | 10만원 |
| A | (계간)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 8만원 | | 4만원 |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137-747 서초구 양재대로 24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정보실 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2) 3460-1179 FAX: 02) 3460-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 | | |
|---------------|-------------|----------|
| 기관명 (성명) | (한글) | (한문) |
| | (영문: 약호 포함) | |
| 대표자 | | |
| 발간물 수령주소 | 우편번호 | |
| 담당자 연락처 | 전화 FAX | E-mail : |
| 회원소개 (간략히) | | |
| 사업자 등록번호 | 종목 | |

회원분류 (해당난에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 | | |
|--------------------------------|------------|----------|
| 기관회원 <input type="checkbox"/> | S 발간물일체 | A 계간지 |
| 개인회원 <input type="checkbox"/> | | |
| 연구자회원 <input type="checkbox"/> | | |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